徐福集團과 濟州島

홍 순 만 지음

제주문화

머 리 말

서복(徐福)은 역사의 인물로 보다는 전설의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시황(秦始皇)에 바칠 선약을 찾아 동남녀(童男女)와 백공(百工) 등 수 천명을 이끌고 동해로 떠나고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체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로나 듣자고 하지 누가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려고 하겠는가. 그리하여 그는 2천년의 전설을 안고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낳고 자란 고향이 밝혀지고 그가 활동했던 무대나 그와 관련한 많은 자료들이 헤집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20세기 말엽 1980년대의 일이었다. 그리하여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갑자기 서복 연구열이 일어났다. 또 그 연구 진전에 따라 여러 지역에서 유적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기념 축제가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서복 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었다. 그 이전에도 제주도사를 추적하면서 제주의 고대사에 늘 의문을 느껴왔으며 제주에 전해져 온 서복 전설에도 흥미를 지녔던 터이기는 했다. 그렇다고 서복을 조사 연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참이었으나 서복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하고 서복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하면서 생각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들 필자나 저자 가운데도 서복의 동도(東渡)와 제주도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 자신이 서복이나 중국의 신선사상과 제주도가 관련 있는 많은 옛 기록들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필자는 고대 중국의 신선사상과 제주도가 깊은 관계가 있고 서복 집단도 도래 경유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리하여 중국이나 일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서복 연구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의 이 방면에서 진전시킨 연구 성과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 끝에 필자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1990년 10월 15일부터 한라일보(漢拏日報)에 "서복(徐福) 선단의 대탐험"이란 제하(題下)에 '신비에 가렸던 전설을 추적한다'는 부제(副題)를 붙여 연재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7월 29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매주 월요일 전면 구성의 특집시리즈로 계속되었다. 이 글이 연재되는 동안 필자는 독자들로부터 뜻밖의 반응과 적잖은 격려를 받았다.

그 가운데는 정방폭포(正房瀑布)에 새겨진 "서불과지(徐市過之)"로 알려진 각자(刻字)를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이 10여명이나 나타났다. 또 어디 어디에도 서복의 유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들도 적잖게 나타났다. 서복과 관련하여 어떤 전설이 있다, 서복과 관련하여 어떤 기록을 보았다 등 실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왔다.

필자는 나 자신만 관심 있는 게 아닌가 걱정했다가 뜻밖의 관심과 호응을 받고 새삼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다 이 연재 덕분에 제주도에는 '서복연구회(徐福硏究會 · 후에 濟州徐福學會로 개칭)가 탄생했고 서복과 관련한 기념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이 일본이나 중국에 알려지면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서로 정보 교환의 길이 트였으며 해마다 단체 또는 개인으로 제주도의 서복 유적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1991년에 일본사가서복회(日本佐賀徐福會) 기노시타 기이치로(木下祺一郞)회장과 회원 17명이 내도한 것을 시작으로, 92년에는 일본서복회(日本徐福會) 이와야 다이시(巖谷大四)회장과 회원 15명이, 93년에는 일본 동경서복연구회(日本東京徐福硏究會) 모자이 도라오(茂在寅男)회장과 회원 25명이, 97년에는 중국서복국제문화교류협회(中國徐福國際文化交流協會) 안작장(安作璋)고문과 회원 8명이 내도하였다. 98년에는 일본 기자 등 서복유적답사반 20명과 같은 해 중국 소주 서복연구회(中國蘇

州徐福研究會) 관정(管正) 회장과 회원 16명, 일본서복회 이케가미 쇼오지(池上正治)등 유적답사반 5명이 내도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중국서복회(中國徐福會) 이연경(李連慶)회장과 회원 10명이 내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엮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도 여러 번 심포지엄을 열고 초청해주신 중국서복회 이연경(李連慶) 회장님과 장미영(張美榮) 비서장님, 먼길을 마다 않고 여러 유적지를 안내하여 주신 방유강(方毓强) 기자님, 유적 현장을 직접 안내하여 주신 장양군(張良群) 중국 연운항시(連雲港市)서복회 부회장님, 광환학(匡煥學) 교남시 여유국(胶南市 旅游局) 부국장님, 조인강(趙仁强) 중국국제서복문화교류회 부회장님, 책을 보내주신 안작장(安作璋) 산동사범대학 교수님, 장위(張煒) 산동작가협회 부주석님, 양빈(楊斌) 중국서복회 부회장님, 정일민(鄭一民) 하북성 서복천동회 주편(主編)님, 정천량(程天良)작가님, 장길충(張吉忠) 작가님, 손지승(孫志升) 진황도서복연구회 작가님 등이 계시다.

또 일본의 여러 유적을 둘러볼 수 있도록 주선 지도해주신 고(故) 이이노 다카히로(飯野孝宥) 선생님을 비롯하여 현장을 안내하여 주신 오쿠노 도시오(奥野利雄) 신구(新宮)시립역사민속자료관장님, 요시츠쿠 도시다카(吉次敏孝) 사가서복회 부회장님, 하다 부에이(羽田武榮) 박사님 그리고 특강 초청을 해주신 모자이 도라오(茂在寅男) 회장님, 모리 준이치로오(森醇一朗) 나고야성(名護屋城) 박물관장님, 특히 꾸준히 많은 자료와 정보를 알려주신 이시가와 사치코(石川幸子)님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그 밖에 이케가미 쇼오지(池上正治) 작가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책을 보내주셨다.

여기서 그 모든 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2003년 8월

제주시 담수헌(瞻樹軒)에서

홍 순 만

차 례

◇ 머리말 ····· 3

Ⅰ. 고대 중국(中國)과 제주도

1. 중국의 신선사상(神仙思想) ····· 35
2. 신선사상과 제주도 ····· 43
3. 제주도에 전하는 서복(徐福) 전설 ····· 57
4. 제주도의 불로초(不老草) ····· 61

Ⅱ. 서복(徐福)

1. 옛 기록에 등장하는 서복 ····· 73
2. 서복은 누구인가 ····· 77
3. 서복의 고향 ····· 85

Ⅲ. 서복과 진시황(秦始皇)

1. 서복과 시황의 만남 ····· 95
2. 진시황은 누구인가 ····· 105
3. 진(秦)의 통일과 시책 ····· 113

Ⅳ. 서복선단(徐福船團)의 동도(東渡)

1. 의문에 가린 서복의 동도 ····· 123
2. 서복선단의 편성(編成) ····· 137
3. 고대 조선(造船)과 항해(航海) ····· 147
4. 서복선단의 출항지(出航地) ····· 157
5. 서복선단의 항로(航路) ····· 169

Ⅴ. 서복집단과 일본(日本)

1. 서복선단의 규슈(九州) 상륙 ····· 183
2.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유적 ····· 195
3. 쿠마노(熊野)의 서복 유적 ····· 207
4. 후지산록(富士山麓)의 서복 전설 ····· 219
5. 그 밖의 전승 유적 ····· 227

Ⅵ. 제주도와 규슈(九州)

1. 지척(咫尺)의 두 이웃 ····· 235
2. 일본 신(神)들의 도래 신화(神話) ····· 239
3. 두 지역의 유적과 유물 ····· 245
4. 탐라(耽羅)와 고대 일본과의 국교 ····· 253

5. 중세의 제주와 규슈 ····· 262

Ⅶ. 제주와 남해(南海)의 각자(刻字)

1. 한반도(韓半島)의 진망명집단(秦亡命集團) ····· 279
2. 정방폭포(正房瀑布)의 각자(刻字) ····· 285
3. 남해도(南海島)의 각자(刻字) ····· 297

Ⅷ. 제주족은 어디서 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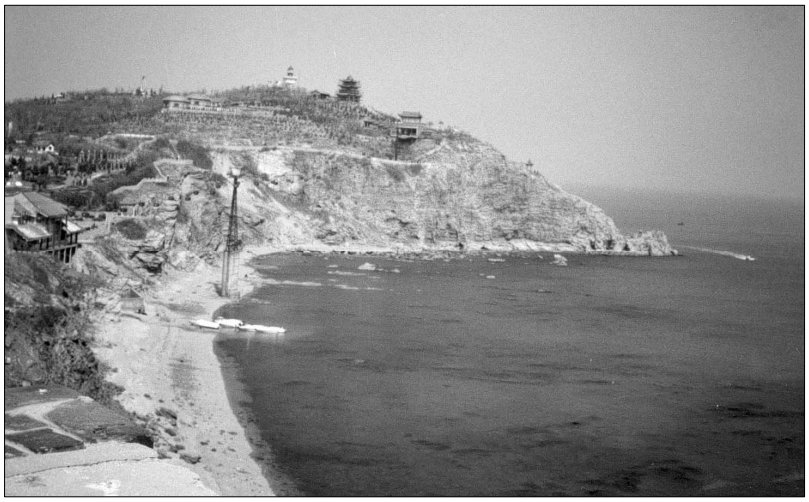
1. 제주도의 삼성설화(三姓說話) ····· 313
2. 제주도의 원주족(原住族) ····· 323
3. 제주도의 유적과 유물 ····· 345

◇ 맺 음 말 ····· 357
◇ 참고문헌 ····· 359

◇ 찾아보기 ····· 366

Ⅰ. 고대 중국(中國)과 제주도

1. 중국의 신선사상(神仙思想)
2. 신선사상과 제주도
3. 제주도에 전하는 서복(徐福) 전설
4. 제주도의 불로초(不老草)



산동반도 봉래각(蓬萊閣)에서 바라보는 발해만(渤海灣)

❶

중국의 신선사상(神仙思想)

신선사상은 중국에서 발상하고 중국에서 발달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기원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가 않지만 전국시대에 주(周)와 연(燕)나라를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고 진한(秦漢) 시대에 가장 왕성했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해(東海, 지금의 황해)에는 영주(瀛洲), 봉래(蓬萊), 방장(方丈)의 삼신산이 있다고 믿었다. 그 곳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으며 불로초가 생산되고 선약을 먹고 섭제양생(攝制養生)하기 때문에 불로장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상은 산동반도를 중심으로 발해만(渤海灣)과 해주만(海州灣) 연안 일대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당시 이 일대 해상에는 신기루(蜃氣樓)가 자주 나타났으며 그것을 방사(方士)들이 이용하여 이른바 삼신산설(三神山說)을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모데 세키요(下出 積與) 교수는 중국의 신선사상을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놓고 있다.

한민족(漢民族)은 특히 부귀와 장생을 최대의 원망(願望)으로 하고

있었다. 기원전 3~4세기 전국시대 주말(周末)의 동란기에는 사회가 불안정하고 사람들은 도탄에 빠져 고통을 겪었으나 제후(諸侯)들은 부귀에 넘쳐 있었다. 그들은 부귀에 넘치면 넘칠수록 장생과 부귀의 영속을 희구하였다. 이 장생을 얻으려고 등장한 것이 신선사상이었다.

신선사상은 오랜 고대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상에 나타나는 것은 이 전국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즉 산동반도의 북부 연안지방에서 방사들의 장생술을 체득하고 불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선술(神仙術)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차츰 각지로 퍼지고 여러 가지 주술(呪術)과 방술(方術)의 수단을 수반하여 널리 민중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방사가 권장하는 법에 따라 양생섭제하면 불로장생이 가능하다. 이 장생을 체득한 사람이 신선(神仙·眞人·神人)이다. 그들은 동해 바다 가운데 봉래·방장·영주라고 하는 삼신산에 살고 있으며 지금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후략)[1]

이 삼신산설과 관련하여 중국의 조지견(趙志堅·山東大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음양오행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봉선구선설(封禪求仙說)은 곧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종교학설이다. 그 기원은 제나라의 원시농업시대에 팔신(八神)을 모시던 제사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팔신은 천주(天主), 지주(地主), 음주(陰主), 양주(陽主), 월주(月主), 일주(日主), 사시주(四時主), 병주(兵主)를 말한다. 원시농업시대에 들어와서 제나라 각지의 선민들은 생산 생활 생존 때문에 서로 다른 신들을 모시게 되었다. 당시 사회는 생산력과 자연의 현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 선민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었고 신령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여 신을 외경(畏敬)하고 종교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부족개념이 이미 희미해졌고 국경 경계선도 없어

1) 下出積與, ≪神仙思想≫, 1~2쪽.

져 제후들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 대부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칠웅(七雄)이 서로 병립하였다. 진나라와 제나라도 서로 다투게 되면서 원시종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팔신을 대신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봉선(封禪)이었다.

봉선이란 땅을 봉하고 산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고 하였다. ≪대대례(大戴禮)·보부(保傅)≫에 의하면 태산(泰山)을 봉하고 양보(梁甫)를 제사 지내는 것은 왕의 성이 역성(易姓)이 되었다는 것을 하늘에 아뢰는 일종의 종교행사이다. 음양오행설이 일어난 뒤 동쪽에서 왕이 나온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태산은 중국의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봉선과 장생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전국시대에 제(齊)나라와 연(燕)나라 일대에는 방사(方士)들이 많이 나와 사람은 도를 얻어 신선이 될 수 있고 장생불로하여 자유롭게 인간세상을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송무기(宋毋忌) 정백교(正伯僑) 선문자고(羨門子高) 등의 선인들은 방선도(方仙道)로서 형해소화(形解銷化) 즉 형태를 벗고 사라져 귀신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형해소화가 뜻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몸에서 혼령을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이 된다는 것은 영혼이 하늘로 승천한다는 것이다.

제나라 동부 연안에서는 항해술이 아주 일찍부터 일어났다. 항해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파되어 들어온 해외의 전설과 제나라 연안에 때때로 나타나는 신기루의 영향을 받아 음양오행설이 더욱 선양되면서 봉래삼산선경설(蓬萊三山仙境說)이 자리잡게 되었다. 봉래산은 바다 가운데 있다. 봉래·방장·영주의 세 신산은 모두 발해 가운데 있어 사람이 가기가 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가려면 바람이 배를 밀어내어 가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후략)[2)]

이 신선사상은 또 도가(道家)의 노자(老子)나 장자(莊子)의 사상과 어우러지면서 도교(道敎)의 중심사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지다 토모지(藤田 友治) 교수의 설명을 들어 보겠다.

---

2) 趙志堅, <徐福과 齊文化의 探析>, ≪徐福文化集成 卷三≫, 129~130쪽
趙志堅, <徐福과 齊文化 探究>, ≪서불과지≫, 565~566쪽.

> 도교의 중심사상을 이루는 것은 신선사상이다. 장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가의 노자·장자를 비롯하여 음양오행 등의 사상, 게다가 불교·유교·무(巫)의 신앙을 포함하여 정리 형성된 것이 도교라고 할 수 있다. 신선이란 도가에서 불로불사의 술을 터득하고 변화자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선인을 말한다. ≪한서(漢書 淮南王安傳)≫에 「신선이란 황백(黃白)의 술(術)을 말한다」고 했다. 전국시대에 제나라의 위왕(威王)과 그의 아들 선왕(宣王)의 시대에 산동성 임치(臨淄)는 크게 번영한다. 발해만에 임하여 팔신을 모시는 신앙이 일어난다. 이들의 무축(巫祝)에 삼신산 전설이 생겨나게 된다. 이 삼신산이 봉래·방장·영주다. (후략)[3]

이 삼신산설은 당시 제나라나 연나라 사람들은 물론, 진한시대에 이르러서도 실재(實在)한 선향(仙鄕)으로 인식되었으며 민간신앙으로 길이 이어져 왔다. 그러면 이 삼신산이 실제로 어디냐 하는데 있어서는 나라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영주산은 한라산(漢拏山), 방장산은 지리산(智異山), 봉래산은 금강산(金剛山)으로 알려져 있다. 이능화(李能和)는 ≪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에서 여러 문헌기록들을 들어 삼신산은 해동(海東·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燕)·제(齊)·진(秦)·한(漢) 등 여러 나라의 방사들이 모두 우리 해동에 신산(神山)과 선도(仙島)가 있다고 하였다. 황제(黃帝)가 동쪽 청구(靑丘)에 이르러 자부선생(紫府先生)을 만나 삼황내문(三皇內文)을 받아 갔다고 한 것도 한국이다.

그는 조선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신이(神異)한 명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그 신이한 명산으로 다음 열두 곳의 산천을 들고 있다.

---

3) 藤田友治, ≪古代 日本と 神仙思想≫, 139~140쪽.

백두산(白頭山) 천지(天池), 금강산(金剛山), 묘향산(妙香山) 석룡굴(石龍窟), 평양(平壤) 기린굴(麒麟窟), 한라산(漢拏山) 백록담(白鹿潭), 지리산(智異山) 청학동(靑鶴洞), 강화도(江華島) 참성단(塹城壇), 울릉도(鬱陵島), 아사달의 삼성사(三聖祠), 부소악(扶蘇岳・開城, 松岳)의 팔선당(八仙堂), 흘골(紇骨)의 구선대(求仙臺), 모란봉의 을밀대(乙密臺)

그는 진시황이 서복 등을 동도시킨 고사를 들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한라산에 관한 설명도 볼 수 있다. <습유기(拾遺記)>에는 원교산(圓嶠山) 위에 모난 바위와 호수가 있다고 하였다. 그 둘레가 십리라 하였는데 지금 한라산(漢拏山) 위에 모난 바위와 깊은 못이 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한라산을 원교산이라고 한다고 했다.[4]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 보면 한라산은 세칭 영주산이라고도 하는데 금강산 지리산과 더불어 삼신산이라고도 부른다고 되어 있다.[5] 이 같은 대칭은 그 밖의 여러 기록들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통일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흔히 후지산(富士山)을 봉래산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지방에 따라 다르게 보는 견해들도 있다. 와카야마현(和歌山縣) 신구시(新宮市)에는 아예 봉래산(蓬萊山)이란 이름이 붙고 전설까지 전해져온 산이 있기도 하다. 또 삼신산을 규슈(九州), 타이완(臺灣), 하이난섬(海南島)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사기(史記)≫를 비롯한 중국의 사서에 나타나는 삼신산은「발해중(渤海中)」「발해동(渤海東)」「동해상(東海上)」「동해중(東

4) 李能和, ≪朝鮮道敎史≫, 364~365쪽.
李能和輯述 李鍾殷譯注, ≪朝鮮道敎史≫, 41~43쪽.
5) ≪朝鮮寰輿勝覽≫, 全羅南道 山岳條.

海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바탕 위에서 생각한다면 규슈까지는 혹 추정을 몰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의 섬은 전혀 비약할 수 없는 섬들이라고 할 것이다.

신선이 산다는 선향에 대해서는 처음 삼신산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뒤에 가서는 여러 산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신선 전설로 유명한 천태산(天台山)을 비롯하여 아미산(蛾眉山) 곤륜산(崑崙山) 라부산(羅浮山) 등이 모두 그런 선향으로 알려진 산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 영평(永平, 기원 58~75)때, 유신(劉晨)과 원조(阮肇)가 천태산에 약초 캐러 간 이야기는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 두 사람은 섬현(剡縣) 사람인데 서로 의논하여 약초를 캐기로 하고 천태산에 올랐다. 그런데 산 속에서 그들은 길을 잃고 말았다. 민가도 없는 깊은 산중에서 돌아갈 길도 찾지 못하고 13일 동안이나 헤매고 있었다. 오랫동안 굶주리고 기진맥진한 그들은 무엇인가 먹을 게 없나 살피고 있었다. 그 때 불현듯 맞은 켠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복숭아 열매가 매달려 있지 않은가. 그들은 정신 없이 그 복숭아를 따먹었다. 그렇게 맛 있는 복숭아는 난생 처음이었다. 그처럼 허기졌던 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힘이 저절로 솟아났다. 그들은 계천(溪川)가로 내려갔다. 그때 마침 상류로부터 나무주발 하나가 떠내려 왔다. 뚜껑을 열어 보니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마(胡麻)가 들어 있었다. 그 위에 인가가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곧장 상류로 뛰어 올라 갔다.
>
> 거기엔 아담한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숫가에 두 여인이 서 있었다. 이 세상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미모와 향기롭고 우아한 자태를 지닌 미인들이었다. 두 여인은 두 사람을 보자 기다렸다는 듯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 올렸다. "일찍부터 올라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저희 집으로 드시지요." 하고 길을 인도했다.
>
> 두 사람은 영문을 모르고 어리둥절하였지만 체면을 차리고 할 계제도

아니었다. 그들이 각각 안내된 두 여인의 집은 구중궁궐처럼 아늑하고 호화로운 고대광실이었다. 사방 벽에는 나유봉장(羅帷縫帳)이 걸려 있었고 그 장고리와 방울 모두가 금과 은제품으로 장식돼 있었다. 두 사람은 참으로 놀라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방안에 안내되자 큰 잔치가 벌어졌다.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온갖 주효(酒肴)가 차려지고 먹는 것 모두가 산해진미 아닌 것이 없었다. 시녀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날라 왔고 아름다운 많은 미녀들이 모여들어 노래와 춤을 추었다.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환대를 받으며 그날 황홀한 밤을 보냈다.

이 같은 환대는 그 날로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그들은 날마다 온갖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여인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곳 날씨는 언제나 춘삼월이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었다. 들에는 오만가지 기화요초(琪花瑤草)가 피어나고 온갖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반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그들은 날마다 즐겁고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였지만 그러나 집에 두고 온 처자식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두 여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잠시 고향집을 다녀오기로 하였다. 시녀들의 안내를 받고 처음 들어왔던 계천까지 당도했다. 그곳에서 다시 산을 내려가는 길을 묻고 드디어 정든 고향에 찾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고향은 그들이 살던 고향이 아니었다. 그들이 살았던 옛집은 사라져 버리고 그 터엔 풀들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 부모 형제 처자식 모두가 온데 간데 없고 누구 하나 아는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았더니 두 사람이 고향을 떠난 것은 이미 7대(代)가 지난 옛날의 일이라는 것이었다. 당황한 두 사람은 그 길로 다시 천태산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두 여인이나 두 여인의 집은 없었다. 이때는 진(晉)나라 태강(太康) 8년(287)이었다고 전하고 있다.[6] 그러니까 두 사람이 천태산에 들어가 생활한 반년이 이승에서는 2백10여 년이나 흘렀다는 이야기가 된다.

---

6) 後藤朝太郎, 昔原台譯, ≪中國人의 長生秘術≫, 301~303쪽.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연상시켜주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고대 중국인의 사상 한 구석에는 늘 이 같은 유토피아(理想鄕)가 존재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신선사상에 등장하는 선향(仙鄕)은 바로 이런 이상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선사상은 이 같은 선향을 바탕으로 선인(仙人, 神仙)과 선약(仙藥, 不老草) 등 세 가지 요소를 기간으로 형성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7]

7) 三浦國雄, ≪不老不死と いう欲望≫, 175쪽.

❷
신선사상과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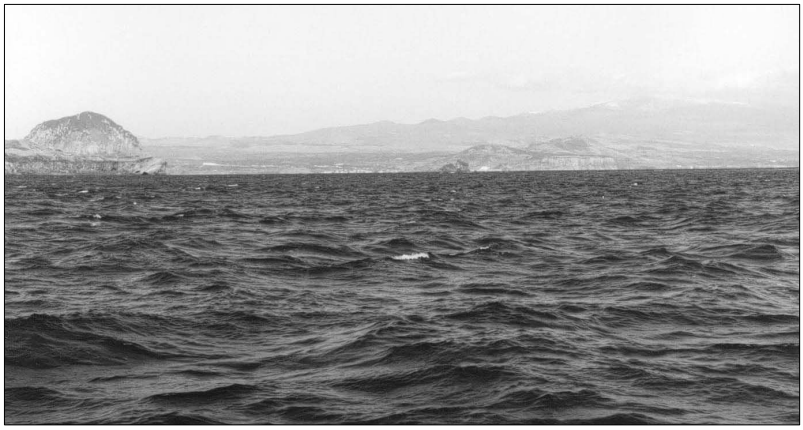
옛부터 제주도는 영주(瀛洲)로 알려진 섬이다. 곧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영주로 통했던 것이다. 한라산을 「영주산(瀛洲山)」이라 했고 제주섬을 일러 「영주」또는 「동영주(東瀛洲)」라고 했다. 실제로 그 같은 기록들을 옛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제주군명(읍명)을 탐라(耽羅)·탁라(乇羅)·탐모라(耽毛羅)와 함께 동영주(東瀛洲)로 기록하고 있다.[8] ≪탐라지(耽羅志)≫나 ≪읍지(邑誌)≫등에도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다.

고득종(高得宗)의 ≪홍화각기(弘化閣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온다.[9]

> 이 고을 이름을 제주라고 하는 것은 조선 태종 16년에 이 땅을 셋으로 나누어 동쪽은 정의(旌義), 서쪽은 대정(大靜)으로 했을 때의 이름이다. 옛날에는 동영주(東瀛洲) 혹은 탁라(乇羅), 탐라(耽羅)라고 했다.
>
> 州名曰濟州 至丙申歲岐而三之 東曰旌義 西曰大靜 以分其治焉 其在昔時 或稱 東瀛洲 或稱 乇羅 或稱 耽羅

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9) 李元鎭, ≪耽羅志≫, 宮室條.



남해에서 바라본 제주도(濟州島). 왼쪽으로 산방산(山房山)이 보인다.



동중국해에서 바라본 한라산(漢拏山). 앞에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 분화구가 드러나 있다.

김석익(金錫翼)은 ≪탐라기년(耽羅紀年)≫에서 탐라의 이름을 10여 개 열거하고 각기 출전 등을 밝히고 있다. 그 가운데 동영주를 들고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고 있다.

사기(史記)에 영주는 발해 중에 있다고 하였다. 살피건대 동국세기(東國世紀)에는 금강산(金剛山)을 봉래(蓬萊)라 하고 지리산(智異山)을 방장(方丈)이라 하고 한라산(漢拏山)을 영주(瀛洲)라고 하였다. 일본인은 후지산(富士山)을 영주라고 하는데 이는 믿을 수 없다.[10]

東瀛洲
史記 瀛洲在渤海中 按東國世紀 以金剛山爲蓬萊 智異爲方丈 漢拏爲瀛洲而 日本人以富士山爲瀛洲 不可信也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제주의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하기도 한다. 산 위에는 큰 못이 있으며 매양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면 불현듯 안개와 구름이 크게 일어난다.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는 모난 바위는 사람이 쪼아서 만든 것 같다. 그 아래는 잔디(莎草)가 지름길처럼 되어 있어 향긋한 바람이 산에 가득하다. 가끔 젓대(笙)와 퉁소 소리가 들려오지만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다. 전해 오는 말에는 신선이 항상 노는 곳이라 한다.[11]

濟州 漢拏山 是爲瀛洲山 上有大池 每人語喧則輒雲霧大作 絶頂有一方巖 如人鑿成 其下莎草成蹊香風滿山 時聞笙簫聲 不知自何來 諺傳神仙恒遊之所

10) 金錫翼, ≪耽羅紀年≫, 2쪽.
11) 李重煥, ≪擇里志≫(李翼成 譯), 235쪽.

위의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예부터 제주를 영주라고 했으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탐라국왕세기(耽羅國王世紀)≫를 보면 탐라의 건국을 중국의 개국설화와 견주고 신선사상에 바탕을 두어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골자와 신선사상과 연관시킨 대목을 다음에 간추려 보겠다.

>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혈(毛興穴)에서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 세 신인이 땅에서 솟아났다.(≪고려사지리지≫등에는 양을나, 고을나, 부을나의 순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하늘의 칠성도를 보아 땅을 나누고 그 이름을 일도(一徒), 이도(二徒), 삼도(三徒)라고 하였다. 그들은 돌을 세워 활을 쏘고 살 땅을 정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탁라(乇羅·毛羅)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9백년이 지나 인심이 고씨로 모아졌으므로 고씨를 왕으로 삼았다. (중략) 이 때는 고을나가 15갑자(甲子, 9백년탄신)를 맞는 날이었으며, 당요갑진 단군무진(唐堯甲辰 檀君戊辰)(기원전 2337년)이었다. (중략) 고을나는 그 뒤 옥함을 타고 바다를 건너온 벽랑국(碧浪國)의 왕녀를 아내로 맞았다. 그 나라는 벽계국(碧溪國)이라고도 하는데 해가 돋는 동쪽 부상(扶桑·日本)에 있다. (중략) ≪십주기(十洲記)≫를 보면, 신선이 사는 열 개의 섬이 있는데 동해에는 조주(祖洲)·생주(生洲)·영주(瀛洲)의 세 섬이 있다. 남해에 염주(炎洲)·유주(流洲), 서해에 봉린주(鳳麟洲)·취굴주(聚窟洲), 북해에 장주(長洲)·현주(玄洲), 원주(元洲)가 있다. 그 가운데 영주는 삼신산(三神山)이 있고, 또 삼신인(三神人)이 용출한 혈지(穴地)도 있다. 이 산에는 곤륜산(崑崙山)에서 종적을 감춘 신선이 숨어살고 있으며, 용마(龍馬)나 학과 거북등 장생불사의 짐승들도 있다. (후략)[12]

이 왕세기(王世紀)는 또 11세(世)「욱왕(煜王)」조(條)에서 서불(徐市)의 불사약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

12) ≪高氏世錄≫, 756쪽.

진시황(秦始皇) 28년 임오(壬午)에 이르러 시황은 서불(徐市)을 보내어 삼신산에서 불사초를 구해 오도록 하였다. 서불은 금당포(金塘浦)를 지나며 석벽에 제명을 새겨놓았다. 아침에 해가 바다에서 뜨고 다시 바다로 들어간다는 뜻이었다. 시황은 또 안기생(安期生・秦나라때 琅琊에서 천세를 살았다고 알려진 方士)을 만나 서불을 찾도록 부탁하고 금옥을 하사하였으나 받지 않고 3일 뒤에 옥석서(玉舄書・신선이 전해주는 글)만 남겨두고 봉래산(蓬萊山)으로 숨어버렸다. 또 노생(盧生)을 시켜 서불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그는 동해로 나갔으나 찾을 수가 없고 영주산 동화정(東華亭)에 이르렀는데 뜻밖의 이인을 만나 천록도서(天錄圖書)를 얻고 영주섬을 떠나 돌아갔다.[13]

이는 모두 동해에 있는 영주 섬에서 죽지 않는 선약을 구하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한라산(漢拏山)조에는 "「한라산을 일명 원산(圓山)이라고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원교산(圓嶠山)을 뜻함이었다. 그 동쪽 동무소협(東巫小峽)에는 신선(神仙)이 사는 곳이 있었고, 또 그 동북에는 영주산(瀛洲山)이 있다. 따라서 탐라(耽羅)를 동영주(東瀛洲)라고 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다. 또 영주산(瀛洲山)조에는 "옛 기록에는 정의(旌義), 김녕(金寧), 함덕(咸德) 등지에 많은 신선이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전해진 이름이며, 또 전해지기로는 이 산은 이른바 바다 위에 솟아 있는 세 선산(仙山)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다.[14]

이 같은 기록이나 표현은 비단 여지승람 뿐 아니라 탐라지(耽羅志)・제주읍지(濟州邑誌)・탐라기년(耽羅紀年)・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등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거의 같은 내용이거나 다소 틀린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은 마찬가지로 신선사상에 바탕을 두고

13) ≪高氏世錄≫, 759쪽.
14) ≪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8, 山川條. / <朝鮮寰輿勝覽> 山川條



원교산(圓嶠山), 두무악(頭無岳), 영주산(瀛洲山) 등으로 전해져 온 한라산(漢拏山), 눈에 쌓인 서북 정상



한라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백록담(白鹿潭)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 후기에 출간된 ≪탐라지(耽羅志)≫등에서는 영주산(瀛洲山)을 한라산과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영주(瀛洲)조에는 "영주는 이른바 세 신선도의 하나를 이름이다. 세상에서는 금강산(金剛山)을 봉래산(蓬萊山), 지리산(智異山)을 방장산(方丈山), 한라산(漢拏山)을 영주산(瀛洲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사람들은 후지산(富士山)을 영주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믿을 수 없다. 읍호(邑號)를 동영주(東瀛洲)라고 한 것은 한라산이 있기 때문이다. 정의(旌義)경에는 또 다른 영주산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신산의 하나를 가리키는 이칭(異稱)이라고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다.[15]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영주산은 한라산을 지칭하는 경우와 그와는 별도로 정의(旌義)에 있는 영주산(瀛洲山)을 가리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 것이든 삼신산의 하나를 뜻하고 있음은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또 영주의 지명과 관련하여 서복(徐福)의 도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록도 찾아 볼 수 있다. ≪탐라성주유사(耽羅星主遺事)≫에는 동국세기(東國世紀)를 인용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금강산을 봉래라하고, 지리산을 방장이라하고, 한라산을 영주라고 하였다. 영주에는 영주산이 있었으니 이곳에는 선약(仙藥)이 많이 난다고 하여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동남동녀 5백을 보냈다는 서불과차(徐市過此)의 전설이 전래되고 있다.[16]

영주나 영주산 외에도 제주도에는 신선설과 관계있는 지명들이

---

15) 李源祚, ≪耽羅志≫, 山川條 / 金錫翼, ≪耽羅紀年≫, 東瀛洲條.
16) ≪耽羅星主遺事≫, 81쪽.



한라산 영실(靈室). 골짜기에서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다.



한라산 북쪽을 흐르는 한내(大川, 漢川) 바위 아래서 솟아난 샘으로 알려진 영천(靈泉) 각자. 그러나 지금은 말라버린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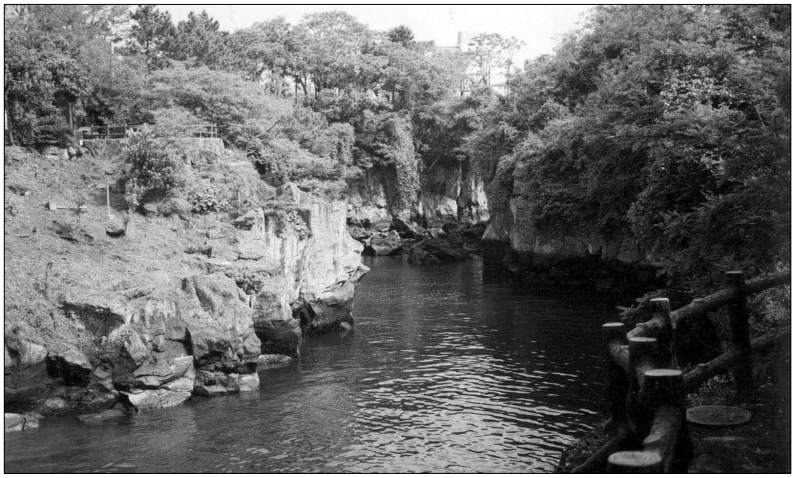
한라산 북쪽 기슭 영구(瀛丘)남쪽 바위에 새겨진 환선대(喚仙臺) 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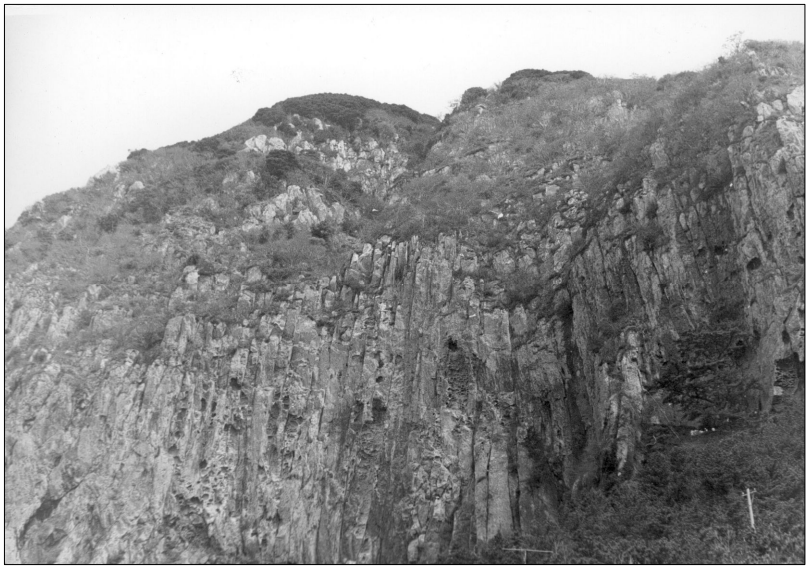
선인(仙人)의 전설이 흐르고 있는 한내 바위에 새겨있는 각자 「반선(半仙)」. 여러 설이 있기는 하지만 누구의 제명(題銘)인지 의문에 가려 있다.



한라산 정상 북쪽에서 시원하여 한내를 이루고 있는 탐라계곡(耽羅溪谷)



한내의 하류 하구를 이루고 있는 용연(龍淵). 취병담(翠屛潭), 선유담(仙遊潭)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한라산 영실(靈室) 골짜기에 솟아있는 병풍바위.



서불(徐市)이 천제에 제사를 지내고 남겼던 것으로 전해진 조천석(朝天石)이 있던 터. 지금은 조천관(朝天館) 후풍정이었던 연북정(戀北亭)이 들어서 있다. 사진은 현장을 찾은 일본서복회원(日本徐福會員)들.

너무나 많다. 옛 기록에 나와있는 지명들만 보아도 대충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혈망봉(穴望峰)·방암(方巖)·백록담(白鹿潭)·은선동(隱仙洞)·용진동(龍鎭洞)·동무소협(東巫小峽)·봉래천(蓬萊泉)·영실(靈室)·천불암(千佛巖·五百洞山·石羅漢)·구구동(九九洞)·석굴암(石窟岩)·영구(瀛丘·訪仙門)·우선대(遇仙臺)·환선대(喚仙臺)·영천(靈泉)·유선대(遊仙臺)·영남(瀛南)·천제연(天帝淵·潭)·천지연(天地淵)·용연(龍淵·仙遊潭)·무수천(無愁川)·도원(桃源·桃園)·칠성동(七星洞)·공신정(拱辰亭)·일출봉(日出峰) 등등 하나 하나 열거하자니 끝이 없다.

그 가운데서도 한라산 정상 부분 일대와 한내(漢川·大川)는 지명도 온통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신선설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백록담을 중심으로 영주산, 원교산(圓嶠山), 혈망봉, 방암, 은선동, 용진동, 동무소협, 봉래천, 영실, 오백나한(五百羅漢), 선녀폭포, 석굴암 등이 거의 이 일대에 집중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라산 정상 바로 턱 밑이라고 할 수 있는 왕관능과 장구목에서 발원하고 있는 한내도 시원 지대에서부터 내가 끝나는 하구인 용연까지 줄곧 신선의 전설이 흐르고 있다. 동무소협(東巫小峽), 은선동(隱仙洞), 유선동(遊仙洞), 우선대(遇仙臺), 환선대(喚仙臺), 방선문(訪仙門), 영천(靈泉), 선유담(仙遊潭) 등이 모두 이 내 줄기에 자리하고 있다.

이 두 지역에는 신선이 거느리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진 백록(白鹿)의 전설에서부터 여름밤에 신선들이 모여 선상 주연을 베풀었다는 선유담의 전설까지 수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특히 서복의 도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 지명으로는 조천포(朝

天浦)와 서귀포(西歸浦)가 있다.「조천(朝天)」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은 서불(徐市)이 이 포구에 들어와 이른 아침에 천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포구의 암벽에「조천(朝天)」이라고 새겨 놓았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천지(朝天誌)≫(金寶鉉)의 기록을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다.

> 옛 중국 진시황때 서불이라는 사람이 제주도를 유람한 일이 있었다. 서불은 진시황의 총애를 받던 사람으로 해외유람을 하고 싶어서 진시황에게 삼신산에서 나는 불로초를 캐어 복용하면 영생할 수 있다고 진언하였다. 욕심 많은 진시황이라 불로영생이라는 말에 마다할 리가 없었다. 그는 즉시 그 약초를 구해 올 것을 명령하였다. 서불은 곤륜산의 천년 묵은 고목을 베어 배를 건조하고 동남동녀 5백명을 거느려 출발하였다. 서불은 황해를 거쳐 조천포(朝天浦)에 이르러 배를 대고 신선의 열매로 알려진 시러미를 얻고 뒤에 서귀포(西歸浦)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때 조천포 암석위에「조천(朝天)」이라고 새겨 놓았다고 한다. 이「조천(朝天)」을 따서 오늘날 조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설(說)이 있다. 이 조천석은 연북정(戀北亭) 밑에 깔렸다고 하는데 과연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또 일설에는 암석 위에 「서불과차(徐市過此)」라고 새겼다고 한다.[17]

한편 ≪조천리연혁(朝天里沿革)≫에도 이에 관한 기록이 나온다. 그 내용을 대략 다음에 정리해 보겠다.

기원전 219년,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서불(徐市) 일행은 조천포구로 상륙하였다. 그때 그들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을 천제에 감사하면서 다음날 새벽 동이 틀 무렵 많은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올렸다. 제사가 끝난 뒤 서불은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터

---

17) 金寶鉉, ≪朝天誌≫, 133쪽 / 宋中玉・朴昌種, ≪朝天里沿革≫, 朝天館 設置의 由來條.

암벽에 「조천(朝天)」이란 글을 조각하여 놓았다. 이 조각한 암석을 「조천석(朝天石)」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조천석은 고려 중엽 조천관(朝天館)을 건립하면서 묻히고 말았다.[18]

서귀포(西歸浦)도 예로부터 「서불 일행이 돌아간 포구」 또는 「서불 일행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주도(濟州島)의 지명고(地名考)≫(金奉鉉) 「서귀포(西歸浦)」조의 기록 가운데 서복 전설에 관한 부분을 다음에 보기로 하겠다.

(전략) 진(秦)의 시황제가 최후로 얻으려고 한 것은 불로장수의 영약(靈藥)이었다. 황제는 제(齊)나라 방사의 한사람인 서복(徐福)의 간언(奸言)을 믿고 불사약을 캐어오도록 명령하였다. 서불 일행은 곤륜산(崑崙山)의 천년 고목을 베어 배를 만들고 단주(澶州・지금의 제주도를 가리



서불이 맨 처음 당도한 곳으로 알려진 금당포(金塘浦, 지금의 朝天浦)의 표석. 사진은 현지를 찾은 중국과 일본의 서복회원들.

18) 宋中玉・朴昌種, ≪朝天里沿革≫, <朝天館設置由來>, 17~19쪽.

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로 건너갔다. 서불은 신선의 열매로 전해지고 있는 한라산의 시러미를 얻기는 하였으나 시황제가 원하는 선약은 얻지 못한 채 떠났다. 서불이 서쪽으로 돌아갈 때 조천포(朝天浦)와 정방폭포(正房瀑布)의 두 암벽에 「서불과차(徐市過此)」라는 네 글자를 새기고 돌아갔다고 예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중략) 이런 전설은 신선(神仙)사상에서 생긴 것이지만 어쨌든 서귀(西歸)라는 지명은 서불 일행이 서쪽으로 돌아갔다는 전설에서 나온 것이라고 섬의 고로(古老)들은 말하고 있다.[19]

한편 ≪한국지명총람≫(한글학회)「정방폭포」조에는 "벼랑에 알 수 없는 그림 같은 것이 있는데 진시황때 서불이 이곳을 지나면서 새긴 것이라 하나 이는 허황된, 꾸민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20]

또 ≪제주도(濟州道)≫(禹樂基)에서도 서귀포(西歸浦)의 어원에 대하여는「서불과차지포(徐市過此之浦)」,「서과포(徐過浦)」등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서불과 동남동녀 오백을 영주산에 보내어 불로초를 캐고 돌아간 포구"라는 데서 연유된 것으로 풀이하는 이도 있지만 와전된 것이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21]

이 밖에도 서귀포나 정방폭포 등 지명과 관련하여 서불의 전설들이 얽힌 기록들은 많지만 그 하나 하나를 들 수는 없다.

---

19) 金奉鉉, ≪濟州島の 地名考≫, 263쪽.
2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6권, 제주도편, 498쪽.
21) 禹樂基, ≪濟州道≫, 232쪽.

❸

제주도에 전하는 서복(徐福) 전설

기원전 3세기에 있었던 중국의 「서복 동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반도 남부 일부 지역과 일본의 여러 지역에 서복에 관한 전설이 전승되어 온 사실이다.

여기서 먼저 제주도에 전해져 온 서복 전설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그 전설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내용이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그 줄거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넓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진시황은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 그것은 늙음을 어쩔 수 없었고 죽음을 막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불이 시황 앞에 나타나 "동해 가운데 삼신산이 있으며 그 곳에는 신선이 살고 불로초가 납니다"고 아뢰고, "신에게 동남동녀 오백과 백공을 딸려 주시면 그 불로초를 캐다가 바치겠습니다"고 장담하였다. 시황은 매우 기뻐하여 즉시 허락하고 서불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 불로초를 캐어 오도록 명령하였다.

서불은 곤륜산의 천년 묵은 나무들을 베어 큰 배 여러 척을 만들고 좋은 집안의 동남동녀들 각 오백명을 뽑고 또 뛰어난 백공들을 거느리고 많은 식량과 금은보화를 실어 배를 띄웠다.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죽을지 살지 모르는 항해 끝에 마침내 영주 땅 금당포(金塘浦)에 도착했다.

다음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서불은 바닷가 큰 바위 아래서 제사를 지내고 무사히 영주 땅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하여 천제(天帝)에 감사드렸다. 그리고 그 바위에 「조천(朝天)」이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 이 바위를 조천석(朝天石)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조천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다.[22]

서불은 곧 불로초를 찾아 한라산에 올랐다. 아흔아홉 골짜기를 헤맨 끝에 서불은 마침내 불로초를 캐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 그가 내려온 곳은 산남에 있는 정방폭포(正房瀑布)였다. 웅장한 폭포가 절벽에서 바다로 바로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서불은 그 아름다운 장관에 감탄했다. 그리하여 그 절벽 바위에 '서불과지(徐市過之)'라는 글을 새겨 놓았다.[23]

서불은 이 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어 며칠을 더 묵은 다음 서쪽 포구에서 배를 띄워 영주 섬을 떠났다. 그 때 서불은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리하여 '서귀포(西歸浦)'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되었다.[24]

그렇다면 이것은 삼성개벽설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된다. 왜냐하면 삼성개벽설화에 등장하는 세 공주의 도래와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왕(日本王・일설에는 碧浪國의 왕)이 탐라에 세 신인(三神人)이

---

22) 조천(朝天)은 천제(天帝)를 알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천제에 제사를 지냈던 터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조천석(朝天石)이 두 곳에 있었다. 다른 하나는 제주시 일도 일동 산지천(山地川) 가에 있으며 홍수의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던 터로 알려져 있다. 이 조천포구의 조천석은 조천지(朝天誌)에 따르면 고려시대 조천관(朝天館) 창건공사를 하면서 매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金寶鉉, ≪朝天誌≫, 51・133쪽)

23) 서불과지(徐市過之 : 서불이 지나갔다) 또는 서불과차(徐市過此 : 서불이 이 곳을 지나갔다)로 알려져 있다. 김석익(金錫翼)의 ≪심재집(心齋集)≫에는 19세기 말엽 목사 백낙연(白樂淵)이 순시 도중 이 곳에 들려 이 암벽각자를 모사해 갔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밖에 여러 기록들을 볼 수 있다. 고로(古老)들의 말에 따르면 이 각자는 1950년대까지도 볼 수 있었으나 그 뒤 전분폐수가 이 곳으로 흐르면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한다.

24) 金斗奉, ≪濟州島實記≫, 31~32・49쪽/ 金寶鉉, ≪朝天誌≫, 51・133쪽/ 金奉鉉, ≪濟州島の地名考≫, 263쪽.



제주시 산지천(山地川)에 있는 조천석(朝天石). 이곳은 홍수의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천제에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서귀포(西歸浦) 포구. 서복집단(徐福集團)은 이 포구에서 출범하여 일본으로 귀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현한 것을 알고 세 공주를 보냈다는 것과 서복이 3인의 잔류자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세 처녀를 보냈다는 것은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삼성개벽설화와 서복전설은 그 동기나 배경, 전개상황 등이 전연 다르게 나타나며 그 성격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같은 공통된 줄거리가 나온 데는 어딘가 수긍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서복전설 가운데 3인의 잔류자와 3인의 처녀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삼성설화에 결부시킨 부분으로 뒤에 생겨난 설화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삼성의 출현을 서복집단의 일원으로 등장시키고 일본에서 도래한 세 공주를 일본에 귀화한 서복집단의 세 동녀로 설정한 설화라고 생각된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은 처음부터 동시에 생겨난 전설이기보다는 두 설화가 발생한 다음에 두 설화를 연관시키며 생겨난 설화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관해서는 삼성설화와 관련하여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서불이 제주도를 찾아왔다는 전설 가운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서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남긴 내용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떠나온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이 아닌 일본으로 방향을 돌려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서불이 그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면 그것은 매우 시사적 의미를 지닌 말이 아닐 수 없다. 서불은 처음부터 불로초를 구하기보다는 망명(亡命)이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며 진시황의 추격을 두려워한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❹

제주도의 불로초(不老草)

앞의 전설에서 본 것처럼 서복(徐福) 일행이 제주도를 찾아온 것은 불로초를 얻으려고 한 목적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불로초 외에도 불사약이니 선약(仙藥)이니 하여 불려온 이 약초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통일돼 있지는 않다. 최부(崔溥)의 <탐라시(耽羅詩)>를 보면 불사약에 관한 다음과 같은 두 구절의 시를 볼 수 있다.

나는 백, 천가지 선약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알았네
그 안에는 분명 불로 장생할 약도 있으리라
큰 솥에 비방대로 넣어 아홉번 고은 약을 먹고 나면
나는 틀림없이 신선이 되어 대낮에 하늘 높이 날리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신선이 사는 선경(仙境)을 우러러 볼 수 있었는데
천태(天台)의 유원약(劉阮藥)도 캐낼 수 있겠지
마고(麻姑)할미에게 선술을 배우면 해상(海桑·일본)도 굽어볼 수 있겠지
그리고 나면 이 몸도 장차 신선되어 선계(仙界)에 살 수 있을까.

乃知仙藥 百千般



서불이 한라산에서 캐고 떠나간 것으로 알려진 시로미



임백호(林白湖)가 신선이 사는 마을로 감동했던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포(北濟州郡 舊左邑 金寧浦).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箇裏分明 有煉丹
收拾鐺中 九轉後
定應白日 可飛翰

我來得覩 神仙宅
採了天台 劉阮藥
願學麻姑 看海桑
應將此身 壺中托[25]

이 시에 나오는「천태유원약(天台劉阮藥)」이라는 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한(漢)나라 때 유신·원조(劉晨·阮肇)가 처음으로 천태산(天台山)에 들어가 선약을 캐었다는 고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복이 찾던 불로초를 제주도에서는「시러미」(시로미, 岩高蘭), 영지(靈芝), 지초(芝草·靈草)[26]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15세기 이전에는 유원약(劉阮藥)으로 표현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일본 쿠마노(熊野)에서는 이것을「천태오약(天台烏藥)」으로 전하고 있다. 녹나무과에 달린 상록 관목(灌木)으로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검고 타원형의 열매가 달리며 뿌리는 향기가 있고 천식, 중풍, 임질 등의 한방약으로 쓰인다. 필자가 쿠마노를 찾아갔을 때 신구(新宮)시에 있는 봉래산(蓬萊山)이나 아수카신사(阿須賀神社) 경내에는 해묵은 천태오약이 자생하여 잘 보존되고 있었다. 최근의 보도에 따

25) 崔溥, ≪錦南先生文集·漂海錄≫/ 金尙憲, ≪南槎錄≫/ 李元鎭, ≪耽羅志·題詠條≫
26) 시로미과에 속하는 상록 소관목(常綠小灌木). 줄기는 높이 10~20㎝로 땅 위에 낮게 뻗고 어린 가지는 적갈색(赤褐色)이지만 오래된 가지는 검은색이다. 잎은 선형둔두(線形鈍頭)로 길이 4~5mm이며 총생(叢生)한다. 꽃은 6월에 피며 가지 끝의 엽액(葉腋)에 달리는데 화경(花梗)의 길이는 0.5mm. 꽃잎, 꽃받친 잎, 수술이 모두 3개로 이루어지고 자방(子房)은 퇴화했다. 열매는 흑자색(黑紫色)으로 8~9월에 익으며 지름이 5~6mm이다. 한라산 1,400m 이상 고지대에 자라고 있으며 멸종 위기의 식물이다.
학명 : Empetrum nigrum var. Japonicum K.koch.

르면 이 천태오약은 심근경색(心筋梗塞), 협심증(狹心症), 폐암(肺癌), 신장병(腎臟病) 등에 예방 효과가 있다는 후지하라(藤原久義・岐阜大學)교수팀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최부는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1454~1504)에 살았던 학자로 ≪동국통감(東國通鑑)≫,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편찬 등에도 동참하였다. 그는 김종직(金宗直)의 문인이었으므로 무오사화(戊午士禍) 때는 단천(端川)으로 유배되었고, 1504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자 참형을 당한 아까운 인물이었다. 그는 1487년 제주도에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이 되어 내도하였다. 이때 부친상을 만나 내도 70여 일 만에 떠났는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漂流), 여러 차례 사경을 헤맨 끝에 겨우 중국 절강성 영파부(浙江省 寧波府)에 도착하였다. 그 뒤 그는 수만리 중국대륙을 횡단, 반년만에 고국에 돌아왔으며 이때의 표류기(漂流記)를 써 더욱 유명해졌다.

최부(崔溥)의 시를 보면 제주도는 오만가지 약초가 가득한 섬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불로장생의 선약도 있으며 그 비방을 알면 선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그는 여기서 자신도 선인처럼 살고 싶은 환상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제주도의 선약에 관한 옛 선인들의 시문(詩文)은 많지만 여기서는 먼저 ≪우암선생문집(寓庵先生文集)≫에 나오는 남구명(南九明)의 글 <불사초변(不死草辯)>을 소개하겠다.

> 예로부터 전하는 말로는 삼신산(三神山)에 신선이 살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불사초(不死草)가 있어서 진(秦)나라의 동남녀와 한(漢)나라의 사신들이 탄 범선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 왔다. 그들은 동남해중 일대를 편력하며 그것을 구하려고 하였지만 얻을 수가 없었다.
>
> 불사초는 있다고들 하지만 실제 그것을 구한 사람은 알 길이 없다. 따라서 실제 그게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나는 내 눈으로 목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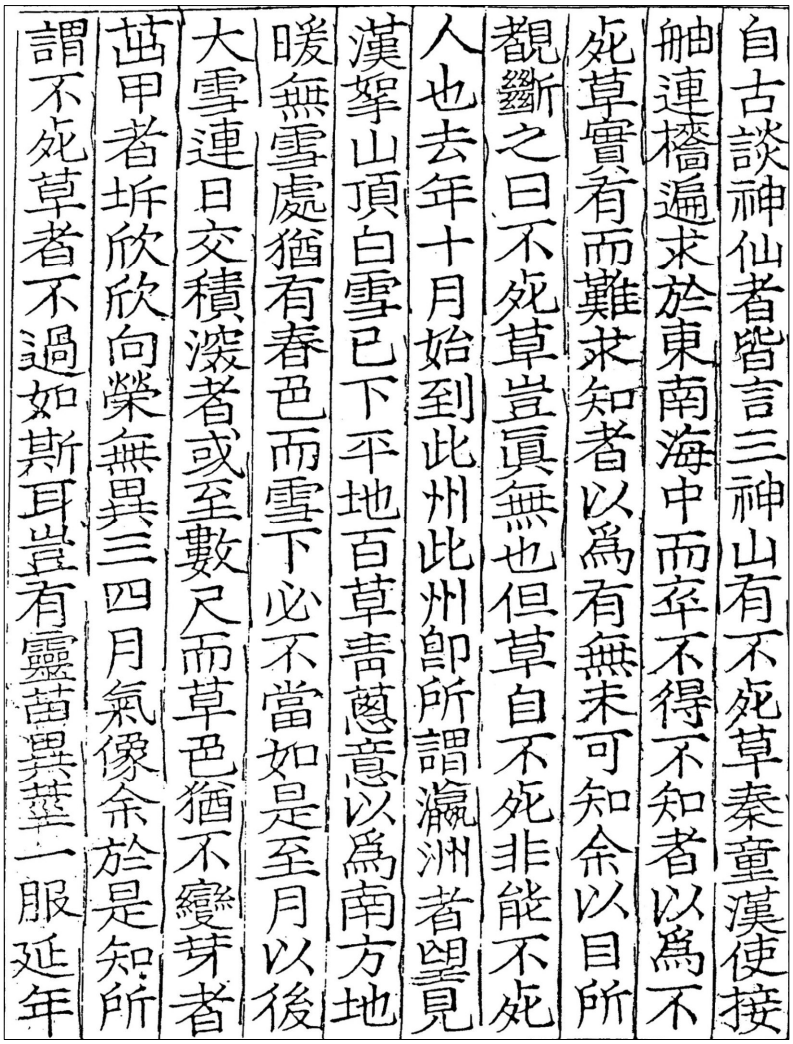
않은 이상 잘라 말할 수가 없다. 불사초는 어찌 참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초목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이 고을에 도임하여 이른바 영주산을 바라보았다. 한라 정상에는 백설이 덮여 있고 그 아래로 펴진 벌판에는 오만가지 초목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다. 이 곳이 남쪽 지방으로 따뜻하고 좀처럼 눈도 내리지 않아 겨울에도 오히려 봄빛이 완연하였다. 그러나 동짓달 이후로는 큰 눈이 연일 퍼부어 곳에 따라 수 척씩 쌓이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풀빛은 여전히 푸르러 변하지 않았다. 3, 4월에는 틀림없이 초목의 싹이 트고 날씨가 좋아 기분이 흔쾌하였다. 이른바 불사초라는 말도 여기서 온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일찍부터 이 땅에는 영묘한 약초가 있어서 한번 먹으면 몇 해씩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들 한다. 지방사람 가운데는 이 불사초를 상식하다시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지금 도내에는 80세 이상 노인이 4백명이 넘고 백세이상 노인도 십여명이나 된다. 이것은 이 땅의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여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모시도 나지 않으며 부자라도 조팝이나 콩죽을 먹고 가난한 사람은 산에 나는 열매나 바다에서 캐는 해초로 때우며 견딘다. (중략) 그리하여 그들은 깊은 산중의 도사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몸은 야윌대로 야위어 있지만 선인처럼 장수자가 많은 것이다.

이 요요한 작은 풀이 어찌 살 사람과 죽을 사람의 운명을 가리고 일찍 요절할 사람의 수명을 좌우할 수가 있겠는가. 이 풀이 과연 불사인을 만들 수 있었다면 밭들 사이에 첩첩하게 들어선 무덤들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다. 대체로 남쪽 기후는 북쪽과는 아주 다르다. 춥지도 않은가 하면 덥지도 않고 초목은 시들거나 말라죽는 일이 없으며 모든 생물이 겨울을 나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속에 꿈틀거리며 생동하고 있음을 본다. 오직 풀만이 불사초라고 할 수가 없다. 참으로 신기한 것을 볼 수가 있다.[27]

우암 남구명(寓庵 南九明)(1661~1719)은 1712(숙종38)년 10월 제주

27) 南九明, ≪寓庵先生文集≫, 卷4.



自古談神仙者皆言三神山有不死草秦童漢使接舳連檣遍求於東南海中而卒不得不知者以爲不死草實有而難求知者以爲有無未可知余以目所覩斷之曰不死草豈眞無也但草自不死非能不死人也去年十月始到此州此州卽所謂瀛洲者望見漢拏山頂白雪已下平地百草靑蔥意以爲南方地暖無雪處猶有春色而雪下必不當如是至月以後大雪連日交積深者或至數尺而草色猶不變芽者莖甲者坼欣欣向榮無異三四月氣像余於是知所謂不死草者不過如斯耳豈有靈苗異葉一服延年

남구명(南九明)의 <우암집(寓庵集)>에 나오는 「불사초변(不死草辯)」의 첫머리.

판관(判官)으로 도임 하였다가 3년 뒤인 1715년 5월에 떠난 사람이다. 그는 재임중 제주도의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탐라지(耽羅志) 등 제주도에 관한 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 신선설에 관하여는 이 밖에도 <신산설(神山說)>, <제주(濟州)의 지세(地勢)>등 몇 편의 글을 더 찾아볼 수 있다.

불로초에 관한 기록은 백호 임제(白湖 林悌)의 <남명소승(南溟小乘)>에서도 볼 수 있다. 백호(白湖)가 섬 일주 여정에 올라 김녕포(金寧浦)에 도착하였을 때의 일지를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저녁 무렵에 김녕포(金寧浦)에 도착하였다. 여기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을 여럿 볼 수 있었는데 백세에 이른 사람도 예닐곱이나 되었다. 이 마을에 들어오자 나는 마치 신선이 사는 마을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의심할 지경이었다. (중략) 나는 여러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 먹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 보았다. 한 노인이 대답하기를 흉년과 풍년에 따라 다르지만 죽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고 하였다. 다만 모래와 돌 틈에서 불로초를 캐어 진수에 대신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나는 신기하여 따라온 사람에게 불로초가 무엇인가 물어 보았다. 그가 대답하기를 그 줄기는 넝쿨로 등나무와 같고 가지는 처음 돋아나는 것은 연하고 향기로워 먹을 수가 있으며 온 섬에서 나지만 이 곳만큼 많지는 않다고 하였다.[28]

백호 임제(白湖 林悌)(1549~1587)는 16세기의 유명한 문인으로 많은 저작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1577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자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아버지 임진(林晋)이 목사로 있는 제주도를 찾아 왔다. 위의 글은 그때의 기문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백호(白湖)나 우암(寓庵)의 글에 나오는 불로초를 보면 이는 한번 먹으면 영생하는 신선의 불사약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

---

28) 林悌, ≪白湖先生文集≫, <南溟小乘>.



한라산 서쪽 볼래오름 존자암(尊者庵)터에서 발견된 부도(浮屠)

하자면 건강과 회춘에 효험이 있어 장수할 수 있는 한방약초를 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약초임을 알 수 있다.

백호(白湖)의 설명에 따르면 "지초는 땅에 붙어 넝쿨로 자라며 줄기에는 가는 털이 나있다. 빛깔은 푸른 이끼(靑苔)와 같으며 그 뿌리는 마디에서 생겨나 큰 것은 비녀채만 하고 가는 것은 실과 같다. 맛은 달고 향기가 있으며 비록 영지(靈芝)는 아닐지라도 역시 지초 종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또 그의 글 가운데는 뜻밖에 말로만 듣던 지초(芝草)를 처음으로 얻은 이야기도 나온다. 그 지초는 그와 함께 한라산에 오른 존자암(尊者庵)의 청순(淸淳) 스님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 스님은 지난밤 꿈에 영지(靈芝)를 밟는 꿈을 꾸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지초를 얻게 되었다고 했다. 백호는 감동한 나머지 선승(仙僧)의 시를 짓고 있다.

뜻밖에 선승을 따라 갔다가 지초를 캐고 돌아오는데
샘골은 구름안개에 덮여 돌문을 두드린다.
종소리는 하늘 멀리 울려 나가고
산은 그지없이 고요한데
실개천 밝은 달은 나무이끼를 비춘다.

偶隨仙侶 采芝歸
泉洞雲霞 叩石扉
鐘盡上方 山寂寂
一溪明月 照蘿衣

≪탐라국왕세기(耽羅國王世紀)≫에 보면 기원전 110년 한무제(漢武帝)도 동방삭(東方朔)의 말을 듣고 영주에 사신을 보내어 금광초(金光

草)와 옥지지(玉脂芝)를 구해갔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때 영주를 찾은 사신은 돌아가 황제에게 약초를 바치고 "바다 가운데 있는 삼신산에는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한 화초들이 많았습니다."고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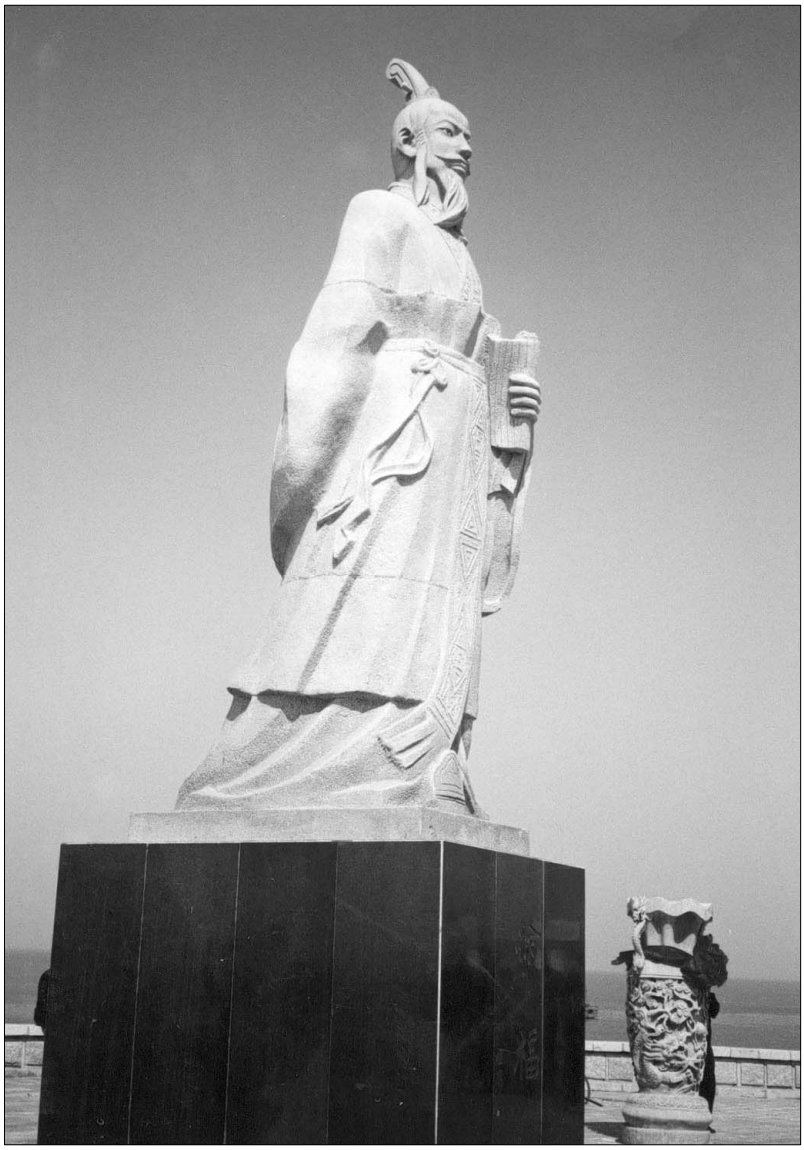
이 금광초와 옥지지가 어떤 약초였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다만 ≪박물지(博物志)≫에 나오는 옥지지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대싹처럼 아름답게 돋아나는 서초(瑞草)로 뿌리 없이 자란다. 상지(上芝)는 거마형(車馬形)이며 중지(中芝)는 인형(人形)이고 하지(下芝)는 육축형(六畜形)으로 명산에 나는 신지(神芝)로 불사초다.

이 밖에도 제주에는 불로초에 관한 여러 전설과 함께 적송자(赤松子), 안기생(安期生), 노생(盧生), 동방삭(東方朔) 등 중국의 이름난 선인이나 방사들이 찾아왔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Ⅱ. 서　복(徐福)

1. 옛 기록에 등장하는 서복
2. 서복은 누구인가
3. 서복의 고향



산동성 용구시 기모도(山東省 龍口市 屺嶼島). 서복문화광장에 건립된 서복석상.

❶
옛 기록에 등장하는 서복

진시황이 선약을 얻으려고 서복을 바다로 내보냈다는 기록은 중국의 여러 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들을 볼 수 있다.

> 제(齊)나라의 방사 서불(서복) 등이 글을 올렸다. "바다 가운데 봉래·방장·영주의 세 신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더럽혀지지 않는 동남동녀(童男童女)를 거느리고 가서 늙지 않고 장생할 수 있는 선약을 구해오려고 합니다"고 하였다. 시황제는 이를 허락하고 동남동녀 수천을 거느리게 하여 서불을 바다 건너로 내보냈다.[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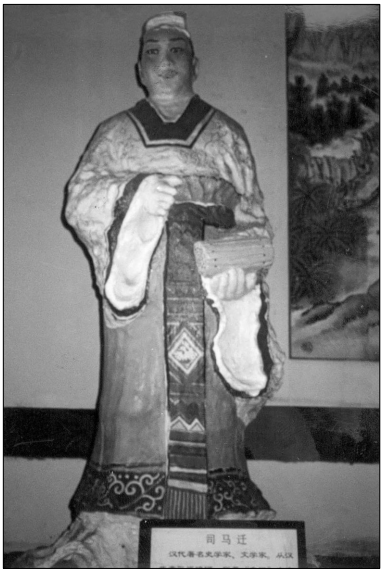
> 齊人徐市等上書言 海中有三神山 名曰蓬萊方丈瀛洲 僊人居之 請得齊戒與童男女求之 於是 遣徐市發童男女數千人 入海求僊人

> 서불 등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선약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얻을 수 없었으며 부질없이 간사한 꾀만 부리고 있다고 들린다.[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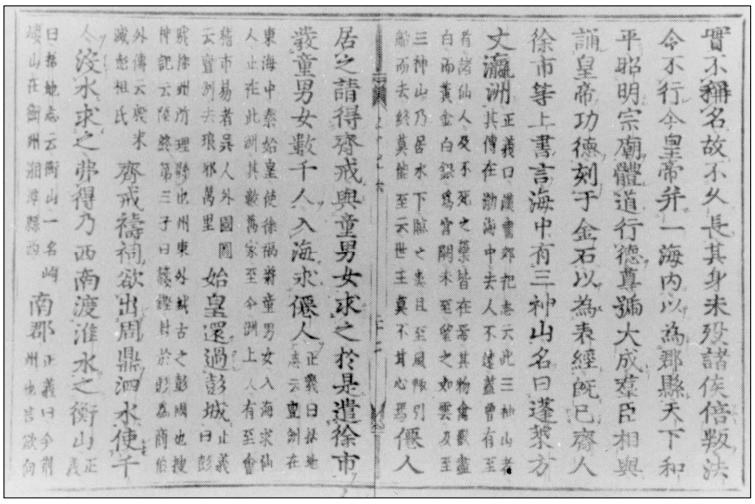
> 徐市等 費以巨萬計 終不得藥 徒姦利相告日聞

---

29) ≪史記≫ 卷6, <秦始皇本紀> 28年條.
30) ≪史記≫ 卷6, <秦始皇本紀> 35年條.



<사기(史記)>를 편찬한 사마천(司馬遷). 황제(黃帝)로부터 한무제(漢武帝)까지 중국의 상고사 130권을 저술해 놓았다.



<사기 진시황본기(史記 秦始皇本紀)>에 나오는 서불(徐市)의 상서기록.

방사 서불 등은 바다로 들어가 선약을 얻으려고 여러 해를 보냈으나 얻을 수 없었다. 비용은 많이 들고 견책이 두려워 거짓 보고하였다. "봉래의 약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상어떼가 우글거리고 있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디 활의 명수를 딸려 보내주시면 나타나는 대로 쏘아 죽이도록 하겠습니다"고 하였다.[31]

方士徐市等 入海求神藥 數歲不得 費多恐譴 內詐曰 蓬萊藥可得 然常爲大鮫魚所苦 故不得至 願請善射與俱 見則以連弩射之

≪사기≫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서복을 바다로 내보내 신이(神異)한 물건을 찾도록 하였다. 서복은 돌아와 거짓 보고를 올렸다. "신은 바다 가운데서 대신(大神)을 만났습니다. 대신은 그대가 서황(西皇·秦始皇)의 사신인가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고 대답했더니 무엇을 찾으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얻고자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신은 네가 모시고 있는 진왕의 예물이 적으므로 그 약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하면서 신을 데리고 동남쪽으로 가 봉래산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초로 둘러싸인 궁궐이 있었고 사자(使者)가 있었는데 구리빛으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온 몸에서 빛이 발산되어 하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신은 두 번 절하고 어떤 물건을 바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해신은 좋은 집안의 동남 동녀와 백공(百工)을 바치면 약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고 아뢰었다.

시황은 매우 기뻐하며 좋은 집안의 동남 동녀 3천을 보내기로 하고 이들에게 오곡의 종자와 백공(百工)들을 딸려 출발하게 하였다. 그러나 서복은 넓은 들과 강물을 얻게 되자 그 곳에 머물러 왕이 되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리하여 백성들은 서로 비통해 하며 함께 난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열 집에 여섯 집은 되었다.[32]

---

31) ≪史記≫ 卷6, <秦始皇本紀> 37年條.
32) ≪史記≫ 卷118, <淮南衡山列傳> 第58條.

使徐福入海求神異物 還爲僞辭曰 臣見海中大神 言曰汝西皇之使耶 臣答曰然 汝何求 曰願請延年益壽藥 神曰汝秦王之禮薄 得觀而不得取 卽從臣東南至蓬萊山 見芝成宮闕 有使者 銅色而龍形 光上照天 於是 臣再拜問曰 宜何資以獻 海神曰 以令名男子若振女與百工之事 卽得之矣 秦皇帝 大悅 遣振男女三千人 資之五穀種百工而行 徐福 得平原廣澤 止王不來 於是 百姓悲痛相思 欲爲亂者 十家而六

이것은 한(漢)나라 효문제(孝文帝)때 오피(五被)가 회남의 여왕(厲王)에게 역사의 교훈으로 한 말이다. 이 기록은 ≪한서(漢書)≫ <오피전(五被傳)>이나 ≪이태백전집(李太白全集)≫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서복이 선약과 관련하여 동도(東渡)하였다는 기록은 ≪한서(漢書)·교사지(郊祀志)≫, ≪후한서(後漢書)·동이열전(東夷列傳)≫, ≪삼국지(三國志)·오지 손권전(吳志 孫權傳)≫, ≪괄지지(括地志)≫등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기록들을 놓고 생각해볼 때 진시대에 중국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중국의 동쪽 바다 가운데 삼신산이 있고 그 곳에는 선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선약을 먹고 섭생장수(攝生長壽)할 수 있다는 신선사상이 풍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시황이 그 선약을 얻고자 했으며 그 임무를 서복에게 맡기게 된 것이다. 이 때 서복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동남녀와 무사백공 등 수천명에 이르는 대선단을 편성 동도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동도한 서복집단은 새로 살 기름진 땅을 얻게 되자 다시 중국에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❷
서복은 누구인가

전설의 주인공 서복은 누구인가. 그의 도해 전설이 동북아시아 일대에 신비하게 퍼져 있는 것처럼 그가 누구인가 하는 데도 많은 설이 퍼져 있다.

중국의 여러 사서에 나타나는 것처럼 제(齊)나라 사람이며 방사(方士)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뿐 서복에 관해서는 20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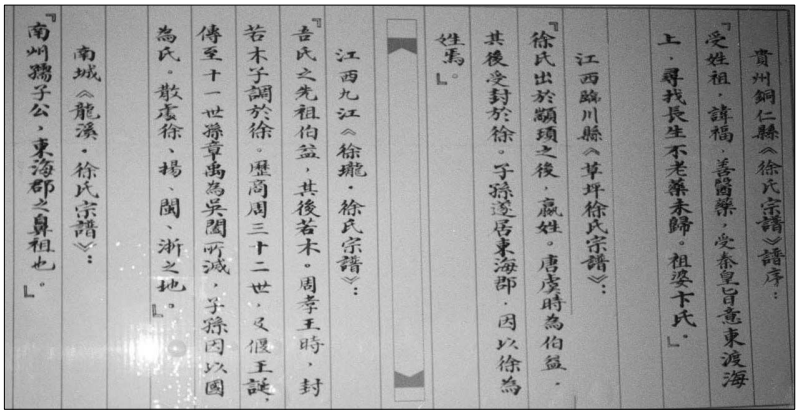
≪일본국지(日本國志)≫의 저자 황쭌셴(黃遵憲)을 비롯하여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서복의 존재를 전설상의 인물로 취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었다. 심지어 ≪서복, 일본으로의 중국이민≫을 쓴 저자 왕향영(汪向榮)까지도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같은 관념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1982년 나기상(羅其湘) 교수팀에 의한 강소성 감유현 금산향 서부촌(江蘇省 贛榆縣 金山鄕 徐阜村)의 발견과 서복에 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시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는 서복을 시조로 하는 초평서씨종보(草坪徐氏宗譜) 등 서복이 등재된 종보만도 56종이나 나타났다.

그동안 서복에 관해서는 진나라의 재상 응후 범수(應侯 范雎)의 아들



2천년동안 의문에 가린 전설의 인물 서복(徐福)의 초상.



賈州銅仁縣《徐氏宗譜》譜序：
『受姓祖，諱福，善醫藥，受秦皇旨意東渡海上，尋找長生不老藥未歸，祖婆卞氏。』

江西臨川縣《草坪徐氏宗譜》：
『徐氏出於顓頊之後，嬴姓。唐虞時為伯益，其後受封於徐，子孫遂居東海郡，因以徐為姓焉。』

江西九江《徐墟·徐氏宗譜》：
『吾氏之先祖伯益，其後若木。周幸王時，封若木子調於徐。歷商周三十二世，又偃王誕，傳至十一世嗣章為吳闔所滅，子孫因以國為氏。散處徐、揚、閩、浙之地。』

南城《龍溪·徐氏宗譜》：
『南州鵬子公，東海郡之鼻祖也。』

서복(徐福)이 시조(始祖) 1세로 등재돼 있는 초평서씨종보(草坪徐氏宗譜). 전욱(顓頊)의 후예로 서성(徐姓)을 사수받고 동해군(東海郡)에 자손이 이어산 기록을 볼 수 있다.

설, 조(趙)나라 천왕(遷王)의 봉사관 서검영(徐劍英)의 아들설 등 여러 설이 나돌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복에 관한 종보들이 나타나면서 그의 가보에 대하여 새로운 조명이 이뤄지고 재정리되는 마당에 있다.

서씨종보에 따르면 서복은 바로 초평서성을 받은 1세 시조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나라 언(偃)왕의 29대 후손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름은 불(市)로 되어 있으며 자(字)가 군방(君房) 또는 언복(彦福)으로 되어 있고 배(配·부인)는 변(卞)씨로 되어 있다. 이 종보에는 그가 진시황을 위해서 불로장생의 선약을 찾아 떠났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다.[33]

서성(徐姓)의 기원과 유래를 보면 중국 상고시대 오제(五帝)의 한 사람인 전욱(顓頊)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5세를 거쳐 백익(伯益)에 이르며 이 때 순제(舜帝)로부터 영성(嬴姓)을 하사 받는다. 진(秦)과 조(趙)도 같은 성의 후예가 된다. 백익이 약목(若木)을 낳았으며 그 뒤 하(夏)가 서후(徐侯)에 봉하였으며 그 토지는 우공(禹貢)의 서주(徐州)였다. 그 자손들은 이 곳에 살면서 성을 서(徐)로 삼았다.[34]

또 서복은 네 아들을 두어 많은 자손이 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가운데는 8대손 서서(徐瑞·下邳太守), 9대손 서검(徐儉·京兆尹), 10대손 서치(徐稚·학자) 등과 같이 요직을 역임했거나 뛰어난 학자가 배출된 것도 볼 수 있다. 지금 강소성을 비롯하여 중국 각지에는 71대에서 73대에 이르는 후손들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정생(衛挺生) 교수에 따르면 서복은 기원전 255년(齊王建 10) 제(齊)나라에서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35] 그렇다면 그는 진시황이

---

33) 羅其湘, ≪徐福考論≫, 36~41쪽.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虹棧 徐福≫, 36~37쪽.
羽田武榮, ≪徐福 ロマン≫, 43~54쪽.
羽田武榮·廣岡純, ≪徐福傳說≫, 51~62쪽.
奧野利雄, ≪ロマンの人 徐福≫, 17~21쪽.
34) 앞의 책.
35) 衛挺生, ≪神武天皇 徐福傳說の 謎≫

태어난 기원전 259년보다 5년 뒤에 태어나 시황보다 다섯 살이 아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서복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지혜, 어떤 용기를 지녔기에 그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를 탐구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가 제나라의 방사였다는데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방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부병욱(傅炳旭) 교수가 풀이한 것을 보면 방사는 대체로 다음 여섯 가지 기능을 지닌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36]

① 철학자이며 음양학설을 신봉하는 학자이다.
② 의약인(醫藥人)이다. 약초를 심고 채약하며 양생(養生·몸과 마음의 건강을 도모하고 장생하도록 한다)의 길을 연구한다.
③ 남녀 방술의 교육자이며 전수자이다.
④ 농업과 식물학의 권위자이다. 경운, 벼농사, 수확 등을 연구한다.
⑤ 화학의 권위자이다. 연금술, 주조 등을 연구한다.
⑥ 조선, 건축, 벽돌, 개간, 포경어업 등 여러 방면의 기술을 지닌 기술자이다.

이상의 해석을 놓고 보면 방사는 당시 최고의 지식과 첨단기술을 지닌 학자이며 기술자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서복이 어떤 인격을 지닌 인물이었는가를 재정리해 보면 적어도 다

羅其湘, ≪徐福考論≫, 36쪽.
李永先, ≪徐福故里考辨≫, 63쪽.
羽田武榮, ≪徐福 ロマン≫, 43~44쪽.

36) 傅炳旭, <徐福東渡辨析>, ≪徐福文化集成·卷2≫, 131쪽.

음과 같은 추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서나라 언왕의 후예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비단 왕족의 후예일 뿐 아니라 그의 가문에서 서울 판윤이나 지방의 태수를 지내는 등 중국 굴지의 명문이었다.

둘째, 방사로서 넓은 지식과 교양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신선사상에는 뛰어난 권위자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지리에 밝았고 천문학, 항해학, 조선학 등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약학과 의학의 대가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약초에 관해서는 당시 중국에서는 제일인자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명의(名醫)로 이름이 나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망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 가운데는 당시 분서(焚書)의 위기에 처해있던 중국의 의학서들을 피난 보존시킬 목적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넷째, 그의 고향은 황현이나 감유현(贛楡縣) 등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의 활동무대는 낭야 해주만(海州灣)일대를 비롯하여 멀리 절강성(浙江省) 자계(慈溪)일대에까지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그는 높은 덕망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웃 친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가 수십 척의 대선단(大船團)을 편성하고 수천 명에 이르는 청소년과 병사 기술자들을 모집하고 미지의 세계로 대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의 덕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더구나 의심 많고 경계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시황이 그의 말을 믿고 그 많은 물자와 사람들을 딸려 해외로 내 보낸 것도 오직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감행했던 그 엄청난 사건들이 평소 그가 얼마나 덕망이 높고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서복에 대하여는 가계(家系)도 찾아볼 수 없는 정체불명

의 방사(方士)나 술사(術士)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결과 그는 중국 굴지의 명문(名門)이었으며 더구나 어엿한 서왕(徐王)의 후예였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일찍 가보학(家譜學)이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이른 것은 한(漢)나라 때부터 가보가 작성되기 시작하였고 남북조(南北朝)때는 일반에게도 유행을 보았으며 수(隨)·당대(唐代) 이후로는 "사람마다 계보학(系譜學)을 존중하고 집집마다 가계서(家系書)를 소장한다."고 할 정도로 발달하였다.

이 번 중국 조사단이 거둔 수확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오래 비장(秘藏)되었던 ≪서씨가보(徐氏家譜)≫ 등의 수집이었다. 지난 1987년 2월 서불(徐市)이 기재된 ≪초평서씨종보(草坪徐氏宗譜)≫ 8권이 발견되면서 조사단은 감격과 환희에 넘쳤다. 이 책의 출판은 홍무(洪武) 무진(戊辰, 1388)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늦은 편이었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 훨씬 오랜 보책(譜冊)을 토대로 인용했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서씨종보(徐氏宗譜)는 서씨역대원류(源流)·초평(草坪)역대보·서씨팔방촌거전도(八房村居全圖) 등으로 나뉘어져 서성(徐姓)의 유래, 가지의 분계(分系), 가족관계, 직업, 지위, 관혼상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그 제 1권에 서복이 등장하는데 휘(諱)를 「불(市)」로 기재하고 있다. 시황제(始皇帝)를 위해서 상서하고 바다로 나간 사실이 기록되고 있으며 부인이 변씨(卞氏)였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여기서 서복은 언왕의 29대손 임이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초평서씨종보(草坪徐氏宗譜)외에도 구원서씨가보(邱園徐氏家譜), 용계서씨종보(龍溪徐氏宗譜), 서롱서씨가보(徐壟徐氏家譜)등 중국 각지에서 56종에 이르는 서씨 족보(徐氏 族譜)를 수집하였다. 이 족보들은 오랫동안 서씨(徐氏)가문에 비장해온 것으로 거의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고문서들이었다.

족보는 각각 다른 지방에서 내려온 것이었지만 서씨(徐氏)의 기원과 발상 등은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이 족보들을 종합 검토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전욱제의 후예로 처음은 영성(嬴姓)을 썼으며 뒤에 서(徐)에 봉해지면서 자손들이 동해군(東海郡)에 살게 되고 성을 서(徐)로 삼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이들 자손은 동해군 우공서주(東海郡 禹貢徐州)지방과 장강(長江), 회하(淮河), 사수(泗水), 제수(濟水) 근방에 분산 정주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서씨(徐氏)는 강소성(江蘇省)을 비롯하여 산동(山東), 절강(浙江), 안휘(安徽), 강서(江西), 귀주(貴州), 운남(雲南), 광동(廣東), 호북(湖北), 하북(河北), 산서(山西), 동북성(東北省)등 거의 중국 대륙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대만(臺灣)까지도 분포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복(徐福)에 관한 족보(族譜)와 사료들이 발견되면서 그가 실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근본이 불투명한 한낱 방사가 아니라 고대 중국 왕가의 후예요 굴지의 명문태생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렇다고 그에 관한 모든 행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다. 족보 등에는 그의 계보와 선대(先代)에 관한 연원 등은 자세히 기록돼 있지만 막상 그에 관한 행적은 간략하게 기재돼 있을 뿐이다.

우선 그의 이름만 보아도 「서불(徐市)」과 「서복(徐福)」 두 가지로 쓰여져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빙도가 높은 사기(史記)·백가보(百家譜)·서씨종보(徐氏宗譜) 등을 토대로 볼 때 원이름은 서불(徐市)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다만 「福(복)」이 字(자)냐 혹은 후명이냐 한 것이 분명하지가 않다. 어쨌든 뒤에 가서 서불(徐市)보다는 서복(徐福)이 훨씬 더 많이 쓰였다는 것은 그만큼 시사성(示唆性)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 서불의 자(字)는 「복(福)」(徐偃王志 등), 「언복(彦福)」(百家譜), 「군방(君房)」(海內十州記·日本國志 등), 「불(

市)」(徐福渡來傳說) 등 여러 글자가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복(福)이 그의 후명이나 가명이라 할지라도 자(字)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의 출생에 관해서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일설에는 그의 부친은 검영(劍英)으로 조(趙)나라 천왕(遷王)의 봉시관이었고 제(齊)나라로 망명해서 주(周) 난왕(赧王) 49년(B.C 266)에 그를 낳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진(秦)나라 재상 응후 범수(應侯 范雎)의 아들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모두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족보 등을 토대로 서불에 관한 기록을 분석해보면 일부 가보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족보가 서불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꺼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초평서씨종보(草坪徐氏宗譜)≫등 일부 족보에도 아내로 변씨(卞氏)를 맞은 것 등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한다면 시황제(始皇帝)에게 상서하여 바다로 나간 사실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황제를 속인데 대한 보복이나 박해를 두려워했던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❸
서복의 고향

먼저 1982년 서복촌(徐福村)이 발견된 배경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서복은 ≪사기(史記)≫, ≪한서(漢書)≫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많은 사서(史書)나 기록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동안 실지 그의 고향에 대한 추적 조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제(齊)나라 사람이며 낭야(琅琊) 등에 살았었다는 기록들이 있을 정도였다.

처음으로 서복촌(徐福村·일명 徐阜村)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세상에 밝힌 것은 나기상(羅其湘·중국 徐州사범학원, 地理學)교수팀이었다. 거기에는 우연한 단서(端緖)와 뜻밖의 발견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나(羅)교수의 글에서 직접 서복촌 발견 동기를 알아보기로 하자.

1982년 6월 초여름의 훈풍이 감돌던 조용한 연구실에 뜻밖에 날아든 정보로부터 일은 시작되었다. 당시 나와 학생들은 ≪중화(中華)인민공화국 지명사전(地名辭典)≫편찬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강소성부(江蘇省部) 감유현(贛楡縣)의 지명을 조사하고 있을 때였다. 우연히 옛기록을 찾다가 서부촌(徐阜村)이라는 지명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곧 현(縣)에 문의하였더니 옛날 진시황(秦始皇)때 동남동녀 500여명을 이끌



강소성 감유현(江蘇省 贛榆縣)에 있는 서복촌(徐福村) 표지비(標識碑), 1982년 나기상(羅其湘) 교수팀의 조사로 서복의 고향으로 밝혀지고 있다.



당대(唐代) 이후 근대까지 이 마을에는 줄곧 서복묘(徐福廟)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으며 지금 볼 수 있는 서복사(徐福祠)는 1988년에 재건되었다.

> 고 선인과 불로장생의 선약을 구해서 일본으로 떠난 그 유명한 방사 서복(方士 徐福)의 고향이라는 것이었다. 마치 꿈같은 얘기였다. 우리들은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중략) 우리들의 기대는 너무나 컸다.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서주(徐州) 사범학원 안에 특별 연구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신중하게 대응하면서 조사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서(本書)는 바로 이 연구의 첫 보고서가 된다.[37]

나(羅)교수팀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의 조사 사업은 일찍이 없던 놀라운 수확을 거두었다. 그들은 그 뒤로 여러 차례 서부촌과 그 주변 일대를 방문, 현지 조사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방대한 향토사료(鄕土史料)를 발견하고 이를 입수할 수가 있었다. 그 대부분은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매장돼 온 것으로 정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미지의 자료들이었다.

서복이 나서 자란 곳으로 알려진 서복촌(徐福村)은 지금은 서부촌(徐阜村)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중국 대륙지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서부촌(徐阜村)은 강소성(江蘇省) 감유현(贛榆縣) 금산향(金山鄕)에 있으며 남북 둘로 나누어져 있다. 남쪽을 전서부(前徐阜) 북쪽을 후서부(後徐阜)라고 부른다. 이 후서부가 바로 서복촌으로 옛 유적이 남겨져 있는 곳이다.

이 마을은 성북시(城北市)에서 서쪽으로 18㎞의 위치에 있고 금산향(金山鄕) 행정기관의 소재지인 전석언(前石堰)으로부터는 불과 1㎞의 지점에 있다. 청조(淸朝)초인 17세기 이전에는 이 마을을 서복촌으로 불렀던 사실도 밝혀졌다.

서복촌(徐福村)이 서부촌(徐阜村)으로 바뀌게 된 데는 아직 정확한 규명이 없다. 그러나 추정 가능한 것은 '서복(徐福)'이나 '서부(徐阜)'

---

37)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 虹棧 徐福≫, 10~12쪽.

는 중국 현지에서는 모두 '시후'로 발음되어 뜻은 다르지만 거의 구분할 수가 없다. 또 황제를 속여 고국을 탈출한 서복의 고향임을 후대 사람들이 은근히 기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전 조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이 마을에는 옛부터 서복을 모신 서복묘(徐福廟)가 줄곧 존속해 왔던 사실이다. 그 창건연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고대(古代)부터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기록을 토대로 당대(唐代)에 재건했던 사실과 송 희령(熙寧) 3년(1070)에 흥회사(興會寺)로 개명했던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뒤로도 관제묘(關帝廟), 우왕묘(牛王廟)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1942년에 헐린 사실이 밝혀졌다. 시대에 따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꾸준히 서복을 모셔온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88년에는 그 흥회사가 있던 터에 다시 서복사(徐福祠)가 세워지고 서복촌비(徐福村碑)도 건립되었다.

서복(徐福)은 ≪사기(史記)≫를 비롯하여 여러 기록에는 제(齊)나라 사람으로 낭야(琅琊)에 살았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감유현(贛楡縣)의 서부촌(徐阜村)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 의문에 대하여 중국조사팀이 밝힌 것을 보면 전국시대에 제(齊)나라는 진(秦)나라에 의하여 멸망되고 천하가 통일된 다음에는 진(秦)나라에 병합되면서 낭야군(琅琊郡)이 된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서복은 제나라에 태어나 뒤에 진나라의 낭야군에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곽말약(郭沫若)편 ≪중국사고(中國史稿)지도집≫(1980년판)과 담기양(譚其驤)편 ≪중국역사지도집≫(1980년)을 보면 감유(贛楡)는 전국시대에는 제(齊)나라에 속했고 진(秦)시대에는 낭야군(琅琊郡)에 속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복은 두 시대에 걸쳐 살았던 사람으로 전국시대에는 제(齊)나라 사람이요, 진(秦)이 통일한 뒤에는 낭야군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시대에 따라 지명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서복촌(徐福村・徐阜村)은 지도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중국 정사(正史)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팀이 수집한 관서(官署)의 서고(書庫)나 민가에서 발견된 고문서 등에서는 서복촌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나타났다. 그 가운데 오랜 것은 위(魏)・촉(蜀)・오(吳)가 천하를 삼분(三分) 정립하던 삼국시대(三國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다음에 서복촌에 관한 기록을 들어본다.

> 당시 감유(贛楡・서복촌)는 위(魏)의 속령이었다. 황초(黃初) 6년(225) 6월 이성군(利城郡)의 채방(蔡方)은 군수 서질(徐質)을 죽이고 위의 통치에 반항하였다. 위의 문제(文帝・曹丕)는 곧 둔기교위(屯騎校尉) 임복(任福)・보병교위(步兵校尉) 단소(段昭)・청주자사(青州刺史)・서주자사(徐州刺史)등에게 이를 치도록 하였다. 조위군(曹魏軍)의 병마가 서남쪽에서 서복촌(徐福村)에 다가와 병력을 배치하였다. 마을 근교에 영사(營舍)를 짓고 진지를 구축하여 삼엄한 경계를 폈다. 낮에는 사람의 통행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밤에는 횃불과 등을 켜 온 마을을 대낮처럼 밝혔다. 군사들은 살기에 넘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어 전쟁기운이 온 마을에 감돌았다. 그러나 위의 군사들은 끝까지 서복촌의 파괴나 위해를 가하는 일은 없었다. 도리어 철수할 때는 서복묘(徐福廟) 주위를 둘러보고 무사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조용히 떠났다.[38]

이 기록을 보면 3세기 초엽에 위나라의 영지 안에 서복촌이 있었고 그 때 이미 서복묘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주목할

38)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虹棧 徐福≫, 38~39쪽.



서복사(徐福祠)에 제사의 주체로 모시고 있는 서복상.



서복이 쓰던 유물로 전해진 약연석(藥碾石). 서복사 전시관에 진열되고 있다.



낭야대(琅琊臺)의 서복전(徐福殿)

만한 것은 위나라 군사들이 서복묘를 외경(畏敬)하고 성역시(聖域視)하였으며 서복촌을 보호하려고 애쓴 사실이다.

가경(嘉慶) 원년(1796)의 감유현지(贛榆縣志)에 따르면 감유현은 4향(鄕)14사(社)로 나뉘고 있다. 그 가운데 서복촌은 숭의향(崇義鄕)에 속한 하나로 서복사(徐福社)라 불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서복사는 황니애(黃泥埃)·평애(平埃)·팔조로(八條路), 석언(石堰)등 일곱 마을을 포함하고 있어 그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장씨가보(張氏家譜)≫ ≪왕씨보(王氏譜)≫ ≪후서복위씨지보(後徐福韋氏支譜)≫등 여러 가보에는 서복촌에 관하여 더욱 많은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언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서복촌은 바로 서복의 원적지였던가 아니면 원적지는 따로 있었던가.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는 ≪괄지지(括地志)≫를 인용하여 "대서성(大徐城)은 사주서성현(泗州徐城縣)의 북쪽 30리에 있다. 옛날에는 서국(徐國)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의 강소성 간태현(江蘇省 盱眙縣) 일대에 해당된다. 옛 서국의 서성(徐城) 유적은 우치현에서 북쪽으로 15㎞ 홍택호 서안(洪澤湖 西岸)의 반성진(半城鎭)에 있다. 이곳은 원래 사홍현(泗洪縣), 지금은 홍택현 반성향(洪澤縣 半城鄕)에 속하고 있다.

옛날 주(周)의 무왕(武王)이 죽자 동남의 제족(諸族)들은 앞다투어 주에 항거하였다. ≪후한서(後漢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는 "서이(徐夷)는 제호(帝號)를 참칭(僭稱)하고 구이(九夷)를 이끌어 종국(宗國) 주(周)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徐)의 구왕(駒王) 강(康)은 주(周)를 치고 은(殷)의 재흥을 기도하였다. ≪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는 "옛날 우리 선군(先君) 구왕(駒王)은 서(西)를 치고 강을 건넜다."고 되어 있다. 주(周)의 목왕(穆王)은 서쪽으로 수렵에 나간 채 그날 그날을 즐기며 돌아올 것을 잊고 있었다.

그 때 서(徐)의 언왕(偃王)이 반란을 일으켰다. 목왕은 초(楚)에 명령하여 서를 치게 하였다. 언왕은 패하여 북으로 달렸다. 팽성(彭城)에 은둔하려고 무원현(武原縣) 동쪽 산기슭에 이르러 그 곳에서 죽었다. 그 산을 무원산 이라고 하며 사람들은 그 곳에 왕을 묻고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지냈다. 무원산을 서산(徐山)이라고도 하며 산기슭에는 언왕의 무덤이 있다. 비주지(邳州志)를 보면 "무원현(武原縣)은 지금의 성서(城西) 북쪽 15리에 있으며 건물 유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였다.

그 뒤로 언왕 후예들은 여러 갈래로 나뉘고 그 한 갈래 즉 서복 조상은 회하사수(淮河泗水)로부터 동쪽으로 이동하여 지금의 감유현에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의 학자가 고증한 바에 따르면 서복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서(徐)나라 언왕(偃王)의 29대 후손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감유현 서서산향서강읍(西徐山鄕徐康邑) 일대에는 서복(徐福)으로부터 71대·72대에 해당하는 후손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울러 밝혀졌다.

그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여러 설이 대두돼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세 설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강소성감유설(江蘇省贛榆說), 둘째는 산동성낭야설(山東省琅琊說), 셋째는 산동성황현설(山東省黃縣說·지금의 龍口市)이다.

여기에 대하여 중국학자들 간에는 각각 제 나름의 논증을 내세우고 대립하고 있다. 이들 주장 모두가 전승지라고 할 수 있고 전국시대에는 제(齊)나라에 속했고 진(秦)시대에 이르러서는 낭야군(琅琊郡)에 속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크게 벗어난 견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서복은 전국시대에는 제나라 사람이었고 제나라가 멸망한 뒤 진시대에 이르러서는 낭야군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복은 전국시대에서 진시대에 걸쳐 두 시대를 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서복과 진시황(秦始皇)

1. 서복과 시황의 만남
2. 진시황은 누구인가
3. 진(秦)의 통일과 시책



전국시대에 난립했던 여러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중국대륙에 역사상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한 진시황(秦始皇). 사진은 진황도(秦皇島)의 거대한 진시황(秦始皇) 석상.

❶
서복과 시황의 만남

서복과 시황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관심을 돋구는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또 의문을 풀어줄 열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춘추(春秋)시대가 끝나 전국(戰國)시대로 접어들면서 중원대륙은 제(齊)·초(楚)·진(秦)·연(燕)·한(韓)·위(魏)·조(趙)등 이른바 '전국(戰國)의 칠웅(七雄)'이 대립하여 패권을 다투는 시대로 접어든다. 이때 황하의 상류에 있는 서쪽의 진(秦)과 하류에 있는 동쪽의 제(齊)는 가장 호적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진나라의 시황과 제나라 사람인 서복의 만남은 묘한 인연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제나라가 망하고 진이 천하를 통일한 다음이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만남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었다.

일본의 서복 연구가 이이노(飯野 孝宥)는 그들의 만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지금부터 2200년전 서쪽나라 진에는 통일 천하를 여는 시황제(始皇帝)가 태어나고, 동쪽나라 제에는 신선의 방사로 알려진, 실은 서왕(徐



서복(徐福)과 시황(始皇)의 만남은 낭야대에서 이루어졌다. 그 역사적 현장에 서복과 시황이 만나는 군조상(群彫像)이 건립돼있다.

王)의 후예인 서복(徐福)이 출현한다. 이 이질의 문화를 상징하는 두 영걸의 불가사의한 운명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불로 불사의 약초가 바로 둘을 맺어 주는 것이다. 아울러 고대 중국사에 깊은 그림자를 남기며 무지개처럼 소멸돼 버린다. 그리하여 그 기록은 2000년 동안 정사에서는 아주 매몰되어 버렸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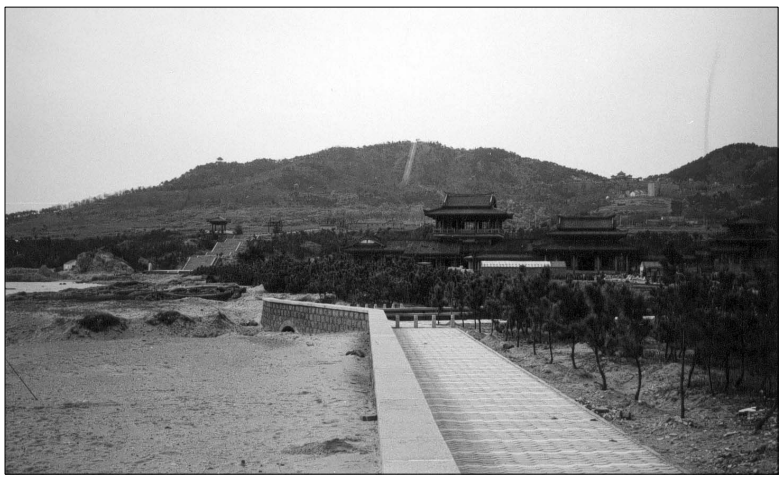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기록을 종합해 보아도 두 사람의 만남이 대체로 불로 불사의 약초를 찾는 데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둘의 만남이 바로 그 단순한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는가 하는데는 많은 의문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 동·서 두 영걸의 만남이 단지 시황제가 불로 불사의 약초를 찾으려는 목적만으로 실현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감히 서복에게 표적의 화살을 돌리고 불러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거기에는 좀 더 복잡한 배경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중국조사단이 서복촌 일대의 조사활동에서 고로(古老)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나 수집된 전설을 종합, 정리해놓은 보고를 보자.

진의 시황제는 전국을 정복하고 나서 곧 국내 순행(巡行)길에 나섰다. 그는 다니는 도중마다 칙조(勅詔)를 내리거나 대신들을 몰아세워 그를 위하여 불로 불사의 약을 바치도록 요구하였다. 물론 그 효력이 없을 때는 참수(斬首)등 엄형을 당하게 마련이었다. 서복은 의업(醫業)을 하는 무위무관(無位無冠)의 방사였다. 낭야(琅琊) 지방에서 약초를 캐기도 하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도 하였다. 어느 날 갑자기 대신을 통하여 자신에게 표적의 화살이 꽂힌 것을 알았다. 그는 놀라움과 함께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었다. 시황제가 사형을 담보로 불로약을 찾고 있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불로 불사약이 있을 수 없고 자신도 한 번 선발된 이상은 조만간 참수형에 몰릴 건 자명한 일이었다.

39)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 虹棧 徐福≫, 102~103쪽.



산동성 교남시(山東省 膠南市) 낭야대(琅琊臺) 전경. 앞에 보이는 건물이 서복기념관.



낭야대에서 내려다본 용만(龍灣). 이 용만은 해주만(海州灣)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중략) 서복은 이 무서운 명령을 받고 화를 모면할 지혜를 짜냈다. 그리하여 동해의 선산(仙山)에 불로 불사의 약이 있다고 거짓 주상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행히 불사약에 눈 먼 시황이 꾀임에 넘어나 서복의 도해(渡海)에 필요한 방대한 인력과 물자를 징발해 준 것이다. 그리하여 현명한 서복은 고향을 등지고 해외로 탈출, 죽음을 모면하게 되었다.[40]

물론 이것은 전설을 정리한 것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을 규명하는 데는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 전설 줄거리는 ≪한서·교사지(漢書·郊祀志)≫등에 나오는 기록과 거의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한서(漢書)≫에는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게 되었지만 신선도(神仙道)에 정신을 빼앗겨 서복(徐福), 한경(韓經·終) 등을 파견하면서 많은 동남동녀를 딸리게 하고 바다로 들어가 선인(仙人)과 선약(仙藥)을 찾아내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하여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민이 모두 그를 원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41]

이 같은 사료나 전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서복 선단의 도해(渡海)사건은 처음부터 시황(始皇)의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집단탈출 사건이었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설이 있었지만 정설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기로 하겠다.

서복이 시황을 만난 것은 적어도 두 번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의 도해(渡海)도 두 번째였던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의 도해가 처음부터 망명(亡命)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시황을 만나고 중국을 떠나는 행동은 모두 합법적으로 이

40) 羅其湘·飯野孝宥, 앞의 책, 19~23쪽.
41) ≪漢書≫, <郊祀志>.

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시황을 만난 곳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도 여러 설과 함께 낭야대(琅琊臺)설이 꾸준히 전해져 왔었다.

중국조사단이 추적하고 밝힌 것을 보아도 서복과 시황의 만남은 두 번 모두 낭야(琅琊)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만남은 기원전 219년(시황 28년) 시황의 두 번째 순행(巡行)때였다. 시황은 산동(山東)반도 북부의 지부(之罘)를 거쳐 낭야에 도착하였다. 서복(徐福)을 만난 것은 여기서였다.

그는 이 곳에서 석 달 동안이나 묵게 된다. 이처럼 오래 체재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다만 지금까지 통설로는 신선설(神仙說)과 불로 불사약에 관하여 관심을 가졌기 때문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낭야나 지부(之罘) 지방은 모두 신선도의 본향이었으므로 그런 추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혹시 서복과의 문제는 없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무렵 신선설에 도취되었던 시황이 서복과의 만남을 간단히 그쳐버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 날에 걸쳐 서복과의 대화가 거듭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또 서복은 이 때 시황과 만난 다음 첫 도해(渡海)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문제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도 없으며 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므로 앞으로의 숙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두 번째의 만남은 기원전 210년(시황 37년) 마지막이 된 시황의 다섯 번째 순행 때였다. 이 때 시황은 먼저 남쪽으로부터 순행 동정호(洞庭湖), 회계산(會稽山), 방구(邦溝), 회음(淮陰), 연수(漣水), 구현(朐縣·海州), 대항두(大港頭) 등을 거쳐 낭야에 이른다. 여기서 시황은 다시 서복과 만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시황은 전후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 순행을 하지만 그 가운데 세 차례는 낭야를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서복과 만나는 기록은 두 번에 그치고 있는 사실이다. 또 한 번의 방문에서는 서복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아니면 만나고 있는데도 기록에서는 누락되고 있는 것인가. 매우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두 번의 만남에 대하여는 기록마다 상충되거나 혼선이 일어나는 대목들이 많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충 서복의 첫 번째 도해(渡海)에 실패하고 돌아온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사기·진시황본기(史記 秦始皇本紀)≫등을 보면 서복 등이 상서하여 바다로 나간 사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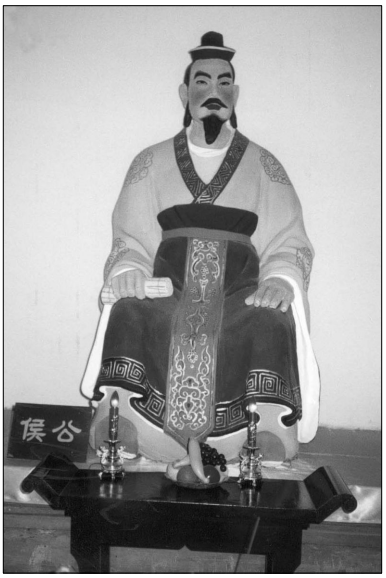
> 지금 듣는 바에 따르면 한(韓) 출신의 방사(方士) 후생(侯生), 노생(盧生) 등이 도망하여 아무 보고가 없으며 서복 등은 많은 돈을 썼다고 하지만 끝내 선약은 얻지 못하였다. 방사 서복 등은 바다로 나가 선약을 구하려고 하였으나 수년이 지나도 얻지 못하고 많은 비용만 들이게 되었다. 그는 견책 받을 것이 두려워 거짓 보고를 올렸다. "봉래(蓬萊)에 들어가기만 하면 선약을 얻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큰 상어(일설에는 범고래)가 섬 근처에 버티고 있어서 섬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활의 명사수를 동행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큰 상어가 나타나면 석궁으로 쏘아 죽이고 들어가겠습니다." 고 하였다.[42]

여러 기록들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서복은 처음 시황과의 만남에서, "동해에 삼신산이 있고 그 곳에는 선인(仙人)이 살고 있으며 그를 만나 선약을 구해올 수 있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경비도 쓰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선약을 얻을 길이 없었고, 다시 시황과 재회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마지막 만남에

42) ≪史記≫ 卷6, <秦始皇本紀>.



방사 노생(方士 盧生)



방사 후생(方士 侯生)



방사 한종(方士 韓終)

서는 보다 대담한 결심을 하고 시황을 속여 도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조달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록가운데 몇 가지 상충되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지금 얘기된 것처럼 큰 상어 때문에 봉래섬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과 봉래섬을 보고 돌아왔지만 예물이 부족하여 선약을 얻어올 수 없었다는 기록이다. 이것은 확실히 배리되는 논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서복의 숨겨진 행동과는 다르게 그릇 전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유념해야 할 점은 서복과 시황이 처음 만나서 두 번째 재회할 때까지는 10년이라는 시일이 흘렀다는 사실이다. 이 사이에 서복은 물론 도해에 따른 여러 가지 채비를 서둘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첫째 의문이 생기는 것은 시황이 어떻게 그처럼 오랜 시일을 참고 허용했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시황이 충분한 시일을 주지 않고 출항을 몰아 세웠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문에 가려 있는 것은 서복이 1차 바다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실이다. 이 사실을 기록들은 선약을 찾아 나갔다가 얻지 못하여 돌아온 것으로 되어있다. 이 통설은 계획적인 망명을 시도했던 서복의 행동으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서복이 수 천명을 거느리고 대 선단을 조직하여 집단망명을 한다고 할 때 막연한 모험을 하려고 하였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틀림없이 치밀한 계획과 주도한 준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지식과 정보가 필요했고 정찰과 시험 운항 등도 필요했다고 생각된다.

여러 기록이나 상황을 놓고 검토하여 볼 때 이 첫 번째 항해가 곧바로 망명하려고 출항하였다가 문제가 생겨 되돌아 왔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여기서 필자는 두 가지 가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시험 운항이나 정찰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모두를 겸하는 행동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행동이었다고 보면 어느 해역이나 어느 지방까지를 탐사하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다. 필자는 그것을 일본 규슈(九州)까지 탐사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대규모의 선단으로 조직적인 집단 망명을 단행하는 마당에 그만한 전초행동은 있어야 한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어쨌든 10년이란 오랜 준비와 1차의 항해가 서복 대선단(徐福 大船團)의 집단 망명을 성공시키는 시금석이 된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할 것이다.

❷
진시황은 누구인가

서복(徐福)이 고국을 등지고 해외로 망명한데는 상상을 넘는 깊은 사연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겉으로 그는 시황(始皇)의 명령을 받고 불로 불사의 선약을 찾아 바다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처럼 단순한 목적 때문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여기에는 먼저 시황에 대한 인식이 없고는 그 배경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시황은 잘 알려진 것처럼 중국은 물론 세계사를 통해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폭군이다.

시황(始皇)은 기원전 259년(秦昭王 48) 아버지 장양왕(莊襄王)이 조(趙)나라의 볼모로 있을 때 조나라 수도 한단(邯鄲)에서 태어났다. 성은 서복의 원조와 마찬가지로 영(嬴)이었고 이름은 정(政)이었다. 어머니는 원래 여불위(呂不韋)의 애첩이었다가 뒤에 장양왕(볼모당시)의 부인이 된 사람이다. 뒤에 태후(太后)가 된 다음에도 여불위와 사통하는 등 매우 음란하였던 사람이다. ≪사기(史記)≫ 여불위 열전(呂不韋 列傳)을 보면 장양왕의 부인이 될 때 이미 임신 중이었다고 하므로 시황의 생부는 여불위였다고 할 수 있다.

장양왕이 20여명이나 되는 왕자의 한 사람으로 조(趙)나라의 볼모로 있다가 태자가 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불위



진시황(秦始皇) 초상



낭야대 전시관에 진열돼 있는 진시황상(秦始皇像)

의 덕분이었다. 여불위는 원래 한(韓)나라 양책(陽翟·河南省)의 거상(巨商)이었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 빼어나고 매우 총명한 사람이었다. 조나라의 볼모로 있는 장양왕을 보고는 그의 모든 재산을 투자하여 도왔으며 진(秦)왕실에 공작하여 마침내 그를 태자로 삼도록 하였던 것이다.

뒤에 장양왕이 진왕(秦王)이 되자(기원전 249년) 그는 바로 재상에 오르고 문신후(文信侯)에 봉해지면서 하남 낙양(河南 洛陽)의 10만호를 식읍으로 받았다. 그러나 장양왕은 즉위한지 3년 만에 죽고 시황(始皇) 정(政)이 열세살의 나이로 진왕에 오르게 된 것이다. 시황도 아버지를 도운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불위를 상국(相國)으로 삼고 중부(仲父)라고 불러 존경하였다.[43]

시황이 성장한 뒤에도 모태후(母太后)와 여불위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었다. 총명하였던 여불위는 언젠가 그 화가 자신에게 미칠 것을 예상하고 하나의 꾀를 쓰게 되었다. 음경(陰莖)이 거대한 노애(嫪毒)라는 사내를 찾아내어 이를 모태후에게 맺어준 것이다. 거짓 부형(腐刑)을 시킨 것으로 꾸며 환관을 만들고 측근에 두게 하였다. 태후는 그를 몹시 총애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임신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재앙을 구실로 궁을 빠져 나와 옹(雍·陝西省) 지방에서 지냈다.

여불위는 노애 덕분으로 얼마 동안은 자신에게 돌아올 구설수를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노애와 태후의 관계가 영원히 비밀로 지켜질 수는 없었다. 시황 9년(기원전 238) 마침내 그에 관한 밀고가 들어왔다.

---

43) 司馬遷, ≪史記≫ 卷 85, 呂不韋列傳.
司馬遷著 崔仁旭·金瑩洙譯, ≪史記列傳 I ≫, 呂不韋傳, 360~363쪽.
曾先之著 金光洲譯, ≪說話 中國史≫ 3권, 19~29쪽.

"노애는 실은 환관이 아니며 항상 태후와 음란사통하여 아들 둘을 낳았으며 이를 감추고 임금이 죽으면 그 아들로 뒤를 잇게 하고자 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시황이 관리를 시켜 조사하였더니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났고 상국 여불위도 관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애는 삼족을 멸하여 죽이고 태후가 낳은 두 아들도 죽였으며 태후를 옹지방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러나 뒤에 다시 맞아들였다.

이 때 여불위도 죽이려고 하였으나 선왕에 대한 은공과 그를 변호하는 빈객들이 많았으므로 그 이듬해 10월 도성에서 추방, 하남(河南)의 식읍에서 살게 하였다. 도성에서 추방된 다음에도 여불위의 집에는 여전히 제후와 빈객의 사자가 끊이지 않았다. 시황은 모반이 일어날까 두려워 더욱 경계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일년 뒤 마침내 시황은 여불위에게 가족을 데리고 촉(蜀)으로 떠나라는 편지를 보냈다.

시황의 편지를 받고 여불위는 스스로 판단하였다. 이대로 가면 자기의 권세는 점차 약화될 것이 뻔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고 예견하였다. 그리하여 스스로 짐독(酖毒, 독주)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기원전 236년 시황의 나이 23세 때였다.[44]

여불위가 죽고 나자 시황은 세상에 두려운 자가 없어졌다. 이때부터 시황의 독재군주시대가 열리며 자만심과 포악한 성격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무렵 진나라는 힘이 막강하였으므로 전국시대에 할거했던 여러 나라들을 하나하나 쳐서 멸망시켰다. 시황이 즉위한지 17년(기원전 230)에는 한(韓)나라를, 19년에는 조(趙)나라, 23

44) 司馬遷, ≪史記≫ 卷 85, 呂不韋傳.
司馬遷著 崔仁旭・金瑩洙譯, 앞의 책, 364~366쪽.
曾先之著 金光洲譯, 앞의 책, 29~30쪽.

년에는 위(魏)나라, 24년에는 초(楚)나라, 25년에는 연(燕)나라, 26년에는 제(齊)나라를 각각 멸망시켰다. 그리하여 중국에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가 시황즉위 26년이요, 기원전 221년이었다.

시황은 스스로 "내 덕은 옛날 삼황(三皇)에게도 맞설만하고 내 공은 오제(五帝)보다 나을지언정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왕의 호칭을 황제(皇帝)라 부르게 하였다. 또 황제의 명령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명(命)을 제(制)라 하고 령(令)을 조(詔)라 하는 등 모든 법도(法度)를 제정, 정비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는 짐(朕)이라고 하여 제1인칭으로 나타내게 하였다.

"짐은 제1의 황제이므로 시황제(始皇帝)라 하고 뒤에 자손은 2세, 3세라 하여 천만세에 이르도록 무궁하게 전하도록 하라"고 신하들을 모아놓고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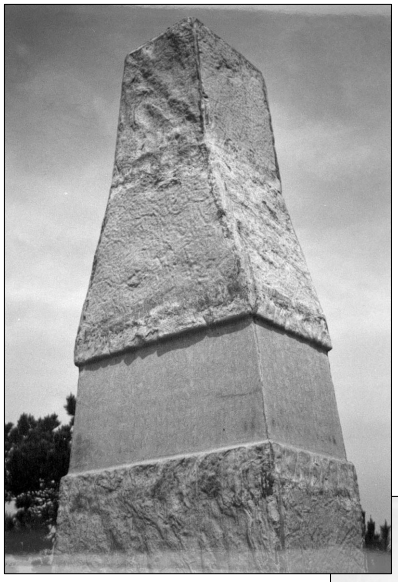
그리고 정위(廷尉) 이사(李斯 · 뒤의 丞相)의 건의를 받아들여 왕자나 공신에게 나누어주던 봉건(封建)제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36군(郡)으로 나누는 군현제(郡縣制)를 채택하였다. 모든 권력이 오직 시황으로부터만 나오게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확립시킨 것이다.

그는 국가의 권력체계를 정비하자 이번에는 함양(咸陽)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로 통하는 대도로 공사를 일으켰다. 이른바 치도(馳道)라고 하는 너비가 70m나 되는 넓은 도로였다. 동으로 연해(沿海)지방, 남으로 장강(長江 · 揚子江)유역, 북으로는 변경요새까지 이르게 하였다.[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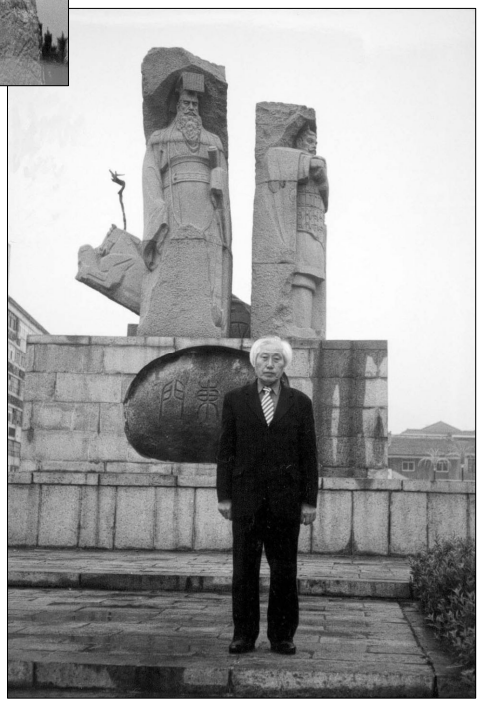
중국을 통일한 이태 뒤인 기원전 219년부터 시황은 전국 대순행

---

45) 司馬遷, ≪史記≫ 卷 6, 秦始皇本紀, 第6條.
司馬遷, ≪史記≫ 卷 85, 李斯列傳, 第25條.
三省出版社, ≪大世界의 歷史≫ 2卷, 126~130쪽.



낭야대 각석(琅琊臺 刻石). 시황(始皇)과 이세(二世) 호해(胡亥)의 각석이 복원되어 있다.



연운항시 구산(連雲港市 朐山)의 진 동문(秦東門) 앞에 선 필자.

(大巡行) 길에 나서기로 하였다. 천하를 통일한 황제의 권세를 시위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지만 동방 여러 나라의 민중반란을 미리 위압하려는 속셈도 있었다. 그는 순행도중 이름 있는 산에 오르면 천하를 통일하고 순행을 기념하는 비(碑)를 세웠다.

첫 번째 순행에서 회계산(會稽山)에 오른 그는 천하통일을 자찬하는 거대한 공적비를 세웠다. 이 곳은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왕(吳王) 부차(夫差)에게 패하여 굴욕의 수치를 씹었다는 고사가 있는 산으로 도교(道敎)의 성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 곳에서 시황은 동으로 순행, 낭야(琅琊)를 찾게 된다. 여기서 동해에 선인이 사는 신산(神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직접 낭야대(琅琊台)에 올라 동해를 조망한다. 이 때 그가 바라보았다는 산이 하가구(下駕溝) 동남쪽 해주만(海州灣)에 떠있는 진산도(秦山島)로 전해지고 있다. 해마다 봄이 와서 눈이 녹을 때는 신기루(蜃氣樓)가 나타나고 신선이 사는 누각이 보인다는 신비한 섬으로 알려진 곳이다.

≪가경지(嘉慶志)≫에는 "시황제(始皇帝)가 선인을 찾아 이 섬에 오르고 돌에 글을 새겨놓았는데 그 돌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했다. 수경주(水經註), 지도기(地道記) 등에도 시황이 세운 비가 있다고 하였으며 비의 크기까지 기록하고 있다. 진산도(秦山島)에는 해주만 해변에서 이곳으로 이르는 신로(神路)가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간조(干潮)때는 그 일부가 바다 가운데 나타난다고 한다.

시황은 이곳에서 3개월이나 묵으면서 매일같이 동해와 신산을 바라보고 신선사상(神仙思想)에 도취하였다고 한다. 시황은 재위 중 다섯 차례에 걸쳐 전국순행에 나서지만 그 중 기원전 219년, 218년, 210년 등 세 차례는 낭야군(琅琊郡)을 방문하고 있다.

이 일대에는 진산도(秦山島) 외에도 시황의 순행과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다. 지금 일조현 태아산(日照縣 駘兒山)에는 글자는

마모되어 판독이 어렵지만 진왕비(秦王碑)가 서있으며 또 이 곳에 시황제가 칼을 갈았다는 둘레 3m나 되는 마검석(磨劍石)도 있다. 일조현(日照縣)에서 서북쪽으로 6~7㎞에는 시황이 순행도중 명명했다는 삼주산(三柱山)이 있고 일조현에서 동남쪽으로 90㎞에는 태산(泰山)이 있는데 시황은 이 곳에서 노생(盧生)을 바다로 파견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 산동성 여남현(山東省 呂南縣) 서쪽에는 시황이 걸터앉아 쉬고 갔다는 돌이 있으며 석주(石柱)를 세워 기념하고 있다. 연운항시(連雲港市) 해주(海州)의 구산(朐山·錦屛山)에는 시황이 돌을 세워 문을 만들었다는 진(秦)의 동문(東門)이 있다.

또 감유현 북마참향(北馬站鄕)으로부터 북으로 3㎞지점에는 하가구(下駕溝·下家溝)가 있는데 여기가 시황이 연(輦)을 내려 선인을 찾아 바다로 들어갔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일조현(日照縣)과 인접해 있으며 서복촌(徐福村)은 여기서 서쪽으로 불과 20㎞지점에 있다.

서복과의 만남도 첫 순행 때 바로 이 곳에서 이루어진다.

❸

진(秦)의 통일과 시책

중국의 역사상 시황(始皇)만큼 큰 공(功)과 과(過)를 다함께 지닌 사람도 드물 것이다. 중국대륙에 첫 통일국가를 건설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그가 자찬했던 것처럼 위대한 영웅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일찍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업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어 놓은 크고 작은 업적들은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는 너무나 준엄, 가혹했으며 그의 사생활은 너무나 호방하였고 한마디로 방약무인(傍若無人)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그의 이면(裏面) 때문에 그 찬란한 모든 업적들이 검은 그림자에 가려버리고 부정적 측면에서만 평가돼 왔다.

통일국가를 세우고 스스로 황제에 오르고 나자 그는 몇 가지 역점을 두고 정책을 밀어나갔으며 또 자신과 왕조를 위해서 특수한 사업에도 전념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국내의 치안을 확고히 하고 반란을 예방하는 일이었다. 그는 주대(周代)이후 식읍을 왕후(王侯)들에게 나누어주던 봉건제(封建制)를 폐지하고 전 국토를 군(郡)·현(縣)·향(鄕)·정(亭)·리(里) 단위로 통일하여 황제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였다. 또 법률을 정비하고 형벌제도를 강화시켜 범법자에게는 오형(五刑)제를 도입하



중국 서안시(西安市) 국영호텔 건물에 조각된 진(秦)의 삼인상, 왼쪽부터 이사(李斯), 시황(始皇), 몽염(蒙恬)장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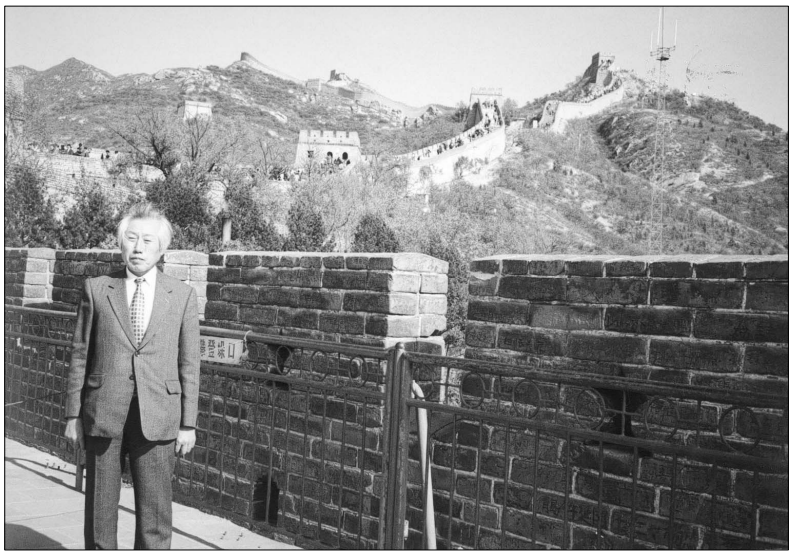
는 등 가차없이 냉혹하게 처벌하였다.

그리고 민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무기들을 모조리 압수하고 이를 녹여서 동상, 종, 악기 등을 제조하게 하였다. 물론 반란에 대비하는 조처였다. 그가 다섯 차례나 전국을 순유(巡遊)하면서 지방을 시찰한 것도 모반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살펴보려는 의도였다고 할 것이다.

둘째는 사상과 문화를 통일시키려는 시책이었다. 중국에는 기원전 14~13세기부터 이미 갑골문(甲骨文) 등 여러 문체가 생겨나고 있었지만 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많은 서체가 민간에 퍼지고 있었다. 이것을 가장 전통 있게 써 온 서체를 토대로 소전체(小篆體)와 예서체(隸書體)로 개량하여 이를 전국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문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문자의 통일을 이루었다.

사상통일 정책으로 단행했던 일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건은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였다. 시황은 기원전 213년 승상(丞相) 이사(李斯)의 건의를 받아들여 진(秦)나라의 사기(史記)나 박사관(博士館)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 그리고 의약 복서(卜書), 식목에 관한 책만을 남겨두고 열국의 사서, 시경(詩經), 서경(書經), 제자백가(諸子百家)가 쓴 책 등을 죄다 거둬들여 불태워 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에는 후생(侯生)과 노생(盧生) 등이 시황을 비난한 것을 계기로 함양(咸陽)의 학자, 학생들 464명을 잡아들여 모두 구덩이에 몰아 넣고 산 채로 묻어 버렸다. 보다 못한 맏아들 부소(扶蘇)가 이를 말리려고 간하였지만 시황은 더욱 노하여 그마저 몽염(蒙恬)장군이 있는 북변 상군(上郡·陝西省延安)으로 쫓아 버렸다. 이 '분서갱유' 사건이야말로 시황이 저지른 일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폭거로 손꼽히고 있으며 세계사상 문화 말살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오늘까지도 비판을 받고 있다.

시황은 또 학문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오직 정부관리만을 스승으로 받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치를 비방하는 자는 물론 고서에 관



북방의 흉노족(匈奴族)을 대비하여 쌓은 만리장성(萬里長城). 이 성은 요동(遼東) 발해만에서부터 서쪽의 임조(臨洮 • 甘肅省)에 이르는 긴 성이었다. 사진은 만리장성을 찾은 필자

하여 논의하는 자도 모두 적발하여 가차없이 참수형에 처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법률, 의례제도, 도량형, 화폐 등 여러 가지를 엄격히 통일하여 사상 문화 통일에 혈안이 되었다.

셋째는 외적의 침략에 대한 방비였다. 이 무렵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족(匈奴族)은 자주 중국의 북변을 침범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 북부의 나라들인 진(秦·陝西省), 조(趙·山西省), 연(燕·河北省) 등 여러 나라는 각각 장성(長城)을 쌓아 그들의 침범을 막고 있었다. 기원전 215년, 시황은 장군 몽염에게 명하여 흉노족을 치게 하였다. 몽염은 30만 대군을 이끌고 흉노족을 북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목야지로 점유하고 있던 오르도스(섬서성 북부) 지방을 탈환하였다.

또 그 이듬해에는 흉노의 침범에 대비하여 동쪽의 요동(遼東·遼陽郡)에서부터 서쪽의 임조(臨洮·甘肅省)에 이르는 긴 성을 구축하였다. 그 길이가 만리에 이른다고 하여 이른바 만리장성(萬里長城)이라고 하였다. 이 것은 그 전에 쌓았던 장성을 보다 견고하게 수축하고 보완시켰으며 군용도로도 닦아 놓은 것이다.

그가 만리장성을 쌓게된 배경에는 노생(盧生)이 바친 책 ≪천록비결(天籙秘訣)≫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그 책 속에는 "진나라를 멸망시킬 자는 호(胡)"라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북쪽의 오랑캐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세의 번영을 꿈꾸었던 위대한 제국은 외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죽고 난 다음 간신 조고(趙高)의 농간으로 그의 아들 호해(胡亥)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망하고 만다.

한편 시황은 강수(江水·揚子江) 남쪽 영남(嶺南)지방의 월족(越族)도 정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월족은 50만 대군이 투입되었는데도 끈질기게 저항하여 8~9년이나 시달린 끝에 기원전 214년에야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다. 시황은 거기에 계림(桂林)·상(象)·남해(南海)의 3군(郡)을 두게 하였다.

넷째는 자신과 왕조의 권위를 과시하는 대 토목공사였다. 시황은 통일제국을 세우기 전부터도 다른 나라를 멸망시킬 때마다 그 나라의 궁전을 본떠 함양의 위수(渭水) 북안에 재현시켜 즐기곤 하였다. 위수 남쪽에는 장신궁(長信宮)으로 일컬어지는 거창한 궁전을 지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여 기원전 212년에는 위수의 남쪽 상림원(上林苑)에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때 그 정전(正殿)으로 지은 것이 유명한 아방궁(阿房宮)이었다. 동서가 5백 보(약 700m) 남북이 50장(약 120m)이나 되며 정상에는 1만 명이 앉을 수 있고 지붕이 높아 길이 5장의 기를 세울 수 있었다. 꼬불꼬불한 회랑(回廊)을 만들어 궁전에서 남산(南山)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이중의 도로를 개설하여 아방궁에서 위수를 건너 함양까지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시황은 자신이 죽은 뒤를 생각하여 서안(西安) 동쪽 임동현(臨潼縣)에 여산릉(驪山陵)을 건설하였다. 사방 500m, 높이 100여m의 웅대한 왕릉이다. 그 내부는 일월성신(日月星辰)과 백천대해(百川大海)가 있으며 천구(天球)가 도는가 하면 하천에는 수은(水銀)이 항시 흐른다. 옥석과 도토(陶土) 금은 세공으로 조각한 궁전과 백관, 군사, 그리고 동식물들(여러 가지 陶俑)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등불은 특수한 기름으로 켜져서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여기서 시황은 죽어서도 영생하려는 생각이었다.[46]

이 밖에도 시황은 앞에서 본 것처럼 만리장성을 쌓고 함양에서 각 연변지방으로 이르는 넓은 도로를 뚫는 등 여러 가지 건설공사를 이룩하여 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공사를 추진한 반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과 과중한 부담이 따랐다. 아방궁과 여산릉의 건설에는 70만 명의 죄수가 사역되었고 그들은 공사가 끝난 뒤 무참

46) 三省出版社, ≪大世界의 歷史≫ 2권, 124~134쪽.





낭야대 전시관에 진열된 병마토용상(兵馬土俑像). 이 토용은 서안시 임동현 여산능(西安市 臨潼縣 驪山陵)에서 발견된 것을 복원해 놓은 것이다.

히 생매장되고 있다. 만리장성이나 도로 공사 등 여러 공사에도 죄수들은 물론 많은 농민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부역에 시달리고 중과세에 눌리어 천신만고의 희생자가 되었다.

다섯 번째는 영생(永生)을 노린 신선(神仙)사상이었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부터 신선설이 퍼지고 있었다. 동해에는 봉래산(蓬萊山)을 비롯하여 방장(方丈)·영주(瀛洲) 등 삼신산(三神山)이 있으며 거기에는 영생하는 신선(神仙)이 살고 있으며 또 불로 불사의 선약(仙藥)도 있어 그것을 먹은 사람은 불로 불사한다는 사상이었다.

특히 동해(황해)에 연해있던 제(齊)나라나 연(燕)나라는 그 사상의 발상지였다. 그것은 산동(山東)반도 지부(之罘) 부근에는 신기루가 자주 나타났으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을 퍼뜨려 더욱 파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사상을 닦고 연구하여 선약의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방사(方士)였다. 서복(徐福)이나 노생(盧生) 등은 바로 그런 방사로 알려졌던 것이다.

시황도 이 신선사상에 도취되었다. 그가 전국순행을 다섯 차례나 하고 신선사상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낭야 지역을 세 번이나 찾아 오래 묵은 것도 배경에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서복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연유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뒤에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방사를 비롯하여 사상가나 학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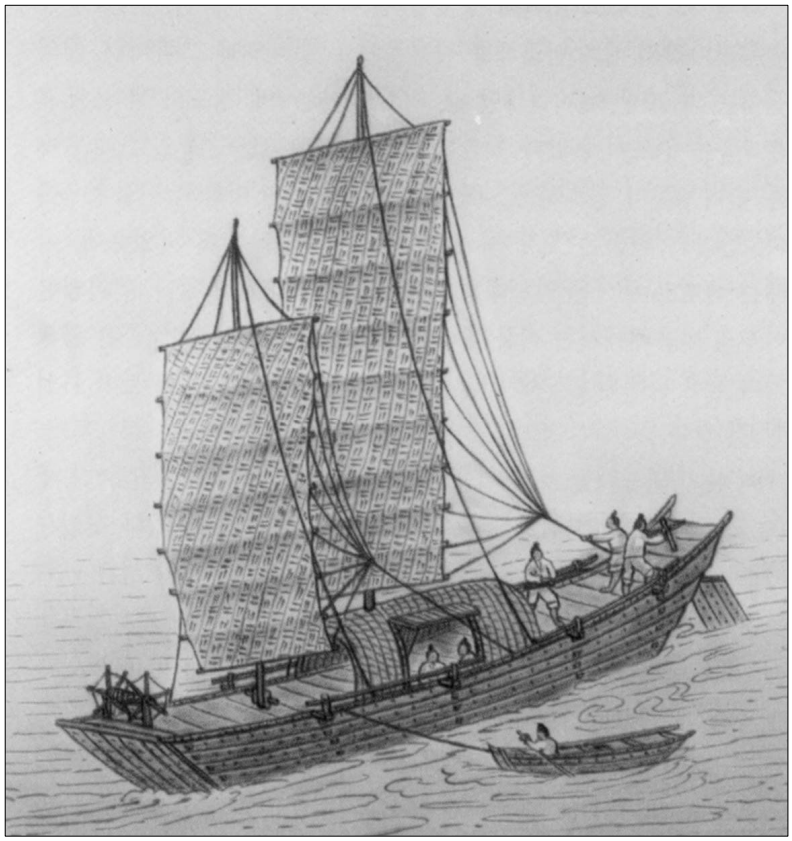
이처럼 시황은 진왕(秦王)에 오른 뒤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누구보다도 가혹한 폭정(暴政)을 폈다. 서복은 시황의 이런 측면을 충분히 꿰뚫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모든 사태의 추이에 대하여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47]

---

47) 司馬遷, ≪史記≫ 卷 6, 秦始皇本紀, 第6條.
曾先之著, 金光洲譯, ≪說話 中國史≫, 3卷, 29~38쪽.
三省出版社, ≪大世界의 歷史≫ 2卷, 130~134쪽.

Ⅳ. 서복선단(徐福船團)의 동도(東渡)

1. 의문에 가린 서복의 동도
2. 서복선단의 편성(編成)
3. 고대 조선(造船)과 항해(航海)
4. 서복선단의 출항지(出航地)
5. 서복선단의 항로(航路)



관아재 조영석(觀我齋 趙榮祏)의 출범도(出帆圖). 쌍돛대를 단 배로 길이 10발, 너비 3발반, 높이 2발 정도의 조선시대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조선으로 추정된다.

❶
의문에 가린 서복의 동도

앞에서 서복(徐福)과 시황(始皇)에 관하여 대충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의문을 지니면서도 불로 불사의 선약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서복은 과연 불로 불사약을 찾아 중국을 떠난 것인가. 그 의문은 바로 신비에 가린 서복의 비밀을 캐는 결정적 열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서복이 중국을 떠나게 된 배경과 진상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기로 하자.

먼저 사서(史書) 등의 기록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서복이 시황의 지시아래 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동남녀 등 수천을 거느리고 동도(東渡)하였다."는 기록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기・진시황본기(史記・秦始皇本紀)≫를 비롯하여 ≪해내십주・조주(海內十洲・祖洲)≫, ≪한서・교사지(漢書・郊祀志)≫, ≪후한서・동이열전(後漢書・東夷列傳)≫, ≪삼국지・오지・손권전(三國志・吳志・孫權傳)≫, ≪당・괄지지(唐・括地志)≫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은 대체로 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나간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태도들이다.

이 견해 가운데도 차이점은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서복이 자진

하여 시황의 허락을 받아 떠나느냐 아니면 시황으로부터 먼저 명령이 내리고 그를 받들어 떠나느냐의 두 가지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아직 의문이 남지만 이 문제는 다음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음 하나는 "서복이 시황을 처음부터 거짓 속여서 떠난다."는 기록이다. 바꿔 말하면 선약을 캐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탈출하기 위해서 선약을 팔고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정적 기록은 ≪사기·회남형산열전(史記·淮南衡山列傳)≫과 ≪한서·오피전(漢書·伍被傳)≫, ≪이태백전집(李太白全集)≫등에서 볼 수 있다.

다음에 ≪사기·회남형산열전(史記·淮南衡山列傳)≫에 나오는 기록을 들어보겠다.

> 서복(徐福)을 바다로 보내 신이(神異)한 것을 찾게 했습니다. 서복은 돌아와 거짓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이 바다 가운데서 대신(大神)을 만났는데 대신은 "너는 서황(西皇·서쪽의 황제, 始皇)의 사신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였더니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얻고자 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신은 "네가 모시고 있는 진왕(秦王)의 예물이 적으므로 그 약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하면서 신을 데리고 동남쪽으로 가 봉래산(蓬萊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초(芝草·靈芝)로 둘러 쌓인 궁궐이 있었고 사자(使者)가 있었는데 구릿빛으로 용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온 몸에서 발산하는 빛은 하늘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두 번 절하고 "어떤 물건을 바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해신(海神)은 "좋은 집안의 동남동녀(童男童女)와 오만가지 공작품을 바치면 약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 아뢌다. 시황은 매우 기뻐하여 좋은 집안의 동남동녀 3천명을 보내기로 하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곡식 종자와 오만가지 공인(工人)들을 딸려 출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서복은 넓은 들판과 강, 골짜기를 얻게 되자 그 곳에 머물러 왕이 되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48]

48) ≪史記≫ 卷118, <淮南衡山列傳>.

여기에 나온 말은 진나라가 멸망한 뒤인 한(漢)나라 효문제(孝文帝)때 오피(伍被)가 회남(淮南)의 려왕(厲王)에게 역사의 교훈으로 한 말이다. 이 때는 서복이 도해(渡海)한 지 아직 백년이 되기 이전이므로 거의 정확한 상황을 알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복이 시황이 선약을 탐내고 있음을 기화로 해외에 나가는데 필요한 많은 인원과 물자 등을 빼내고 있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것은 시황의 명령에 따라 선약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과는 처음부터 대립되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두 내용이 모두 서복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의성(故意性)을 부여하고 있는 점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선약을 구하지 못하여 처벌이 두려워 돌아오지 않았다는 설과 넓은 들판 넓은 늪지대 등을 얻을 수 있어 돌아오지 않았다는 설이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가 문책에 대한 도피(逃避) 목적이었든 아니면 망명(亡命) 목적의 성공이었든 간에 서복이 돌아오지 않는 결정은 두 내용이 모두 서복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서복의 도해(渡海)가 앞에서 제기되었던 것처럼 시황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되느냐 또는 서복의 진언에서부터 시작되느냐는 의문이다. 여기서 ≪한서·교사지(漢書·郊祀志)≫의 기록을 보면, "진(秦)의 시황제는 처음으로 천하통일의 대업을 성취하였으나 신선도(神仙道)에 마음을 빼앗겨 서복(徐福), 한경(韓經) 등에게 다수의 동남동녀를 딸리게 하여 바다에 파견하고 선인을 찾고 선약을 구하도록 명령했으나 그들은 도망쳐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49]

---

49) ≪漢書≫ 卷25, <郊祀志>.



「서복 동도도(徐福 東渡圖)」. 시황의 전송을 받고 서복이 하직 인사를 올리고 있다.

증선지(曾先之)의 ≪설화 중국사(說話 中國史)≫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시황은 전국을 순회할 차비를 갖추고 황궁을 떠났다. 농서(隴西)지방(甘肅省)을 순회하다가 계두산(鷄頭山)에 올랐는데 여기서 동남쪽에 서린 오색 광채가 은은한 서기(瑞氣)를 보았다. 시황이 이에 대해서 묻자, 송무기(宋無忌)가 대답하였다. "저것은 보통 구름이 아닙니다. 폐하와 같은 귀하신 분이 아니면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시황은 동국(東國) 순행(巡行)에 나섰다. 추역산(鄒嶧山・山東省)에 올라 그곳에 공덕비를 세우고 동악태산(東嶽太山)이라 봉한 다음 차고 있던 태아(太阿)보검을 산기슭에 묻고 환궁하였다. 또 하루는 동원의 현경전(顯慶殿)에서 쉬다가 요순(堯舜)의 후예로 풍패(豊沛)에서 태어났다는 어린아이가 "의병을 일으키고 함양(咸陽)에 들어가 400년의 기틀을 세우겠다."는 꿈을 꾸었다.

이 두 가지 일이 있은 뒤로 시황은 몹시 불안해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신하들에게 "진나라가 태평하려면 아무래도 짐이 오래 살아야 할 것 같소. 어떻게 해서든지 장생불사하는 약을 구할 수 없을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송무기(宋無忌)가 나서서 "동해 저편에 세 선산(仙山)이 있다고 합니다. 사시사철 봄같이 따뜻하고 추위나 더위도 모르며 날씨가 항상 맑고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 곳에는 장생불사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몇 천년, 몇 만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고 아뢌다. 시황은, "경이 그 선산을 본 일이 있는가" 하고 물었다. "방사(方士) 서복(徐福)이라는 자가 일찍이 동해 저편에 갔다가 봉래산에서 신선들이 학을 타고 노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 서복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바로 신의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황은 즉시 서복을 불러 들여 장생불사하는 약을 구하는 방도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서복은 천연스럽게 대답하기를, "그 약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 배 10척을 만들고 동남동녀 500명과 금은주옥, 식량, 의복 등을 신에게 주신다면 어김없이 구해 오겠습니다."고 하였다. 시황은 크게 기뻐하여 서복의 요구대로 마련해주니 서복은 곧 동



서복집단(徐福集團)이 도해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범선(帆船)의 상상도.

해를 향해 떠났다.

서복이 떠난 지 오랜 시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한 시황은 노생(盧生)을 시켜 서복이 간 곳을 알아오도록 하였다. 노생은 분부를 받고 해변에 나가 보았지만 망망 창해에 서복이 간 곳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갔다가는 벌을 받을 것이 두려웠으므로 그 길로 태악산(太岳山)에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어떤 노인으로부터 ≪천록비결(天籙秘訣)≫이란 책을 얻게 되었다. 거기에는 보통사람이 알 수 없는 과두문자로 역대의 변천과 생사 존망 등 운수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노생은 그 책을 가지고 함양에 돌아와 시황에게 바쳤다.[50]

이 기록은 물론 설화를 엮은 것이라고 하겠지만 시황이 먼저 선약을 찾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시황이 신선도에 빠지고 선약을 찾게 되었다는 기록은 비단 ≪한서(漢書)≫나 ≪중국사(中國史)≫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도 많은 기록에서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 여러 기록들을 놓고 볼 때 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많은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지만 여러 가지 불길한 징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고민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을 그는 도사들이 비방으로 풀어보려고 신선도에 관심을 쏟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복을 불러들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할 것이다.

서부촌(徐阜村)을 조사하면서 중국 조사단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것은 서복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 마을에 서복(徐福)의 후손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물론 그 많은 서씨(徐氏)조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다방면에 걸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단이 밝혀놓은 결과를 보면 거기엔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

50) 曾先之著, 金光洲譯 ≪說話 中國史≫ 3권, 30~34쪽.

서복은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여러 친척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나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선약을 찾아 동해(東海)의 먼 섬으로 길을 떠난다.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돌아올 수가 없고 그 때는 진(秦)황실이 그대로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와 관계 있는 서성(徐姓)은 정녕 보복을 당하여 멸문지화(滅門之禍)를 입을게 분명하다. 우리가 떠난 다음에는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도 고쳐 어떤 일이 있어도 서성(徐姓)을 내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51]

이 전설과 관련하여 나기상(羅其湘)교수는 이때 서복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불로불사의 약 같은 것은 처음부터 있을 턱이 없다. 약을 구해올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진시황의 명령을 거절하면 당장에 죽음을 모면할 길이 없다. 지금 진나라의 힘은 막강하며 날로 그 세력은 퍼져나가고 있다. 어디에 피하려고 해도 이 중국 대지 안에서는 살아 남을 공산이 없다. 시황제는 반드시 보복할 것이며 서씨 일족이나 관련자들은 모조리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다. 나는 많은 청소년들과 뜻을 지닌 젊은 사람들과 더불어 신천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다. 두 번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떠나고 나면 시황제는 어떤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우리 서씨 일족은 말살될 것이며 남은 자들은 잔혹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서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자손손 끝까지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참으로 딱한 운명에 놓이고 말았다.[52]

그는 이처럼 비장한 최후의 당부를 남기고 떠났다는 것이다. 그

51)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 虹棧 徐福≫, 30~31쪽.
52) 羅其湘・飯野孝宥, 앞의 책, 32쪽.

뒤로 누구도 서씨를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 마을에서 서씨는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최후의 유언설은 사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옛부터 이 마을에 전해져 왔다고 한다. 서복의 도해(渡海) 배경을 밝히는 데 있어서 주목할 만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이 유언과 관련하여 여러모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서복은 물론 집안식구나 가까운 친척들은 모두 대동하여 떠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친척들은 비록 성을 고쳤다 하더라도 과연 이 마을에 그대로 살았겠느냐 하는 것이다. 거의가 뿔뿔이 흩어져 피난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조사단이 서씨보(徐氏譜) 등 추적 끝에 밝혀낸 바로는 감유현 서서산향(西徐山鄕) 서강읍(徐康邑) 일대의 71대에서 73대에 이르는 후손들도 바로 이런 시련을 치르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예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음으로 연상시켜주는 것은 시황릉(始皇陵)의 발굴에서 드러난 유물이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병마용상(兵馬俑像)이 발굴된 현장에서 서쪽으로 많은 죄수들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거기에서 명문(銘文)이 새겨진 기와 한 장이 출토되었다. 그 기와에는 "감유거(贛楡距) 진유득(秦楡得)" (먼 감유에서부터 진에 징발되었다) 이란 글귀가 새겨 있었다. 그들은 공사가 끝나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무덤의 징표(徵標)로 숨겨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이 감유현에서 징발된 죄수였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들이 하필이면 서복의 고향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혹시 어떤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서복의 유언 가운데서도 직설(直說)은 없었다 할지라도 많은 암시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친척들에

게 자신이 떠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성(徐姓)을 감추도록 강조한 것은 그가 이미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은연중 암시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가 고향을 떠나면서 최후로 남긴 이 말이야말로 그의 진의(眞意)를 캘 수 있는 결정적인 증언(證言)이라고 할 것이다. 이 유언을 토대로 생각할 때 서복은 이미 출발을 앞두고 다시 고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을 스스로 굳게 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복이 고국을 떠나 동도(東渡)하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옛 사서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 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려 있다. 그 가운데는 불사약을 얻기 위하여 떠났다는 종래의 긍정론을 그대로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다.

후쿠나가(福永光司, 前京都大・東京大)교수는 바로 그런 입장을 지키고 있다. 그는 <서복(徐福)과 요시노가리 유적(吉野ヶ里 遺蹟)의 분구묘(墳丘墓)>에서 ≪사기(史記)≫를 토대로 문헌실증주의(文獻實證主義) 입장을 취하면서 서복에 관하여 다섯 가지 관점(觀點)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그 첫째는 서복이 기원전 3세기 진(秦)시대에 실재했던 인물이며,
> 둘째는 ≪사기(史記)≫의 기술처럼 낭야인(琅琊人)이라는 점인데 서복이 진시대에 낭야군 사람이라는 것은 뒤집을 근거가 없으며 의심의 여지도 없다.
> 셋째는 방사(方士)가 틀림없고,
> 넷째는 바다에 들어가 삼신산(三神山)의 선인으로부터 불사약을 얻어 시황제에 바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며,
> 다섯째가 그 약을 얻으려고 여러모로 노력하였지만 얻을 수가 없게 되자 해외로 망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53]

53) 福永光司 등, ≪徐福傳說を 探る≫, 195~199쪽.

이것은 한 마디로 지금까지의 전설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통설에 대하여 최근에는 비판과 부정적 시각을 지니는 학자들이 많아졌다. 그런 가운데는 서복(徐福)이 도해(渡海)사건을 처음부터 계획된 망명탈출(亡命脫出) 사건으로 보려는 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중국의 저명한 서복 연구가(徐福 硏究家) 왕향영(汪向榮)이 있다. 그는 일찍부터 서복 연구에 착수, 중국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서복 관계 글을 발표한 사람이다. 그는 <서복(徐福), 일본(日本)으로의 중국이민(中國移民)>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서복(徐福)의 행동목적은 시황제(始皇帝)의 가혹한 지배에서 도피하려는데 있었다. 시황제가 불로 불사의 약을 소원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정부의 지원을 얻고 동지와 노동자, 기술자들을 모집하여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획적인 해외이민(海外移民)을 하였던 것이다."54)

이 같은 견해는 작가 진순신(陳舜臣)의 글 <고대(古代)의 일중 왕환(日中 往還>에서도 볼 수 있다.

"진(秦)은 자칫하면 생명이 날아가는 엄벌주의 국가였다. 하나로부터 열 까지 모든 것이 통제되고 강제로 일관하였다. 그야말로 숨통이 막힐 지경이었다. 서복은 이런 나라에서는 도망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가는데는 돈이 필요했다. 그 조달방법을 그는 시황제로부터 얻어내려고 한 것이다. 시황제는 불로장생을 갈망하고 있으므로 그런 약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돈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위정자를 기만하게 된다. 서복에 대하여 풀리지 않는

54) 汪向榮 등, ≪徐福傳說を 探る≫, 227쪽.

의문은 바로 이 점이라고 하겠다. 여기에는 모험과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발각되면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황제가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구실을 짜낸 끝에 마침내 동남동녀 3천명을 거느리고 탈출, 일본을 찾아오게 된다."[55]

이 같은 입장은 처음부터 서복 스스로가 망명(亡命)을 기도하고 계획적 탈출을 감행한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망명 탈출 사건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입장이면서도 망명동기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두 가지 의견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지금 본 것과 같이 서복의 자의에 의해서 진(秦)의 가정(苛政)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아래 망명을 결심하고 시황을 기만 이용하여 탈출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사약을 구해오라는 시황제의 명령을 받고 나서 망명을 결심하게 된다는 견해다. 후자의 경우는 중국 조사단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얻어낸 결론이지만 학자들 가운데도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서복 연구가 이이노(飯野 孝宥)는 ≪야요이(彌生)의 홍잔(虹棧)≫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워 명백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복촌(徐福村)에 전해진 원한의 유언을 볼 때 서복이 황제를 피하려고 애쓸망정 자진해서 황제에게 접근, 그를 기만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불로 불사에 대한 시황의 간절한 욕망이 서복을 구원 불능한 환경에 몰아넣고 결국은 자신도 실현 불가능한 함정에 빠져 버리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어쨌든 이 사건은 먼저 저지른 장본인이 시황제였음이 분명하다."[56]

---

55) 陳舜臣 등, ≪徐福傳說を 探る≫, 184쪽.
56)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 虹棧 徐福≫, 113~114쪽.

지금까지 서복의 탈출사건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세상에 전해졌던 것처럼 시황의 명령을 받은 서복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나왔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자 돌아가지 않았다는 통설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비록 서복이 당시 유행했던 신선도(神仙道)를 믿는 방사(方士)였다 할지라도 실제 불사약을 얻고 돌아갈 수 있다고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몇 차례의 집단 망명사건이 있었지만 이 서복대선단(徐福 大船團)의 도해(渡海)도 중국조사단이 내렸던 결론처럼 포악한 진시황(秦始皇)의 압정(壓政)에서 벗어나 이상의 도원향(桃源鄕)을 찾으려는 민중의 집단탈출(集團脫出) 사건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다만 계획된 집단 탈출 사건이었다 할지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서복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 추진한 것이냐 또는 시황의 명령을 받은 뒤에 결행하게 된 것이냐는 점에 있어서는 좀 더 두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서복 망명(徐福 亡命)에 관하여는 이 같은 여러 설과는 달리 또 하나의 이설(異說)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서복의 망명을 시황(始皇)이 도왔거나 인지(認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다.

이런 견해는 일본의 일부 연구가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두 맥락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는 시황이 서복의 망명의도를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도해(渡海)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황은 중국을 통일하고 중앙집권 정부를 세웠지만 동해 너머의 지방에 대하여는 미지(未知)의 세계였다. 따라서 서복으로 하여금 탐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정보수집과 대비를 하

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합법적 추방설(追放說)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서복은 서왕가(徐王家)의 후예로 전통 깊은 명문의 출신이며 시황(始皇)과는 영성(嬴姓)으로부터 나온 동문이었지만 어떤 점에서는 더 정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서복은 국내에서 신망이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낭야를 중심으로 한 옛 제(齊)나라 지역에서는 강력한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황으로서는 눈엣가시처럼 신경 쓰이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시황이 먼저 추방명령을 내렸다고는 볼 수 없고 서복이 먼저 망명의사를 비추고 시황이 이를 허용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설이다.

이런 견해에 대하여 터무니없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버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는 뒷받침할 아무런 기록이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한낱 추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❷
서복선단의 편성(編成)

서복집단(徐福集團)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편성되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정설은 없다. 인원에 있어서도 적은 것은 5백명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로 3천명, 5천명, 수천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는 1만 여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고문헌에 등장하는 기록만 보아도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사기 진시황본기(史記 秦始皇本紀)

"더럽혀지지 않은 동남동녀 수천인을 서복에 딸려 바다로 보냈다."

② 사기 회남형산열전(史記 淮南衡山列傳)

"양가(良家)의 남자와 여자 3천인과 오곡의 종자 그리고 백공(百工)을 동반하여 떠나게 하였다."

③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

"사자(使者) 서복과 동남동녀 오백인을 누선(樓船)에 태워 떠나게 하였다."

④ 한서 교사지(漢書 郊祀志)

"서복, 한경(韓經) 등에게 다수의 동남동녀를 딸리게 하여 선약을 구

해오도록 바다로 파견하였다."

⑤ 한서 오피전(漢書 伍被傳)

"그들은 많은 진보(珍寶), 3천인의 동남동녀, 오곡의 종자 그리고 백공을 동반하여 떠났다."

⑥ 후한서 동이열전(後漢書 東夷列傳)

"방사 서복은 동남동녀 수천인을 거느리고 바다로 들어가 이주(夷洲)와 단주(澶洲)에 머물러 죄를 짓고 죽음이 두려워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대를 거듭하여 수만호에 이르렀다."

⑦ 삼국지 오지 손권전(三國志 吳志 孫權傳)

"단주는 해상에 있다. 장로(長老)가 전하는 말에 따르면 진시황이 동남동녀 수천인을 거느리게 하고 서복을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섬에 머물러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 그 뒤 대를 거듭하면서 수만호에 이르렀다. 섬사람들은 때때로 회계(會稽)를 찾아와 장사를 하기도 한다."

⑧ 괄지지 위왕태(括地志·魏王泰)

"단주는 동해 가운데 있다. 진시황이 서복과 동남동녀를 이 섬에 파견하였는데 그들은 섬에 머물고 돌아가지 않았다. 그 뒤 그들은 수만호로 불어났고 회계(會稽)에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⑨ 이태백 전집 고풍(李太白 全集 古風)

"서복은 시황을 속여 누선에 동남동녀들을 태우고 출발,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⑩ 의초육첩 일본조(義楚六帖 日本條)

"일본국 또는 왜국(倭國)이라고 하며 동해 너머에 있다. 진시대에 서복이 오백인의 동남과 오백인의 동녀를 거느리고 이 나라에 왔다. 지금도 그 자손들은 진씨(秦氏)로 통하고 있다."

⑪ 태평어람 외국기 저서인(太平御覽 外國記 紵嶼人)

"섬에는 많은 마(麻)가 자라고 3천여의 인가가 있다. 이들은 서복이 이끌고 온 동남동녀의 자손들이라고 한다."

⑫ 구양 문충공 전집 일본도가(歐陽 文忠公 全集 日本刀歌)

"이 나라는 큰 섬이며 토양은 비옥하다. 옛날 진인 서복이 거짓 약을 찾아 머물렀는데 거느리고 온 동자들은 모두 늙어버렸다. 그들은 백공과 오곡 종자 등 농경문화와 재보(財寶) 일체를 가지고 들어와 이 곳에서 살

았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은 지금도 모두 정교(精巧)하다."

위에 언급한 기록을 보면 ≪이태백 전집≫, ≪구양 문충공 전집≫ 등 전연 언급이 없는 특수한 예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물량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이 5백인 설인데 오직 ≪해내십주기≫한 기록에서만 볼 수 있다. 다음이 ≪의초육첩≫의 기록으로 동남 동녀 각각 5백인으로 1천명설이다. 전설에서는 흔히 등장하고 있는 5백명설이 문헌 기록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끈다.

그 밖에 ≪한서 교사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설이 있고 나머지는 ≪사기 회남형산열전≫, ≪한서 오피전≫, ≪태평어람≫의 3천인설 또는 3천여인설과 ≪사기 진시황본기≫, ≪후한서≫, ≪삼국지≫ 등 수천인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헌 기록에 나타난 인원수를 본다면 3천인설에서 수천인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57]

여기에 대하여 후쿠나가(福永光司・東京大)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사기(史記)의 기록을 보면 '3천인', '수천인'의 두 가지 표현이 있다. 여기서 3천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불특정 최대 다수를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수학적(산술적) 숫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히려 '수천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그는 또 5백인설에 대하여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57)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 虹棧 徐福≫, 75~86쪽.

"십주기(十洲記) 등에서 볼 수 있는 '5백인'은 그 뒤 3세기 이후의 자료로 역시 다수를 표현하는 관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사기의 '3천인'이나 '수천인'만큼도 신빙성을 지닐 수 없다."고 하였다.[58]

이같은 기록 문헌상의 물량과는 관계없이 민간에 전해온 전설에는 5백명설이 거의 지배적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수치는 중국에서도 그러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의 도래 전설에서도 '5백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역사적 사실보다는 전설적 의미가 더 컸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 수치와 관련하여 추상적인 수량이 아닌 구체적으로 적시된 수량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일본에서도 의문의 문서로 알려져 온 이른바 <미야시타 고문서(宮下 古文書)>[59]에서 볼 수 있다. 이 문서 가운데 일본의 7대 왕으로 알려진 고오레이(孝靈) 천황때의 기록에 서복이 이끌고 도래한 인원이 5백58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남독신자(男獨身者), 노여인(老女人), 유처(有妻)남자, 유부(有夫)여자, 미혼남자, 미혼여자, 동남동녀 등으로 구분되어 통계가 나오는가 하면 그 명단까지 밝혀놓고 있다.

이이노 다가히로(飯野孝宥)가 그의 저서 ≪야요이(彌生)의 일륜(日輪)≫에 인용한 이 고문서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세한 내용을 밝혀놓고 있다. 그에 따르면

---

58) 福永光司, <徐福と 吉野ヶ里 遺跡の 墳丘墓>, 小學館, ≪徐福傳說を 探る≫, 198~199쪽.

59) 아조산대신궁(阿祖山大神宮·富士大神宮)의 궁사(宮司)를 대대로 역임하고 있는 미야시타가(宮下家)가 보존해 온 고문서(古文書). 원본은 1282년(弘安 5) 대홍수로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미야시타(宮下源太夫義仁)가 처음 필사(筆寫)한 뒤 여러 차례 필사가 거듭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지고문서(富士古文書)로도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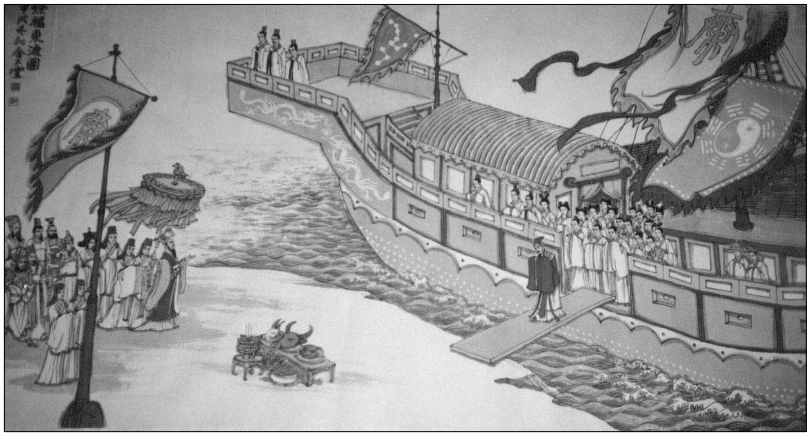
7대 고오레이천황때(기원전 218년) 진 서복이 일본에 내조(來朝)한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서복은 동방 보래산(寶萊山)에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초를 캐어올 수 있다고 시황제를 속여 대선(大船) 85척에 남녀 5백여인을 거느리고 또 금은, 사금동(砂金銅), 쌀, 소금, 기름, 5백인 이상의 식량 등 많은 물품을 싣고 중국을 출범했다. 그 뒤 그들은 3년 3개월 동안 여러 곳을 거쳐 7대 고오레이천황때 마침내 12척의 대선에 많은 물품을 실은 채 후지산(不二山)에 도달 정착하게 되었다.
>
> 이 때 대동한 사람을 보면 서복과 그 가족이 12명, 독신남자가 35명, 독신여자노인이 45명, 유처남자가 138명, 유부여자가 115명, 미혼남자 41명, 미혼여자 43명, 동남 51명, 동녀 48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합 5백 28명으로 되어 있다.[60]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들 명단이 모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때 도래자 모두 5백 58명이었다는 합계숫자에는 30명 가량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을 문제삼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때는 일본에는 아직 문자가 도입되기 이전의 일이었으며 비록 후대에 이르러 기록하여 놓았다 하더라도 그 때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기록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 미야시타 고문서는 1883년(明治 16) 셍겡신사(淺間神社)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일본 학계에서도 진위(眞僞)의 논란이 일고 있는 수수께끼의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고문서를 직접 조사해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이 기록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나기상(羅其湘) 교수는 "동남녀(童男女)가 5백명, 대

60) 飯野孝宥, ≪彌生の 日輪≫, 131~140쪽.



서복동도도(徐福東渡圖). 서복이 출범에 앞서 제를 지내고 마지막 떠날 차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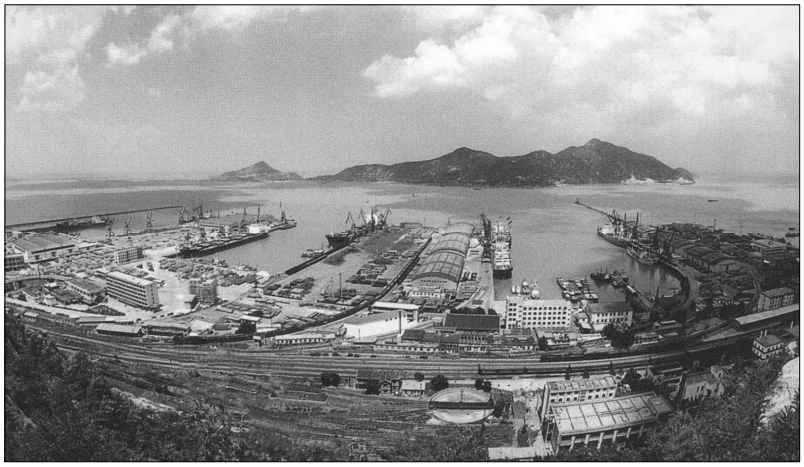
부분 서(徐)씨 친족이나 연고자들이었으며, 거의가 양가의 자녀들이었고 어린애들까지 섞여 있었으며, 이에 따른 종자(從者)를 포함하여 모두 3천명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 이 방면의 취재에 당했던 일인학자들은 중국 항해학회(中國 航海學會)의 조사자료 등을 토대로 '5천인'설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그 이유를 보면 동남녀 3천명에 1백 종류의 공인(工人), 3백인승 배 10척 이상의 선원과 경비원 등을 포함한다면 5천명 이상의 대선단(大船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뒷받침으로 진(秦)나라보다 200년이나 앞선 춘추(春秋)시대에 월(越)나라가 8천명의 병사를 산동(山東)반도로 파견하고 있는데 그 선단이 3백척이나 되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서복시대에 5천인 규모의 선단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61]

서복집단의 인원규모와 관련하여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왕승공(汪承恭·中國 連雲港市 徐福研究會 常務理事)의 논문이다. 그는 여느 학자들이 3천, 5천 또는 수천설을 내놓는 것과는 달리 1만 이상설을 시사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서기≫에 기재된 "오오징(應神) 천황 14년(기원전 2세기) 진인(秦人)이 도래하여 귀화(歸化)했다."는 기록은 서복이 동도한 시대와 완전히 부합된다. ≪일본성씨록(日本姓氏錄)≫에도 진민(秦民)이 각지에 흘러 들어와 천황(天皇·仁德天皇)이 수색 집계한 결과 1만 8천 7백 60인 이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진도쿠천황의 재위시기는 기원전 1세기이므로 서복이 동도한 때로부터 백년이 넘지 않는다. 서복 동도의 확실한 인원수는 고증이 되지 않지만 사적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동남녀만 수천에 이르렀고 또다시 백공(百工), 수수(水手), 선사자(善射

61) ≪歷史誕生≫ 3卷, 角川書店, 33~34쪽.



서복선단(徐福船團)의 출항지로 알려진 연운항(連雲港). 해주만(海州灣) 구산(朐山) 연안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저명한 교통항으로 알려져 있다.

者·武裝人員) 등이 포함되고 있어 적어도 1만인 이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진민 통계는 서복 동도의 인원수와 거의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62]

일본에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서복집단 말고도 상당한 도래인(渡來人)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도래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한 하니와라 가즈오(埴原和郞·東京大 名譽敎授) 교수에 따르면 야요이시대(B.C 300)부터 초기 역사시대(A.D 700)까지 천년동안 일본에는 1백만인 이상의 도래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는 인구 증가 모델과 두골(頭骨) 형태 변화 모델 등 두 가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놓고 조사한 결과 거의 같은 수치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죠몬(繩文) 후기에 인구는 16만 3백인에 이르렀으나 기후의 한랭화(寒冷化)에 따른 식량부족, 도래인에 따라 들어온 전염병 등으로 도리어 인구가 감소하여 말기에는 7만 5천 8백인으로 줄었다. 그 뒤 고분(古墳)시대 말부터 초기 역사시대에 인구는 539만 9천 8백인으로 증가했다. 전체 인구로 볼 때 5백만인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63]

수천이든 1만이든 어쨌거나 인원만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들이 신천지로 향한 영원한 망명이었다고 할 때 그 가재도구가 엄청났다고 할 것이다. 위의 문헌 기록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오곡종자, 대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취식할 식량, 금은보화, 더구나 백공이 지녀 있어야 할 기구, 재료 등도 고려한다면 그 물량은 오히려 사람 수를 넘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외양 항해에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누선(樓船)이 20~26m의 길이로 가정하더라도 평균 80인이 탑승하였다면 사람을 싣는

62) 汪承恭, ≪徐福の 故里の 發見と 考證≫, 58쪽.
63) 埴原和郞, <渡來人は 百萬人 規模>, ≪彌生の 使者 徐福≫, 90~91쪽.

데 만도 3천의 경우 38척, 5천이었다면 62척 이상의 배가 있어야 한다. 거기에 그 많은 화물과 식량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100척 이상의 대선단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대규모의 선단이었다면 어느 한 포구에서 일시에 출범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운항(連雲港) 주변 구산(朐山)연안 일대에서 때를 같이 하여 출범했다는 견해가 옳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❸

고대 조선(造船)과 항해(航海)

배는 언제부터 지구상에 나타나는가, 또 어떤 형태로 발달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 방면의 연구자들 사이에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의 등장을 2만 5천년이나 3만년 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선사시대부터 배가 등장했다는 데는 거의 이론(異論)이 없는 것 같다.

김재근(金在瑾, 전 서울大) 교수의 설에 따르면 초기의 배들은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나무토막, 발사(남미에서 산출되는 가벼운 나무의 일종), 통나무를 파내서 만든 통나무배(고선·刳船), 갈대나 대나무 같은 것을 묶어서 만든 뗏목(벌선·筏船), 수피(獸皮)나 목피(木皮)를 이용한 가죽배(피선·皮船)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배들 가운데는 에스키모인들의 카약(kayak)이나 아메리카 인디안들의 카누(canoe) 등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64]

---

64) 金在瑾, ≪배의 歷史≫, 18~29쪽.

고대 벽화나 분묘 출토 등 고고학 증명이 가능한 배들만 보아도 기원전 2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는 기원전 260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이집트의 돛을 단 목선, 무역선 등을 볼 수 있는데 이같은 배에는 수십명이 함께 타서 항해할 수 있는 훌륭한 배들로 나타나고 있다. 또 기원전 2000년에서 1500년에 이르는 중왕조 이후에는 멘헨크베트레(Mehenkvetre)의 유람선과 그에 따른 수행선, 사냥선, 어선, 취사선(炊事船), 운반선 등 여러 용도의 배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트셉수트(Hatshepsut)여왕(1501~1480 B.C)의 장제전(葬祭殿)은 그 광대한 3단 테라스와 석회암의 대열주(大列柱) 등 지금도 이집트의 호화(豪華)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남편인 투트모세 2세가 죽자 의붓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섭정을 맡아 사실상의 왕으로 군림하였으며, 푼트(소말리아)에 대상선단(大商船團)을 파견하는 등 고대 무역을 일으킨 여왕으로 유명하다. 여왕은 생전에 아멘신에 봉납한다는 명목으로 그 자신을 위한 대신전(大神殿)을 테베의 대안인 델 엘 바하리(Deir el-Bahari) 계곡에 건설했다. 이 때 여왕은 아스완의 돌산에서 오벨리스크(Obelisk)[65] 2개를 캐고 이를 가공하여 배로 나일강을 따라 테베에 운반해 오도록 하였다. 이 오벨리스크 한 개의 무게가 350톤, 길이가 100피트에 이르는 거석이었다. 그 2개의 무게만도 700톤에 이른다. 이때 배의 치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복원도(復元圖)가 작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길이가 200피트, 너비 80피트, 배 자체의 중량(輕荷重量)이 800톤에 이르렀으며 배 전체의 중량(排水量)은 1500톤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66]

---

65) 고대 이집트의 신전(神殿)이나 왕묘의 제전(祭殿) 앞에 세워 놓은 거대한 석주(石柱). 높이는 20m가 넘었으며 네모로 다듬고 상형문자(象形文字)로 왕의 업적 등을 각자(刻字)하여 놓았다. 방첨탑(方尖塔), 방첨비(方尖碑)

66) 金在瑾, 앞의 책, 40~43쪽.

이 밖에 기원전 1500년에서 700년에 이르는 동안 페니키아인들이 사용하였던 상선·군선·갤리선 등을 볼 수 있으며, 기원전 5세기 이후의 그리이스의 갤리선, 기원 1세기 이후의 로마의 갤리선·상선 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대의 조선이나 항해술을 본다면 유럽이나 지중해 연안 국가가 동아시아 지역보다 한 발 앞섰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아주 늦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중국 대륙에서도 춘추시대(春秋時代)인 기원전 6세기경에는 이미 수군(水軍)이 편성될 만큼 훌륭한 선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춘추좌전(春秋左傳)을 보면 기원전 518년 초(楚)나라가 수군(水軍)을 창설하여 오(吳)나라 국경을 친 것을 볼 수 있고, 기원전 506년 오나라 등에서도 초나라를 칠 때 회수(淮水)에서 수군을 동원했던 기록을 볼 수 있다. 기원전 504년에는 오나라 태자 종류(終纍)가 초나라의 수군을 패배시키고 초나라 수군 장수 반자신(潘子臣) 등을 사로잡은 기록, 기원전 485년에는 오나라의 대부 서승(徐承)이 수군을 이끌고 해로(海路)를 따라 제(齊)나라에 쳐들어가 제나라 군사를 격퇴시키고 돌아온 기록들을 볼 수 있다.[67]

이 무렵 오나라의 군선 크기를 볼 수 있는데 길이가 36.5m에 이르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3백척이 동원되고 8천인을 승선시켜 싸운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고대 항해학의 권위자인 모자이(茂在寅男·東京商船大) 교수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모자이 교수는 "위의 기록은 일반에서는 받아들여

67) 李錫浩譯, ≪春秋左傳≫下卷, 322~323쪽/429~430쪽/446~448쪽/556~558쪽.



감유현 서부촌 이웃에 해주만(海州灣)에 면해서 소왕방촌(小王坊村)이 있다. 이 일대에서 진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소(造船所)가 발견되었다.



진시대의 조선소 터에 세운 조선유지(造船遺址) 표지석.

지지 않고 있으나 나는 기록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승(分乘) 계산을 해보면 한 척에 26, 27인을 태웠다고 할 수 있다. (중략) 당시의 배에 관해서 ≪사기(史記)≫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부대(大部隊)의 방선(舫船) 즉 쌍동선(双胴船)에 각각 50인씩의 병사가 타고 3백리를 내려갔으며 식량운반선은 각 1척이 16톤반씩의 물건을 싣고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물량을 운반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위의 36.5m의 배가 범선(帆船)이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의 장크형 배였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68]

이 같은 기록으로 보아 중국대륙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조선(造船)이나 주운(舟運)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춘추·전국시대에는 대단위 수군이 편성될 만큼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기술은 물론 남방해양족(南方海洋族)으로부터 받은 영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도 가장 일찍 발달을 본 지방은 강남의 회계(會稽)지방과 동야(東冶)지방이었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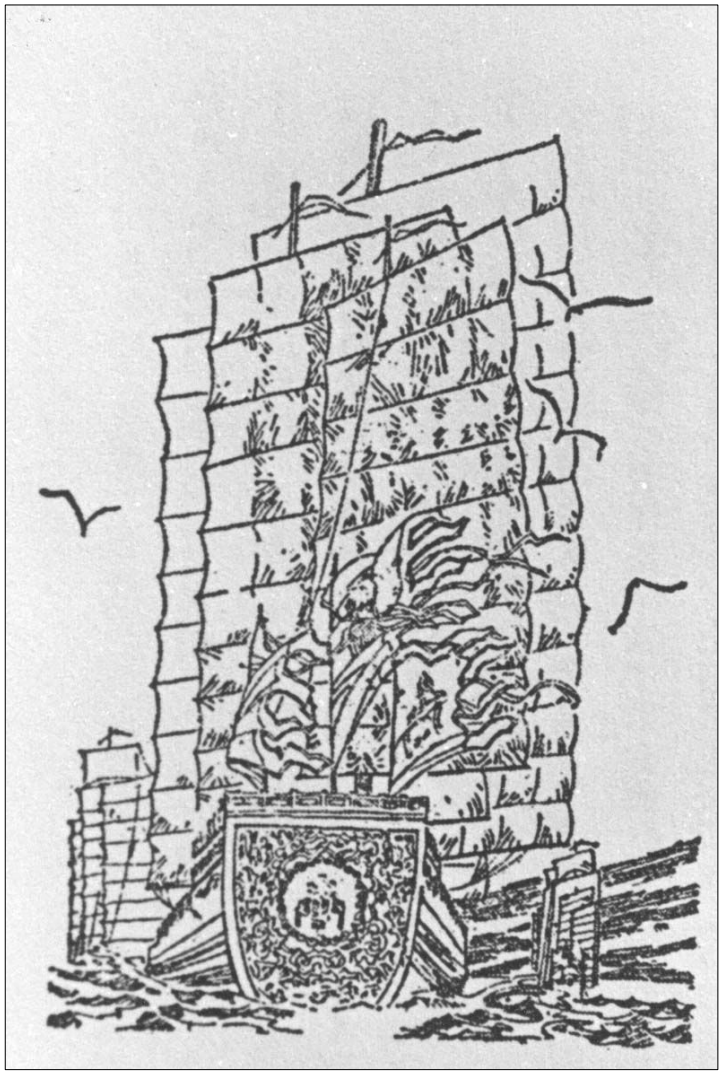
그 무렵 강남지방을 차지해 있던 오(吳)나라는 그 힘을 업어 강수(江水·揚子江) 남쪽에 강력한 수군(水軍)을 확보해 놓고 해로로 산동(山東)지방에 있던 제(齊)나라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극을 받은 제나라는 일찍부터 조선, 항해기술에 눈을 뜨고 기원전 5세기 중엽부터는 조선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시대 말엽에는 제나라의 수군이 발해만 일대를 항해하면서 싸운 기록들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제(齊)나라는 전국시대 말에 이미 상앗대(櫂)와 돛(帆), 키(舵)를 갖춘 누선(樓船)[69]을 개발해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국시대

---

68) 茂在寅男, <吳越の ころの 船>, 東アジア文化交流史研究會, ≪古代テクノポリスを 探る≫, 126~127쪽.

69) 누선(樓船) : 배 안에 2층 이상의 다락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이 기거할 수 있도록 한 배. 장기간에 걸쳐 외양(外洋) 항해가 가능한 배.



진한(秦漢)시대에 1백인 이상을 태울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누선도
(樓船圖)

에 자란 서복(徐福)은 어려서부터 그의 고향인 해주만(海州灣) 일대에서 배에 대한 지식을 익히며 살았다고 할 수 있다. 뒤에 그가 대선단을 조직하여 집단망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서복의 고향으로 알려진 감유현 서부촌 바로 이웃에 소왕방촌(小王坊村)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다. 서복의 출항지로도 알려져 있는 해주만에 면해 있는 이 마을에는 지금도 소규모의 조선소가 있지만 이 일대는 고대에도 조선장이 있었던 유적지로 알려져 있다. 이 일대 강유역에서 고대의 저목장(貯木場)터가 6개소나 발견되었으며 거기에서 탄화(炭化)한 목재들이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그 목재는 괴목(槐木) 등 3종이었으며 길이가 15m, 두께가 1m에 이르는 것들이었다. 그것을 탄화 측정해본 결과 2천년 이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목재는 사람이 쌓아놓은 형태로 나타났으며 금속으로 자르거나 밀었던 흔적도 나타나고 있어 선재(船材)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는 기원전에도 조선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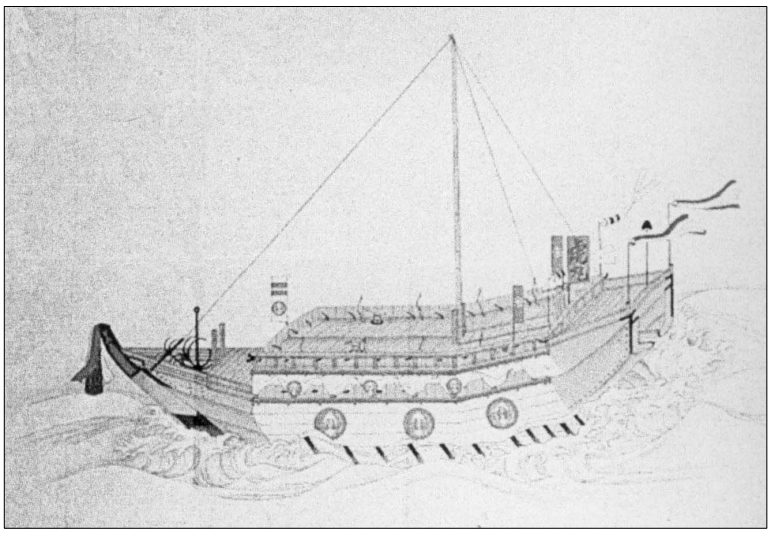
게다가 소왕방촌(小王坊村)은 예부터 서복의 조선장이 있었다고 전해져 온 사실도 있어 더욱 당시의 조선장 유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소왕방촌에 있는 조선소에서는 옛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조선 공법을 쓰고 중국 전통형의 목조선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길이가 15m 정도의 약 16톤 가량의 배라면 약 100명 정도는 승선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배라면 1년에 약 10척은 건조할 수 있으며 3년이면 3천명을 태울 수 있는 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당시에도 큰 것은 1백명 정도는 승선할 수 있는 누선(樓船)을 건

70) ≪歷史誕生≫ 3卷, 角川書店, 32~34쪽.



진시대의 누선(樓船). 이때의 누선은 대양 항해가 가능했다고 본다.



당시대의 군선(軍船) 상상도.

조하였을 것으로 본다. 갑판에 2층 구조로 된 선실이 있고 선창(船倉)에서 긴 노(櫓)가 돌출해 있으며 뒤켠으로는 범주(帆柱)가 서고 좌우현으로 여러 개의 상앗대가 있어서 풍력과 인력을 다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배였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서복은 어릴 적부터 바다에 대한 꿈을 키우며 자랐을 지도 모른다. 산동반도와 해주만에 연해 있던 제나라에서는 동해(東海·黃海)는 곧 로망의 세계였다. 거기엔 선인이 사는 삼신산(三神山)이 있고 불로 불사약이 있으며 평화와 행복의 유토피아가 있다. 특히 산동반도 연안에서는 신기루(蜃氣樓)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거기에는 산과 섬과 누각 등이 나타났다. 그것은 더욱 신선도를 믿고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촉매가 되었다.

또 한편으로 동해의 건너편에는 동이(東夷)의 나라 조선(朝鮮)이 있고 왜(倭·日本)가 있으며 거기엔 큰 강과 호수 넓은 들이 있어 풍



서복이 선약을 찾아 동도한 포구로 알려진 산동성 봉래시(山東省 蓬萊市)의 봉래각(蓬萊閣)

성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항상 따뜻하고 평화로운 낙토가 있다고 믿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를 거치고 진(秦)나라 독재시대에 이르는 동안 배를 얻어 해외(海外)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들이 모두 도해에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 가운데는 목적지에 도착하여 영구히 외국에 귀화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서복으로서는 고국인 제(齊)나라가 진(秦)에 의하여 멸망되고 시황의 공포 독재정치가 날로 심하여지자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동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서복의 망명을 처음부터 스스로가 계획, 추진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생각도 바로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할 것이다. 서복이 스스로 망명을 계획했든 혹은 시황으로부터 불사약을 구해오도록 명령을 받고 나서 결심했던 간에 서복은 일찍부터 바다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꿈을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❹

서복선단의 출항지(出航地)

서복선단(徐福船團)은 어디서 출항하였을까. 서복의 고향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지방이 대립돼 있지만 선단의 출항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지명이 오르내리고 있다. 다음에 중국 안에 퍼져있는 그 출항지설을 열거해보기로 하겠다.

① 하북성 진황도설(河北省 秦皇島說)
② 하북성 염산현 천동성설(河北省 塩山縣 千童城說)
③ 산동성 봉래설(山東省 蓬萊說)
④ 산동성 차산 소산도설(山東省 槎山 蘇山島說)
⑤ 산동성 황현설(山東省 黃縣說)
⑥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 서복도설(山東省 青島市 嶗山區 徐福島說)
⑦ 산동성 청도시 황도구 서산설(山東省 青島市 黃島區 徐山說)
⑧ 산동성 청도시 교남현 낭야대설(山東省 青島市 胶南縣 琅琊台說)
⑨ 강소성 연운항설(江蘇省 連雲港說)
⑩ 강소성 감유현 구산설(江蘇省 贛榆縣 朐山說)
⑪ 절강성 영파 주산설(浙江省 寧波 舟山說)
⑫ 광동성 광주 연해설(廣東省 廣州 沿海說)



서복선단(徐福船團)의 출항지(出航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지명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진은 낭야대 해주만에 면해서 세워진 출항 표지석.



산동성 용구시(山東省 龍口市)에 있는 「등영문유지(登瀛門遺址)」 표석. 이곳에서 서복이 동남녀를 거느리고 승선, 영주(瀛洲)로 떠났다고 전해지고 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북으로는 하북성 진황도부터 시작하여 남으로는 광동성 연해까지 거의 중국대륙 연안 전지역에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나기상(羅其湘) 교수팀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두 출항지설을 도출해 놓고 있다. 조사단은 서복 선단의 도해가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출항지도 각각 다른 지점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조사단이 밝혀 놓은 두 출항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첫 번째는 낭야군(琅琊郡) 서산(徐山·지금의 膠南縣)에서 출항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부지(青州府志)≫(16세기) 제성조(諸城條)를 보면, "시황제(始皇帝)는 불사약을 찾도록 동남동녀 수 천명과 함께 서불(徐市)을 이 산에서 바다로 내보냈다. 따라서 이 곳을 서산(徐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에는 "낭야군(琅琊郡)에 서산(徐山)이 있다"고 전제하고 ≪삼제기(三齊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서산(徐山)은 진(秦)의 시황제가 방사 서복(徐福)을 바다로 내보내 봉래(蓬萊), 방장산(方丈山)의 불사약을 찾아내도록 명령한 곳이다. 서복은 동남동녀 3천명을 이 곳에 모이도록 하여 떠났다.

≪수서·지리지(隨書·地理志)≫에는 "서산(徐山)은 산동제성현(山東諸城縣)의 남동 30리에 있다."고 위치를 밝히고 있다. 서산은 시황이 기원전 219년 순행 때 이곳에 이르러 "크게 기뻐하여 3개월 동안이나 체류하였다."는 곳으로 바로 전설의 땅 낭야대(琅琊台)의 산기슭에 있다. 이 아래는 석하(石河)의 하구가 있는데 항만이 넓고 수심이 깊으며 출항지로서는 매우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두 번째의 출항지는 해주만(海州灣) 연안 연운항(連雲港)에 가까운 구산(朐山)연안일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곳은 서복촌(徐福村)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준비를 위해서 장시일이 소요된다고 할 때 불가분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해주만은 1종충적니질(1種冲積泥質)의 넓은 퇴적층(堆積層)으로 수심이 낮은 해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심이 깊은 양항(良港)을 찾기가 어려운 곳이다. 조사단이 이번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일대를 답사하여 본 결과 해수면에서 5m 안팎의 해저에 신생대(新生代) 중·후기의 니질 퇴적층(泥質 堆積層)이 약 1m 두께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당시 해주만 해안선이 훨씬 서쪽 내륙지역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여 주는 것이었다. 아울러 그 때는 수심도 지금보다는 훨씬 깊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해주만 북단의 남산두(嵐山頭)와 남단의 구산(朐山·지금의 錦屛山) 욱주산(郁州山·지금의 雲臺山)일대가 진(秦) 시대에는 낭야대에 가까운 서산(徐山)과 함께 고루선(高樓船)이 출항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 분석되었다. 또 구산 일대는 북위(北緯) 35도(度) 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도상으로 볼 때 한반도(韓半島)의 남해안과 제주도(濟州島), 그리고 일본의 규슈(九州) 북해안과 혼슈(本州)의 서남해안과는 큰 차이가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71]

특히 조사단은 고대 항해에 가장 중요한 요건인 조류(潮流)와 바람에 대해서도 분석 검토하였다. 바람은 해주만과 남황해에서 겨울에는 서북계절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계절풍이 불어온다. 조류는 해주만을 원류로 하는 소북연안류(蘇北沿岸流·寒流), 대마난류(對馬暖

71) 羅其湘·汪承恭, <秦代東渡日本的徐福故址之發現考證>, ≪徐福研究十年≫, 南京大學出版社, 5~6쪽. /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 虹棧 徐福≫, 55~58쪽.

流), 황해난류(黃海暖流) 등 세 조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합류하면서 반봉폐성 선풍형환류(半封閉性 旋風型還流)가 되고 있다. 그 유속(流速)이나 유량(流量)은 계절에 별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밖에 황해하층에는 냉수단(冷水團)이 선풍형(旋風型) 해수밀도 환류(還流)가 되어 흐르고 있으나 표층을 흐르는 해류는 방향과 별로 차이가 없다. 해주만에는 이 상하의 두 해류가 서로 촉진 강화되면서 바닷물을 외양(外洋)으로 밀어내고 있다.

이 해류는 배를 동남으로 항진시키는 데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해류나 제주도를 거쳐 일본 규슈(九州)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때도 제(齊)나라의 선인(船人)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서복 역시 여기에 대한 지식을 얻고 분석 검토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72]

이번에 조사단의 결론으로 얻은 두 번의 출항지가 서산(徐山)과 구산(朐山)연안이었다고 하면 그 동안 가장 널리 알려졌던 낭야대설(琅琊台說)이나 연운항설(連雲港說)이 모두 터무니없는 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서산(徐山)은 바로 낭야대에 있고 구산 연안은 연운항(連雲港)과 붙어있기 때문이다.

위의 두 기항지설(起航地說)은 여러 설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하고 타당성을 지닌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여러 기록 문헌 등을 놓고 검토해볼 때 서복의 활동무대는 역시 낭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선단의 출항도 낭야를 크게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중국의 학자들도 대체로 이 일대의 기항설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반대 경향

72) 羅其湘・飯野孝宥, 앞의 책, 58~59쪽.



서복이 출항한 포구로 알려진 산동반도 황현(黃縣・지금의 龍口市) 기모도(屺姆島) 해안에 건립된 서복 석상.



진황도시(秦皇島市) 진황궁(秦皇宮) 입구에 건립된 오두마차를 탄 진시황군상(秦始皇群像).

은 주로 서복이 감유현(贛榆縣) 사람이 아니다는 논리에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서복의 고향으로 알려진 황현(黃縣·지금의 龍口市)이나 그 밖의 전승 연고지에서는 대체로 서복의 고향으로 믿고 있는 그들의 해역에서 출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동성(山東省) 사회과학연구원(社會科學硏究院)의 이영선(李永先)교수는 반드시 그런 차원만이 아닌 또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서복의 동도는 두 번에 걸쳐 있었다는 데는 생각을 같이하면서 출항지에 대해서는 위의 두 곳 가운데 낭야(琅琊) 서산설(徐山說)만 채택 동의하고 있다. 다른 한 곳은 해주만(海州灣) 연운항(連雲港) 대신 황현설(黃縣說)을 내세우고 있다.

다음에 출항지에 관한 그의 주장을 요약해 보겠다.

서복 동도에 관하여 낭야 서산과 황현 북쪽 해안(지금의 登州灣)에서 출항했다는 것은 ≪사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나온 여러 기록 문헌과 민간 전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산(徐山)은 지금의 청도시 황도구 신안향 동풍촌(靑島市 黃島區 辛安鄕 東風村)으로 서복이 동남동녀를 이끌고 선약을 찾아 바다로 들어간 곳이다. 서산은 전국시대때 제나라의 해상교통의 문호였으며 그 남쪽으로 낭야군 관아가 있었다. 서산은 교주만(膠州灣) 서안에 위치하고 물이 깊고 파도가 잔잔하여 대형 선박의 정박이 편리했다.

여기가 지난날 춘추시대 말엽에 제나라와 오나라가 해상 대전을 벌였던 해역이다. 낭야만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 제당도(齊堂島)와 목관도(沐官島)라고 부른다. 두 섬이 모두 서복이 동남녀를 이끌고 와서 목욕재계한 후 동도했다는 섬이다.

≪즉묵현지(卽墨縣志)≫와 ≪교오지(膠奧志)≫에 보면 즉묵성(卽墨城) 동남쪽 50리에 서복도(徐福島)가 있다고 했다. 이곳은 서복이 선약을 찾아 동도하기에 앞서 동남동녀를 훈련시켜 입해(入海) 준비 작업을 했던 곳이다. 진한때는 여기가 낭야군에 속했으며 바다를 건너 서산 동서를

마주 볼 수 있다. 섬에서 가장 가까운 뭍에 등영촌(登瀛村)이 있는데 서복이 여기서 동남녀를 거느리고 승선하여 영주를 찾아 떠났다고 하여 「등영촌(登瀛村)」이란 이름이 생겼다.

서산과 서복도의 거리는 멀지 않아 승선하고 해상 연락을 하면 결코 먼 거리가 아니다. 서복의 거느린 수천명의 인원은 서복도와 등영촌에서도 활동했고 낭야 서산에서도 활동했다. 서복의 수천 인원의 훈련과 그들이 탈 배를 만드는데는 여러 장소가 필요한데 이 몇 곳은 전체의 일부분뿐이었으며 모두 서복의 동도 전의 활동 장소가 되었다.[73]

위에서 본 것처럼 이영선 교수는 낭야 서산설에는 적극 찬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 논증까지 제시하며 출항지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가지 해주만 연운항 구산설(海州灣 連雲港 朐山說)에 관해서는 서복의 고향이 감유(贛楡)라는 관점에서 나온 설이며 논증도 불합리하다고 하여 부정해버리고 있다. 그 논거로 ≪사기≫에는 어디에도 감유 출항설이 없음을 지적하고 진황도(秦皇島)의 유적도 전설상의 유적이라고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역사상에 나타나는 입해처(入海處) 두 곳 가운데 다른 한 곳을 산동반도(山東半島) 황현(黃縣·지금의 龍口市)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동래군 서향(東萊郡 徐鄕)이 서복의 구선(求仙)과 관련하여 생겨난 이름임을 들어 서복의 고향은 서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황현(黃縣) 출항설(出航說)을 내세우고 있다. 그의 주장을 다음에 요약해 보기로 하겠다.

서복의 두 번째 동도는 황현 고향에서 출발했다. 서복은 동래군 서향현(東萊郡 徐鄕縣) 사람이다.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에 동래군 서향현이 기록돼 있는데 원인(元人) 우흠(于欽)이 ≪제승(齊乘)≫에서 "서

73) 李永先, <徐福東渡起航港及航績考辨>, ≪徐福文化集成 卷2≫, 35~36쪽.
李永先, <徐福東渡時의 출항항구 및 항로 연구 분석>, ≪서불과지≫, 351~352쪽.

향은 서복의 구선(求仙)으로 인하여 지어진 이름이다."고 유래를 밝히고 있다. 이 곳에는 옛 성지(城址)가 있었는데 최근 지하에서 한나라때 벽돌 기와 등이 출토되면서 옛 서향성 위치임이 증명되었다.

서복은 황현 북쪽 해안에서 동도했는데 여기가 바로 나중의 등주만(登州灣)이다. 봉래현 및 등주는 당대(唐代)에 설치했으며 진 시대에는 황현에 속했다. 뒷날 한무제(漢武帝)는 이곳에서 바다에 있는 봉래를 바라보고 성을 쌓아서 봉래성이라고 이름지었다. 그리고 무제는 이 등주만에서 5만의 병력을 조선으로 파견하였는데 진시황때 어찌 3천의 동남녀가 동도할 수 없겠는가고 지적하고 있다.[74]

이 밖에도 서복의 출항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여러 지역이 있다. 그런 가운데 고문헌에 등장하고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몇 곳을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사기·진시황본기≫에 보면 시황 32년(215) 시황이 갈석(碣石)을 찾아 각석(刻石)하는 한편 연인(燕人) 노생(盧生)으로 하여금 선인(仙人) 고서(高誓)를 찾아오도록 한 기록이 나온다. 또 여기서 한종(韓終·衆) 후공(侯公·侯生) 석생(石生)에게도 선인을 찾아 불사약을 구해오도록 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이 갈석이 지금 하북성 진황도시(河北省 秦皇島市)로 밝혀지고 있으며 그 곳 금산(金山)이 시황의 각석이 있었던 터로 알려지고 있다. 진황도 서쪽에 있는 창여현(昌黎縣)에는 갈석산(碣石山)이 있으며 동북 30리에 있는 수중(綏中)에는 진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황제 행궁지(行宮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곳은 노생(盧生)이 시황의 명령을 받고 바다로 나갔다가 진록도서(秦錄圖書)[75]를 구해왔다는 유명한

74) 李永先, 앞의 책, ≪徐福文化集成 2卷≫ 36~37쪽.
李永先, 앞의 책, ≪서불과지≫ 353~354쪽.

75) 노생(盧生)이 바다로 나갔다가 선약대신 알 수 없는 은사(隱士)로부터 진나라의 앞날을 예언한 도서를 가지고 돌아와 시황에게 바쳤다. 그 책 속에는 "진을 망하게 할 자는 호다(亡秦者 胡也)"는 글귀가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시황은 북방

의 호족(胡族)이 쳐들어올 것으로 알고 만리장성까지 쌓았다. 그러나 진나라는 시황이 죽은 뒤 그의 둘째 아들 호해(胡亥)의 실정으로 망하게 된다.

전설의 땅이기도 하다.

그런데 진황도가 서복이 선약을 찾아 들어간 입해처(入海處)로도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기≫의 기록에는 위에서 본 것처럼 노생・한종 등 여러 방사(方士) 이름이 오르고 있으나 서복의 이름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열선전(列仙傳)>등 다른 기록이나 이 방면의 연구자들의 글에서는 서복의 이름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76]

지금 이 진황도시 구선입해처(求仙入海處)에는 사적공원으로 조성되어 진시황상(秦始皇像)을 비롯 옛 행궁지가 복원되고 있다.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산해관(山海關)이 바로 시 동쪽 경내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명소가 있다. 또 남쪽으로 발해(渤海)에 면하여 넓은 바다가 트여 천연의 양항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수욕장을 낀 황금해안을 이루고 있어 관광지로도 이름이 높다.

다음 서복이 동남녀 천동(千童)을 모집 집결시켜 놓았다는 천동성(千童城)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하북성(河北省) 동남쪽 산동성(山東省) 경계 가까이에 발해만에 면해서 황화현(黃驊縣)이 있고 그 남쪽으로 염산현(塩山縣)이 있다. 이 염산현 구현진(舊縣鎭)에 천동성이 있고 황화현에는 묘혜성(卯兮城)이 있다.

이 일대는 지도로 보면 알 수 있듯이 발해 연안에 면한 화북(華北) 평야의 중심지로서 춘추전국시대 이래 연・제문화(燕・齊文化)가 일어나고 농업문화가 일어나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신선사상도 이 일대에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제기(齊紀)≫, ≪원화군현도지(元和郡

---

76) 孫志升・高知然, <碣石, 秦皇求仙与徐福集團東渡>, ≪秦皇求仙・徐福東渡・秦皇島≫, 28~32쪽. / 謝煜, <秦皇与求仙>, ≪秦皇求仙・徐福東渡・秦皇島≫, 58~61쪽.
謝煜, <秦代方士在碣石>, ≪徐福千童研究集≫117~124쪽.
楊斌, ≪徐福東渡之謎≫, 36쪽.



진황도시에 복원된 진황궁(秦皇宮).

縣圖志)≫등에 보면 "천동성은 진시황이 서복과 동남녀 수천인을 바다로 내보내 불사약을 구해오려고 이 곳에 성을 쌓아 살게 하였다. 뒤에 한나라때 이 곳에 현(縣)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77] 이 기록으로 볼 때 진나라때 처음으로 이 곳에 천동성이 생겼으며 한나라때는 이 곳을 천동현으로 불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천동성에 대해서 밝혀진 것을 보면 성의 규모는 동서로 4리, 남북으로 3리에 이르고 동서남북 사조대가(四條大街)가 조성되었던 큰 거리와 대전지(大殿址), 탑지(塔址), 비(碑), 용골정(龍骨井) 터 등이 발견되었으며 진나라때의 전돌 기와 등이 출토되고 노궤(弩机) 전촉(箭鏃) 고전(古錢) 등도 다수 출토되었다.

그리하여 중국 학자들은 이 곳에 동남녀 수천이 집결 거주하였을

77) 鄭一民 主編, ≪中國 千童城 國際學術硏討會 論文集≫, 13·21·26쪽.
鄭一民 主編, ≪徐福 千童 硏究集≫, 73~75쪽/82쪽.

뿐 아니라 조선과 동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조 조달하였을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78]

78) 張吉忠, <千童東渡遺跡考>, ≪中國 千童城 國際學術硏討會 論文集≫, 5~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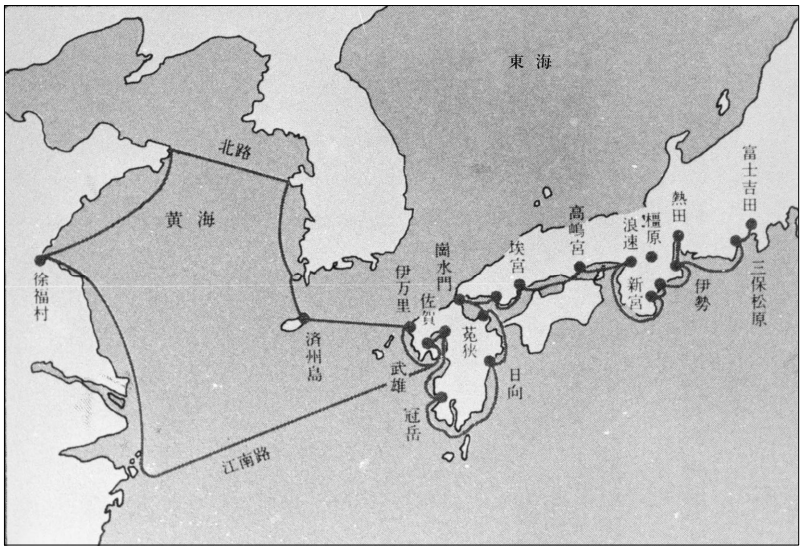
❺
서복선단의 항로(航路)

서복(徐福) 선단의 두 번에 걸친 출범지에 대하여 주로 중국 학자들의 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 그들의 출항시기는 언제였으며 그 항로(航路)는 어떤 루트를 거쳤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고대 항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람과 조류(潮流)였다고 할 수 있다. 추진기관(推進機關)이 없던 시대, 돛(帆)이나 노(櫓)를 저어 넓은 바다를 건넜다고 하면 배를 추진시켜줄 바람이나 조류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서복선단이 중국을 떠나 황해(黃海)를 횡단하고 한반도나 일본열도에 이르렀다고 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조류나 계절풍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황해(黃海)의 경우 진한(秦漢)시대에는 기후가 매우 온난하였으며 해상에는 부드러운 계절풍이 부는 다시 없이 평안한 시기였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는 동북 중국대륙에서 한랭한 공기를 일으키는 북 또는 서북계절풍이 불었다고 할 수 있으며, 여름에는 남태평양의 뜨거운 공기가 일으키는 남 또는 동남계절풍이 불었다고 할 것이다.



서복선단(徐福船團)의 항로(航路) 예상도.

조류의 경우 황해에는 해주만(海州灣)을 기점으로 하는 한류(寒流)인 소북연안류(蘇北沿岸流)가 흐르고 황해난류(黃海暖流), 쓰시마난류(對馬暖流) 등 세 개의 조류가 합류하여 한 가닥의 반봉폐성선풍형환류(半封閉性旋風型還流)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유속(流速)이나 유량(流量)도 계절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황해의 하층에는 선풍형해수밀도환류(旋風型海水密度還流)가 되어 흐르는 냉수단(冷水団)이 있는데 이것도 표층에 흐르는 해류와 방향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상하 두 개의 해류가 서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면서 흐르고 있는데 모두 동쪽 방향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황해의 조류는 중국을 떠나 한반도 남부나 일본으로 가는 데는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복선단의 동도 항로에 대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은 대체로 이 같은 조류나 바람을 바탕으로 분석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방면을 연구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해양학의 권위자 모자이(茂在寅男, 東京商船大學 명예교수)가 일·중(日·中) 합동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 첫째로 죠몬(繩文) 말기의 시대에 일·중(日·中)간 해상(海上)교통이 가능하였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는 의문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생각할 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그 가능성을 사서의 기록, 고대의 벽화, 고선(古船)의 유물, 선박의 구조·성능, 풍향·해류의 방향 등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해류와 풍향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 근해의 해류는 타이완(臺灣)방면으로부터 북동방향으로 흐르는 구로시오(黑潮)해류가 강하기 때문에 일중(日中)교류에는 이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서쪽은 북동방향으로 흐르고 대부분은 규슈(九州) 남안을 씻으며 북동으로 진출하지만 일부는 규슈의 서쪽을 북진하는 쓰시마(對馬)해류가 된다. 구로시오(黑潮) 외에 북방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향하여 흐르는 한류(寒流)가 있지만 이것은 일중(日中)의 해상교통에는 영향이 없다.

풍향은 여름에는 남풍(南風), 겨울은 북서풍(北西風)이 부는 일중(日中)항해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다. 여름에는 북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북로(北路)를 거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된다. 그리하여 제주도(濟州島)를 거치고 규슈북쪽에 도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겨울에는 북풍이 불기 때문에 산동반도를 출항하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밀리게 된다. 그리하여 남쪽 장강(長江・揚子江)하구쯤에 이르면 후풍(候風)하다가 남풍을 만나 쉽게 일본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른바 남로(南路)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계절에 따라서 북로를 통하든가 남로를 통하는 루트를 생각할 수 있다.[79]

이에 대하여 나이토 다이스케(內藤大典, 東北아시아文化交流史연구회)는 ≪서복(徐福)은 야요이문화(彌生文化)를 이끌어왔는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출항시기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는 대체로 사서나 중국 학자들이 선단의 출항이 두 번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반하여 서부촌(徐阜村)에서의 취재를 근거로 세 번의 출항설을 내놓고 있다. 서복의 고향으로 알려진 서부촌에서는 서복이 음력 2월 19일, 6월 19일, 10월 19일 등 세 번에 걸쳐 출항했던 것으로 전해져 있고 그 날은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같은 일시를 바탕으로 출항시기를 태양력(太陽曆)으로 환산해

79) 茂在寅男, <繩文・彌生時代の 日中交流の 船と 航海>, ≪徐福傳說を 探る≫, 243~244쪽.
茂在寅男, <繩文・彌生時代の 日中交流の 船と 航海>, ≪彌生の 使者 徐福≫, 44~46쪽.

놓고 그에 적합한 항로를 [별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동도시기와 가능한 항로

출항시기		서부촌(徐阜村) 전설 항로	나이토(內藤大典) 추정 항로
태음력	태양력 환산		
2월 19일	4월 중순 이후	북로(北路), 남로(南路)	·
6월 19일	8월 이후	북로(北路)	북로(北路), 요동로(遼東路)
10월 19일	12월 이후	남로(南路)	북로(北路), 요동로(遼東路), 강남로(江南路)

그에 따르면 첫 번째 4월 출항하는 북로(北路)와 요동로(遼東路)는 안전하고 용이하게 생각되지만 여름철의 이 두 코스로 한반도의 서안을 남하한다는 것은 역풍인 동시에 해류 역시 역류여서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또 강남로(江南路)도 연안해류가 역류하고 있어서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두 번째 8월 출항은 북로(北路)나 요동로(遼東路)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서복촌에 전승된 말을 들으면 이것 역시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째의 12월 출항은 "그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성공하였다고 보는데 그는 대륙연안을 따르는 강남로(江南路)가 가장 확실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겨울 2월까지 불어오는 북풍이나 서북풍을 등져 연안류를 타고 해주만(海州灣)으로부터 영파항(寧波港)까지 남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여기서 후풍하여 봄 첫 번째 불어오는 편서풍(偏西風)을 등에 지고 구로시오(黑潮・對馬海流)를 타면 규슈서안에 이르고 아리아케해(有明海)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혹이면 3코스로 나누어 동도 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여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80]

이 같은 세 항로설에 대하여 중국 나기상(羅其湘) 교수팀은 북로(北路)와 남로(南路) 두 항로를 내세우고 있다. 나교수팀이 분석해놓은 것을 보면 북로(北路)는 남산두 자왕구(嵐山頭 柘汪口) 또는 구산(朐山) 부근을 기항지(起航地)로 하며 이 경우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의 남서기류(氣流), 즉 남서풍으로 알려진 계절풍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항로에 따르면 해주만 남산두 또는 연운항(連雲港) 부근으로부터 출항, 산동(山東)반도 성산두(成山頭) → 한반도서해안 → 제주도(濟州島) → 쓰시마해협(對馬海峽) → 규슈・아리아케해(九州・有明海) → 오오수미해협(大隅海峽) 경로를 따라 일본 혼슈(本州) 기이(紀伊)반도 쿠마노나다(熊野灘)에 이르는 코스다.

남로(南路)는 고구산(古朐山・連雲港) 또는 남산두・자왕구(嵐山頭・柘汪口)부근으로부터 출항하는 것으로 이 때에는 주로 겨울에서 봄에 걸쳐 불어오는 강한 북으로부터의 기류, 북풍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소북(蘇北)연안류(한류)와 황해 하층을 흐르는 밀도환류(密度還流)에 편승하여 진출하는 것이다.

이 항로는 고구산(古朐山)연안으로부터 출항하여 먼저 황해연안류를 타고 북에서 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소북외해(蘇北外海)로 나가 황해난류(黃海暖流)를 타고 남에서 북으로 방향을 바꾸어 진출, 일본 규슈・아리아케해(九州・有明海) → 오오수미(大隅)해협 → 일본 혼슈

80) 內藤大典, <徐福は 彌生文化を もたらしたか>, ≪日本文化起源論≫, 64~65쪽.
內藤大典, ≪徐福學 新考≫, 12~13쪽.

(本州) 기이(紀伊)반도 쿠마노나다(熊野灘)에 이르는 방법이다.[81]

이 보다 앞서 서복의 항적(航跡)을 조사하였던 대만(臺灣)의 팽쌍송(彭雙松・≪서복연구(徐福研究)≫의 저자)은 서복의 항로를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 서복선단은 먼저 중국 산동성 낭야(山東省 琅琊)를 출발하여 황해를 횡단하고 한반도 남서부 해안(木浦부근)에 도달하였다. 다시 제주도(濟州島)를 거쳐 일본 규슈(九州) 북부 사가현 이마리(佐賀縣 伊萬里)에 상륙하였다. 이마리(伊萬里)에는 지금도 하타쓰(秦津・秦의 포구)라는 지명이 남아 있다. 약 1천㎞를 항해한 것이다. 대체로 북로(北路)에 해당하는 루트라고 하겠다.[82]

이 세 항로를 놓고 볼 때 팽쌍송(彭雙松)이 북로(北路) 한 코스를 내세우고 있는데 반하여 나이토(內藤大典)는 가능성이 높은 세 코스를 제시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항로로 강남로(江南路・南路)를 주장하고 있다. 모자이(茂在寅男)와 나기상(羅其湘) 교수팀의 경우는 북로(北路)와 남로(南路) 두 코스가 모두 가능성이 있는 항로로 꼽으면서 어느 한 코스로 한정시키지 않고 있다.

서복선단이 어떤 항로로 일본에 망명하였느냐에 관해서는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 없는 이상 모두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풍향이나 해류 등을 토대로 가능성이 있는 항로가 둘 이상 나타나고 있으므로 더욱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보다 큰 관심은 과연 서복선단이 제주도(濟州島)를 거쳐갔느냐 하는데 있다. 팽쌍송(彭雙松), 나기상(羅其湘), 모자이(茂在)교수 등 거의가 제주도 기착설(寄着說)을 인정하고 있는데 주목하

---

81)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虹棧 徐福≫, 59~60쪽.
82) 茂在寅男, ≪船と 古代日本≫, 109~111쪽.

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남로(南路)를 주장하는 나이토(內藤)도 서복선단이 제주도에 기착(寄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북로(北路)의 경우는 제주도를 거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복을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복선단이 규슈(九州)에 상륙하기 이전에 제주도에 기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라고 하겠다.

이이노 다카히로(飯野孝宥)는 그의 저서 ≪야요이(彌生)의 홍잔(虹棧)≫에서 선단이 제주도를 중계지로 한 것은 거의 명백하다고 전제하면서 대략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 많은 소년소녀를 이끌고 떠난 해로(海路)였으므로 당연히 보급을 위한 중계지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위치나 거리로 보아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한국의 제주도(濟州島)는 제1의 후보지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섬에 연구의 손길을 뻗게 되었다. 제주도는 아름다운 화산도(火山島)로 서복일행이 동도하면 반드시 통과하리라고 생각되는 위치에 있으며 대한해협·제주해협·쓰시마(對馬)해협의 세 해상교통이 겹치는 중요한 지점에 있다.
>
> 우선 섬 이름부터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濟)」는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유래는 물 건널 「도(渡)」(濟度)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齊)」 자에 「氵」이 붙여진 것으로 보아 제(齊)나라와 깊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주(州)」는 고을 또는 섬이다. 제주는 옛 이름을 「영주(瀛洲)」라고 하였다. 한라산(漢拏山)을 영주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곧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바로 삼신산이 있는 한 고을 또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서복(徐福)의 선조는 원래 영성(嬴姓)이었다. 영성(嬴姓)과 영주도 뭔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
> 이 섬에는 '서불(徐市)이 이곳을 지나다'는 「서불과차(徐市過此)」의 각서(刻書)와 함께 서복의 기착에 관한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해주(海州)만을 출항한 선단이 이 제주도에 배를 대고 얼마동안 휴식하면서 필요한 보급품을 조달하고 다음 항행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각서(刻書)와 함께 여러 지명(地名)도 남기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83]

이 밖에도 그는 서복과의 관련을 여러모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더 언급할 수가 없다.

서복선단이 전부 또는 일부의 제주도 기착설은 제주도의 지리적 위치, 풍향과 해류조건, 선단의 규모로 보아 분산가능성, 중간보급 또는 정비의 필요성, 도내의 유적·유물, 그리고 전설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 거의 추정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삼한(三韓) 시대에 진한(辰韓) 땅에 망명한 진인(秦人)들의 집단사회가 형성돼 있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그들이 바로 서복(徐福)집단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아직 그것을 뒷받침 할만한 충분한 자료나 전거(典據)가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 열도의 경우는 서복 집단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있고, 또 연구 조사도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연구결과로 보아서는 그들 일행가운데 주류를 이룬 집단은 일본으로 건너갔을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 선단은 항해도중 적잖은 이산자(離散者)들이 생겨났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진한의 망명집단 가운데 서복 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일이다.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숙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 이산자들은 한반도나 일본열도에만 흩어졌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에드윈 드란 주니어(Edwin dran Jr.)교수는 1968년 미국 고고학회(考古學會) 전국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

83)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虹棧 徐福≫, 180~184쪽.

> 기원전 219년 서복(徐福) 집단은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3천명의 남녀와 더불어 동해로 떠나 두 번 다시 중국에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적어도 그들 가운데 일부는 미대륙(美大陸)까지도 도달하였을 가능성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일본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한편 에콰도르(태평양에 면한 남미 서북부에 위치한 나라) 발디비아 유적에서 전한(前漢)시대 이전의 특징을 갖춘 출토물이 발견된 사실은 그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그런 추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84]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항해학자 모자이 교수(茂在寅男・東海大)는 그의 논문 ≪배(船)와 고대일본(古代日本)≫에서 다음과 같이 논급하고 있다.

> 남녀 3천명을 태운 선대(船隊)라고 하면 대단한 선박조직이 아닐 수 없다. 그 일부는 일본 본토에 상륙하였다고 보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하치조오지마(八丈島) 등 여러 섬에 흩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일부는 구로시오(黑潮)・캘리포니아 해류 등으로 구성되는 시계방향의 연속 해류군을 만나 태평양 환류(還流)를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나는 그들이 미대륙에까지 도달하였다는 설에 대하여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85]

이 두 교수의 견해는 서복이 이끌고 나온 선박수준이었다면 그 당시라도 미대륙까지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보다 앞서 1940년에는 북경(北京)의 한 학술대회에서 당시 파리 주재 총영사였던 요세공(廖世功)이 "서복(徐福)이 도해하여 평원광택(平原廣澤)을 얻고 그곳에 머물러 왕이 되었다는 ≪사기(史記)≫,

---

84) 茂在寅男, ≪船と 古代日本≫, 106쪽.
85) 茂在寅男, 앞의 책, 106~107쪽.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의 '평원광택'은 지금의 미국이다. 그때 바다를 건너간 사람들은 중국 동남연해의 해인족(海人族)집단이었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86]

이런 주장들을 놓고 볼 때 벌써 반세기 이전부터 서복집단 또는 고대중국인집단이 태평양을 건너 미대륙까지 상륙하였다는 주장들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서복선단의 표도와 관련해서는 이 같은 미대륙설 외에도 태평양연안 일대에 의문의 유적들과 함께 많은 전설이 퍼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서복선단의 이산설(離散說)에 관하여는 중국의 왕향영(汪向榮·中日關係史硏究會 상무이사)도 1989년 4월 일본 사가시(佐賀市)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 당시의 해상교통 조건으로 보아 3천명이 아니라 단 천명이라 할지라도 한곳에 상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본해(동해)연안이나 태평양 연안의 일본각지에는 서복 전설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87]

왕향영은 또 "지금부터는 중국·일본·한국 등 3국의 학자들에 의한 서복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뒤에 반드시 거기서 큰 연구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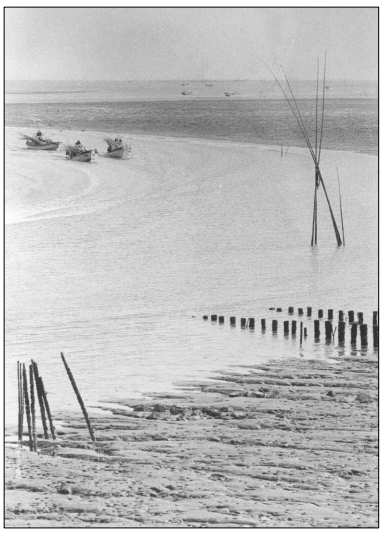
86) 汪向榮, ≪中國の 徐福學≫, 223쪽.
87) 汪向榮, 앞의 책, 228~229쪽.

Ⅴ. 서복집단과 일본(日本)

1. 서복선단의 규슈(九州) 상륙
2.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유적
3. 쿠마노(熊野)의 서복 유적
4. 후지산록(富士山麓)의 서복 전설
5. 그 밖의 전승 유적



일본 사가현 모로토미정(佐賀縣 諸福町) 서복상륙지(徐福上陸地) 표석 앞에 선 필자.



서복선단이 상륙에 앞서 진입한 아리아케해(有明海)



서복선단이 상륙한 포구로 알려진 사가현 모로토미정 부바이(佐賀縣 諸富町 浮盃).
사진은 사가서복회 요시츠크 도시다카(吉次敏孝)부회장과 필자.

❶
서복선단의 규슈(九州) 상륙

서복선단의 항해 도중 이산자들이 발생하였으리라는 점은 여러 학자들이 같은 생각이라고 하겠다. 그 가장 심한 분산현상은 일본근해에서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한반도나 그 밖의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서복전설과 유적을 일본이 축적하고 있는 점과 또 그것이 전국 도처에 퍼져있는 점 등이 대변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먼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서복선단의 첫 상륙지로 알려진 사가현(佐賀縣) 일대를 비롯한 규슈(九州) 지방의 전설과 유적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일본이나 중국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한반도의 서·남해안과 제주도 등을 거친 서복선단은 현해탄을 건너 일본 북규슈(北九州)연해에 이르렀으며 첫 상륙지는 사가현이마리(佐賀縣伊萬里)로 알려지고 있다. 이마리시(伊萬里市) 북쪽에 '하타쓰(波多津·秦津·畑津)'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처음 도착한 해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어 그들 선단은 아리아케해(有明海)로 들어가 사가현(佐賀縣) 모로토미정(諸富町) 부바이(浮盃)에 상륙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9년 동안이나 머물렀다는 설이 있다. 서복이 머물렀던 것

으로 알려진 유허(遺墟)에는 긴류신사(金立神社)가 세워졌다. 그 기원이 고오레이천황(孝靈天皇・기원전 3세기)때로 알려져 있으므로 서복이 도래하였을 무렵이라고 하겠다. 긴류신사(金立神社)에는 오곡을 관장하는 우케모치노가미(保食神), 수신(水神)인 미수하노메노미코도(罔象賣女命), 아메노오시호미미노미코도(天忍穗耳命) 등과 함께 서복(徐福)을 제신(祭神)으로 모시고 있다. 이곳에서 서복은 농경・양잠・의약의 신으로 추앙되어 제사를 받게된 것이다.[88]

긴류신사의 상궁(上宮)과 하궁(下宮)은 지금도 볼 수 있으나 본궁(本宮)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유허비(遺墟碑)가 서있다. 본궁의 신체(神體)는 10m가 넘는 커다란 암석이며 그 곳에는 서복을 기리면서 심었다고 하는 2천년이 된 나무로 전해진 백진(柏槇)나무가 서있다. 또 이 곳 사가(佐賀)에는 서복이 손을 씻었다고 전해진 데라이츠(寺井津)의 우물을 비롯하여 편엽(片葉)의 갈대(葦)밭 등 전설에 어린 많은 유적과 유물 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 긴류산(金立山) 일대는 지금 공원화되어 서복과 관련된 여러가지 기념 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지난 1995년 서복장수관(徐福長壽館)이 낙성되어 서복전시관이 탄생하였으며「서복의 마을 약용식물원」도 개장했다. 약 3 ha의 식물원 부지 안에는 두형(杜衡・寒葵)를 비롯하여 500종 약 5만본의 약초가 식재되고 있으며「서복의 광장」「오다츠(お辰・서복의 애인)의 광장」「진시황의 숲」「봉래약초원(蓬萊藥草園)」「봉래지(蓬萊池)」등 모두 서복의 채약(採藥)과 관련된 내용으로 꾸며져 마치 서복이 찾던 봉래산을 연상시켜주고 있다.

---

88) 茂在寅男, ≪船と 古代日本≫, 109~111쪽.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虹棧 徐福≫, 186~190쪽.
副島清高, <佐賀と 徐福>, ≪彌生の 使者 徐福≫, 128~131쪽.
奧野利雄, ≪徐福の 研究≫, 32~34쪽.
東アジア文化交流振興協會, ≪徐福學への 發走≫, 67쪽.

이 곳 ≪야마우치정사(山內町史)≫에는 "서복(徐福) 일행은 대선(大船) 20여 척에 분승하여 이마리츠(伊萬里津)에 내항하고 구로가미산(黑髮山·山內町), 호라이산(蓬萊山·武雄市), 긴류산(金立山·金立町)에서 불로불사의 선약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우와기(牛窪記)≫에는 "일행 5백명은 4진으로 나뉘어 선약을 구하러 떠났는데 서복(徐福)은 쿠마노산(熊野山·和歌山縣), 서불(徐市·여기서는 徐福과 다른 인물로 구분되고 있다)은 후지산(富士山·山梨縣), 서명(徐明)은 긴뽀오산(金峯山·熊本縣), 서림(徐林)은 히젠국(肥前國) 긴류산(金立山·佐賀市)으로 각각 떠났다."고 되어 있다.[89]

한편 이 기록과는 반대로 서복(徐福)은 긴류산(金立山)에서 일생을 마치지만 나머지 일행은 아리아케해(有明海)를 떠나 가고시마현(鹿兒島縣) 구시기노시(串木野市) 간무리다케(冠岳)를 거쳐 태평양을 북상, 일본 혼슈(本州)로 상륙하였다고 전해져 있기도 하다. 이 지방에서 서복은 바로 도작(稻作)을 일본 규슈(九州)에 가지고 와 사가(佐賀)평야의 농업을 일으킨 시조로 믿어 그에 대한 신앙은 대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위한 축제가 이미 겐로쿠(元祿·17세기말엽)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 하며 지금도 해마다 1월 20일에는 '서복제(徐福祭)'가 열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80년 4월에는 그를 위한 '2200년 대제(大祭)'가 성대하게 베풀어지기도 하였다.

근래 일본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유적(遺蹟)은 바로 이 긴류신사(金立神社)에서 불과 8㎞의 거리에 있다. 오랫동안 일본고대사의 쟁점이 되어온 야마타이국설(邪馬台國說)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유적이라고 하여 일본국민을 흥분시키고 있는 이 유적이 바로 서복 집단이 상륙 거주하였던 땅에서 발견되었

89) 羅其湘·飯野孝宥, 앞의 책, 186~187쪽.
山本末男, ≪佐賀は 輝いていた≫, 155~156쪽.



서복이 일본에서 첫 터를 잡고 살았던 곳으로 알려진 긴류산(金立山).

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규슈(九州)의 남단 가고시마현(鹿兒島縣)의 동지나해에 면한 간무리다케(冠岳・串木野市 동북쪽)에도 서복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정봉원문서(頂峯院文書)≫(串木野 향토사료)에 따르면 "옛날 진(秦)의 방사 서복이 누선을 타고 선약을 구하러 이곳에 이르렀을 때 그가 관을 벗고 이 산에 바쳤으므로 간무리다케(冠岳)라고 부르게 되었다. 서복은 다시 시비산(紫尾山・出水市남쪽)을 찾아가 그곳에는 관에 붙었던 자주끈(紫紐)을 바쳤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곳을 떠나 기슈・쿠마노산(紀州・熊野山)에 들어갔다."고 하였다.[90]

한편 서복은 간무리다케(冠岳)에서 바위굴에 자생한 연초(煙草)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그가 찾던 영약이었다는 설이 있고, 긴류산(金立山)에서는 영약 머위('후로후키' 일명・'구로후키', 黑蕗)를 찾아내어 이를 재배하면서 머물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사가에서는 이 '후로후키'를 서복이 찾은 불로초라고 전해져 왔는데 최근에 이 '후로후키'가 '두형'(杜衡・寒葵)으로 밝혀져 위에서 본 것처럼 긴류공원 약용식물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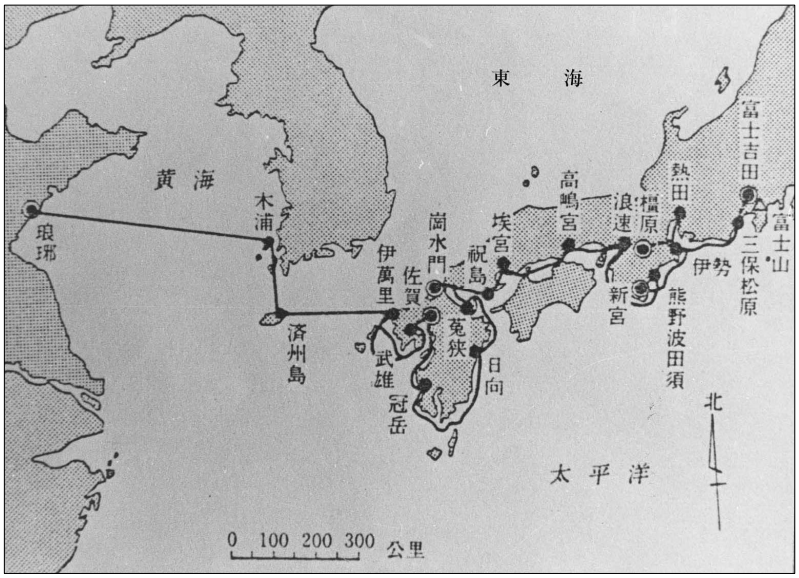
야요이(彌生)시대의 고분군(古墳群)유적으로 알려져 있는 야메시(八女市)에도 동남산(童男山)의 전설이 있다.

후쿠오카시(福岡市) 야메시 일대에는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등 300기에 이르는 고분군이 형성되어 있는데 동남산에는 바로 그 1호 고분(古墳)이 자리하고 있다.

17세기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마나베(眞邊仲庵)의 ≪북축잡고(北筑雜藁)≫에는 대충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

90)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虹棧 徐福≫, 199~200쪽.
奧野利雄, ≪ロマンの人 徐福≫, 59~62쪽.



서복집단이 일본에서의 이동코스(彭雙松說).

이 고을에 산이 있는데 속칭 「동남관녀(童男卉女)」라고 부른다. 그 아래는 가와사키읍(川崎邑)이 있다. 고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옛날 동남관녀가 이 곳에 배(船)를 버렸는데 그 배가 변하여 돌이 되었다. 그리하여 그 같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내가 직접 가서 보았는데 그것은 이른바 총혈(冢穴)이었다. 안에 두 개의 석조(石槽)가 있었는데 단청(丹靑)으로 칠해 있었다. 한 개는 길이가 8척 2촌에 너비 4척 4촌, 깊이 1척 7촌이었으며 다른 한 개는 그 보다 몇 촌 작았다. 이른바 진선(秦船)이었다.(후략)[91]

그 밖에 니시(西以三)의 ≪지쿠고지감(筑後地鑑) 상권≫, 수기야마(杉山正仲) 오가와(小川志純)의 ≪지쿠고지(筑後志) 권3≫등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야메시에서는 매년 1월 20일이면 「동남산(童男山) 후수베(연기를 올리는 의식)」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 밖에도 규슈(九州)지방에는 서복이 발견하여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는 온천 '가쿠레이센(鶴靈泉)'이 있으며 다케오온천(武雄溫泉)은 서복 일행이 휴양한 곳이라고 하여 '불로장수천(不老長壽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다케오시(武雄市)에는 봉래산(蓬萊山)으로 부르는 산이 있고 노베오카시(延岡市) 이마야마(今山・蓬萊山)에는 '서복암(徐福岩)'이라는 큰 바위가 있기도 하다.

일본 규슈(九州)에 도착하고 난 다음, 일본 안에서의 서복(徐福)선단의 이동루트에 대하여 대만의 팽쌍송(彭雙松)은 다음과 같이 추적하고 있다.

처음 규슈(九州) 서북부 이마리 하타츠(伊萬里 秦津・佐賀縣)에 도착한 서복집단은 선단을 다시 아리아케해(有明海)로 진입시켜 정박시키고 사가(佐賀)평야에 상륙, 이곳에 거점을 마련하여 9년을 체재하게 되었

91) 赤崎敏男, ≪八女の 徐福傳說≫, 7쪽.

다. 그동안 긴류산(金立山)·구로가미산(黑髮山)·다케오시(武雄市) 등에 유적을 남기고 있다. 그 뒤 구시기노 간무리다케(串木野 冠岳) 등을 거치면서 유적을 남기고 규슈(九州) 동쪽해안 휴가(日向), 우사(宇佐) 등을 거쳐 규슈북부 오카노미나도(崗水門)에 도착하였다. 말하자면 규슈섬을 반시계 방향으로 거의 한 바퀴 돈 셈이다.

서복 일행은 이 오카노미나도(崗水門)에서 또 3년을 체재하여 충분한 식량과 물품을 조달하였다. 그 뒤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기이수도(紀伊水道)를 통과하여 항해 1백㎞의 쿠마노(熊野)에 도착하였다.

서복은 항해 1백㎞ 마다 정박하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식량, 물품 등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항해능력은 대선단의 1개월 이동거리가 2백㎞에서 3백㎞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1천㎞를 항해하려면 적어도 3~4개월은 걸렸다고 생각된다. 그 뒤 선단은 다시 아쓰다(熱田)·시미즈(淸水) 등을 거쳐 미호우라(三保浦)에 상륙하였다. 그리하여 후지산(富士山)기슭에 거점을 마련, 정착하였다. 이것이 서복 본진이며 그밖에는 항해도중 분산하여 일본열도 각지에 표착하였다고 할 것이다.[92]

팽쌍송(彭雙松)이 추적한 이동루트가 꼭 맞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서복 연구에 착수하였던 사람이며 실제 일본 안에 흩어져 있는 전승지를 일일이 답사하여 연구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가 이런 추정을 내세우는데는 그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이동경로를 놓고 볼 때 한가지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에 부딪치게 된다. 그것은 고대 일본(日本)인 '야마토(大和)'를 건국한 시조요 초대천황으로 알려진 진무천황(神武天皇)의 이른바 동정(東征)루트와 거의 같기 때문이다.[93]

---

92) 茂在寅男, ≪船と 古代日本≫, 109~111쪽.
羅其湘·飯野孝宥, 앞의 책, 186~190쪽 / 199~201쪽.

93) 鈴木 旭, ≪日本超古代王朝の 謎≫, 46~52쪽.

진무(神武)천황은 원이름이 강야마토 이와레비코(神日本 磐余彦)로 일본 안에서도 학자들간에 수수께끼의 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를 고대 일본의 제부족을 정복하여 야마토의 통일국가를 건국한 초대왕으로 정사에 도입시킨 것은 명치(明治)시대의 일이었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지금도 전설적인 인물로 믿는 사람이 많다.

비단 그뿐 아니라 10대(代) 왕인 수징천황(崇神天皇) 이전의 진무(神武), 수이제이(緩靖), 안네이(安寧), 이토쿠(懿德), 고오쇼(孝昭), 고앙(孝安), 고오레이(孝靈), 고오겡(孝元), 가이카(開化) 등 9대 천황은 역사상 실재하지 않았던 왕으로 믿어져 왔다. (학자에 따라서는 15대 應神이나 16대 仁德천황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고대 역사서인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에서는 그들에 관한 행적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때까지의 고대사는 의문의 공백기로 남겨져 왔다고 할 수 있다.[94]

그러나 근자에 이르러 이와레비코(磐余彦, 神武天皇)는 실재했던 인물로 밝혀져 가고 있다. 그는 기원전 7세기(?) 일본 밖에서 처음으로 도작(稻作)문화를 가지고 규슈(九州)에 상륙한 도래족(渡來族)의 지도자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도래족 집단인 이른바 휴가족(日向族)을 이끌고 휴가(日向)의 다카치호(高千穗)에서 '토요노구니(豊國)' 우사(宇沙)를 거쳐 규슈(九州)북단 오카노미나도(崗水門)에 이른다. 규슈(九州)를 반시계 방향으로 반 바퀴 돈 것이다.[95]

여기서 그는 치쿠젠(筑前)을 출발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 혼슈(本州)연안을 따라 아기·에노미야(阿岐=安藝國·埃宮/廣島市) 등을 거쳐 철(鐵)의 나라로 알려진 기비(吉備·岡山縣)에 이른다. 그 뒤 그는 나

星野良作, ≪神武天皇≫, 253~257쪽.

94) 星野良作, 앞의 책, 81~125쪽 / 205~260쪽.

95) 鈴木 旭, 앞의 책, 19~20쪽 / 51~66쪽.

니와(浪速・大阪市)에 들어갔다가 유수이몽 나구사(雄水門 名草) 등을 거쳐 기이(紀伊)반도 쿠마노촌(熊野村・神宮市)에 상륙, 야마토를 공략하여 그 곳에 야마토(大和)정부를 세운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진무동정(神武東征)'이다.[96]

이 때 이미 야마토에는 나가수네비코(長髓彦)와 아비히코(安日彦)의 형제가 나누어 거느리던 이른바 야마타이국(耶馬台國)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것을 이와레비코가 이끈 철제무기로 무장한 도래족 집단이 정복하여 그들을 쫓아 낸 것이다. 이로써 서일본(西日本)은 이와레비코의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야요이(彌生)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도래족 집단이 일본열도 안에 있던 재래족을 정복하는 일종의 정복전쟁이었던 것이다. 이들 휴가족(日向族)이 어디서 온 누구였는가에 대하여는 아직도 정설은 없다. 거기에는 일찍부터 "다카마가하라(高天原)에서 다카치호(高千穗)에 강림한 신(神)들의 일계(一系)"라는 스스로의 신화가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그 '다카마가하라'가 어디냐는 것이 학자들의 쟁점이었다.[97]

그들이 해를 향해서 온 민족(日向族), 해의 나라(日國) 천손족설(天孫族說) 등 설화가 있는가 하면 중국, 남만(南蠻)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그런가운데 요셉・아이델버그는 '야마토민족(大和民族)은 유태족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이와레비코 즉 진무천황(神武天皇)을 서복(徐福), 바로 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물이 대만의 위정생(衛挺生)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미 1950년에 홍콩(香港)에서 ≪일본신무개국신고(日本神武開國新考)≫

96) 鈴木 旭, 앞의 책, 46~51쪽.
97) 鈴木 旭, 앞의 책, 19~25쪽.

(<徐福入日本建國考>)의 저서를 출판하고 있다. 그 뒤로 대만의 학자들 가운데는 '서복(徐福)이 바로 진무천황(神武天皇)이다'는 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어져 왔다고 할 것이다. 팽쌍송(彭雙松)도 그런 맥락에서 서복을 추적하는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논증(論證)은 서복(徐福)의 이동루트와 진무(神武)의 동정(東征)루트가 같다는 점만은 아니다. 서복 집단이 일본에 들어간 것을 전후하여 일본열도에서는 죠몬(繩文)말기에서 야요이(彌生)초기에 걸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도작(稻作), 조선(造船) 등을 비롯하여 새로운 많은 기술이 중국대륙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이다. '평원광택(平原廣澤)을 얻고 왕이 되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기(史記)≫의 기록을 비롯하여 많은 역사자료, 고고학자료에서 서복(徐福)과 진무(神武)의 공통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일본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거의 부정하고 있다. 진무(神武)천황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학자들까지도 그런 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98]

비록 전설이라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3~4세기에 걸치는 시간상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고고학자료나 설화내용 등 적잖은 착오와 모순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본학자들이 규명해 놓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서복의 행적과 관련하여 진무동정(神武東征) 등 여러 가지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음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고 계속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서복의 일본내 이동루트에 대하여는 대만의 팽쌍송(彭雙松)처럼 구체적인 추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근의 중국학자들의 추정도 거

98) 衛挺生, ≪神武天皇 徐福傳說の 謎≫, 65~66쪽.

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규슈(九州)에 도착한 서복선단은 아리아케해(有明海)에서 오오수미해협(大隅海峽)을 지나 태평양 구로시오(黑潮)를 타서 일본 혼슈(本州) 기이(紀伊)반도 쿠마노(熊野)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일본이나 중국학자들은 대체로 규슈(九州)를 떠난 서복집단은 혼슈(本州)의 기이(紀伊) 쿠마노(熊野)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❷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유적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의 수수께끼를 풀어준다고 일본 온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유적(遺蹟)이 발견된 곳은 규슈 사가현 간사키군(佐賀縣 神埼郡)이었다.

서복선단(徐福船團)이 규슈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터 잡은 사가평야(佐賀平野) 바로 그 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노가리 유적(遺蹟)을 중심으로 서복을 모시고 있는 긴류신사(金立神社)는 바로 그 서쪽에 붙어 있고 그 서북쪽에는 서복이 마을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였다고 전해진 후지정(富士町)의 가쿠레이센(鶴靈泉)이 있다. 또 남쪽에는 아리아케해(有明海)에서 서복 일행이 상륙한 곳으로 알려진 모로토미정데라이쓰(諸富町寺井津) '부바이(浮盃)'가 있다. 모두 수㎞ 이내의 거리에 있다. 이 유적을 중심으로 그 주변일대가 서복 전승지라고 할 수 있다.

이 요시노가리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시작된 것은 1986년 5월부터였다. 북규슈(北九州) 일대에서는 그 동안에도 죠몬(繩文)·야요이(彌生) 시대의 유적들이 출토되었고 또 꾸준히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의 설이 있었던 곳이므로 유적층이 있으리라는 것은 예견되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굴된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유적이 나타나리

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지금까지 발굴 결과 이 유적은 내외 2중 호(濠)로 된 거대한 환호취락(環濠聚落)과 묘지(墓地)로 드러났으며 취락(聚落)의 외호(外濠)는 너비 6~8m, 깊이 3~4m, 지금까지 발굴된 길이는 1㎞를 넘고 있다. 이 환호취락에는 수혈식 주거(竪穴式 住居) 약 350채를 비롯하여 저장혈(貯臟穴) 약 50기, 고상창고(高床倉庫) 약 60기 등이 발굴되었으며 또 이 곳에서는 석검(石劍)·석촉(石鏃)·석부(石斧) 등 석기류와 낫·도끼·철촉(鐵鏃) 등 철기류 다수가 수집되었다.

묘지에서는 2천기가 넘는 옹관묘(甕棺墓)를 비롯하여 토광묘(土壙墓)·목관묘(木棺墓) 약 330기, 상자식 석관묘(石棺墓) 13기 등 총 2,350 여기가 발굴되었다. 옹관묘에는 300체가 넘는 인골(人骨)이 남아 있었으며 유리관옥(管玉)을 비롯하여 각종 동검(銅劍)·동경(銅鏡)·동모(銅矛) 등 다수의 부장품(副葬品)이 출토되었다.[99]

이 유적에 대한 연대 추정을 보면 대체로 옹관묘를 중심으로 한 유적과 유물의 경우는 야요이(彌生) 중기인 기원전 2세기경으로 보고 있다. 서복(徐福)이 규슈에 도래한 때보다는 1세기쯤 뒤이며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의 여왕국(女王國)시대보다는 1~2세기 먼저 형성된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요시노가리 유적 전체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놓고 본다면 구석기(舊石器)시대·죠몬(繩文)시대부터 시작하여 헤이안(平安)시대(794~1185)·전국(戰國)시대(1477~1573)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시대에 걸친 복합유적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요시노가리 유적이 있는 곳에서는 이번의 발굴이 있기 이전인 1954년과 57년에도 유물이 출토된 적이 있었다. 그때 발굴된 유물은 전한(前漢)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동경(銅鏡)·동모(銅矛)·동검(銅

99) 安本美典, ≪吉野ヶ里 遺跡と 邪馬台國≫, 28~29쪽.

劍)·푸른빛의 유리관옥(管玉) 등이 다수 출토되었었다. 따라서 야마타이국(邪馬台國) 규슈설(九州說)을 주장하는 학자 가운데는 이 일대가 바로 ≪위지(魏志)·왜인전(倭人傳)≫에 나오는 히미코(卑彌呼) 여왕국이 있던 곳이 아닌가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 유적이 발굴되자 일본의 신문·T.V 등은 이 요시노가리 유적을 바로 야마타이국(邪馬台國)과 결부시켰고 히미코(卑彌呼)의 궁전도 바로 이곳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때까지 일본에서는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놓고 크게 두 주장이 대립해 왔었다. 그 하나가 기나이(畿內) 야마토설(大和說)이요, 다른 하나가 규슈설(九州說)이다. 그러나 규슈설(九州說)의 경우 고분(古墳)시대의 대형 분구묘(墳丘墓) 등이 없는 게 취약점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요시노가리 유적의 발견은 그 약점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론을 규슈설(九州說) 쪽으로 기울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시노가리 유적(吉野ヶ里 遺蹟)은 그와는 따로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서복(徐福)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서복의 도래연대와는 시간상으로 약 1백년이란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나 많은 유사점과 공통요인을 내포하고 있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하필이면 유적이 서복집단이 도래하여 터 잡은 곳으로 알려진 바로 사가(佐賀) 평야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중국계통의 유적양식이나 유물들이 출토되고, 분구묘(墳丘墓)·묘도(墓道)·제사지(祭祀址) 등이 불사(不死) 사상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문



규슈사가현(九州佐賀縣)에 복원된 요시노가리유적(吉野ケ里遺跡). 사진 왼쪽부터 이청규(李淸圭・嶺南大) 교수. 현을생(玄乙生・濟州市文化體育課) 과장・필자.



요시노가리유적(吉野ケ里遺跡)을 두른 환호(環濠).

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이에 관한 일본학자들의 견해를 들어 보기로 하겠다.

돌멘(Dolmen)시대가 끝나면서 옹관(甕棺)이 나타난다. 거기에는 개인의 불사(不死)의 사상이 포함돼 있다. 그 사상은 서복(徐福)시대에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온다. 그것은 참으로 획기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요시노가리(吉野ヶ里) 유적을 볼 때 매우 흥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줄로 가지런히 줄지어 묻힌 옹관(甕棺)을 보았을 때 나는 진시황제(秦始皇帝)의 능(陵)에서 병마용(兵馬俑)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던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검의 나라, 지하의 나라에서도 사람들은 2열로 줄지어 서서 은근하게 언젠가는 부활(復活)을 기다렸다고 할 것이다. 요시노가리 유적에서 보는 옹관무덤도 같은 사상이었다고 생각된다.[100]

우메하라 다케시(梅原 猛・日本國際文化研究센터所長)의 회상이다. 그는 옹관문화(甕棺文化)를 불사(不死)사상과 결부시켜 보고 있으며 그 사상을 서복집단이 도입시켜 준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그는 요시노가리의 분구묘(墳丘墓)와 옹관묘 그리고 부장품들을 모두 중국의 불사사상에서 받아들인 무덤 문화(文化)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후쿠나가(福永光司・東京大)교수에게서도 볼 수 있다.

처음으로 요시노가리 분구묘(墳丘墓)를 보았을 때 나는 이 무덤에는 분명한 철학(哲學)이 있다고 느껴졌다. 주검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구체적 형태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중략) 분구(墳丘)라는 중국어가 이미 나타내 주듯이 분구묘는 오(吳)나라 즉 강남(江南)에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강남 장강(長江)의 중류지역에서 생긴 토돈묘(土墩墓)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101]

---

100) 梅原 猛, <徐福傳說の 意味するもの>, ≪徐福傳說を 探る≫, 26~27쪽.

101) 福永光司, <徐福と吉野ヶ里 遺跡の 墳丘墓>, ≪徐福傳說を 探る≫, 216~219쪽.



요시노가리유적(吉野ケ里遺跡)에서 출토된 옹관묘군(甕棺墓群).

후쿠나가(福永) 교수는 요시노가리 분구묘(墳丘墓)가 바로 이 불사(不死)의 철학에 바탕을 두고 생겨났으며 그것이 봉선(封禪·祭祀)이나 부장품(副葬品)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고대일본(古代日本)이 중국의 신앙·사상·문화 등을 여러모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요시노가리 분구묘(墳丘墓)도 한무제(漢武帝)를 모델로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 한무제(漢武帝)는 동아시아 군주(君主)들의 동경의 표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요시노가리 시대의 왕도 그 장사법, 무덤의 축조법, 제사법 등을 당시 세계 최대의 권력자였던 한무제(漢武帝)를 모델로 하였으리라는 것은 십분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102]

102) 福永光司, <徐福と吉野ケ里 遺跡の 墳丘墓>, 앞의 책, 203~206쪽.

한편 이 유적을 일본 야요이(彌生)문화의 바탕을 이룬 도작문화(稻作文化)와 결부시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적 유물 가운데는 음식물을 익히는 토기(土器)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용도의 기구들과 저장시설, 가축사육시설 그밖에 도작농업을 대변할 많은 유물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본의 도작농업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본다. 에사카 데루야(江坂輝彌·慶應大)교수에 따르면 그 루트는 대체로 화북(華北)·화중(華中)·화남(華南)의 3설(說)이 있다. 화북설(華北說)은 육로(陸路)로 하북성(河北省)·요동성(遼東省)·한반도(韓半島)를 거쳐 오는 것으로, 이는 주로 고고학자(考古學者)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에는 이 주장이 우세하였다. 또 하나는 산동성(山東省)에서 한반도(韓半島) 중남부를 거쳐 일본으로 전하는 해상 루트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화중설(華中說)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육종학자(育種學者)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것은 양자강(揚子江) 하류에서부터 동중국해를 거쳐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진 경로를 말한다. 대체로 그 시기는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한 무렵부터 그 조금 뒤로 보는 견해라고 하겠다.

화남설(華南說)의 경우는 운남성(雲南省), 절강성(浙江省), 대만(臺灣), 류큐열도(琉球列島) 등을 거쳐 규슈(九州)로 전해지는 설이라고 하겠다. 야나기다구니오(柳田國男) 등이 주장한 도래 루트라고 할 수 있다.

서복 연구(徐福 硏究) 학자들은 시기적으로 보아 서복 집단이 처음으로 도작문화를 일본에 가지고 왔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 대집단은 도작을 비롯한 선진문화를 가지고 온 한 갈래가 된 것은 틀림없고 게다가 어떤 계통보다도 야요이 문화(文化)를 급변시킨 원동력이 되었음은 틀림없는 일로 본다.

요시노가리 유적이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으

로서는 서복집단이나 그 후예들의 유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의문과 과제를 던져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사가현 도수(鳥栖)시는 고대 때 ≪위지 왜인전(魏志 倭人傳)≫에 나오는 대소국(對蘇國)이 있었다고 알려진 곳이다. 사가시(佐賀市)에서 후쿠오카시(福岡市)에 이르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며 요시노가리 유적(遺蹟)이 있는 간사키정(神埼町)에서는 동쪽으로 14㎞의 거리에 있다. 이 도수시(鳥栖市)에서 서쪽으로 약 6㎞지점에는 나카바라정(中原町)이 있으며 이곳에는 희메가타유적(姬方遺蹟)이 있다.

이 유적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72년의 일이었으며 발굴결과 야요이시대의 주거지(住居址)와 야요이시대에서 고분(古墳)시대에 걸치는 복합 묘지군(墓地群)이 발견되었다. 이곳에서도 요시노가리와 마찬가지로 옹관묘(甕棺墓) 4백기 이상이 발굴되었으며 그곳에서 2백체 이상의 인골(人骨)이 수집되었다. 또 고분방형주구묘(古墳方形周溝墓), 환상열석토광묘(環狀列石土壙墓), 토광묘(土壙墓), 석관묘(石棺墓) 등과 주거지 등이 발굴되었고 많은 부장품(副葬品)과 유물들이 출토되었다.

이 곳에서 발굴된 환상열석토광묘(環狀列石土壙墓)는 너비 1m의 환상열석 중앙에 토광묘를 만든 것으로 야요이 후기에서 고분(古墳) 발생기에 형성된 분묘로 보이며 일본에서는 매우 진귀한 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방형주구묘(方形周溝墓)도 이 토광묘와 같은 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

야요이시대의 분묘는 요시노가리나 희메가타 유적(姬方 遺蹟)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타츠카야마 유적(二塚山 遺蹟・요시노가리에서 동쪽으로 약 2㎞ 三養基郡 上峰村), 미츠나가다 유적(三津永田 遺蹟・요시노가리 동북부 神埼郡 東背振村), 요고다 유적(横田 遺蹟・神埼郡 東背振村)

등 이 일대에 집적되어 펼쳐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야수모토(安本美典・産能大)교수는 이들 유적을 하나로 뭉쳐진 고대국가의 유적군으로 보고 이곳이 이른바 화노소노국(華奴蘇奴國)이 있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103]

이 밖에 나바다케유적(菜畑遺蹟), 사쿠라노바바유적(櫻馬場遺蹟), 우기큐덴유적(宇木汲田遺蹟), 야스나가다유적(安永田遺蹟), 지토오산유적(千塔山遺蹟), 고쓰사유적(摠座遺蹟), 가바시마야마유적(椛島山遺蹟) 등이 모두 이 주변대에 펼쳐있는 것이다. 하라다 다이로쿠(原田 大六・九州考古學者)의 <실재(實在)했던 신화(神話)>에 따르면 야요이 시대의 분묘유적은 치쿠고(筑後・佐賀)평야를 중심으로 간사키(神埼)・도수(鳥栖)・츠쿠시노(筑紫野)・카스가(春日)・후쿠오카(福岡)・가라츠(唐津)・기타하타(北波多)로 이어지는 서북규슈(西北九州)일대에 집중 분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가현(佐賀縣) 교육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옹관묘의 출토 수는 서북 규슈(九州) 연안(沿岸)지대(唐津에서부터 須玖岡本까지)에서 약 3만3천기, 세부리야마(背振山地南麓)일대(三田川에서 志波屋까지 요시노가리 유적 포함)에서 약 3만3천기 등 같은 수로 총 6만6천기가 나타나고 있다. 시와야(志波屋)에서 서쪽으로는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으며 치쿠고(筑後)평야에도 거의 미발굴 상태로 남아 있다. 동 위원회는 북규슈(北九州)일대의 옹관묘는 10만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04]

이에 대하여 요시노가리 유적 발굴을 지휘한 다카시마 다다히라(高島 忠平・佐賀縣교육위원회)는 "세부리산록(背振山麓)의 남쪽에 있는 취락(聚落)은 요시노가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안(沿岸)지역에도

103) 安本美典, 앞의 글, 40~47쪽.
104) 安本美典, 앞의 글, 290~291쪽.

농경(農耕)의 적지는 많으므로 아직도 제2, 제3의 요시노가리 유적(遺蹟)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의 고고학자 사이토 다다시(齋藤 忠)는 "북부 규슈(九州)에는 V자형 호(濠)가 펼쳐놓은 미발굴의 많은 유적들이 있다. 이 요시노가리 유적이 계기가 되어 그런 유적들에 대한 발굴조사가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신문지상에 밝히고 있다.[105]

여기서 한가지 더 특기할 것은 요시노가리 유적 분구묘(遺蹟 墳丘墓)에서 거울(鏡), 구슬(玉), 검(劍)등 이른바 '3종(種)의 신기(神器)' 한 세트가 출토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 분구묘의 정상부분은 원래는 더욱 높은 봉우리였다고 한다. 1954년에 밀감 밭을 경작하면서 이 일대가 정지되었는데 그 때 옹관 1기가 출토되었다. 그 속에서도 동검(銅劍), 동모(銅矛·창)·동경(銅鏡) 등이 나왔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삼종(三種)의 신기(神器)는 황위(皇位)를 상징하는 보물로 전해져 왔다.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 등에 나타나는 일본의 건국신화에 따르면 니니기노미코도(邇邇藝命)가 하늘에서 강림할 때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御神)가 '야사카(八坂)의 마가타마(勾玉)' '야타(八咫)의 가가미(鏡)' '구사나기(草薙)의 쓰루기(劍)'를 '3종(種)의 보물'로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 구슬·거울·검이 이른바 '삼종(三種)의 신기(神器)'인 것이다.

지금까지 삼종(三種)의 신기(神器)가 세트로 출토된 곳은 후쿠오카현(福岡縣) 이도시마군마에바라정(糸島郡前原町)의 미구모유적(三雲遺蹟), 가수가시(春日市)의 수구오가모토유적(須玖岡本遺蹟), 이이쓰카시(飯塚市)의 다치이와유적(立岩遺蹟), 후쿠오카시(福岡市)의 기쓰다케다카기(吉武高木)·기츠다케히와타시유적(吉武樋渡遺蹟) 등이 있다. 모두

105) 安本美典, 앞의 글, 68~69쪽.

가 북규슈(北九州)일대라고 할 수 있다. 이 무렵에는 거울, 구슬, 검을 부장(副葬)하는 제도는 북규슈에만 있었지 기나이(幾內・大和)에는 없었던 풍속으로 알려졌다.[106]

여기서 야마타이국 동천설(邪馬台國 東遷說)이 등장한다. 야수모토(安本美典)교수는 그의 저서 ≪요시노가리 유적(吉野ヶ里 遺蹟)과 야마타이국(邪馬台國)≫에서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은 3세기 전반까지는 북규슈(北九州)에 있었던 게 분명하며 3세기말에 이르러 동으로 이동 야마토조정(大和朝廷)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107]

이 야마타이국(邪馬台國)의 동천설(東遷說)과 아울러 진무(神武)의 동천설, 서복(徐福)의 동천설 등이 모두 시간에 차이가 있을 뿐 루트마저 같은 맥락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북규슈(北九州)는 토기(土器)에 있어서도 B.C 1만년 이전의 것을 내놓아 세계(世界) 최고(最古)를 자랑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지방이다. 무덤을 비롯한 선사(先史)문화에 있어서는 일본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드문 풍부한 유적군(遺蹟群)을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고 할 수 있다.

요시노가리 유적(遺蹟)을 비롯하여 북규슈(北九州)일대에서 나타나는 유적 유물들은 대체로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겠다. 옹관묘(甕棺墓)라든지 관옥(管玉), 구옥(勾玉)이라든지 거울・세형동검(細形銅劍) 등 거의 모든 출토물에서 그런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학자들은 대체로 북규슈(北九州)의 선사문화를 공통(共通)의 문화권(文化圈)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서 온 누구였는가. 야요이 시대의 북규슈 문화를 지배했던 주체(主體), 그들은 누구였느냐에 대하여는 아직 일본

106) 安本美典, 앞의 글, 63쪽.
107) 安本美典, 앞의 글, 64쪽.

의 학자들간에도 정설은 없다.

히구치 다카야스(樋口陵康・京都大名譽教授)는 ≪일본인(日本人)은 어디서 왔는가≫에서 일본(日本)의 고대문화(古代文化)가 들어온 루트를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시베리아에서 홋카이도(北海道)를 거쳐 동일본(東日本)에 이르는 북방(北方)루트

② 한반도(韓半島)를 거쳐 쓰시마해협(對馬海峽)을 건너 규슈(九州)에 이르는 한국(韓國)루트

③ 중국(中國) 동해안으로부터 직접 규슈(九州)에 이르는 동해(東海)루트

④ 중국 대만(臺灣)에서 류큐열도(琉球列島)를 거쳐 규슈(九州)에 이르는 오키나와루트

⑤ 남태평양(南太平洋)에서 오가사하라열도(小笠原列島)를 거쳐 관동(關東)지방에 이르는 남양루트 등이다.108)

이에 따르면 가장 세력이 약한 북방(北方)루트와 남양(南洋)루트 두 루트를 제외하고는 고대문화가 일본으로 유입되는 경로에서 모두 규슈(九州)를 거치게 되는 사실에 도달한다. 다시 말하면 규슈야말로 일본 고대문화(古代文化)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고 이 곳을 기점으로 전 일본열도(日本列島)로 퍼져나갔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슈(九州)와 제주도(濟州島)는 고대(古代)로부터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08) 安志敏, <江南文化と 古代の日本>, ≪徐福傳說を 探る≫, 63쪽.

❸

쿠마노(熊野)의 서복 유적

서복의 일본내 이동루트에 대하여는 대만의 팽쌍송(彭雙松)처럼 구체적인 추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학자들의 추정도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일본 규슈(九州)에 도착한 서복선단은 아리아케해(有明海)에서 오오수미해협(大隅海峽)을 지나 태평양 구로시오(黑潮)를 타서 일본 혼슈(本州) 기이(紀伊)반도 쿠마노(熊野)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일본이나 중국학자들은 대체로 규슈(九州)를 떠난 서복 집단은 혼슈(本州)의 기이(紀伊) 쿠마노(熊野)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서복집단이 쿠마노에 상륙한 시기에 대하여는 고오레이(孝靈)천황 72년설, 고오겡(孝元)천황시대(기원전 214년설), 기원전 210년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서복이 미처 중국을 떠나기 이전 등 모두가 믿을 수 없다고 본다. 팽쌍송(彭雙松)의 이론대로라면 처음 규슈 이마리(九州 伊萬里)에 도착한 서복집단은 사가(佐賀)에서 9년, 오카노미나도(崗水門)에서 3년 등을 체재하고 쿠마노에 이르렀다고 하니, 그렇다면 기원전 198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믿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일본 안에서도 서복전승지로 우선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곳



신구시(新宮市)에는 서복의 무덤으로 전해져온 옛 터가 있으며 지금도 서복의 묘비를 볼 수 있다.



아스카신사(阿須賀 神社) 경내에 있는 서복궁(徐福宮). 이 곳에는 서복을 제신(祭神)으로 모시고 있다.

이 신구(新宮)시를 중심으로 한 쿠마노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 신구시를 찾아간 필자는 먼저 서복의 무덤으로 알려진 현장을 보았다. 무덤에는 도쿠가와 요리노부(德川 賴宣・初代 將軍 家康의 열째 아들 紀州藩祖)가 17세기에 세운 것으로 알려진 묘비「진 서복지묘(秦 徐福之墓)」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서있는 비를 조사해보니 그보다도 근 백년쯤 뒤인 1736년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도쿠가와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었던 비가 늦게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당초 비에 문제가 있어 이 때 신구성주(新宮城主) 미스노 다다아키(水野 忠昭)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자연석 댓돌(籠臺石) 위에 세워진 비는 높이 140㎝ 너비 50㎝ 크기의 자연석이었으며 비문은 당시 저명한 유학자 이매계(李梅溪)[109]의 글씨로 되어 있었다.

그 왼쪽에는 높이 250㎝ 너비 100㎝의 서복현창비(徐福顯彰碑)도 볼 수 있었다. 본래 이 곳에는 1834년 유학자 니이다 요시후루(仁井田 好古)가 글을 짓고 쓴 현창비를 세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비는 완성되어 운반 도중 바다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되고 말았다. 지금 비는 옛 비를 그대로 재현하여 1940년에 세운 것이라고 하였다.[110]

또 서복 묘비가 있는 오른쪽으로는「칠총지비(七塚之碑)」가 서 있었다. 큰 댓돌 위에 세운 높이 100㎝ 너비 48㎝의 자연석 비였다. 이 비는 서복의 중신(重臣) 일곱 사람의 무덤을 상징하는 유허비(遺墟碑)였다. 본래 이 곳에는 서복의 중신으로 알려진 일곱 사람의 무덤(圓墳)이 북두칠성형으로 있었다고 한다. 그 무덤의 자취를 분간할 수 없게 되자 1915년 이 비를 세웠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진서복 중신비(秦徐福 重臣碑)」도 볼 수 있었다. 서복 무덤에서 가까운

109) 韓國人 二世로 梅溪 李全直. 壬亂때 23세로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끌려가 德川 賴宣의 侍講이 되었던 靈山人 李眞榮의 아들. 德川光眞(賴宣의 아들이며 八代 將軍 吉宗의 아버지)의 師傅였으며 일본에서는 당대의 이름높은 儒學者였다.

110) 奧野利雄, ≪徐福の 硏究≫, 22~23쪽.



서복집단이 터를 잡고 살았으며 또 그들의 무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구(新宮市)에는 서복공원(徐福公園)이 조성돼 있다. 사진은 공원 정문.

거리에 목조 비각(碑閣)을 세우고 그 안에 모신 비였는데 높이 66㎝의 자연석 비였다. 이 중신비도 마찬가지로 일곱 중신을 기리는 비라고 하였다.[111]

이 서복 무덤에는 제2차대전전까지만 하여도 기와 담장을 두르고 기와문으로 된 중국형의 묘소(廟所)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진으로 허물어져 버린 뒤로 복원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원래 이 일대는 무덤과 함께 녹나무숲이 있어서 구수야브(楠藪)라고 불렀다고 한다.

111) 奧野利雄, 앞의 책, 21~22쪽.

경내 면적은 2,014㎡나 되며 그 많은 나무들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무덤가에는 수 백년 연륜을 헤아릴 녹나무가 외롭게 서있었다.

이 무덤이 있는 일대를 신구에서는 츠카마치(塚町·무덤마을)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무덤에 관해서는 옛부터 전해오는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었다. 신구시사(新宮市史)를 보면 1075년의 서복묘(徐福廟) 기록을 비롯하여 1376년, 1403년의 기록 등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 쿠마노 하야타마대사(熊野速玉大社)가 소장하고 있는 동찰(棟札)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다. 거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리(豊臣 秀頼·秀吉의 아들)가 1603년 서복묘를 수축했던 기록이 나온다. 이것은 그 훨씬 이전부터도 무덤이 보존돼 온 사실을 시사해주는 중요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112]

지금 일본에는 이 밖에도 서복의 무덤이나 사묘(祠廟) 등이 여러 곳에 있지만 이 신구의 무덤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자료들을 지니고 있어서 서복집단의 유적임을 새삼 느끼게 하였다.

1994년 신구시(新宮市)는 이 서복묘를 중심으로 한 일원을 서복공원(徐福公園)으로 조성해 놓았다. 정문은 화려한 중국풍의 건물로 세워지고 그 안으로 서복상(徐福像)이 건립되고 불로의 못(不老の 池) 등이 조성되었다.

쿠마노(熊野) 신구(新宮)에는 무덤 외에도 전설과 함께 서복(徐福)의 많은 유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신구시 쿠마노가와(熊野川)하구에는 옛부터 서복을 모신 것으로 알려진 아스카 신사(阿須賀 神社)가 있다. ≪쿠마노연대기(熊野年代記)≫에 따르면 이 신사는 고오쇼천황(孝昭天皇) 53년에 창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도 나오는 오랜 신사

112) ≪新宮市史≫ 下巻 史料編, 1006~1008쪽.

(神社)로 되어 있다. 제신(祭神)은 쿠마노 3신(熊野三神 : 家津美御子神·御子速玉之神·熊野夫須美神)을 모시고 있었지만 지금도 경내 오른쪽 안으로 서복을 모신 사당(祠堂)이 있었다. 이 사당을 「서복궁(徐福宮)」이라고 하였다. 신구시사(新宮市史)나 쿠마노연보(熊野年譜) 등을 보면 1629년 서복궁을 수축한 기록이 있어 옛부터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은 1985년에 재건한 것이었다.[113]

경내 왼쪽에는 「고야수가미(子安神)」로 모시는 자연석이 있었으며 일부 학자 가운데는 여기가 서복의 무덤이 아니냐는 설도 있었다. 이 아스카신사 경내에서 과거 선사주거지(先史住居址) 수십 기(基)를 발굴하였는데 그것을 복원해 놓고 있어 그 때의 주거양식을 볼 수 있었다. 또 그 주거지에서는 야요이(彌生)식 토기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그 일부가 신사 경내에 건립된 신구역사민속자료관(新宮歷史民俗資料館)에 보존 전시되고 있었다.

신사를 등지고 뒤 켠으로는 난대림이 우거진 조그만 산이 있었으며 그 산이 곧 서복설화에 등장하는 봉래산(蓬萊山)이라고 하였다. 서복을 모신 사당은 원래 이 산 정상에 있었다고 한다. 서복은 이 봉래산에서 그가 찾던 영약 천태오약(天台烏藥·녹나무科의 상록灌木)을 구했다고 한다. 지금도 오약나무 고목을 아스카 신사 경내에서 볼 수 있었다.

천태오약(天台烏藥)이라고 한 것은 중국의 천태산(天台山) 불로초 전설에서 따온 이름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구시는 최근 이 천태오약을 학계에 의뢰하여 연구시키고 있는데 그 결과가 여러모로 나타나고 있다.

모리 아기다네(森昭胤·岡山大學 名譽敎授) 교수는 이 천태오약이

113) 木內武男, ≪熊野阿須賀神社≫, 6~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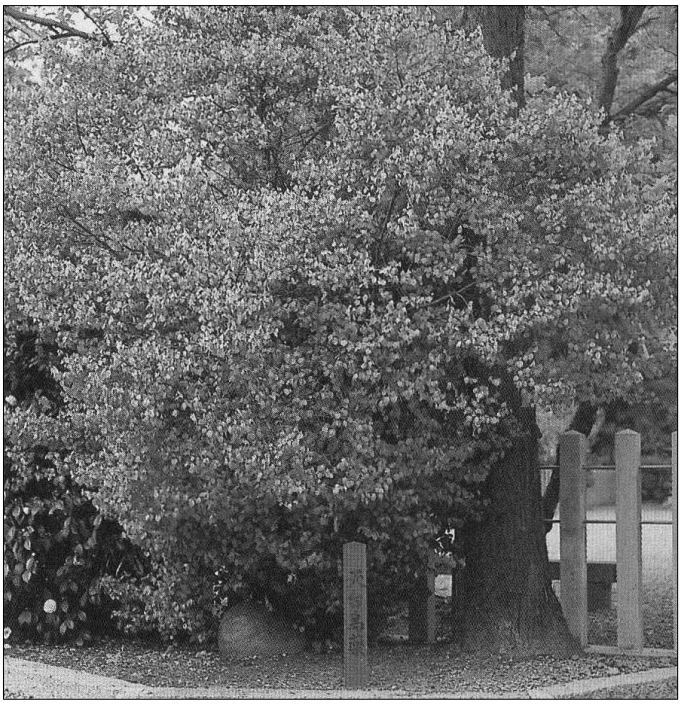
체내에 들어간 활성산소(活性酸素)의 소거작용(消去作用)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체내에 흡인된 산소의 일부는 활성산소가 되어 백혈구(白血球)의 살균작용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일으킨다.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체내의 세포(細胞)를 파괴하고 노화현상이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여러 가지 염증(炎症)과 암(癌) 등 현대병을 유발하게 된다. 활성산소(活性酸素) 종류로는 스퍼오기시도, 과산화수소(過酸化水素), 히도로기시루라지칼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천태오약은 스퍼오기시도, 히도로기시루라지칼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매우 높은 단위의 소거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1년부터 시의 조사 용역을 받고 조사한 기후대학(岐阜大學) 후지하라 히사요시(藤原久義) 하타구치 노부야(漆口信也) 교수팀의 보고를 보면 천태오약은 심근경색(心筋梗塞)을 비롯하여 협심증(狹心症) 폐암(肺癌) 신장병(腎臟病) 등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이 일본의 신문에 보도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1978년 일본을 방문한 등소평(鄧小平)은 "일본은 예부터 봉래의 나라로 알려져 있고 불로불사의 약이 있다고 들었다. 이번 방일(訪日)은 그것을 손에 넣으려고 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신구시장은 곧 천태오약을 증정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아스카 신사 경내에서는 또 13세기의 중국선승(中國禪僧) 무학 조원(無學祖元)의 시비(詩碑)를 볼 수 있었다. 조원선사(祖元禪師)는 일본 가마쿠라(鎌倉) 시대의 섭정(攝政) 호조 도키무네(北條 時宗)의 초청을 받고 1279년 일본에 귀화한 고승이다.





아스카신사(阿須賀神社) 경내에 있는 천태오약(天台烏藥). 신구시는 최근 이 천태오약을 학계에 의뢰 인간에게 어떤 효용을 미치는지 연구시키고 있다.

선생은 선약을 캐려고 이 곳에 와서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셨네
고국산하는 몇 번이나 전란이 휩쓸어 먼지만 쌓였습니다
오늘 선생을 모시고 제사지내는 날 오직 멀리서 향료를 보내올립니다
노승도 역시 조국의 전란을 피하여 이 곳에 왔습니다

先生採藥　未曾回
故國關河　幾度埃
今日一香　聊遠寄
老僧亦爲　避秦來

서복에 관한 시비는 서복의 무덤에서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승(僧) 젯카이(絶海)[114]와 명태조(明太祖)의 시였다. 1368년 일본승 젯카이 주우신(絶海 中津)이 명나라에 들어가 태조(太祖)를 만난 자리에서 주고받은 시구였다.

쿠마노봉 앞에는 서복을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온 산에는 약초가 가득하여 비 올 때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다 위 파도도 아주 잔잔합니다
만리에 좋은 바람도 불고있으니 서복도 조만간 돌아올것만 같습니다.

熊野峰前　徐福祠
滿山藥草　雨餘肥
只今海上　波濤穩
萬里好風　須早歸

승 젯카이(絶海)의 시를 받고 명태조(明太祖)도 다음과 같이 화답

114) 日本 室町時代의 學僧. 法號가 絶海. 法諱 中津. 俗姓은 藤原. 1336년 土佐國(高知縣)에서 출생. 夢窓國師(疎石)에게 師事. 1368년(應安 1) 明나라에 들어가 太祖(朱元璋)와 만났다. 1405년(應永 12) 卒(70歲). 文集 ≪蕉堅稿≫, ≪四會語錄≫등.

하고 있다.

쿠마노 높은 봉우리에 당신은 신으로 모셔져 제사를 받고
자손은 번창하여 베푼 은덕을 추모받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서복이 찾던 선약도 번성하여 이제는 곧 돌아올것도 같은데
지금에 이르러도 당신은 또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까.

熊野峰高　血食祠
松根琥珀　也應肥
當年徐福　求仙藥
直到如今　更不歸[115]

신구에는 아스카신사 외에 쿠마노 하야타마 대사(熊野速玉大社)가 있다. 이곳 경내에 있는 신보관(神寶館)에는 서복의 목조상(木彫像)과 함께 서복이 헌상 하였다는 말안장이 소장되고 있었다. 이 안장은 해마다 10월 15일에 열리는 쿠마노하야타마 마쓰리(熊野速玉祭)때 신마도어식(神馬渡御式)에 쓰이고 있다고 하였다.

신구의 마쓰리는 이 밖에도 어선제(御船祭), 어등제(御燈祭), 미와사키(三輪崎)의 구지라오도리(鯨踊), 시시마이(獅子舞)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마쓰리의 대부분은 해양문화(海洋文化)와 깊은 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서복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가운데 해마다 8월 8일에 신구천(新宮川) 들에서 열리고 있는 마쓰리는 이름부터가 조오후쿠마쓰리(徐福祭)라고 하였다.

신구시 바로 북쪽에는 쿠마노시가 있고 그 북쪽 해안일대를 하타스(波田須・秦住・秦栖)라고 하였다. 이 곳도 처음 서복일행이 상륙한 곳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

115) 奥野利雄, ≪ロマンの人 徐福≫, 78~80쪽.
≪歷史硏究≫제 392호, <徐福傳說の 謎>, 18・22쪽.

이 곳에도 서복신사(徐福神社)가 있었으며 또 하나의 서복묘가 있었다. 여기에는 높이 137㎝의 자연석에 「서복지묘(徐福之墓)」라고 새긴 석비가 서 있었는데 1907년에 세운 것이었다. 또 쿠마노에는 이노가키(猪垣)라고 하여 총연장 100㎞에 이르는 불가사의한 담장이 있다. 이 돌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서복이 시황제가 쌓은 만리장성을 본떠서 쌓아놓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었다.

쿠마노 지방에서는 오늘에 전수되고 있는 농경법(農耕法)을 비롯하여 포경법(捕鯨法), 제지법(製紙法) 등이 모두 서복이 가지고 들어와 전수해준 것으로 믿고 있었다. 여기서는 전설이나 문화 유적은 물론 모든 생활문화 구석구석까지 서복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봉래라고 불리던 그 옛날
서복도 이 곳을 찾아왔다는
산 아름답고 물 맑은 …

신구시가(新宮市歌)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일본의 저명한 문호(文豪) 사토 하루오(佐藤 春夫)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가사에서도 서복은 영락없이 등장하고 있었다.

서복집단은 일본전역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다고 생각되지만 서복 자신과 그 본진은 바로 이 쿠마노에 이르러 터를 잡았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서복집단이 쿠마노에 남긴 설화와 유적은 너무나 많다. 일본 각지에는 서복에 관한 설화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쿠마노는 으뜸이라고 할 것이다. 그 주요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 한가지만 덧붙인다면 일본 국내에서도 서불(徐市) 후예가 쿠마노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토오 아사타로(後藤朝太郎)는 그의 ≪중국인(中國人)의 장생비술

(長生秘術)≫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쓰고 있다.

> 지금의 기슈(紀州) 신구(新宮)지방에는 서복의 무덤이 남아 있으며 또 그 지방에는 죠오(徐)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일본 각 지방에는 성(姓)씨에 가(賀)씨, 데이(鄭)씨, 하타(秦)씨, 고(吳)씨 등과 같이 중국식의 성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일이 많다. 고오베(神戶)나 나가사키(長崎)지방에는 특히 몇 대에 걸쳐 일본에 귀화하여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죠오(徐)라고 하는 성씨는 주로 와카야마현(和歌山縣·쿠마노 지방) 방면에 많이 모여 살고 있다.116)

오늘날 기슈 쿠마노 지방에서 번영하며 살고 있는 서(徐)씨의 후예설을 억지로 부인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서복도래 전설이 있는 것은 사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116) 後藤朝太郎, 昔原台譯, ≪中國人의 長生秘術≫, 90~91쪽.

❹

후지산록(富士山麓)의 서복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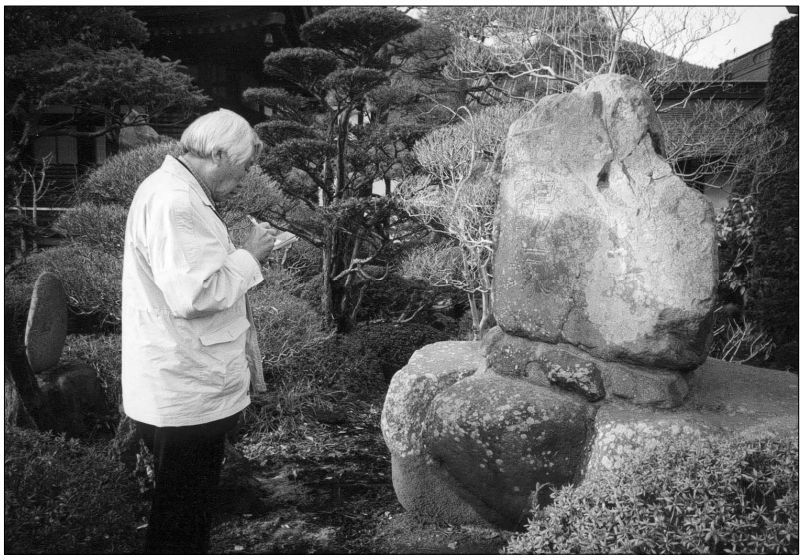
일본열도(日本列島) 안에서 규슈(九州)·쿠마노(熊野)와 함께 많은 서복(徐福) 전승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후지산(富士山)기슭 일대라고 할 수 있다. 그 북쪽 기슭인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山梨縣 富士吉田市) 일대로부터 그 동쪽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神奈川縣 藤澤市)까지 여러 가지 전설과 그에 얽힌 유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후지산(富士山)은 일찍부터 일본에서는 서복(徐福)이 찾아 헤매던 호오라이산(蓬萊山)으로 전해져 왔다. 그리하여 이 산을 '후시산(不死山)'이라고도 한다. 10세기경 중국의 ≪의초육첩(義楚六帖)≫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

> 일본국은 왜국(倭國)이라고도 하며 동해 가운데에 있다. 진(秦)시대에 서복(徐福)은 5백인의 동남과 5백인의 동녀를 거느려 이 나라에 이르고 이곳에 머물러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그 곳 사람이나 물건들은 장안(長安)의 서울이나 다를 게 없다. 그 나라의 동북쪽 천여리에 큰 산이 있는데 이름을 후지산(富士山) 또는 호오라이산(蓬萊山)이라고 한다. 산세는 험하며 삼면이 바다에 면해 있고 봉우리는 구름 위에 솟아 있다. 정상에는 붉은 불길이 훨훨 타올라 늘 구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서복이 이 곳에 찾아와 머물렀으므로 봉래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그



후지산(富士山) 기슭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의 하구호반(河口湖畔)을 찾은 필자.
<서복(徐福)로망>의 저자 하타부에이(羽田武榮)선생과 함께.



서복이 학(鶴)으로 화신하여 죽은 무덤으로 전해온 쓰루츠카(鶴塚)을 찾은 필자.

자손들은 모두 하타씨(秦氏)를 성으로 삼고 있다.[117]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의 미야시다가(宮下家)에는 예로부터 전해 왔다고 하는 ≪후지고문서(富士古文書·宮下文書)≫가 보존되고 있다. 최근에 이 문서는 문헌학자들에 의하여 위서(僞書)로 감정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거기에는, "서복(徐福)은 후지산(富士山)을 목표로 수루가(駿河)에 상륙하고 후지산 동북기슭에 복지(卜地)하여 살았다. 그 곳 신지(神祇)의 자손들이 소장해온 신대(神代)의 기록을 한자로 수록하여 ≪십이사담(十二史談)≫을 만들고 이를 「서복전(徐福傳)」이라고 하여 보물로 신사(神社)에 보존시켰다. 서복의 자손은 그 뒤 후지고원(富士高原)에 정착하였으며 둘째아들 복만(福萬)은 서복의 명령에 따라 기슈 쿠마노(紀州熊野)로 옮겨 그 땅을 개간하였다. 그리하여 신구(新宮) 근교에 서복사(徐福祠)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2000년 3월 하타 부우에이(羽田武榮)박사 덕분에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를 방문할 수 있었다. 후지산(富士山)의 동북기슭, 북쪽 등산입구가 있는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에 있는 유적으로 복원사(福源寺) 경내에 있는 쓰루츠카(鶴塚)와 서복사(徐福祠) 등을 볼 수 있었다. 이 곳에 전해진 전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고오레이테이(孝靈帝·7대 天皇)때,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봉래산(蓬萊山)이 있는 나라 일본(日本)에 서복(徐福)을 파견하여 불로 불사의 묘약(妙藥)을 찾아오도록 하였다. 서복은 여러 무리를 거느리고 이곳에 이르러 비로소 복 받은 땅임을 알고 이곳에 머물고 떠나지 않았다. 서복은 마침내 이곳에서 죽었는데 세 마리의 학(鶴)으로 화신하였다. 이

117) 羽田武榮, ≪徐福 ロマン≫, 206~207쪽.

학들은 늘 이곳을 떠나지 않고 교오슈우(峽州) 땅에 머물러 살았다.

그로부터 2천여 년이 흐른 뒤 학 한 마리가 죽었다. 관에서는 그 학을 복원사(福源寺)에 매장하여 장사지냈는데, 그곳을 쓰루츠카(鶴塚)라 부르게 되었다. 또 나머지 학들에 대하여는 포살을 엄금하고 늘 감시하도록 하였다.

지금 그 쓰루츠카(鶴塚)가 있는 산문 오른쪽에는 원록(元祿)11년(1698) 3월 29일 복원사(福源寺) 주지승(住持僧) 료오카이(了海)와 다니무라성주(谷村城主) 아키모토가신(秋元家臣) 가와이 하치에몽(川井八右衛門)·와타나베 토오베에(渡邊藤兵衛) 등이 세운 쓰루츠카비(鶴塚碑)가 있다.

요시다시(吉田市)의 서북쪽에 있는 가와구치코정(河口湖町)에는 서복(徐福)을 기신(機神·紡織의 神)으로 모시는 서복사(徐福社)가 있다. 가와구치코(河口湖)의 동북 호숫가에 있는 셍겡신사(淺間神社)의 말사(末社)로 모셔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와구치코정지(河口湖町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전략) 진 시황제(秦 始皇帝)는 왜국 봉래산(倭國 蓬萊山)에 불로장생의 약초가 난다는 말을 듣고 가신 서복(徐福)에게 명하여 일본으로 건너가게 하였다. 명을 받든 서복은 바다를 건너 기슈 나치우라(紀州 那智浦)에 상륙, 쿠마노삼산(熊野三山)을 휘돌고 난 다음 후지산(富士山)을 답사하였다. 산에는 오솔길 하나 없었고 울창한 원생림을 헤매었으나 약초는 찾을 길이 없었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서복은 거느리고 온 동자 5백명을 노복으로 삼고 가와구치호(河口湖) 북쪽 호반에 장원(莊園)을 개척하여 살게 되었다. 거둬들인 곡식을 조정에 바치고 도모노오키나(供之翁)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일본에 귀화(歸化)하였다. 서복은 토민(土民)에게 양잠, 방적, 농사법 등을 가르쳐 많은 은혜를 베풀었으며 마침내 호반에서 죽었다.

서복은 죽은 뒤 학(鶴)으로 화신하였으며 길이 후지산북록(富士山北

麓)의 백성을 지켜 주었다. 토민(土民)들은 모두 서복을 애도하고 그를 기리기 위하여 이 곳 지명을 '쓰루노고오리'(都留郡)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 서복의 영을 모신 쓰루츠카(鶴塚)는 후지요시다시 시모요시다(富士吉田市 下吉田)의 복원사(福源寺)에 있다.

지금도 야마나시현(山梨縣)의 행정구역 안에는 가와구치호(河口湖)가 있는 미나미쓰루군(南都留郡)을 비롯하여 기타쓰루군(北都留郡) 쓰루시(都留市) 등이 있다. 또 후지산(富士山)을 중심으로 서남산록으로 네구라츠카(塒塚), 시라츠카(白塚), 히노기츠카(檜塚), 니시우수츠카(西臼塚), 후다쓰츠카(二ツ塚) 등이 둘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시다시(吉田市)의 동쪽 고아스미(小明見)에도 서복사(徐福祠)가 있다. 아스미호(明見湖) 호반에 있는 고오시신사(甲子神社) 경내에 세워진 조그만 사당인데 언제 누가 세웠는지 자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의 동남쪽 야마나카코무라(山中湖村)에도 서복에 관한 전설이 있다. 야마나카코무라의 북쪽 야마나카코의 서안에 나가이케(長池)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마을을 장명촌(長命村·長生村)이라고 하였다. 이 마을에 전해진 전설을 오쿠노도시오(奧野利雄)의 ≪서복(徐福)의 연구(研究)≫에서 옮겨 보기로 하겠다.

서복은 진왕(秦王)의 재상 응후 범수(應侯 范雎)의 아들로 일찍부터 유학(儒學)을 닦았다. 뒤에 천축(天竺)에서 7년 동안 불교(佛敎)를 연구하고 약사여래상(藥師如來像)을 구하여 귀국하였다. 시황제에게 출사하여 신임받는 총신이 되었다. 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성취한 뒤 서복은 동해에 삼신산이 있으며 그 곳에는 불로 불사의 영약이 있는데 만약 이것을 먹으면 천세 만세까지 수명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또 자신에게 동남동녀 5백을 딸려 준다면 바다로 나가 선약을 구해올 수 있다고 상소하였다. 시황제는 매우 기뻐하며 이를 허락하였다.

서복은 다시 선약을 구해오려면 적어도 15년 내지 길게는 30년은 걸



후지요시타시(富士吉田市) 고아스미 호반(小明見湖畔)에 세워진 서복상(徐福像).

려야 하며 이에 따른 상당한 여장을 챙기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금강, 철사, 주옥, 의식류, 기구류 등 오만가지 물건과 큰 배 15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황제의 생명에 대한 야망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쳐 서복은 시황즉위 3년 6월 20일 중국을 출발하였다. 바다에서 항해한 지 백여일만에 당도한 곳이 기이국(紀伊國)이었다.

이 곳을 근거지로 봉래산을 찾아 헤맨 지 3년, 그 동안 서복은 그 곳 사람들에게 조선·포경(造船·捕鯨)을 비롯하여 새로운 많은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 전설이 와카야마현 신구시(和歌山縣 新宮市)에 남아 있다. 그 뒤 후지호라이산(不二蓬萊山)을 알아낸 서복은 다시 배에 분승하여 수르가만 시마바라(駿河灣 島原)에 상륙하고 다가마노하라 아소다니(高天原 阿祖谷)에 도착하였다.[118]

≪가히국지(甲斐國志)≫에는 "지금 그 자손들은 진(秦)씨라고 하며 가와구치(河口)나 요시다(吉田)의 사직(師職·神主職)중에도 진(秦)씨 성을 가진 사람이 여럿 있다. 그 뒤 진(秦)씨는 하타(羽田) 또는 하타(波多)라고 성을 고쳐 후손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119]

서복에 얽힌 전설이나 지명 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야마나카코무라(山中湖村) 동쪽에는 후로오산(不老山)이라는 산이 있고 그 동쪽에는 하타노시(秦野市)가 있다. 다시 그 동쪽으로 후지사와시(藤澤市)가 있으며 또 그 동쪽에는 텐다이산(天台山)이 있어 가나가와현 가마쿠라(神奈川縣 鎌倉)까지 이어지고 있다.

후지사와시 묘오젠지(藤澤市 妙善寺)에는 「서복자손누대지묘(徐福子孫累代之墓)」가 있어 오랫동안 후손이 전승돼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지금도 성을 후쿠오카(福岡)로 고쳐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후지산(富士山) 일대에 퍼져 있는 전설에 따르면 서복이 찾던 선

118) 奧野利雄, ≪徐福の 硏究≫, 44~45쪽.
119) 奧野利雄, 앞의 책, 45쪽.

약은 육총용(肉蓯蓉)으로 알려져 있다. 열당과(列當科)에 속한 기생(寄生)식물로 나무뿌리에 나는데 높이는 약 20㎝ 정도로 버섯과 비슷하다. 줄기는 살찌고 기둥모양이며 잎은 비늘같이 어긋매껴 났는데 엽록(葉綠)이 없고 누런 갈색이다. 여름에 이삭 모양의 잔꽃이 솔방울처럼 몰려서 핀다. 들새의 정(精)이 떨어져 난다는 전설이 있으며 강정제, 폐병 등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진 약초다.

여기서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서복이 찾아 헤맸다는 불로장생의 선약은 일본 안에서도 지방마다 각각 다르게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쿠마노에서는 천태오약(天台烏藥)으로, 사가(佐賀)지방에서는 구로후키(黑蕗・머위)로, 그리고 구시기노(串木野)에서는 연초로 각각 다르게 알려졌다. 그밖에도 지방에 따라 흑경(黑莖)의 봉(蓬・쑥, 唐艾) 구기 울금초(枸杞 鬱金草)・자지(紫芝) 등 여러 가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결국 일본 안에도 불로장생의 선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고 할 것이다.

❺
그 밖의 전승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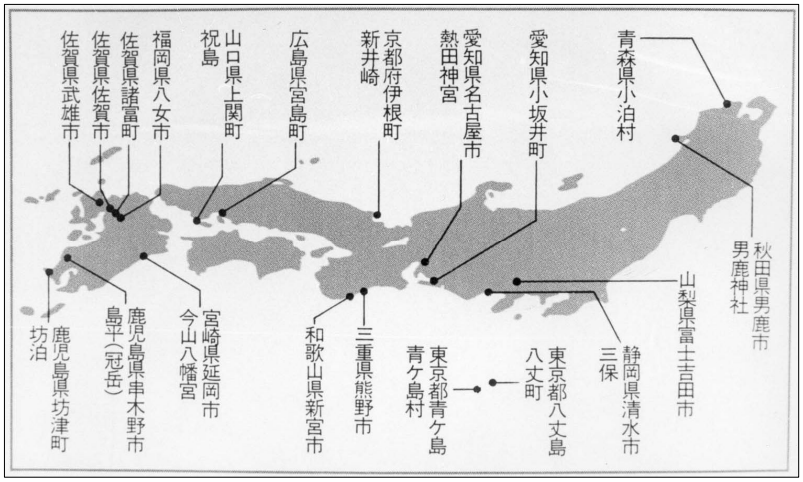
(1) 당고반도(丹後半島)의 전설

지금까지 서복선단(徐福船團)의 첫 도착지로 알려진 규슈(九州)를 비롯하여 쿠마노(熊野), 후지산(富士山) 일대에 퍼져있는 서복전설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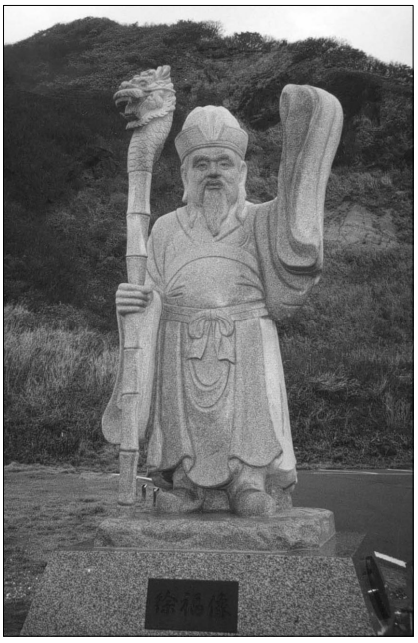
현해탄(玄海灘)에서 붕고수이도(豊後水道)를 거쳐 규슈를 한바퀴 돌고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에서 기이수이도(紀伊水道)를 돌아 수루가만(駿河灣)에 이르는, 말하자면 태평양에 연한 일대를 중심으로 추적해 본 셈이다.

그러나 서복전설은 태평양 연안으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해(東海·日本海)에 연해서도 산인(山陰)지방으로부터 아오모리 츠가루(青森 津輕)까지 전설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토부 요사군 이네정(京都府 與謝郡 伊根町)은 당고(丹後)반도의 와카사만(若狹灣)에 연해있는 마을이다. 이곳에 니이사키신사(新井崎神社)가 있으며 이 신사에도 서복을 제신(祭神)으로 모시고 있다. 이 신사의 창건은 후지와라(藤原)시대 이치조(一條)천황 때인 초오도쿠(長德) 4년 (998)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열도(日本列島) 전역에 퍼져 있는 서복전승유적지(徐福傳承遺跡地)



아오모리현 고도마리촌(青森縣 小泊村)에 세워진 서복상(徐福像)

붕로크(文祿)연간(1592~1595)에 건립하였는데 강에이(寬永) 11년(1671)에야 완성을 본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신사는 원래 삼보아라가미(三寶荒神)을 모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은 서복을 '니이사키다이묘오징(新井崎大明神)'이라고 하여 모시고 있으며 신체(神體)는 약 30㎝ 남짓한 동남(童男)·동녀(童女)의 목상(木像)이다. 이것은 서복과 함께 도래한 동남동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

이 지방에는 예로부터 우부수나가미(産土神)으로 모신 서복(徐福) 신앙과 함께 전설이 전해오고 있는데 그 줄거리를 간추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7대 고오레이(孝靈)천황때 진(秦)의 시황제(始皇帝)가 불로장생의 선약을 구하게 되었는데 방사 서복이 이 땅을 점쳐 예지하고 이 곳 니이사키(新井崎)에 표도하였다. 그가 표착한 갯가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하코이와'(궤짝바위)라고 한다. 그는 황제가 욕심내는 선약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이 땅에 정착하여 살았다. 그는 마을 주민을 잘 이끌어 읍장(邑長)으로 추대 받았으며 온 마을사람들의 흠모를 받았다. 죽은 뒤에는 우부수나가미(産土神)로 모셔져 길이 제사를 받기에 이르렀다.[120]

이 곳에서 그가 구했던 선약은 '흑경(黑莖)의 쑥'(蓬·唐蓬)과 '구절(九節)의 창포(菖蒲)'로 알려지고 있으며 흑경의 쑥은 니이사키 노로세 해안에 자생하고 있다. 그는 이 땅에 도래한 직후 니이사키 산중에 있는 큰 바위 아래 굴을 파고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모셔와서 경문을 외웠으므로 '경문암(經文岩)'이라고 한다.

---

120) 石倉昭重, ≪丹後徐福考≫, 17쪽.
奥野利雄 ≪ロマンの人 徐福≫, 129~136쪽.
佐賀市 ≪太古の ロマン 徐福傳說≫, 77~79쪽.

한편 이곳 우라(宇良・浦島)신사(神社)에는 유명한 '우라지마 타로오(浦島太郎)'의 전설이 있기도 하다.

아기타현(秋田縣) 오가(男鹿)반도에도 서복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에도(江戶)시대의 ≪유람기(遊覽記)≫에는 오가시 아카가미야마(男鹿市 赤神山) 아카가미(赤神)신사 부근에 서복총(徐福塚)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곳 해안에는 봉래도(蓬萊島)라는 조그만 섬이 있으며 또 아카가미야마(赤神山)에는 한무제(漢武帝)의 묘(廟)가 세워지고 소무(蘇武)의 묘도 있었다고 하지만 모두 확인할 길이 없다.

(2) 고도마리(小泊村)의 전설

일본 혼슈(本州)의 북단인 아오모리현 기타츠가루군 고도마리(靑森縣 北津輕郡 小泊村)에도 서복의 전설이 흐르고 있다.

고도마리는 쓰가루반도 서북단 동해 갯가의 조그만 어촌이다. 마을에서 서쪽으로 뻗어나간 끝머리에 고도마리미사키(小泊岬)가 있고 그 바로 언덕이 오사키산(尾崎山・230m)이다. 서복의 사연을 혼슈 끝까지 흘러오게 한 오사키신사(尾崎神社)는 바로 이 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다. 이 신사에는 원래 서복의 목상(木像)을 모시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 동쪽 아래 시타마에(下前)라는 조그만 어항(漁港)에 있는 쿠마노신사(熊野神社)에 옮겨 안치하고 있다. 이 오사키신사가 생겨난 배경을 보면 기이반도(紀伊半島) 쿠마노곤겐(熊野權現)과 깊은 인연을 지니고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겐페이(源平)시대(11세기말~12세기말) 아베일족(阿部一族)을 따라 기슈(紀州)에서 온 오사키일족(尾崎一族)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쿠마노다이곤겐(熊野大權現)을 모셔 제사를 지내

면서 부터로 전해지고 있다.

분로쿠연간(文祿年間 : 1592~1596)에 오사키도요타카(尾崎豊隆)가 기슈 나지다이샤(那智大社)의 궁사(宮司)가 되었는데 뒤에 그는 수가루(津輕)에 돌아와 쿠마노곤겐을 제신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 뒤로 그의 자손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관(神官)을 계승하고 있다. 쿠마노의 아수가신사(阿須賀神社)에는 강에이(寬永 · 1624~1644)초까지도 서복의 목상이 있었으나 그 뒤로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그 목상을 고도마리로 가져갔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또 이 곳에 전해지고 있는 전설에도 쿠마노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복은 2200년 전에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의 선약을 찾으려고 중국을 떠났다. 쓰시마해류(對馬海流)를 타서 동해(일본해)를 북상, 쓰가루반도에서 뻗어나간 곤겐사키(權現崎 · 小泊岬)에 이르러 시타마에(下前) 포구에 상륙하였다. 이 곳 단애절벽의 오사키산을 봉래산으로 알고 상륙한 것이다. 그들은 이 산에서 약초를 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약초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근자에 향토사가들이 그 약초를 「곤겐(權現) 오토기리소오(弟切草)」[121]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122]

그런데 이 전설에는 서복이 탄 본선은 풍랑을 만나 표착하였으나 부하들이 탄 선단은 기슈 쿠마노에 상륙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또 서복은 뒤에 중국으로 돌아가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그 뒤 쇼오토

121) 오토기리소오(弟切草) : オトギリソウ科의 多年生풀. 들에 널리 自生하는 宿根草. 莖高는 약 50cm. 잎에 가는 油点이 있다. 여름과 가을에 걸쳐 황색의 오판(五弁)의 꽃을 피우며 蒴果를 맺는다. 성숙기에 건조시켜 止血劑 含嗽劑로 사용하며 莖葉에서 오도기니싱을 제조 신경통, 류마치 관절염 등에 사용. 漢名 小連翹(日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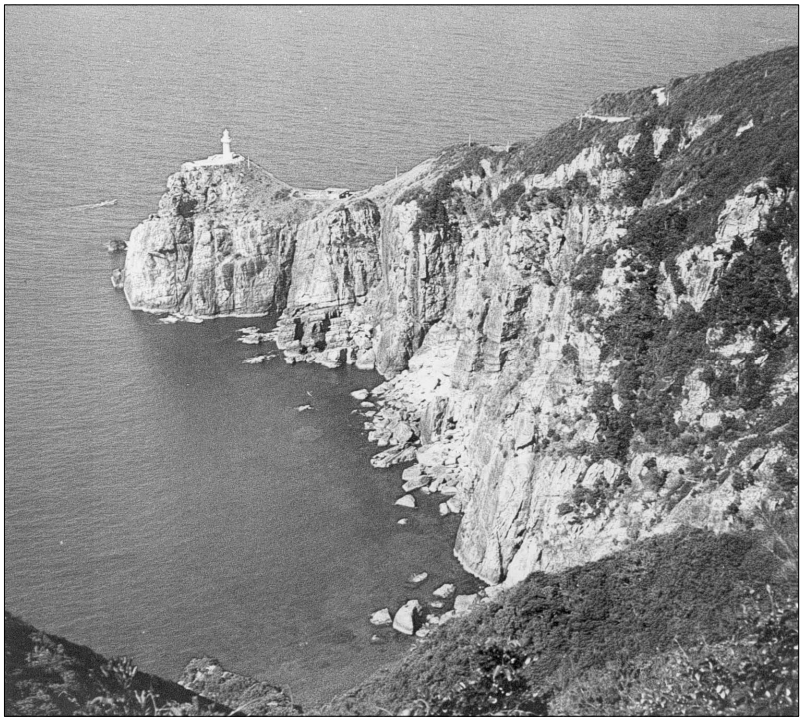
122) 奥野利雄, 앞의 책, 136~138쪽.
佐賀市, 앞의 책, 80~82쪽.

쿠(正德) 원년(1711) 쿠마노에 살던 서복의 자손들이 다시 고도마리 시타마에(下前)포구에 도착, 이 곳에 정착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지금 쿠마노신사에 모시고 있는 서복상은 파랑대(波浪台) 위에 중국 복장을 하고 서있는 모습이다. 두 손에 무엇인가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은 탈락돼 버렸고 본체에 착색이 돼 있으나 거의 벗겨져 버린 상태로 보존돼 있다.

Ⅵ. 제주도와 규슈(九州)

1. 지척(咫尺)의 두 이웃
2. 일본 신(神)들의 도래 신화(神話)
3. 두 지역의 유적과 유물
4. 탐라(耽羅)와 고대 일본과의 국교
5. 중세의 제주와 규슈



고토오열도(五島列島) 서남단 후쿠에지마 오오세사키(福江島 大瀨崎) 등대. 이곳에 서는 맑은 날이면 제주도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다.

❶
지척(咫尺)의 두 이웃

서복선단이 상륙한 땅 규슈. 규슈와 제주도는 예로부터 묘한 인연을 지니고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서복선단의 고리만이 아니고 여러모로 운명적인 고리를 달고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지리적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관계인가 하면 역사적으로도 끊어버릴 수 없는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동일 계통의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 고대 신화에도 연결고리가 걸리기도 한다.

역사시대로 접어든 이후에도 국교의 수립과 교류, 표류, 왜구 등 아주 단절해버릴 수 없는 관계가 흐르고 있다.

제주도와 규슈(九州)는 우선 지리적 상황부터가 공통되거나 근사한 요인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도(緯度)상으로 보면 제주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한라산(漢拏山)은 북위(北緯) 33도 22분. 이것은 요시노가리 유적(遺蹟) 등이 발견되고 있는 사가(佐賀)평야와는 거의 같은 위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도(經度)상으로 보면 제주도의 극동인 우도(牛島)가 동경 1백 26도 60분, 북규슈(北九州)의 극서에 있는 고토열도(五島列島)의 후쿠에지마(福江島)가 1백 29도, 불과

2도 남짓 차이로 현해탄(玄海灘) 건너에 바로 이웃해 있다.

이 고토오열도(五島列島)의 북쪽에 있는 우쿠지마(宇久島)나 오지카시마(小値賀島)에서는 맑은 가을날이면 제주도의 한라산(漢拏山)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한다. 거리로 따지면 채 1백 마일이 안 되는 위치에 있으며 서북 규슈(九州)의 나가사키(長崎)시와 제주(濟州)시 간에는 정기 해상 항로가 개설되기도 했었는데 카페리로 달리면 4시간 거리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일의대수(一衣帶水)로 인접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상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평균기온은 섭씨 16도, 연간 강수량은 1천 9백mm, 사가(佐賀)평야를 중심으로 한 서북규슈(九州) 일대도 이와 비슷하여 큰 차이가 없다.

제주도와 서북 규슈(九州)는 1만년전까지만 해도 땅이 붙어 있었다. 지표(地表)의 약 3분의 1을 덮고 있던 빙하(氷河)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나서야 비로소 두 지방이 바다로 갈라지게 되었다.

지리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日本)열도는 약 4억년 전부터 지구의 융기(隆起)현상에 의하여 해저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으며, 6천 5백만년 전쯤에는 완전히 대륙의 일부가 되었다. 얼마 동안 조용했던 대륙이 2천 5백만년 전부터는 격렬한 화산활동이 일어나 한반도 동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9백만년 전쯤에는 점점 해면이 넓어지면서 더욱 심한 융기와 침강(沈降)현상이 반복된다.

약 3백만년 전에는 동해의 해저는 더욱 깊어지고 일본열도는 활처럼 휘어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게 된다. 약 2백만년 전부터 80만년 전에 걸쳐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가 다시 이어지면서 대륙의 일부가 되고 동해는 큰 호수가 된다. 그러다가 4기(紀) 충적세(沖積世)의 후빙기(後氷期) 이후로는 제주도와 규슈(九州)가 급격한 해수면의 상승으로 각각 섬이 되면서 지금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다치이와 이와호(立岩 巖·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長)는 처음으로 일본열도가 제3기 이전에는 한반도를 거쳐 중국대륙과 이어져 있었다는 주장을 한 사람이지만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육속(陸續)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그의 논문 <제주도의 지질(地質)>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제주도의)현무암(玄武巖) 분출 이전의 지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면암(粗面岩)과 개화석층(介化石層) 외에도 섬의 북안 별도봉(別刀峰)의 화강암(花崗巖) 각력(角礫)을 포함하는 화산쇄설암층(火山碎屑岩層)이 있다. 화강암 각력은 제주도의 화산도 기반지질을 시사해주는 유일한 자료로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 출현 이전 이 화강암력에 의해서 시사해주는 지질의 지반이 육지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하등의 판단 재료가 없다. 쓰지마(對馬)가 제3기의 젊은 중생대층의 육지로 조선과 규슈 등과 육속(陸續)돼 있었다는 것은 필자의 연구 근거에서 알 수가 있지만 식물분포의 상태 등을 참조한다면 오히려 이 육지가 제주도까지 이어져 당시 이 섬도 조선본토(한반도)와 육속돼 있었다는 것은 매우 지당하다고 할 것이다.[123]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백악기말(白堊紀末)에서 제3기초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화강암질 암류가 광범하게 발달하고 있는데 그 암류가 제주도까지 뻗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화강암의 각력이 제주시 별도봉층(別刀峰層)을 비롯하여 성산층(城山層), 서귀포층(西歸浦層), 화순층(和順層)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124]

---

123) 立岩 巖 <濟州島의 地質> ≪文化朝鮮≫ 第3卷 第4號 46~47쪽.

124) 原口九萬 <濟州島の地質> ≪朝鮮地質調査要報≫ 第十卷 8~11쪽, 33~34쪽.
孫致武외 <漢拏山의 地形 및 地質> ≪漢拏山學術調査報告書≫ 56~58쪽.
金相昊 <濟州島의 自然地理> 4쪽.

따라서 제주도는 한반도나 규슈를 포함하는 일본열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기반 위에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고 빙기가 끝나 해수면이 상승할 때까지 같은 땅덩어리로 붙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제주와 규슈(九州)는 오랜 시일에 걸쳐 땅으로 이어져 있었으며, 1만년 이전 홍적세(洪績世)의 빙기(氷期)에도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연륙(連陸)과 융해(融海)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로 두 지방은 달라져 간 여러 상황들을 볼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한 지각에서 분열 현상이 일어났던 만큼 우선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공통 운명을 지녀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산활동이나 지각변동, 지층형성에서부터 시작하여 식물대(植物帶), 동물대(動物帶), 인맥(人脈)에 이르기까지 여러모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高野史男 <濟州島の地域性とその地理的・歷史的背景>
≪立正大學日韓合同學術調査報告書≫ 1~3쪽.

❷

일본 신(神)들의 도래 신화(神話)

규슈(九州)와의 연관관계를 살피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흥미를 끌게 하는 것은 신화(神話)라고 할 수 있다. 오오타 엔(太田湲)의 ≪제주도개조고(濟州島開祖考)≫를 보면 제주도의 개벽설화에 등장하는 세 신인(神人)과 공주를 일본의 신화에 등장하는 6신(神)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에 그 개요를 옮겨 보겠다.

동환록(東寰錄)을 보면 탐라(耽羅)에는 일찍이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 그들을 양을나(良乙那)·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라고 하였다. 그들은 사냥을 하여 짐승고기를 먹고 가죽옷을 입고 살았다. 하루는 푸른 옷에 붉은 띠를 두른 한 노인이 큰 함에 푸른 옷을 입은 세 처녀와 송아지, 망아지, 오곡 씨앗 등을 가득 싣고 나타났다. 그가 말하기를 저는 일본국(日本國)에서 온 사신입니다. 저희 왕께서 이 세 공주를 두셨는데 신(臣)에게 말씀하시기를 서해 바다 가운데에 신자(神子) 세 사람이 강림하고 장차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 배필이 없어 곤란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 세 공주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삼을나(三乙那)는 각각 나이 순서에 따라 짝을 짓고 살림을 꾸렸다. 오곡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고 송아지, 망아지를 쳐서 목축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제주도는 날로 번성하여 갔다고 하였다. 이것은 동문선(東文選)에 있는 설과도 같은 것이다.



탐라(耽羅)를 개벽한 시조 고을나(高乙那), 양을나(梁乙那), 부을나(夫乙那) 삼신을 모신 삼성사(三姓祠). 해마다 건시대제(乾始大祭)와 춘추대제를 받들고 있다.

지금 이것을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 등 여러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저 제주도는 상고시대에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가 치쿠젠(筑前)의 수미노에노오오카미(住吉大神)와 무나가타노오카미(宗像大神)를 파견하여 이를 개척하였던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서적의 기록은 곧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일본국왕은 바로 우리나라의 천조(天祖)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삼신(三神)은 수미노에(住吉)·무나가타오오카미(宗像大神)임이 틀림없다고 본다.[125]

수미노에노오오카미(住吉大神)는 이사나기노미코도(伊奘諾尊)가 황천국(黃泉國)에서 돌아올 때 츠쿠시 휴가(筑紫 日向·지금의 筑前)의 아와기하라(檍原)에서 재앙을 물리칠 때 화생(化生)하였던 여러 신 가운데 소코쓰쓰노오노미코도(底筒男命), 나카쓰쓰노오노미코도(中筒男命), 우와쓰쓰노오노미코도(表筒男命)를 말한다. 즉 치쿠젠국 나가(筑前國 那珂)

125) 太田 淸, <濟州島開祖考>, ≪考古學雜誌≫, 435~438쪽.

의 수미요시신사(住吉神社)에 제신으로 모신 삼좌(三座)는 이 세 신을 뜻한다. 이 수미노에노오오카미(住吉大神)가 태어난 치쿠젠(筑前)과 제주(濟州)는 해로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신이 강림하여 섬을 개척하게 되었다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가는 일이라고 하겠다.

무나가타오오카미(宗像大神)는 스사노오노미코도(素戔嗚尊)가 아버지 이사나기노미코도로부터 추방되어 누이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와 이별의 서약을 할 때 태어난 스사노오노미코도의 세 딸이다. 첫째가 이츠지마노히메노미코도(瀛津島姬・市寸島比賣命) 둘째가 다기츠히메노미코도(湍津姬・多岐津比賣命) 셋째가 다기리히메노미코도(田霧姬・多紀理毘賣命)라고 하였다. 지금 치쿠젠국 무나가타군 무나가타신사(筑前國 宗像郡 宗像神社)에 모신 삼좌(三座)는 바로 이들 세 여신이다.

이들 세 여신이 수미노에노오오카미의 배필이 된 사실이 기(紀)・기(記) 등에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세 여신은 천조(天祖)의 명령을 받아 아시하라노나카쓰쿠니(葦原中津國)에 있는 우사(宇佐)로부터 섬에 보내졌으며 그 섬은 북도(北道)의 바다 가운데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천조(天祖)의 명을 받들고 우사(宇佐)로부터 이 섬에 이르러 수미노에노오오카미를 모시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다. 나산선생(羅山先生)[126]의 ≪신사고(神社考)≫가운데 셋쓰국 수미요시군 수미요시신사조(攝津國 住吉郡 住吉神社條)에 보면 제1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 제2 우사묘오진(宇佐明神), 다기리히메노미코도(田霧姬命)를 이른다. 제3 소코쓰츠(底筒)・우와쓰츠(表筒)・나카쓰츠(中筒) 모두 일좌(一座)로 되어 있다. 제4 진구우황후(神功皇后)로 되어 있어 다기리히메노미코도(田霧姬命)를 합사(合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무나가타노오오카미(宗像大神)가 수미노에노오오카미(住吉大神)를 받들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수미노에노오오카미에게로 가서 그 섬을 개척한 사실도 살펴볼 수 있다.(중략)

---

126) 林羅山 : 江戶 幕府 초기의 儒學者. 이름은 忠・信勝. 羅山은 號. 僧號 道春. 京都사람. 藤原惺窩에게 朱子學을 師事받고 德川家康부터 4代에 걸쳐 侍講이 되었다. 羅山의 뒤를 이어 자손 가운데는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다. 著書 ≪本朝神社考≫등.

> 수미노에노오오카미(住吉大神)를 따로 「고오료오묘오징(高良明神)」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그들 세 신인 역시 「고량부(高良夫)」라는 사실을 보면 너무나 닮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을 일컬어 「을나(乙那)」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도나」라고 하여 우리말로 「장자(長者)」라는 뜻이다. 이를 볼 때 이들 세 신인이 수미노에노오오카미 삼좌(三座)임을 추정할 수가 있다.(후략)[127]

이 글은 이 밖에도 더 논증(論證)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신화의 비교고찰이므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고대(古代) 규슈와 제주를 연결짓는 암시성을 지닌 매우 흥미있는 문제제기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추정일 뿐이지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제주도에 도래하여 개국조(開國祖)가 된다는 설화의 전거는 나타난 것이 없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의 다른 학자들도 같은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노사다가게(天野 信景)[128]는 "고려사(高麗史)에 나오는 제주도의 개벽설화 가운데 일본국왕(日本國王)이 그의 세 딸을 이 섬에 보냈다는 것은 옛날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가 3녀(女)를 아시하라노나가츠쿠니(葦原中津國)에 내려보냈다는 설화와 바로 상통한다."고 하였다.[129]

또 이나바강기치(稻葉 岩吉)는 ≪조선민족사(朝鮮民族史)≫에서 "제주도의 전설은 치쿠젠국(筑前國) 무나가타(宗像)의 신화를 발전시킨 설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그렇다면 무나가타신사(宗像神社)의 분포를 검토해 보면 저절로 명료해지리라 생각된다."고 밝히고 있다.[130]

---

127) 太田滄, 앞의 책, 435~438쪽.
128) 天野信景(1661~1733) : 江戶時代 中期의 國學者. 尾張藩士. 著書 ≪塩尻≫100권, ≪伊勢大神宮參詣記≫등.
129) 天野信景, ≪塩尻 上卷≫

130) 稻葉岩吉, ≪朝鮮民族史≫

삼성(三姓)개벽설화에 등장하는 세 처녀의 도래지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일본설(日本說)을 지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규슈설(九州說)이 지배적이다.

가와사키 시게타로오(川崎繁太郎)는 "제주도는 본래 신인(神人)들이 살던 무릉도원(武陵桃源)과 같은 고도였다고 할 것이다. 잔존했던 화산력에 의해 대분화가 일어나고 화산재가 전도를 덮고 용암이 바다를 이루어 섬 전체가 참화를 입었다. 다행히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 피난했던 세 신인이 살아 남았지만 사면은 일변해 있었다. 우마 전답이 전멸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해안을 헤매며 해조와 어개(魚介)로 연명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 규슈 고토열도(九州 五島列島) 부근의 해녀들의 배가 표착하여 배필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다.[131]

물론 가설이지만 가능성을 아주 배제해 버릴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겠다. 1914년 제주도를 방문하였던 도리이 류우조오(鳥居龍藏・人類학자)교수는 "제주도민의 혈통(血統)은 절반이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벽설화에 나오는 삼신인(三神人)의 배필이 일본에서 왔다는 신화를 바탕으로 살펴보거나 또 용모・골격・기질 등 인류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132]

1959년 제주도 종합학술조사단 역사 고고반(考古班)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던 김철준(金哲埈・전 서울대)교수는 "형태상으로 볼 때 북규슈(北九州)의 지석묘(支石墓)와 제주도의 지석묘는 너무나 유사하여 그 사이에는 연결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규슈의 지석묘를 한국 본토의 지석묘와 비교해 보면 남방식이나 북방식이나 상이한 점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이 사이에 제주도의 지

131) 川崎繁太郎, <濟州島の地質學的 觀察>, ≪文敎の朝鮮 28년 10월≫, 12~32쪽.
132) 鳥居龍藏, <民族學上より 見たる 濟州島>, ≪鳥居龍藏全集≫第7卷, 364~376쪽.

석묘를 놓고 보면 북규슈 지석묘의 유래를 알 수 있다. 한국 본토의 지석묘가 제주도에서 일단 양식상의 변화가 일어난 다음 북규슈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주도 삼성설화(三姓說話)에 왜왕녀(倭王女) 3인(人)이 도래, 왕비(王妃)가 된다는 이야기는 이런 연결에서 왔다고 볼 수 있고 이 삼성설화(三姓說話)는 이 지석묘 조영자(造營者)들에 의한 설화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고 하였다.[133]

한동구(韓東龜)는 ≪삼다(三多)의 통곡사(慟哭史)·제주도(濟州島)≫에서 "제주도는 지석묘(支石墓)의 형태나 토기(土器)의 문양(紋樣), 그리고 설화(說話)의 유사성 등을 놓고 볼 때 한국 본토와 북규슈(北九州) 사이에 중간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고대에 한반도 남부에 한인(韓人)이 정주할 무렵부터 왜인(倭人)이나 주호인(州胡人)도 혼거하였던 사실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문화교류를 볼 때 제주도와 북규슈는 밀접한 관련성(關聯性)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134]

이상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의 한국과 일본인 학자들은 제주도의 삼신인과 그 배필간의 신화를 규슈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철준 교수는 특히 제주와 규슈의 지석묘가 유사한 점을 빗대 이를 동일문화를 지닌 집단으로 이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주의 신화가 탄생된 것으로 보고 있다.

---

133) 金哲埈, <濟州島의 돌멘과 先史文化>, 서울大 人文社會科學 9輯.
金哲埈, ≪韓國古代史研究≫, 283~327쪽.
134) 韓東龜, ≪三多の 慟哭史·濟州島≫, 130~131쪽.

❸
두 지역의 유적과 유물

송석범(宋錫範, 關西外國語大學)교수는 그의 저서 ≪제주도 고대문화(濟州島 古代文化)의 수수께끼≫에서 "제주도에 전해 온 건국신화(神話), 또 진시황제(秦始皇帝)의 사자 서불(徐市)에 관한 전설 등 이를 해석해 보면 아득한 옛날부터 제주도와 일본의 북규슈(北九州)지방은 무엇인가 교류(交流)가 있었던 게 확실하다. 제주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과의 교통은 고래(古來)로부터 매우 빈번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북규슈 지방과의 관련성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북규슈와 제주도의 지석묘(支石墓·고인돌)에 관하여 하나 하나 비교연구하고 있다. 다음에 그의 글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 보기로 하겠다.

> 일본 규슈(九州)에도 10개소 이상 지석묘군(支石墓群)이 있는데 후쿠오카현(福岡縣)의 이토지마군(糸島郡)·츠쿠시군(筑紫郡)·우키하군(浮羽郡), 사가현(佐賀縣) 히가시마츠우라군(東松浦郡), 나가사키현 미나미다카기군(長崎縣 南高來郡), 구마모토현(熊本縣) 타마나군(玉名郡)과 오이타현(大分縣) 일부에 그치고 있다. 조사한 것을 보면 거대한 개석(蓋石)을 수 개의 지석(支石)이 받치고 있는데 하부의 주체부는 대부분 옹관(甕棺)이거나 석실(石室)이며 때로는 토광(土壙)으로 되어 있으나 탁자



긴류산(金立山) 기슭의 마루야마 유적(丸山遺跡).

형(卓子形)은 볼 수 없다.

지석묘는 남한(南韓)의 지석묘 하부구조에 가까워 그 원류(源流)가 남한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구조상 명백하게 상이하며 출토품(出土品)의 성질에도 차이가 있다. 북방식(北方式)의 지석묘 형식이 남방에서는 허물어져 남방 독특한 형식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닌가 한다. 또 남방식 지석묘 형식이 제주도에서 허물어져 제주도 특유의 형식이 이뤄졌다고 하면 이 형식은 다시 허물어지면서 일본 북규슈(北九州)지방의 형식을 낳았다고 생각된다.

(중략)제주도 특유의 지석묘는 그 지석(支石)이 한쪽 뿐으로 개석(蓋石)의 한쪽은 지면에 붙어 있다. 남방식 지석묘의 지석이 바뀌며 생긴 형식으로 생각된다. 이 제주도의 형식이 다시 바뀌면서 생긴 형식이 북규슈의 지석묘라고 할 수 있다. 개석만 지상에 보일 뿐 지석은 땅 속에 파묻힌 상태로 있다. 또 지석은 아예 없어지고 개석만 놓인 지석묘도 있다.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족적(足跡) 돌멘의 수수께끼는 제주도와 북규슈의 지석묘 관계를 충분히 제기해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돌멘족(族)의 유입(流入)경로가 흥미있는 문제점으로 제주도의 건국신화에도 일본국의 왕녀가 등장하지만 오랜 옛날부터 제주도와 북규슈 지방은 무엇인가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암시를 제기해 준다.[135]

고인돌이 같은 계통일 것으로 보는 견해는 한국이나 일본의 학자들도 대체로 공통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대나 경로, 또 양식의 변형(變形) 등에 대하여는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김원룡(金元龍・전 서울대)교수는 "우리나라의 지석묘는 유럽이나 중국 해안 지대의 그것들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요동(遼東)~서북한(西北韓)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생각된다. 혹시 시베리아 청동기(青銅器)시대의 묘제(墓制)에서 볼 수 있는 석상분(石箱墳)사상이 형태를 바꾸어 이와 같은 지석묘로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

135) 宋錫範, ≪濟州島 古代文化の 謎≫ 59~61쪽.



후쿠오카시(福岡市)의 이다츠게 유적(板付遺跡).

그리하여 이 지석묘는 북한강(北漢江) 유역 이북의 북방식(北方式)「탁자형(卓子形)」과 금강(錦江), 낙동강(洛東江) 유역 이남에서 보는 남방형(南方形)「개석식(蓋石式)」으로 구분하고 있다. 북방식은 늦어도 기원전 3세기 이전에 소멸했다고 보며 남방식은 그보다 뒤늦게 나타나 기원 1세기 전후까지 존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136]

지난 1990년대 초반 제주를 방문하였던 에사카 테루야(江坂輝彌·慶應大 名譽教授)교수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제주도와 서북 규슈(九州)의 지석묘가 같은 계통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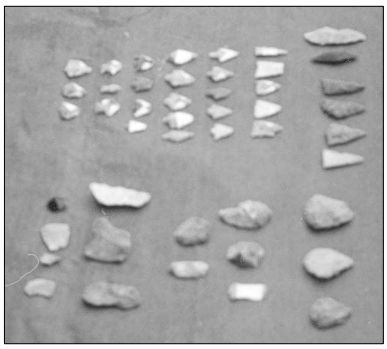
"제주도나 서북 규슈 지방의 지석묘는 기반형지석묘(碁盤型支石墓)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중국 절강성(浙江省) 서안현(瑞安縣)이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석묘는 비단 두 지방 뿐 아니라 전라북도 고창군(全羅北道 高敞郡)을 비롯하여 남한(南韓) 일대에도 분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문화의 루트는 육로보다는 해로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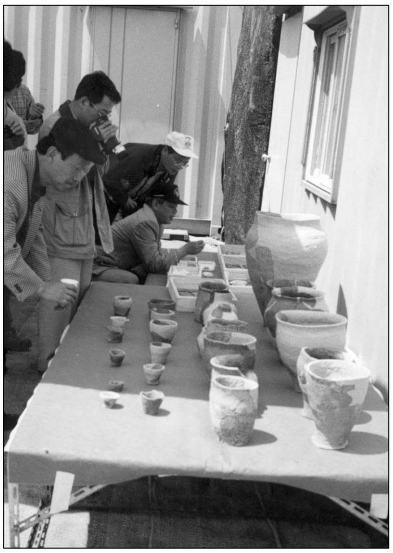
에사카 교수는 그 루트를 중국 서부 연안을 거쳐 산동(山東)반도에서 한반도 서남 해안을 따라 제주도와 서북 규슈로 이를 수 있고, 또 절강(浙江)에서 직접 유구(琉球)열도를 거치며 규슈나 제주도로 전파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에사카(江坂)교수는 토기(土器)에 있어서도 서북 규슈나 제주도 그리고 우리나라 남부 해안 일대는 깊은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서북 규슈에는 B.C 1만년이 넘는 토기문화(土器文化)의 기원을 볼 수 있으며 B.C 5천년대부터는 남한에서도 즐문토기문화(櫛文土器文化)가 존재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남한의 일부 세융선문토기(細隆線文土器)와 서북 규슈(九州)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죠몬

136) 金元龍, ≪韓國考古學槪說≫, 110~113쪽.









제주시 삼양동유적(濟州市 三陽洞 遺跡)에서 출토된 유물.

전반기(繩文前半期)의 세융선문토기(細隆線文土器)는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여기에 대하여는 좀 더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부산(釜山)시 영도(影島)의 동삼동(東三洞) 패총(貝塚)에서 출토된 흑요석(黑曜石)의 석기박편(石器剝片)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 흑요석은 서부 규슈의 사가현 니시마츠우라군 니시아리다정 고시다게산(佐賀縣 西松浦郡 西有田町 腰岳産)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는 서부 규슈의 이마리시(伊萬里市·徐福 첫 상륙설이 있는 전승지)와 한반도(韓半島) 남해안에 교류가 있었던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였다.[137]

이와 관련하여 김원룡(金元龍)교수는 "동삼동(東三洞) 패총(貝塚)에서는 B.C 3천년 이전의 즐문토기(櫛文土器)가 대량으로 나오는데 침선(沈線)은 타 지역에 비해서 굵어지며 이 같은 형식은 경남(慶南)해안 지방에 퍼져 있다. (중략) 이 시기에 즐문토기인이 북에서 낙동강(洛東江) 유역으로 밀려온 것 같다. 이 즐문토기인의 남진(南進)은 해협을 건너 북규슈(北九州)에까지 미친 모양이며 규슈 사가현 가라츠시 니시가라츠(九州 佐賀縣 唐津市 西唐津) 해저에서 발견된 증전식토기(曾畑式土器)에 즐문토기의 영향이 미친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138]

한편 동삼동(東三洞) 패총(貝塚) 유물 조사에 참여하였던 사카다(坂田邦洋·九州 大分大)교수는 "이 유물 속에서 일본 전기죠몬토기(前期繩文土器)시대(B.C 4800~2800)의 새신식(塞神式)·굉식(轟式)·소바다식(曾畑式)의 여러 토기와 북규슈 이마리산 흑요석(伊萬里産 黑曜石)으로 만든 석기(石器)를 검출하였으며 일본 중기(中期·B.C 2800~1800)의 아고식(阿高式)토기, 석거(石鋸), 석봉(石棒) 그리고 동 후기(後期·B.C

137) 江坂輝彌, <朝鮮半島 南部と 西九州 地方の 先史·原史時代に おける 交易と 文化交流>, ≪松阪大學紀要 4號≫, 7~12쪽.
138) 金元龍, 앞의 책, 72쪽.

1900~1100) 소속의 서평식(西平式) 토기와 토우편(土偶片)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말하자면 낙동강(洛東江)과 서북규슈(西北九州) 사이에는 B.C 4천년대부터 1천년대까지 전후 3천년 동안 접촉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도 그 동안 즐문토기(櫛文土器)는 제주시 한천(漢川)유역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면의 연구자들이 없어 이것을 체계 있게 정리해 놓은 보고서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기록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1967년에 임효재(任孝宰·서울大)교수가 제주시 오라동(吾羅洞)에서 빗살무늬토기(土器)를 채집한 것을 볼 수 있고, 1972년 문기선(文基善·전 濟州大)교수가 북제주(北濟州)군 조천(朝天)읍 북촌(北村)리 고두기 언덕 유적(遺蹟)에서 즐문토기(櫛文土器) 계통으로 보이는 삼각점렬무늬토기[押捺斜線文土器]등을 채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 1973년에는 부종휴(夫宗休, 식물·동굴학자)에 의하여 북제주(北濟州)군 한림(翰林)읍 월령(月令)리 한들굴 유적에서도 많은 석기 토기 가운데 삼각렬무늬토기 등이 채집되고 있다.

최근에는 ≪제주(濟州)의 선사유적(先史遺蹟)≫등 여러 권의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만 고두기 언덕유적 등 한 두 곳을 제외하면 거의가 무문토기(無文土器)계통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방면의 조사 작업들이 진행되면 북규슈와 연결되는 많은 유물들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제주도와 규슈(九州)의 문화교류는 이미 선사(先史)시대부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역사시대로 들어오고 나서도 꾸준히 이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❹

탐라(耽羅)와 고대 일본과의 국교

≪일본서기(日本書紀)≫를 보면 7세기 중반이후 탐라와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관련 기사를 볼 수 있다. 백제의 멸망과 신라의 삼국통일(660~668)을 전후하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탐라와 일본과의 교류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를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제주와 규슈의 관계는 역사시대로 들어오고 나서도 꾸준히 지속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본서기(日本書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류 관련기사를 다음에 보기로 하겠다.[139]

① 661년 5월(권 26, 사이메이천황(斉明天皇) 7년)
"탐라가 처음으로 왕자 아파기 등을 파견해 공물을 헌상했다."
(耽羅始遣 王子 阿波伎等 貢獻)
② 665년 8월(권 27, 덴지천황(天智天皇) 4년)
"탐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내조하였다."
(耽羅 遣使 來朝)
③ 666년 1월(권 27, 덴지천황 5년)

---

139) ≪日本書紀≫ 卷 26 齊明天皇~卷 30 持統天皇條.

"탐라가 왕자 고여 등을 파견 공헌하였다."

(耽羅 遣王子 姑如等 貢獻)

④ 667년 7월/윤11월(권 27, 덴지천황 6년)

"탐라가 좌평 연마 등을 파견 공헌하였다."

(耽羅 遣佐平 椽磨等 貢獻)

"금(錦) 14필, 힐(纈) 19필, 비(緋) 24필, 감포(紺布) 24단, 도염포(桃染布) 58단, 부(斧) 26, 삼(鉎) 64, 도자(刀子) 62매를 연마 등에게 주었다."

(以錦十四匹 纈十九匹 緋廿四匹 紺布廿四端 桃染布五十八端 斧廿六 鉎六十四 刀子六十二枚 賜椽磨等)

⑤ 669년 3월(권 27, 덴지천황 8년)

"탐라가 왕자 구마기 등을 파견하여 공헌하였다. 그들이 돌아가는 날 탐라왕에게 오곡의 종자를 하사하였다."

(己丑. 耽羅 遣王子 久麻伎等 貢獻. 丙申. 賜 耽羅王 五穀種 是日 王子 久麻伎等 罷歸)

⑥ 674년 윤6월/8월(권 29, 덴무천황(天武天皇) 2년)

"탐라가 왕자 구마예 도라 우마 등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耽羅 遣王子 久麻藝・都羅・宇麻等 朝貢)

"이어서 탐라국에 있는 왕과 사신 구마예 등에게 처음으로 작위를 내렸다. 그 작위는 대을상이었으며 금수의 장식을 달도록 하였다. 그 나라의 좌평 벼슬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츠쿠시(筑紫)에서 귀국하였다."

(仍在 國王及 使者 久麻藝等 肇賜爵位 其爵者大乙上 更以錦繡潤飾之 當其國之佐平位 則自筑紫 返之)

⑦ 676년 8월/9월(권 29, 덴무천황 4년)

"탐라의 조공사 왕자 구마기가 츠쿠시에 묵었다."

(耽羅調使 王子 久麻伎 泊筑紫)

"탐라왕 고여가 나니와(難波・지금의 大阪)에 도착하였다."

(耽羅王 姑如 到難波)

⑧ 677년 2월/7월(권 29, 덴무천황 5년)

"탐라의 손님에게 배 한 척을 주었다."

(耽羅客 賜船一艘)

"탐라의 손님이 귀국하였다."

(耽羅客 歸國)

⑨ 678년 8월(권 29, 덴무천황 6년)

"탐라가 왕자 도라를 파견하여 조공했다."

(耽羅 遣王子 都羅 朝貢)

⑩ 679년 1월(권 29, 덴무천황 7년)

"탐라인이 서울로 향했다."

(耽羅人 向京)

⑪ 680년 9월(권 29, 덴무천황 8년)

"신라, 고구려, 탐라에 파견했던 사신들이 돌아와 조정에서 함께 왕을 배알하였다."

(癸巳. 遣新羅 使人等 返之拜朝. 庚子. 遣高麗 使人 遣耽羅 使人等 返之共拜朝庭)

⑫ 685년 10월/686년 8월(권 29, 덴무천황 13년/14년)

"아가다이누가이노무라지 다스키(縣犬養連手繼)를 대사(大使)로, 가와라노무라지 가네(川原連加尼)를 소사(小使)로 삼아 탐라에 파견하였다. 이듬해 8월 탐라에 보낸 사신들이 돌아왔다."

(縣犬養連手繼 爲大使 川原連加尼 爲小使 遣耽羅/ 遣耽羅使人等 還之)

⑬ 688년 8월/9월(권 30 지토천황(持統天皇) 2년)

"탐라왕이 좌평 가라를 파견해 방물을 바쳤다."

(耽羅王 遣佐平 加羅 來獻方物)

"탐라의 좌평 가라 등에게 츠쿠시관에서 향연을 베풀고 물건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饗耽羅佐平 加羅等 於筑紫館 賜物 各有差)

⑭ 693년 11월(권 30 지토천황 7년)

"탐라국의 왕자·좌평 등에게 (물품을) 주었는데 각각 차등이 있었다."

(賜耽羅王子·佐平等 各有差)

이상 사이메이기(齊明紀)에서 지토기(持統紀)까지(661년~693년) 30여 년에 걸친 탐라와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기사를 보았다. 이는 양국간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의 기사에서 주목을 끄는 대목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①의 사례이다. 661년 5월 탐라와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분명하게 국호(國號)를 밝히고 있으므로 정식 방일(訪日)사절로 추정된다. 물론 ≪일본서기≫에는 이 보다 앞선 시기에도 일본학자들에 의해 제주도로 추정되는 여러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탐라(耽羅)'라는 국호 사용과 고대 국가간 상호 외교관계의 일환으로 이해되는 '견사(遣使)' 또는 '공헌(貢獻)'의 용어 사용은 이 때부터 공식적인 교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⑦의 676년 9월의 기사이다. 이 기록에만 따른다면 탐라왕 고여(姑如)가 직접 일본을 찾아가 꼬박 1년 동안을 머물렀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고여(姑如)가 666년 왕자 때 일본을 찾아갔으니 10년 뒤에 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왕이 직접 또 일본을 찾아가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데는 의문이 없을 수 없다. 게다가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에도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처음 나니와에 도착한 것은 '탐라왕 고여(姑如)'라고 하였지만 다음에 '배 한 척을 내주었다'는 기록과 또 '귀국했다'는 기록에 있어서는 다만 '탐라의 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이 무렵 탐라는 한반도의 삼국체제가 무너지고 신라의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급변기를 맞아 매우 예민한 정세 아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친린관계를 유지해오던 백제가 나당(羅唐)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고 적대국이었던 신라가 승전국으로 등장하였으므로 외교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을 때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이 같은 빈번한 교류도 이런 정세아래 이루어진 활발한 외교활동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탐라왕이 직접 일본을 방문하고 장기 체재했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셋째는 ⑪, ⑫의 680년과 685년의 기사이다. 위의 기록을 보면 일본은 탐라로부터 조공이나 방물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탐라에 사절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고 있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이 탐라나 신라와의 사이에 서로 방물을 주고받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로 보아 탐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일방적 청원(請願)관계가 아니고 상호 친린(親隣)관계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탐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서기≫에 확인된 기사에 의해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탐라의 사신 파견은 신라 삼국통일 후에 집중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본학자들은 일본의 지원을 도모했던 것이라 주장하지만, 일본 사신의 탐라 파견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식 국교 수립에 의한 상호 공존의 친린관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초기 기사에 대한 신빙성

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중 제주도와 관련 있는 대목이 두 차례나 나온다. 역사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아래에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수이진(垂仁)천황 때 다지마모리(多遲麻毛理・田道間守)가 '상세국(常世國)'에 가서 '도키지쿠노가구노고노미(非時香菓・감귤)'을 구해 오는 유명한 설화가 있다. 이 상세국이 어디냐 하는 것이 일본사람들의 관심거리로 떠올라 있다. 도리이 교수는 "이 상세국이 바로 제주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 白石)의 ≪동아(東雅)≫에 나오는 다음 글을 인용하고 있다.

> 다지마모리는 신라국의 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天之日矛)의 후예다. 그 계보는 고사기(古事記)나 일본기(日本紀) 등에 자세히 나타난다. 상세국이라 함은 옛 신라국 즉 지금의 조선 제주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도 이 섬에는 감귤이 나는데 나라의 진품이 되고 있다. 한국은 다지마모리의 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파견하게 된 것이다.[140]

위의 견해에서「귤」의 생산이 상세국과 탐라를 동일시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다소 논거가 미약한 주장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일본서기≫에는 다지마모리가 귤을 구해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만리의 파도를 헤치고 멀리 큰 내(弱水)[141]를 건넜습니다. 이 상세국은 신선의 비국이고, 속인이 갈 곳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왕래하는 데에 10년이나 걸렸습니다.

---

140) 鳥居龍藏, <民族學上より 見たる 濟州島>, ≪鳥居龍藏全集≫ 第7卷, 371~373쪽.

141) 弱水 : 西王母가 살았던 仙境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전설상의 강. 길이가 3천리나 되었다고 하는 큰 강으로 알려져 있다. 그 소재가 어딘가 하는데는 崑崙山說, 勞山說, 泰國西域說, 西海說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기록에 있어서도 ≪史記≫, ≪後漢書≫, ≪山海經≫등 차이를 보이고 있다.

萬里蹈浪, 遙度弱水. 是常世國, 則神仙祕區, 俗非所臻. 是以, 往來之間, 自經十年[142]

따라서 상세국이 과연 탐라인가 하는데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 기사가 실린 ≪일본서기≫의 연대 제시에 있다. 수이진 천황이 재위 99년에 죽었고, 그 때 나이는 140세였다는 것이다. ≪일본서기≫초기 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연대표기에도 있는 것이다.

둘째, ≪일본서기≫의 진구우(神功)황후조(皇后條)[143]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진구우황후가 백제장군인) 목라근자(木羅斤資)에 명령하여 신라를 격파하고 이어서 비자체(比自㶱)·남가라(南加羅) 등 7국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군사를 옮겨 서쪽을 돌아 고해진(古奚津)에 가서, 남만의 도무다례(忱彌多禮)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卽命木羅斤資…擊新羅而破之. 因以, 平定比自火本·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 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위 기록에서 일본학자[144]들은 도무다례(忱彌多禮)를 제주도로 보고 고해진(古奚津)을 전라남도 강진(康津)으로 보고 있는데, 이른바 진구우황후의 가야(伽倻)원정 때 가야의 여러 나라만 친 것이 아니라 제주도까지 점령하여 백제국에 내려 주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에 따른다면 당시 제주도는 백제에 따르는 관계가 아니었

142) ≪日本書紀≫卷 6, 垂仁天皇 99年條.
143) ≪日本書紀≫ 卷 9, 神功皇后 攝政 49年(227) 3月條.
144) 坂本太郎 等, ≪日本書紀≫下, 岩波書店, 1977(13刷本), 355~357쪽.

던 것을 이 때 비로소 백제에 붙도록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도무다례(忱彌多禮)가 바로 제주도로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아닐 수 없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삼국도 한 번 침략해 보지 못한 탐라국을 일본은 뚜렷한 이유나 명분도 없이 그렇게 손쉽게 침략했겠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설득력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주도의 고대에 관한 기록이 중국과 우리측을 비롯하여 그렇게도 많은데 왜 유독 일본서기에서만 볼 수 있느냐 하는데는 의문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145]

이 밖에 도콰라(覩化羅), 다라(墮羅), 도라(度羅) 등에 관한 기록들도 나오는데 이 지명도 일본학자들은 제주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이 서기(書紀)에 나오는 기록들을 그대로 역사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록이 나오게 된 이면에는 규슈와 탐라 사이에 그 만한 교류가 있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는 생각이 든다.

규슈와 제주도는 해양적(海洋的) 측면에서 보아도 남태평양에서 밀려온 구로시오(黑潮)가 부딪쳐 갈려 나가는, 같은 조건아래 놓여 있다. 그리하여 두 지방 사이에는 서로 표류자(漂流者)들도 많았다. 그 표류 기록은 이미 고대(古代)부터 찾아볼 수 있다.

661년 탐라왕자 아파기(阿波伎)가 일본에 공물을 바치게 된 것도 알고 보면 일본의 이키노무라지 하카도코(伊吉連博得) 등이 월주(越州)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풍을 만나 9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탐라에 표착하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초청으로 아파기(阿波伎) 등 9명이 그들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그 뒤 779년(光仁天皇 9) 11월 견당사(遣唐使)로 갔던 사쓰마국(薩摩

145) 洪淳晩, <濟州古代史>, ≪濟州市三十年史≫, 1985, 130~134쪽.

國·九州) 관리일행이 탐라에 표착하였다가 돌아간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이듬해 5월조에는 견당사(遣唐使)의 보고에 바닷길이 험난하여 사신들이 표몰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탐라에 표도하였다가 붙들려 약탈을 당하는 일도 있다는 기록을 ≪속일본기(續日本紀)≫등에서 볼 수 있다.

중세로 들어 오면서는 더욱 많은 표류 기록들을 볼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등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한다. 그 중 세 가지 사례를 아래에 소개한다.

첫째, 1029년(顯宗 20) 7월 "탐라인 정일(貞一)등 21명이 항해 도중 풍랑에 밀려 동남쪽의 먼 섬에 이르렀는데 섬사람들은 몸이 크고 온 몸에 털이 났으며 말도 달랐다. 억류된 지 7개월만에 정일(貞一) 등 7명이 작은 배를 훔쳐 타고 탈출, 동북쪽으로 일본 나사부(那沙府·九州 長崎)에 이르러 비로소 살아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1078년(文宗 32) 9월에는 "일본국(日本國)에서 탐라의 표류인 고려(高礪) 등 18명을 돌려보내 왔다"고 하였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이 무렵 표류자가 일본 규슈(九州)에만 이르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244년(高宗 31) 2월 태풍을 만난 일본 상선(商船)이 제주해안에서 파선된 일이 있었다. 당시 제주부사(濟州副使) 노효정(盧孝貞)과 판관(判官) 이각(李珏)이 비단 은주(銀珠) 등 여러 가지 물건을 사사로이 가로챘는데 뒤에 유사(有司)의 탄핵으로 들통나 각각 섬으로 유배(流配)되었다.

표류 기록은 그 뒤로도 계속되며 조선(朝鮮)시대에 들어오면 더욱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다.

❺
중세의 제주와 규슈

탐라(耽羅)와 일본(日本·규슈)은 고대(古代)부터 깊은 관계가 있었고, 특히 백제(百濟)가 멸망하던 7세기에는 서로 사절이 오가는 빈번한 왕래가 있었다. 이때는 일본서기(日本書紀)의 기록에서 보았던 것처럼 왕이나 왕자가 직접 찾아다니고 방물(方物) 등을 주고받는 등 두터운 친린(親隣)관계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던 것이 8세기 이후로는 공식사절이 오가는 일을 그치고 있다. 그것은 탐라(耽羅)가 신라(新羅)에 복속하면서 신라의 견제가 있었거나 스스로 그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뒤로도 서로 표류자(漂流者)들을 돌려보내거나 약사(藥師)가 찾아가고 토산물의 교역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 있어 교류관계는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선린관계와는 달리 중세(中世)이후 두 지방 사이에는 불행한 관계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왜구(倭寇)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왜구(倭寇)의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13세기 초엽부터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부터는 제주도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1341년(忠惠王 2) 정의현(旌義縣) 침입을 비롯하여, 1351년(忠定王 3)

귀일현(貴日縣) 침범, 1352년(공민왕 1) 우포현(友浦縣・大靜지경) 등을 침구하고 있으며, 1359년(공민왕 8)에는 대촌(大村・濟州市)까지 침범하고 있다. 이 때부터 1392년 고려(高麗)가 멸망할 때까지 근 50년 동안 왜구(倭寇)는 간단없이 이어져 제주도의 여러 해촌을 침범하고 있다.

15세기 조선시대에 들어오고 나서도 왜구(倭寇)는 그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왜적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행동도 거칠어져 이 무렵에 목사(牧使)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격퇴한 사례들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510년(중종 5)에는 삼포왜란(三浦倭亂)이, 1555년(명종 10)에는 을묘왜란(乙卯倭亂)이 일어난다. 이 두 왜란을 치르면서 왜구는 더욱 극성스러워진다.

특히 을묘왜란을 전후해서는 제주도에서도 큰 왜란을 두 차례나 치르게 된다. 그 하나는 1552년(명종 7)의 천미포왜구(川尾浦倭寇)요, 다음 하나는 1555년(명종 10)의 제주성왜구(濟州城倭寇)였다.

천미포(川尾浦)왜구는 1552년 5월 정의현 천미포(旌義縣 川尾浦)에 왜선 8척이 침입하면서 일어나 한 달 동안을 끌었던 사건이다. 천미포(川尾浦)에 배를 댄 왜적들은 수백명이 상륙하여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항거하자 그들은 창과 칼을 휘둘러 가차없이 살육을 감행하였다. 목사(牧使) 김충렬(金忠烈)과 현감(縣監) 김인(金仁)이 군사를 이끌고 이틀동안 항전하였지만 그들을 격퇴시킬 수가 없었다. 아군의 공격을 받은 그들은 흩어져 일부는 민간선박을 탈취하여 도주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그대로 남아 끝까지 항전하였다.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문관이었던 김충열(金忠烈) 대신 무관인 남치근(南致勤)을 제주 목사로 임명하고 원군과 함께 제주에 파견하였다. 다음달 초에야 제주에 도착한 남치근(南致勤)목사는 즉시 왜적을 소탕하였으나 이때는 이미 거의 탈출해버린 뒤여서 잔적은 3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때 남아있던 왜적 수괴 망고삼부라(望古三夫羅)가 생포되었는데 그는 성천부(成川府)에 유형(流刑)되었다. 또 목사 김충열(金忠烈)과 현감 김인(金仁) 등도 각각 유형(流刑)시켰다.[146]

제주성(濟州城)의 왜구(倭寇)는 그로부터 3년 뒤인 1555년 6월에 일어났다. 이 때 을묘(乙卯)왜란으로 영암(靈岩)에서 패퇴한 왜적선 40여 척(60여 척 설도 있다)이 화북포(禾北浦)로 쳐들어 왔다. 그들 왜적 1천 여명은 화북포에 상륙하고 나서 일격에 제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당시 목사는 김수문(金秀文)이었고, 판관(判官)은 이선원(李善源)이었다. 이때는 천미포왜변의 교훈이 있었던 터이므로 사전에 단단한 대비를 해놓고 있을 때였다.

이 무렵 왜적들은 노략질과 전투로 단련된 날랜 무리들이었고, 1천명이 넘는 대병력이었지만 목사이하 전 주민이 단결하여 지켰으므로 제주성을 점거할 수가 없었다. 성(城)공방전은 3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지만 왜적들은 끝내 성을 함락할 수 없었다. 이때 목사 김수문(金秀文)은 정로위(定虜衛) 김직손(金直孫), 갑사(甲士) 김성조(金成祖)·이희준(李希俊), 보인(保人) 문시봉(文時鳳) 등으로 하여금 용감한 군사 70명을 선발하여 특공대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남수각(南水閣)의 유리한 지형을 이용하여 역공을 감행하였으며, 이 작전은 크게 주효하였다.

이 왜변에서 왜장(倭將)이 전사하고, 왜적 3백 여명이 사살, 또는 생포되었으며, 왜선 10여 척이 격침되고 5척이 포획되었다. 이 왜변은 왜적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고 패퇴함으로써 3일만에 아군의 대승으로 끝났다.[147]

---

146) ≪明宗實錄≫, 7年 5月條.
金錫翼, ≪耽羅紀年≫卷二, 42~43쪽.
147) ≪明宗實錄≫, 10年 7月條.
金錫翼, ≪耽羅紀年≫ 卷二, 43~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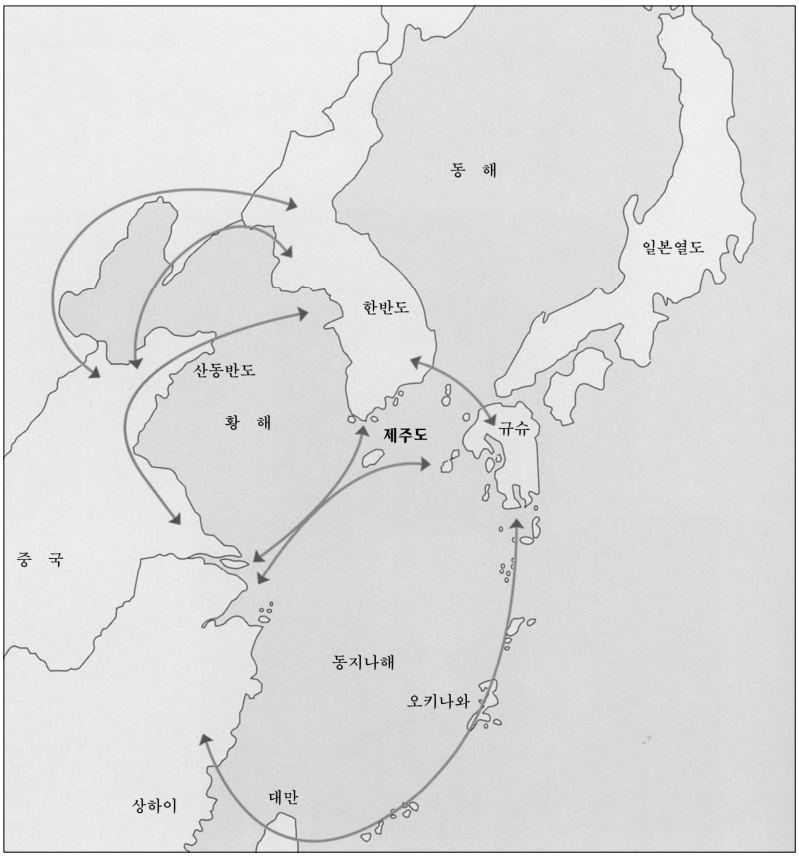
이 왜변이 계기가 되어 화북포(禾北浦)를 비롯한 도내 각 요소에 방호소(防護所)와 수전소(水戰所)를 두게 하였으며, 진성(鎭城)을 축조하여 군사와 군선 등을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 뒤로 왜적이 상륙 공격하는 일은 그쳤으며, 왜구도 한 동안 뜸하여졌다.

그러면 이들 왜구(倭寇)로 알려졌던 해적(海賊)들은 누구였으며, 또 그들의 본거지는 어디였느냐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이 방면의 연구서를 내고 있는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名古屋大) 교수의 <중세(中世) 동(東)아시아 해역(海域)에 있어서의 해민(海民)과 교류(交流)>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카하시 교수는 이 왜구(倭寇)의 주체를 이른바 '해민(海民)'과 같은 집단으로 본다. 이 해민(海民)에 대하여 기록상 가장 일찍 나타나는 것으로는 오(吳)나라의 해민(海民)을 볼 수 있다. ≪한서(漢書)≫의 "오나라는 배로써 집을 삼고, 생선으로 음식을 삼는다"(吳地 以船爲家 以魚爲食)는 기록이 바로 그것이다. 이 "배로써 집을 삼는다"는 표현은 고대부터 어떤 특정의 해민(海民)이 존재하였음을 뜻하고 있으며, 그것이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퍼졌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 일본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395년 일본국 회례사(日本國回禮使) 최용소(崔龍蘇)가 귀국할 때 이마가와 료오슌(今川了俊)이 조선(朝鮮)정부에 보낸 서장(書狀)에서도 "해중구적 이주위가(海中寇賊 以舟爲家)…"의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에도 중세때 해민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하바라 유우기치(羽原又吉)는 그의 ≪일본고대어업경제사(日本古代漁業經濟史)≫에서 일본문화(日本文化)에 있어서의 남방적 요소(南方的要素)로 해민(海民)을 차용하고 있다. 그는 이 해민을 두 종류로 나누고 그 하나를 잠수어업인 해녀(海女)로 보고, 다른 하나를 '가선(家船)'의 사람들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 해민의 본거를 북규슈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韓)·중(中)·일(日) 사이에는 여러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北九州)를 중심으로 이키(壹岐)·쓰시마(對馬)·고토열도(五島列島), 그리고 남규슈(南九州·隼人系統)로 본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왜구(倭寇)의 근거지로 알려진 북규슈(北九州)·이키(壹岐)·쓰시마(對馬)와 거의 지역을 같이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그들 해민(海民)이 바로 왜구(倭寇)의 구성원이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48]

또 하바라(羽原)나 다카하시(高橋)교수 등은 이 해민(海民)이 중국이나 일본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韓國)에도 있었다고 보며, 특히 제주도(濟州島)의 해민(海民)은 구주(九州)와 같은 계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바라(羽原)는 제주도의 해녀(海女)와 규슈(九州)의 해녀는 출생, 혈연(血緣)이나 생활기반 등이 모두 동일한 바탕 위에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다카하시(高橋)교수는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 해민(海民)이 왜구(倭寇)와 여러모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태도다. 1472년(성종 2), 전라도 낙안(全羅道 樂安)의 장교(將校) 김배(金培) 등 30여명이 작당하여 연해(沿海)지역에서 해적(海賊)행위를 자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때의 성종실록(成宗實錄)에는 "낙안장교(樂安將校) 김배(金培) 등 30여명이 작당하여 활을 가지고 4척의 배를 타고 다니며 혹은 왜인(倭人)이라 속이고 혹은 제주인이라 하여 여러 섬에 정박하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약탈을 일삼고 마을에 방화하며 도둑질을 자행한다"고 하였다.[149]

다카하시(高橋)교수는 이런 기록을 들어 이는 왜인(倭人) 뿐 아니라 제주인(濟州人)도 해적(海賊)으로 두려운 존재였음을 뜻하는 것으

148) 高橋公明, <中世 東アジア海域に おける 海民と 交流>,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8卷≫, 175~178쪽.
149) ≪成宗實錄≫, 3年 2月條.

로 지적하고 있다.

또 성종실록(成宗實錄)에도 "…제주인 2백 여명이 사천(泗川)에 와서 사는데 부역을 정하려고 하면 도피해 버립니다. 근래에 해적들이 살인을 하는데 이들의 짓이 아닌가 합니다."는 기록이 있고, 같은 해 11월의 실록에는 "근년에 제주 삼읍(三邑) 백성이 자칭 두독야지(豆禿也只)라고 하여 처자를 거느리고 배를 타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연변을 떠돌아다니는 자들이 있습니다…"는 기록이 있다.150)

이 무렵 출륙 제주인(出陸 濟州人)들은 주로 '복작한(鰒作干・鮑作人)'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두독야지(豆禿也只)', '두무악(頭無岳)', '두모악(豆毛岳)' 등 여러 가지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하여 다카하시(高橋)교수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정리해 놓고 있다.

△ 조선(朝鮮)조정은 수적(水賊)의 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 해민(海民)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수령(守令)과 해민(海民) 사이에는 오랜 역사(歷史)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 그 관계는 그들이 해민의 강점인 전복채집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 제주 해민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수적(水賊)은 왜어(倭語)를 말하고 왜복(倭服)을 입는 등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쪽에서 왜구(倭寇)인지 수적(水賊)인지 식별하기가 곤란하다.

△ 동시에 이는 제주도의 해민과 왜인(倭人) 사이에는 밀접한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다카하시(高橋)교수에 따르면 제주도의 해민(海民)은 왜구(倭寇)와 구분하여 사용되었던 수적(水賊・한국인 海賊)의 주종을 이루고 왜구

150) ≪成宗實錄≫, 4年 10月條, 8年 11月條, 13年 閏 8月條.

(倭寇)와도 일맥상통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참으로 주목할만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왜구(倭寇)와 제주해민(濟州海民)을 관련시킨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교수의 논문 가운데는 더욱 주목할만한 내용이 있다. 14세기 말엽(고려말) 왜구(倭寇)가 우리나라 삼남(三南)지방을 휩쓸며 극성을 부리던 시대, 전설적인 소년 왜장(倭將)으로 알려진 '아기발도(阿只拔都)'가 제주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151]

14세기 중엽부터 왜구(倭寇)가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를 침범하기 시작하여 그 말엽에는 세력이 더욱 거세어지면서 지리산(智異山)을 비롯하여 내륙지방 깊숙이까지 쳐들어 왔다. 지방의 수령이나 조정에서 파견한 장수들이 그 진압에 나섰으나 번번이 패하여 퇴각하기가 일쑤였다. 1380년(우왕 6) 우왕은 장군 이성계(李成桂)를 양광(楊廣)·전라(全羅)·경상도(慶尙道) 도순찰사(都巡察使)로 삼고 이를 토벌하게 하였다. 이성계(李成桂)는 곧 군사를 이끌고 왜적이 진을 치고 있는 황산(荒山) 서북 남원(南原) 운봉(雲峰)에 출진하였다.

이때 왜적에게 '아기발도(阿只拔都)'라는 소년 대장(大將)이 있었다. 그는 늘 백마를 타 군사를 지휘하였으며, 날래고 용감하여 싸워서는 지는 일이 없었다. 기마술과 검술에도 뛰어나 누구도 그와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를 두려워하여 그가 나타나면 모두 도피해버리는 형편이었다.

≪고려사(高麗史)≫ 우왕 6년 9월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 … 나이가 겨우 15, 16세 가량 되어 보이는 한 적장은 얼굴이 단정하고 고우며, 빠르고 날래기가 비할 데 없었다. 백마를 타고 창을 휘둘러 돌격해 오니 그가 가는 곳마다 쫓기고 쓰러져 감히 당할 자가 없었다.

151) 高橋公明, 앞의 책, 179~188쪽.

우리 군사들이 그를 아기발도(阿只拔都)라고 부르며 다투어 피하였다.

태조(太祖·李成桂)는 그 용맹하고 날램을 아껴서 이두란(李豆蘭·李之蘭)에게 그를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두란(豆蘭)은 '만약 그를 생포하려면 필경 많은 군사가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얼굴까지도 갑옷으로 무장하여 쏠 만한 틈도 없습니다'고 하였다. 태조는 두란에게 '내가 투구꼭지를 쏠테니 투구가 떨어지거든 네가 곧 쏘아라'하고 말을 달려나갔다. 태조가 바로 투구꼭지를 맞혔다. 투구끈이 끊어지면서 기울어지니 그는 곧 다시 고쳐 썼다. 태조가 다시 쏘아서 꼭지를 맞히니 투구가 드디어 떨어졌다. 두란이 틈을 주지 않고 쏘아 죽였다. 적장이 죽자 적의 기세는 꺾이고 말았다.

… 그 때에 사로잡혔던 자가 적진으로부터 돌아와서 말하였다. 아기발도(阿只拔都)가 태조와 포진하였을 때 그 일사불란한 병력배치를 보고 '이번 군사를 보니 지난날의 여러 장수와는 비교가 안 된다. 오늘의 싸움은 너희들 모두가 각별히 몸조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찍이 아기발도는 그 섬에서 오지 않으려 하였으나 여러 왜적들이 그의 용맹에 감복하여 주장을 삼으려 굳이 청하였으므로 마지못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적의 괴수들도 매양 그를 볼 때는 반드시 꿇어 엎드렸으며, 모든 군중이 그의 호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152]

김상기(金庠基) 교수에 따르면 '아기발도(阿只拔都)'는 우리말의 '아기'(어린아이)와 몽골어의 '바투'(bator or batur·勇者)로 된 합성어(合成語)로 해석한다. 따라서 '아기발도'는 '아기 용자(勇者)' 또는 '용감 무적(無敵)한 아기'를 뜻하고 있다고 하였다.[153]

다카하시(高橋)교수는 이 아기발도(阿只拔都)에 대하여 그가 섬 출신이었다는 사실, 말을 잘 타고 기마대(騎馬隊)를 이끌었다는 사실, 또 왜적(倭賊)의 말 1천 6백 필을 포획했다는 사실, 그리고 제주 해

152) ≪高麗史節要≫ 卷 31, 禑王 6年 9月條.
≪국역 고려사절요≫ 4권, 193~196쪽.
153) 金庠基, ≪高麗時代史≫, 680쪽.

민(海民)과 왜적의 관계 등을 들어 제주도 출신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그가 주장하는 견해다.

> 이 전투를 볼 때 먼저 주목되는 것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아기발도(阿只拔都)의 백마(白馬), 포획한 다량의 말, 모두가 왜구(倭寇)에게 기마대(騎馬隊)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략) 고토(五島)열도·쓰지마(對馬)·규슈(九州) 등지에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같은 기마대를 구성할만한 다량의 말은 제주도가 아니면 공급이 불가능했다고 할 것이다. 원(元)이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진압하고 난 뒤 제주도를 그들의 직할에 두고 게다가 목장(牧場)을 설치하여 다량의 말을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는 조선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14세기 후반 왜구(倭寇)시대에 있어서도 다량의 말이 제주도에서 사육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기발도 자신이 제주도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사례만으로는 제주도·북규슈(北九州)의 교류사실을 입증할 수는 없지만 만약 왜구(倭寇) 가운데 왜인적(倭人的) 요소를 추출할 수 있다면 그들은 제주도(濟州島)·북규슈(北九州)의 사람들을 구성요소로 하였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154]

매우 흥미있는 추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위의 몇 가지 사실을 놓고 제주도와 왜구를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이론의 전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다카하시(高橋)교수의 비교연구 가운데는 왜구(倭寇) 외에도 제주도와 규슈의 문화교류를 뒷받침할 여러 가지 사실들도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리가 연구해 볼만한 과제들도 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세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9세기 전반 동아시아 일대의 해역을 넘나들던 신라인(新羅

154) 高橋公明, 앞의 책, 191쪽.

人) 장보고(張保皐)가 있었다. 그가 청해진(淸海鎭) 바로 문턱에 있고, 중국과 일본 등 활동무대의 중심을 차지해 있던 제주도와 무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입장에서 그는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탐라(耽羅)와 아주 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의 휘하에는 탐라출신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전라도(全羅道)와 북규슈(北九州)가 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때문이 아니었던가 주장한다.

둘째, 그는 원(元)의 침략과 삼별초(三別抄)의 관계를 제기하고 있다. 13세기 후반(1270년) 고려(高麗)와 원(元)의 강화(講和)는 삼별초(三別抄)의 난을 불러 일으켰다. 삼별초(三別抄)는 강화도(江華島)·진도(珍島)를 거쳐 제주도(濟州島)에서 최후의 항쟁을 벌인다. 그 동안 삼별초를 지탱시켜준 것은 해상세력이었다. 여·원군(麗·元軍)은 제해권(制海權)을 장악할 때까지 여러모로 고통을 받는다. 특히 종전에 원의 뜻을 받들어 고려(高麗)정부가 일본(日本)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1271년의 고려첩장(高麗牒狀)은 최근 일본학자(根本誠·石井正敏등)들에 의하여 삼별초(三別抄)가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해석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 때는 삼별초(三別抄)가 여·원군(麗·元軍)의 공격을 받고 제주도로 옮기던 해에 해당된다. 이런 때에 일본에 구원을 요청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라도(全羅道)-제주도(濟州島)-북규슈(北九州)의 교류를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다카하시(高橋)교수는 풀이하고 있다.

셋째는 신화(神話)의 공통 유형(類型)이다. 앞에서 일본학자들(太田湺 등)이 제주도 개국의 삼신인(三神人)과 삼여신(三女神)은 일본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며, 그들은 각각 일본에서 도래하였다는 설화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다카하시(高橋)교수는 그와는 별도로 신화의 유형(類型)을 비교하고 있다. 그는 미시나 아끼히데(三品彰英)의

≪신화(神話)와 문화사(文化史)≫를 인용 ≪고려사(高麗史)≫에 나오는 제주도의 개국신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이 신화 가운데 특히 주의할 요소는 여자가 상자배(箱舟)를 타고 오곡씨앗과 송아지 망아지와 더불어 표착한다는 점이다. 이 신녀(神女)의 본국이 일본(日本)이라는 것은 2차적 변용이라고 할 것이며, 원형은 바다 건너 '피안(彼岸)의 나라' 이른바 '와타쓰미'(海神의 나라)라고 할 것이다. 이는 남방 해양민족(海洋民族)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꽤 짝 표류형(漂流型)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이런 유형의 신화는 경상도·쓰시마(對馬)·이키(壹岐)·규슈(九州) 등지에서 볼 수 있다.

다카하시(高橋)교수는 이 같은 미시나 아끼히데(三品彰英)의 해양민족의 남방계 신화유형과 하바라 유우기치(羽原又吉)의 가선형 해민(家船型 海民)의 공통성 등을 결부시켜 제주도와 북규슈(北九州)의 교류(交流)의 역사가 퇴적되면서 신화 등의 일반적 유형이 2차적 변용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와 북규슈(北九州)의 관계에서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원(元)의 제주지배시대에 몽고(蒙古)군사들에 의한 일녀(日女)의 납치 사실이다. 1273년 삼별초(三別抄)를 전멸시킨 원제국(元帝國)은 제주도를 고려(高麗)에서 분리시켜 탐라(耽羅)로 복호(復號)하고 그들의 직속령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른바 동정(東征·日本征伐)계획을 추진시켜 나갔다. 이 무렵 원의 군사들은 서북규슈(九州) 일대에 대한 정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그런 과정에서 일본 여인(日本 女人)들을 납치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거의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제주도에 귀화(歸化)해 버렸다고 할 것이다.

이미 개국신화에서부터 일녀(日女)가 도래하고 있지만 두 지방 사이에는 여인들의 교류도 빈번하게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

도 규슈(九州)와 제주여인들의 풍속은 너무나 닮은 것이 많다.

다카하시 도호루(高橋亨)교수는 ≪제주도(濟州島)의 민요(民謠)≫에서 그 공통점을 대충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섬의 여인들은 재봉 운침법(裁縫 運針法)이 육지와는 반대로 일본 사람과 같다. 물건도 머리에 이는 법은 없고, 짊어진다. 어린애도 포대기에 싸서 업는다. 육지에서는 중류 이상 가정에서는 으레 지아비가 아내에게 경어를 쓴다. 그러나 제주에서는 그런 법도 없고, 남녀가 어울려 함께 있어도 부끄럼을 모른다. 이 같은 일은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며, 모두가 일본과 같은 풍습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육지에서는 주자학(朱子學)이 들어오면서 예(禮)의 형식이 엄격해지고 남녀 내외(內外)가 생긴 것은 조선시대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는 그 이전의 풍속이 그대로 남아 흐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155]

이것은 일본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오랜 풍속의 잔영(殘影)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 여러 측면에서 규슈(九州)와 제주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고대신화(古代神話)부터 시작하여 7세기의 국교(國交), 그 뒤로 이어지는 교역, 표류(漂流), 왜구(倭寇), 어업, 해녀(海女), 원제국(元帝國)의 침략과 일녀(日女)의 납치 등 여러모로 깊은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인들의 풍속을 비롯하여 두 지방사이에는 너무나 공통적인 문화(文化)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이 위에서 본 간헐적인 교류로서만 가능했을까. 참으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여기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원

155) 高橋亨, ≪濟州島の 民謠≫, 42쪽.

한 대답은 없다.

이것은 같은 종족에 의한 문화의 발상이거나, 아니면 대량교류나 꾸준하고 상당한 영향이 미쳤거나 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제주도와 규슈 사이에는 과거에 그 같은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기록문헌이 발달하기 시작한 중세 말기 이전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런 가운데도 고대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역사의 추정이나 가정(假定)은 위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록이나 자료가 한계성을 지닌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위에 든 여러 가지 교류관계를 들 수 있겠지만 필자는 그 가운데 하나로 서복집단(徐福集團)의 문화전파 가능성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Ⅶ. 제주와 남해(南海)의 각자(刻字)

1. 한반도의 진망명집단(秦亡命集團)
2. 정방폭포(正房瀑布)의 각자(刻字)
3. 남해도(南海島)의 각자(刻字)

❶

한반도(韓半島)의 진망명집단(秦亡命集團)

진한(秦漢)시대에 중국인들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찾아 난세를 도피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의 신선사상에서 싹텄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정치적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해방심리가 더욱 그런 꿈을 키웠다고 할 것이다.

그 무렵 중국 안에서는 시황(始皇)의 혹정을 못 이겨 상당한 정치적 피난민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국외로 망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삼국지 위지 동이전(三國志 魏志 東夷傳)≫과 ≪후한서 동이전 진한조(後漢書 東夷傳 辰韓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 진한의 늙은이들이 말하기를 자신들은 진(秦)나라에서 망명하여 왔는데 고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였다. 한(韓)나라에 살기를 원하여 마한(馬韓)의 동쪽 국경지역의 땅을 쪼개어 나누어 받고 살게 되었다. 그들은 나라를 방(邦)이라 하고, 활을 호(弧)라 하고, 도둑을 구(寇)라 하고, 술 돌리는 것을 상(觴)이라 하고, 서로 부르는 것을 사(徙)라고 하였다. 모두 진(秦)나라 말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곳을 진한(秦韓)이라고 하기도 한다.[156]

156) ≪三國志 魏志 東夷傳≫/ ≪後漢書 東夷傳 辰韓條≫

이 기록에 대하여 이병도(李丙燾) 교수는 저자의 오전(誤傳)이라고 주장하고 "옛날 조선왕(朝鮮王) 준(準)이 그 서계(西界)인 진(秦)의 고공지(故空地)에서 발생한 위만(衛滿)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남(南)으로 진(辰)의 동북계(東北界)인 선행유민(先行流民) 사회에 망명하여 진왕(辰王)의 승인과 보호로 그곳에 할거하게 된 사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157]

그러나 이것은 진(秦)시대에 도피자나 망명자들이 많았던 역사적 사실로 보거나 '진지망인 피고역 적한국(秦之亡人 避苦役 適韓國)'이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보아 준왕(準王)의 망명 사실과 혼동할 수도 없는 일이며 그런 억지 해석을 달 수도 없는 문맥이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에도 한족(漢族)이 한반도에 피난해 온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진란(秦亂)을 피하여 연(燕) 제(齊) 조(趙)나라 백성 수만이 귀화하고 있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위 기록에 따르면 조선인종(人種)은 크게 3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는 한반도에 토착한 고조선족(古朝鮮族)이며 둘째는 한족(漢族)이고 셋째는 부여족(扶餘族·古濊種)이라고 밝히고 그 가운데 한족(漢族)의 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한족(漢族)은 은주(殷周)시대부터 전국시대 진한(秦漢)시대에 걸쳐 많은 사연을 안고 이주해 왔다. 그들은 기자(箕子)가 거느린 5천인이 동래했고 연(燕) 제(齊) 조(趙)나라 백성 수만인이 진란(秦亂)을 피하여 귀화했으며 위만(衛滿)을 따라온 망명인(亡命人)도 수천에 이르렀다. (후략)[158]

이 기록은 바로 진(秦)나라의 혹정을 피한 망명자들이 이미 우리

157) 李丙燾,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119~122쪽.
158) <朝鮮寰輿勝覽> 朝鮮人種條. 549쪽

나라의 삼국시대 이전에 한반도에 건너와 살았던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들이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유망하여 왔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육로보다는 해로를 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것은 서복(徐福)선단의 도해(渡海)를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진 시대에는 이미 대형 누선(樓船)들이 건조되었고 항해술도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과 해류를 이용한다면 산동(山東)반도나 발해만(渤海灣), 해주만(海州灣) 일대에서 황해를 건너 한반도 서해안에 닿을 수 있고 서해안을 따라 남하할 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혹시 이들이 서복선단에 참가하여 망명하였던 집단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로 보아서는 그들 일행이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일부가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한 채 그대로 정착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 전부가 서복 집단이었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서복 일행 가운데도 이 일대에 상륙하였을 가능성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부산(釜山)을 비롯하여 경상남도(慶尙南道) 일원에는 신선사상이나 서복(徐福)에 관련된 많은 전설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해도(南海島)에는 서복이 남겼다고 전해진 유적이 잘 보존되어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지만 그밖에도 이 같은 전승유적은 부산이나 경남지역 일대에 상당수 분포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명에도 삼신산의 이름과 같은 영주동(瀛洲洞)이나 봉래동(蓬萊洞)과 같은 공통된 이름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일대가 모두 서복전설에 얽힌 지역이라는 점이다. 진한(辰韓)의 진(秦)나라 망명인에 대

한 기록과 관련하여 중국 빙승균(憑承鈞)의 ≪중국·일본교통사(中國·日本交通史)≫는 대략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서복(徐福) 등 진인(秦人)들의 집단이 동도(東渡)할 때 그들은 어디를 경유하여 일본바다에 이르렀을까. 좌선회류(左旋回流)를 이용하였다면 한반도를 거쳐 일본에 이른 것이 아닐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살펴보면 산동(山東)반도와 조선반도는 지척간에 근소하게 떨어져 동서로 대치해 있다. 제인 서복(齊人 徐福) 등이 산동반도에서 배를 띄웠다면 무난하게 조선에 이를 수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조선 남부지방에는 삼한(三韓)이 정립해 있었는데 서쪽에 마한(馬韓), 동쪽에 진한(辰韓)이 있었으며, 변한(弁韓)은 그 남쪽에 있었다.

후한서 동이전(後漢書 東夷傳)에 있는 진한(辰韓)의 진망인(秦亡人) 기록을 볼 때 진한과 마한의 영지 안에 진나라에서 피난해 온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진한(秦韓)이라고 일컫기까지 하였다.

서복(徐福) 등 진인집단이 선약을 구하러 바다로 나갔다는 것은 사기 회남형산열전(史記 淮南衡山列傳)에 따르면 시황(始皇)의 학정에 못이겨 도피, 동도한 무리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들이 산동반도를 거쳐 동도한 서복집단(徐福集團)이었다면 역시 선약을 구할 수 없음을 알고 이곳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 그들이 진한에 온 것도 진한과는 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진한(辰韓)을 진한(秦韓)이라고 한 것은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반도 동남부를 차지한 진인(秦人)집단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땅을 확장하고 탐험을 할 욕심이 생겨 뿔뿔이 흩어지고 앞다투며 배를 얻어 타서 일본으로 표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바다가 좌선회류인 관계로 그들은 전후하여 일본의 산인(山陰)지방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서복(徐福) 자신도 진한을 거쳐 일본으로 표도하였는지는 연구해보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때는 일한(日韓) 고문헌상(古文獻上) 서복 집단의 동도 기사가 실려있지 않은 때였다. 그러므로 서복 진인(秦人) 무리의 동도 때는 아직 일본이나 한국의 민족역

사가 있기 이전의 일이었다.[159]

다만 이 진인집단이 한나라를 거쳐 동도한 결과에 대해서는 일본의 신화나 전설에서 암시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고사기(古事記)≫나 ≪일본서기(日本書紀)≫에 실려 있는 수사노오노미코도(素戔嗚尊·少名 昆古那神)가 신라(新羅)를 거쳐 이즈모(出雲)에 이르렀다는 신화(神話)는 그 사실을 잘 나타낸 예라고 할 것이다. 거기에 보면 신라(新羅)의 옛 땅은 진한(辰韓)이었으며 그 곳은 피난해 온 진인(秦人)들이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 그 뿐 아니라 서복(徐福) 등 진인의 동도 출발지도 역시 일본의 해류를 시험하기 위해서 투병(投瓶)한 곳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한반도의 남부지방 진한(辰韓)의 국경지역에는 진(秦)나라에서 망명해 온 집단이 일정한 지역에 집단사회를 형성하였던 것이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또 그들은 선약을 구해오겠다는 구실로 동도하였던 서복(徐福)집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르면 서복(徐福)선단은 막바로 일본에 도착하였거나 제주도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한반도 남해안에 상륙하여 이 일대를 본거로 제2의 탐험을 시작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일찍이 없던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을 제시해 주었다고 할 것이다.

서복 선단의 도해에 대하여는 비단 이 기록이 아니더라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많은 주장이 엇갈려 있는 게 사실이다. 대체로 그 주장을 간추려 보면 서복선단이 처음 기항지(起航地)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한 척의 낙오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항해하였다고는 보지 않는다.

---

159) 憑承鈞·王輯五, ≪中國·日本交通史≫, 15~16쪽.

당시 조선술이나 항해술의 수준이 매우 높았고 또 서복이 상당한 해양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기관이나 과학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선박들이 이탈 또는 분산되었을 것으로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최종 정착지가 일본이었다고 하더라도 오직 규슈(九州)나 쿠마노(熊野)에만 정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일이다. 지금 일본에는 서복 전설이나 유적이 있다고 알려진 지역만 보아도 20여 개 지역이나 된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입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

최근에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복선단은 일본이나 한반도 뿐 아니라 그 일부가 동남아나 태평양으로 흩어져 심지어 미대륙(美大陸)까지 상륙하였을 것이라는 설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수천명에 달하는 서복선단이 이동하였을 때 그 일부가 제주도나 한반도의 서남해안 일대에 흩어져 상륙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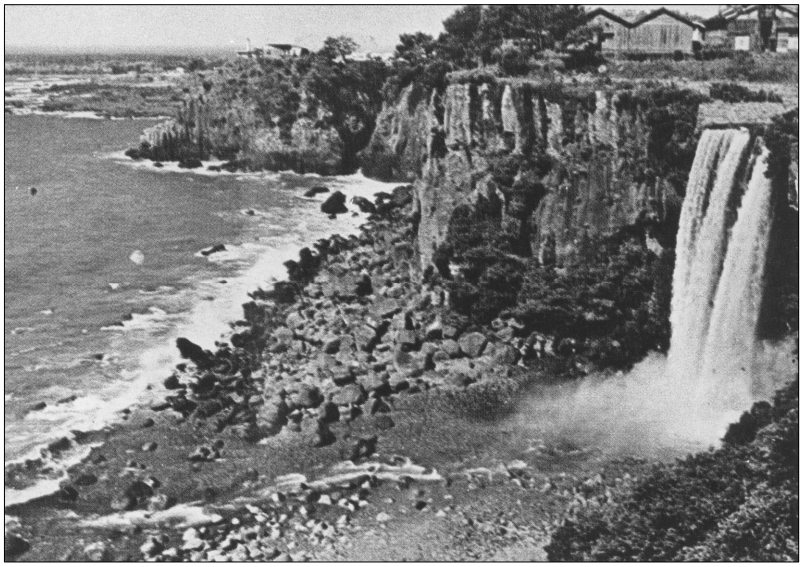
❷

정방폭포(正房瀑布)의 각자(刻字)

서복(徐福)의 제주도(濟州島) 도래설(渡來說)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자료로 서복이 남긴 것으로 전해진 마애각(磨崖刻)이 있다. 고고학 자료로서는 아직 서복이 남긴 것이라고 꼭 짚어 말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서복의 유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여기서 이 암각에 관해서 살펴 보기로 하겠다.

일찍부터 제주도에는 시황(始皇)이 보낸 서복 일행이 찾아왔다가 서귀포(西歸浦) 정방폭포(正房瀑布) 암벽에 남기고 갔다는 「서불과지(徐市過之)」 또는 「서불과차(徐市過此)」 라는 마애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왔다. 지금은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40~5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암각을 보았다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다.

「서불과지(徐市過之·此)」 라는 각자가 정방폭포 암벽에 있다는 말을 들은 필자는 과거에 몇 차례 현장을 답사하고 직접 조사하여 보았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이 방면의 추적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그런데 1982년도에 중국 강소성 감유현(江蘇省 贛楡縣)에서 서복(徐福)의 고향이 발견되었고 이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다시 서복(徐福)연구에 착수하였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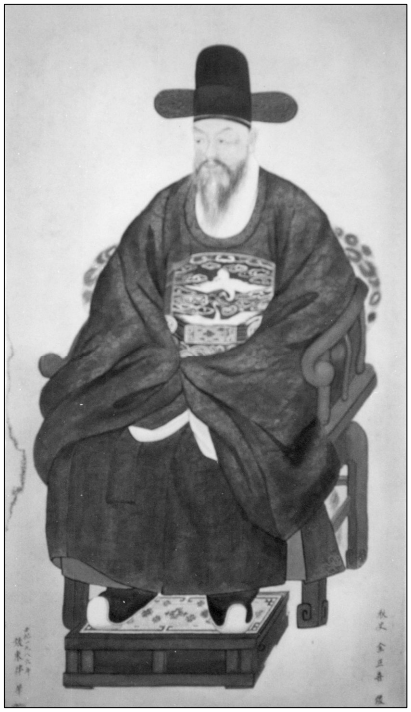
제주도 남해안에 자리한 정방폭포(正房瀑布). 이곳 암벽에 서복은 「서불과지(徐市過之)」라는 각자를 남기고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거기에 고무된 필자는 다시 서복 추적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러 방면으로 손을 써 자료를 수집하던 중 뜻밖의 놀라운 자료를 입수하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탁본해 놓았다는 사실을 밝힌 일인(日人)학자의 논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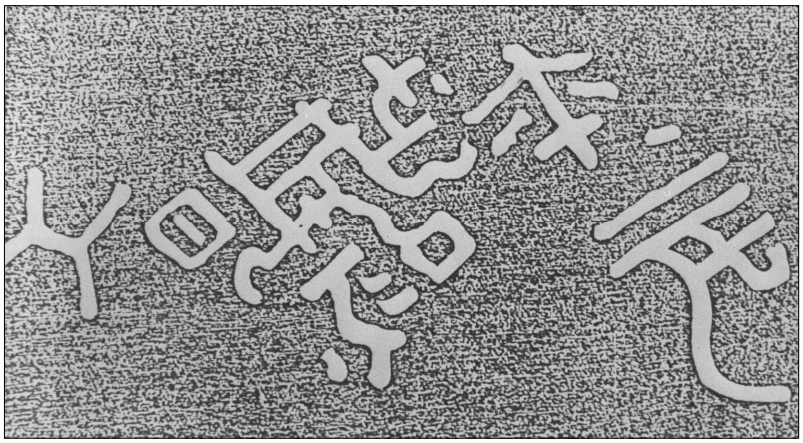
이 자료를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도서관에서 처음 손에 넣은 필자는 얼마동안 놀라움과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아닌 추사(秋史)가 직접 탁본을 하였다는 사실이요, 몽인 정학교(夢人 丁學敎·鶴喬)가 그것을 고증(考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추사(秋史)는 일찍이 진시황(秦始皇)의 역산비각(嶧山碑刻)도 탁본한 일이 있는 너무나 유명한 금석학(金石學)의 대가요, 몽인(夢人)도 19세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화가였기 때문이다.

그 논문은 1910년 2월에 발표된 쓰카하라 아키라(塚原熹)의 <제주도(濟州島)에 있는 진서복(秦徐福)의 유적고(遺蹟考)>였다. 대충 그 개요를 다음에 간추려 보겠다.

>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선술을 즐겨 도사 서복(道士 徐福)에게 장생불사의 약을 일본에서 구해오도록 하였다. (중략) 지금 기이(紀伊)의 나라에는 서복의 비(碑)가 서있다. 그 유래는 쿠마노우라(熊野浦)로부터 상륙하였기 때문이었다. 서복이 동남동녀를 많이 이끌고 온 것은 그 나라의 가정(苛政)을 견디지 못하여 미리 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버젓이 선약을 구해올 것을 구실로 내세우고 귀화(歸化)할 뜻을 지니고 도래(渡來)한 것이다. 그가 영주할 마땅한 곳을 찾자 그대로 일본에 귀화해 버린 것은 확실하다고 할 것이다.
>
>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매우 진기한 탁본을 보게 되었다. 이 탁본 한쪽 귀퉁이에는 정학교(丁鶴喬)의 기문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 "진시황(秦始皇) 28년 방사 서불(方士 徐市) 등은 동남녀와 더불어 삼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의 초상. 일인학자 쓰카하라(塚原 熹)는 1910년 논문을 통하여 <서불과지(徐市過之)>를 탁본한 사람이 추사라고 발표하였다.



제주도 해안 암벽에 서복이 남겼던 것으로 전해진 서불과지(徐市過之) 각자 탁본

신산(三神山)의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와 조선국 탐라(耽羅)섬을 지나게 되었다. 마침 이곳 해안 석벽에 「서불과지(徐市過之)」라고 새겨놓았다. 이 「서불과지(徐市過之)」 4자를 새겨 놓은 지 2천여년이 흘렀다. 이제 이 고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조차 알 수가 없게 되었고, 이 곳을 찾아와도 탁본하여 전할 길마저 없게 되었다. 이 때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선생은 여러 해 동안 이 섬에 묵으면서 많은 석각을 찾아 탁본을 하고 세상에 알렸다. 이 탁본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옛 글을 즐기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160)

秦始皇二十八年 方士徐市等 與童男女入海 求三神山不死藥 過朝鮮國耽羅島 刻石壁曰 徐市過之 此徐市過之四字之刻 已至數千載 哉東古蹟 無有及於此 訪以拓之人 傳玩無方 神物之顯與晦 自有其時 金侍郎秋史先生曰 累滯海島 窮搜多摺 以之流布 此幀示其一紙 從玆好古之士可助眼福之一簣世餘年事也

夢人 丁鶴喬

이상이 몽인 정학교(夢人 丁鶴喬)의 기문이다. 우리나라의 옛 서도인들은 신의를 생명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다. 제아무리 이해에 얽히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에 어긋나는 일이면 서툴게 손 붙이는 일이 없는 법이다. 몽인(夢人)이 손수 감정서를 써놓았다면 우선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쓰카하라(塚原)교수는 이 탁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탁본은 지금부터 60~70년전 조선의 석학 완당 김정희(阮堂 金正喜)가 유배되어 귀양생활을 할 때 동국(東國)의 옛 금석(金石)을 탐구하였는데 그 때 제주도에서 우연히 해안의 해묵은 바위에 조각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탁본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것이다."

160) 塚原熹, <濟州島に 於ける 秦の徐福の 遺蹟考>, ≪朝鮮≫4권 6호, 40~41쪽.

쓰카하라(塚原) 교수는 이「서불과지」탁본의 경위와 해석을 추사(秋史)의 제자 김준(金準)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과문한 탓인지 추사의 제자 가운데 김준이란 사람은 기억에 없다. 추사의 제자라고 할 때 아마 이것은 소당 김석준(小棠 金奭準)의 오기가 아닌가 해석된다. 김석준으로부터 들었다면 그의 인격으로 보아 결코 허튼 이야기를 했을 리 없다. 더구나 몽인 정학교가 발문을 쓰고 있는데 19세기를 대표할만한 서도의 대가요 학자인 그가 근본도 알 수 없는 탁본에 엉터리 고증을 할 턱이 없다.

한편 쓰카하라(塚原)의 이 글에 대하여 아사미 린타로오(淺見倫太郎)는 같은 해 3월 논문 <제주도(濟州島)에 있는 서복(徐福)의 석벽문자(石壁文字)>를 발표하고 여러모로 논평을 가하고 있다. 그의 글은 주로 서복(徐福)의 역사적 사실 전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의 글을 읽어보면 일본과 중국의 고전 몇 가지를 놓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불과지(徐市過之)」에 관하여 충분한 자료나 조사도 없이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인용한 내용에도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서복에 관한 글이며 또 제주도의 석각문자와 관계 있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다음에 대충 옮겨보기로 하겠다.

일본 기슈(紀州) 쿠마노우라(熊野浦)에는 서복총(徐福塚)의 전설이 있지만 금석유문(金石遺文)은 없다. (吉田東伍, 大日本地名辭書 상권 紀伊東牟婁郡 徐福塚條 참조) 금석유문은 왕왕 사승(史乘)을 앞서는 경우가 있지만 제주도에 있는「서불과지(徐市過之)」의 석벽문자도 과연 사승을 앞서는 것일까.

한인(韓人) 태고의 사승을 보면 지금의 남한 지방에는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의 3종족이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때는 주말(周末) 한초(漢初)에 상당하며 진한조(辰韓條)에는 그 곳 노인들이 스스

로 말하기를 진(秦)의 망명인(亡命人)으로 고역을 피하여 한(韓)에 귀화하여 왔다고 하였다. 마한(馬韓) 동쪽 경계를 나누어 이 곳에 성책을 세우고 나라를 삼게 되었으므로 진한(秦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언어 명물 등 연·제(燕·齊)와 틀리지만 진(秦)과는 흡사하다. 즉 남한지방에는 연·제인(燕·齊人) 이외에 진인(秦人)의 식민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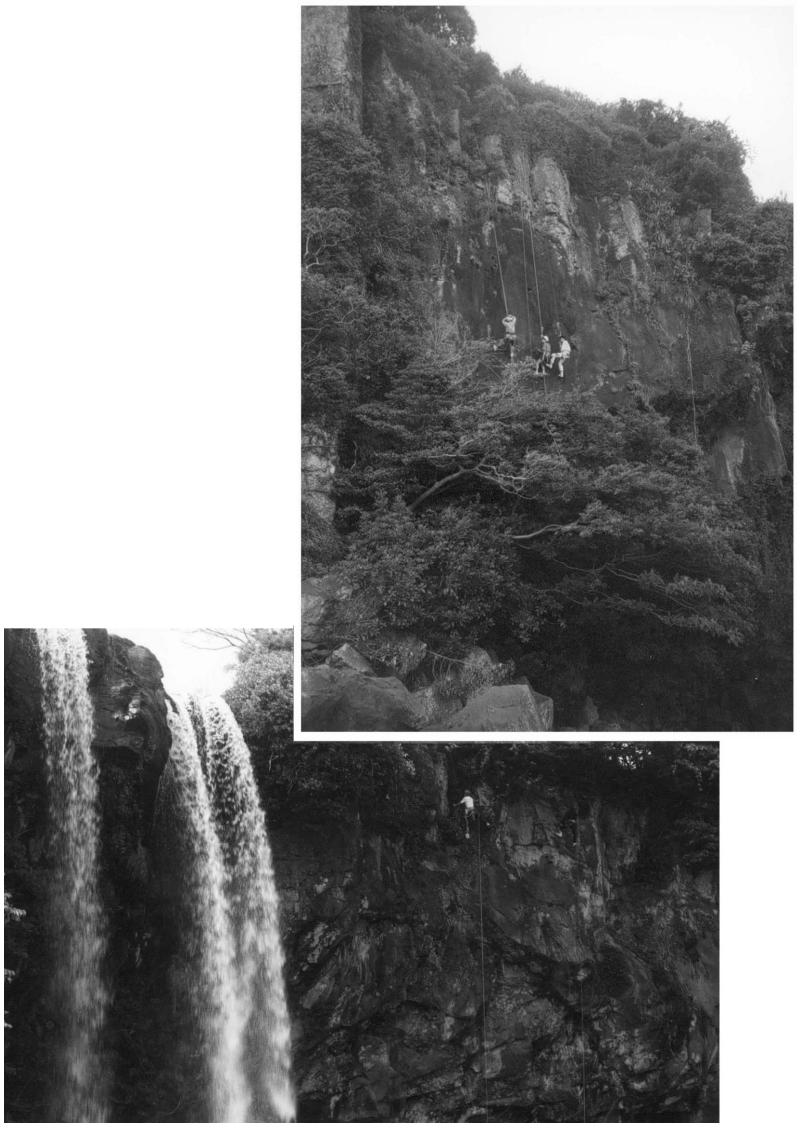
그 노인들이 진(秦)의 고역을 피하여 투화(投化)하여 온 사람들이라고 하면 시황 32년 노생(盧生)이 복명한 뒤 천하의 고역을 겪는 사태에 당면하여 진인(秦人)들조차 고역을 피하게 되는 마당에 연·제인(燕·齊人)들이 동해를 건너 망명하는 사람이 많았음은 추측되고도 남음이 있다. 즉 서복이 동남녀를 거느려 바다에 들어간 것은 진인(秦人)의 고역 이전 45년에 해당하며 따라서 동남동녀 수천인의 유망 사실은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뒤 서복이 한 번 떠나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어느 지방을 유랑하였는지 중국 역사상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오직 '평원과 광택(廣澤)을 얻고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서복총의 전설 진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힐 수가 없지만 제주도의 석벽문자에 대해서도 진짜인지 알 수가 없다.

서복의 동해탐험은 여기에 하나의 명확한 증거를 가하여 천고의 역사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첨가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석벽문자의 연구는 태고의 해상교통사정을 생각해보는 일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석벽문자의 탁본에 있어서는 내가 서울에 오던 이듬해인 1906년 처음으로 중부 초동(椒洞)의 옛 서포(書舖)에서 먼지 속에 쌓인 이 한 장의 탁본을 보았다. 그 뒤 3년이 지난 1909년 11월에 이르러 장정(裝幀)을 하고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문자는 금세기 문자가 아니었으며 주말(周末) 고기(古器)의 글자와 비슷하였다. 또 1906년 9월 정학교(丁鶴喬)의 제사(題辭)가 있었다. 정(丁)씨는 경상도(慶尙道) 출생으로 서(書)에 능하다고 하는데 그 문장은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김정희(金正喜)가 제주도에서 탑사(搨寫)하여 왔다는 데는 혹 믿을 만할지 모르겠다.[161]

161) 淺見倫太郎, <濟州島に 在る 徐福の 石壁文字>, ≪朝鮮≫ 25호, 21~25쪽.



1992년 제주서복연구회(濟州徐福硏究會・지금의 徐福學會)가 정방폭포(正房瀑布) 암벽을 조사하였으나 각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이 글에서 김정희(金正喜)의 행적, ≪탐라지(耽羅誌)≫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구양수(歐陽修)의 <일본도가(日本刀歌)> 등 내용을 장황하게 풀이하고 있는가 하면 인용하는 글은 도리어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쓰카하라(塚原)의 '서불과지(徐市過之)'를 '서불과차(徐市過此)'는 '서불과지(徐市過之)'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쓰카하라(塚原)의 '60~70년전'을 '40여년(餘年)'이라고 함은 '50여년(餘年)의 잘못이며 오히려 60년전이라고 해야할 것'이라고 공연한 트집을 부리기도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그동안 「서불과지(徐市過之)」라는 각자가 정방폭포 암벽에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지만 이 기록에서는 오직 제주도의 해안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정확한 위치가 밝혀져 있지 않은 점이다. 어쨌든 「서불과지(徐市過之)」 각자는 지금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실재했던 유적인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서귀포시 정방폭포(正房瀑布) 암벽에 서불(徐市·徐福)이 새겨놓은 각자가 있다는 것은 전설에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고 기록문헌에도 나타나는가 하면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제주노인대학에 출강하면서 여러 노인들로부터 각자가 있는 것을 직접 보았노라는 증언을 들어왔다. 또 한라일보에 <서복선단의 대탐험>을 연재하면서도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 자체(字體)는 알아볼 수 없는 상형문자(象形文字)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들 가운데는 1950년대에도 보았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곳에 전분 폐수가 흐르면서 그 뒤로는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 정방폭포 암벽 각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제주서복연구회(濟州徐福硏究會·지금의 濟州徐福學會)에서는 지난 1992년 서귀포시(西歸浦市)의 지원 아래 이 각자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조



백낙연목사(白樂淵牧使)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원래 제주성 동문 밖에 건립되었으나 뒤에 신산동에 이설되었으며 지금은 제주민속박물관이 보존하고 있다.

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첫째 조사대상지역이 천연경관보호지역으로 비게시설은 물론 조사를 위한 일체의 가설행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높은 낭떠러지벽을 탐색하는데는 자일을 통한 전근대적인 조사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조사에는 이 방면의 전문인력은 거의 손을 쓰지 못하고 자일을 탈 수 있는 산악회원과 학생들만이 동원되었다.

그 밖에도 시간·인력·장비 등의 한계에 부딪쳐 돌이끼(石蘚苔)를 씻겨낸다든지 낙반석(落盤石)을 탐사한다든지 투시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조사는 문제의 각자를 밝히는데는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각자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것은 아니었다.

이 각자에 관해서 김석익(金錫翼)의 ≪심재집(心齋集)≫을 보면 1877년(고종 14) 초도순시하던 제주목사가 이를 탁본하여 간 사실도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서귀포 해변 절벽에는 진의 방사 서불이 새겨놓은 각자 흔적이 있다. 목사 백낙연(白樂淵)이 이 곳을 순행하다가 그 말을 듣고 그 절벽에 긴 밧줄을 매달아 사람을 시켜 그 각자를 탁본하고 돌아갔다.
>
> 西歸浦沿邊 有峭壁 不啻數千仞 下臨滄海鯨濤洶湧 世傳壁半有 秦方士徐市 所刻字痕云 先是 牧使白樂淵 巡行到此 人以此說告之 遂命自壁上以長繩縋 一人下垂引之 摸其字跡而還 盖字體 如科斗雕虫者 凡十二個字而不可解得云[162]

김석익은 ≪탐라기년(耽羅紀年)≫의 저자로 제주역사에는 어느 누구 못지 않게 밝았던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문집에서 이런 기

162) 金錫翼, <破閒錄>, ≪心齋集 2권≫, 312~313쪽.

록이 나왔다면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었다고 생각된다.

백낙연은 1866년(고종 3) 미국 상선 제너럴 셔어맨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철산부사겸 평안중군(鐵山府使兼 平安中軍)으로 임명되어 평안감사 박규수(朴珪壽)를 도와 싸웠던 사람이다. 또 1881년(고종 18) 김윤식(金允植)이 영선사(領選使)가 되어 중국에 갔을 때는 함께 따라가 활동하기도 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필자는 행여나 백낙연(白樂淵) 목사가 사람을 시켜 떠놓았다는 그 탁본을 구해볼 수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수원백씨 중앙종회(水原白氏 中央宗會)를 비롯한 종문과 그밖에도 여러모로 추적해 보았지만 탁본은 물론 후손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의문에 가린 고대의 암각(岩刻)들은 제주도 외에도 경남(慶南)의 남해도(南海島), 일본 이키(壹岐)의 우시지로석실(牛城石室), 이즈모 쇼도오(出雲 書道)의 석굴(石窟), 치쿠고(筑後) 미야타무라(宮田村)의 석실(石室), 홋카이도 오타루시(北海道 小樽市)의 데미야동굴(手宮洞窟)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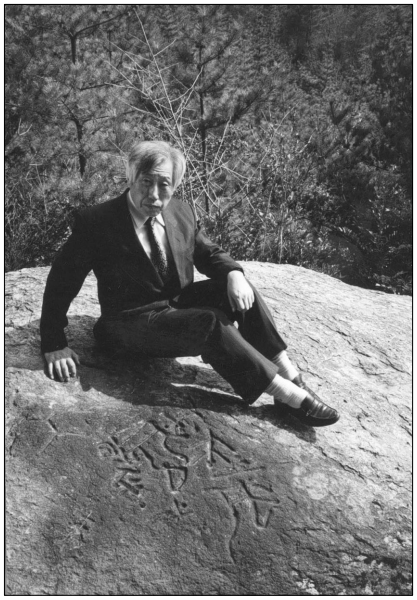
❸

남해도(南海島)의 각자(刻字)

경남 남해도(慶南 南海島)에도 서복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각자(刻字)가 있다. 그런데 이 각자가 정방폭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서불과지(徐市過之)」 각자와 꼭 같은 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 등을 통하여 두 각자가 꼭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필자도 지난 1991년 그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남해대교를 건너 남해읍(南海邑)을 지나 남해도 섬을 거의 달리고 난 서남단 끝에 양아리(良阿里)가 있고 그 바로 동쪽은 상주(尙州)해수욕장이었다. 이 섬 서남단에 부소암(扶蘇岩·扶蘇臺·法王臺)을 머리에 이고 701m의 금산(錦山)이 솟아 남해를 압도하고 있다. 남해각자는 양아리에서 부소암으로 오르는 바로 금산 등성마루에 자리하고 있었다. 뒤에 알아보니 이 각자바위가 있는 지경을 부싱이골 이라고 하였다.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南海郡 尙州面 良阿里) 산 4-3번지에 해당하며 1974년 2월 경상남도 기념물 제 6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었다.

각자가 새겨진 바위는 전연 예상 밖이었다. 정방폭포(正房瀑布)와 같은 낭떠러지나 절벽 바위를 연상하며 찾아갔지만 그것은 지면에 그대로 약간 불거져 나온 화강암(花崗岩) 바위였다. 마치 등산객들이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南海郡 尙州面 良阿里) 문제의 각자 현장을 찾은 필자.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南海郡 尙州面 良阿里)에 있는 의문의 암각(岩刻).

앉아 쉬기 알맞을 것 같은 둥글넓적하고 반반한 바위였다. 바위의 크기는 가로 7m, 세로 4m 정도였고 각자가 새겨진 범위는 가로 1m, 세로 50cm 정도였다. 자체(字体)는 그동안 사진에서 보아온 것과 같이 정방폭포의 자체와 꼭 닮은 것이었다.

필자는 이 남해의 각자와 쓰카하라가 발표한 정방폭포의 각자 사진을 놓고 여러모로 비교해 보았다. 남해 각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진을 보았고 김우영(金禑永 · 남해초등학교 교장)씨의 협조로 탁본 뜬 것도 받아볼 수 있었다. 또 현장을 찾아 직접 암각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런 결과 암각의 길이와 굵기 등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든지 점선 등이 나타난 부분과 나타나지 않는 부분 등이 있었다든지 한 것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각자가 영락없이 동일한 자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위에서 본 정방폭포의 각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방폭포와 남해도 금산에 꼭 같은 자체가 있었다는 것인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언젠가 서울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규장각(奎章閣) 도서를 뒤지다가 우연히 서불과 관련있는 암각 탁본을 본 기억이 나서 다시 찾아가 확인해 보았다.

거기에는 찬자(撰者), 탁본자(拓本者), 연대미상(年代未詳)의 탁본 「전서불제명석각(傳徐市題名石刻)」이 그대로 소장돼 있었다. 탁본의 크기는 55.9×36.3cm 였으며 각자는 역시 정방폭포나 남해각자와 동일했다. 소재지를 보았더니 「해남(海南)에 있었던 석각(石刻)」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전남 해남에도 또 이런 각자가 있었다는 말인가. 필자가 보기엔 분명 남해각자와 동일한데 다시 한 번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더욱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전서불제명석각」이 하필이면 제주도의「삼성혈비(三姓穴碑)」탁본과「삼사석비(三射石碑)」탁본과 함께 가지런히 연접하여 같은 책에 철(綴)하여 있는 사실이었다. 마치 제주도에서 다같이 탁본하여 온 것 같은 암시(暗示)를 던져 주는 느낌이었다.

필자는 이 남해각자(南海刻字)와 정방폭포(正房瀑布)에서 탁본한 것으로 알려진「서불과지(徐市過之)」각자를 놓고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다.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누군가가 암각을 탁본하여 다른 한 곳에 새겨놓지 않았다면 그렇게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같은 문화집단이라 하더라도 아니 같은 한 사람이 써놓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추사(秋史)가 탁본하였다는「서불과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밖에 없다. 필자는 그 암각을 직접 보지 못한 터이며 또 백낙연(白樂淵) 목사가 탁본했다는 그 각자도 보지 못한 터이므로 여기에 따른 새로운 전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① 남해각자가 제주도의 각자로 와전되었을 가능성

② 만약 그런 경우라면 먼저 논문을 발표한 쓰카하라(塚原熹) 교수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겠지만 쓰카하라 교수뿐 아니고 이 논문을 평한 아사미(淺見倫太郎) 교수도 그 문제의 탁본을 보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런 탁본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③ 다음으로 탁본이나 고증(考證)에 위작(僞作)이나 위증(僞證)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추사(秋史)나 몽인(夢人)이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그렇다면 남는 문제는 그 탁본을 소지했던 추사의 제자로 알려진 김준(金準)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 김준이 추사의 제자를 사칭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사실상의 제자 김석준(金奭準)이었다면 또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명쾌한 대답을 얻기가 어렵고 숙제로 남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남해각자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더니 이를 해독하는데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실로 많은 해석,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먼저 남해도에 전해져 온 전설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 중국 진시황때 그의 시종장(侍從長)인 서시(徐市=불의 잘못)가 불로초를 캐기 위하여 동남동녀 오백명을 거느리고 영악(靈岳)으로 알려진 이 곳 금산(錦山)을 찾아왔다. 그들은 이 곳에서 사냥을 하며 즐기다가 떠나면서 후세에 자기들의 발자취를 남겨놓기 위하여 이 곳 바위에 「서시과차(徐市過此)」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떠났다고 알려져 있다.
>
> 그런데 이 전설에 덧붙이고 꾸민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서복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동도하게 된 동기에서 볼 수 있다.
>
> 진시황은 부귀영화를 길이 누리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묘를 모실 명당 자리를 천하에 상을 내걸고 찾도록 하였다. 처음 서복은 상을 타기 위해서 그 명당 자리를 찾게 되었는데 그곳은 뻥 뚫린 구멍이었으며 그 아래 백자 밑이 명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때 서복은 마음을 바꾸고 자신의 영화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무덤을 몰래

파헤치고 그 뼈를 모아다가 그 곳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구멍을 메우고 그 위에 시황 아버지 묘를 쓰도록 한 것이다.

서복은 이 사실이 탄로날까 두려워 멀리 해외로 도망칠 궁리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낸 것이 삼신산의 불로초를 캐오겠다고 자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 이 부분은 후일에 각색(脚色)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남해도를 떠난 서복은 제주도로 건너간 것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에서는 서귀포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남해도 동남단에는 설리(雪里)라는 갯마을이 있고 그 곳 바다로 뻗은 곶이를 「서리곶이(徐離串)」라고 부르고 있다.

하영수(전 남해여자중학교 교장)씨는 이 「설리」가 옛날 서시가 떠났다는 「서리(徐里)」였을 것이며 서리곶이도 '서시가 떠난 곳이'라고 하여 서리곶이로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금산에 왔던 서시가 서리곶이를 떠나서 제주도로 갔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소문을 퍼뜨려놓고 슬쩍 일본으로 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163]

이 서리곶이 바닷가 낭떠러지 암벽에도 「서시과차(서불과차의 잘못)」라는 각자가 있었다고 전해져 있다. 그러나 이 각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다.

그러나 금산 기슭의 각자는 잘 보존되어 지금도 그 각자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도 그 암각이 글체인지 그림인지 조차 알 수가 없고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 수수께끼의 각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의 해독마저 분분(紛紛)하여 더욱 혼란에 가려 있는 것이다.

---

163) 金桂元, <나의 생각> <남해 금산 바위에 새겨져 있는 그림글자와 거기 얽힌 전설>, ≪교육경남≫ 5호.
화전사 바로알기 모임, ≪徐市過此의 神秘를 벗긴다≫, 25~29쪽.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주장과 해석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각자에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모로 고증에 힘쓴 사람으로 우선 역매 오경석(亦梅 吳慶錫·1831~1897)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이 각자를 직접 탁본(拓本)하여 1860년대에 연경(燕京)에 가지고 가서 중국의 여러 학자들에 보이고 해독(解讀)을 부탁했다. 그 결과 당대 금석학(金石學)의 권위자인 원선 하추도(願船 河秋濤, 1823~1862)는 이 각자를 「서불기례일출(徐市起禮日出)」이라 해독하였다. 그러면서 이사(李斯)가 전서(篆書)를 만들기 이전에 사용하던 주문(籒文)[164]으로 동방 최고(最古)의 석문(石文)이라고 감정하였다. 그 원문(原文)을 지난 1996년 3월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위창 오세창 특별전(葦滄 吳世昌 特別展)에 출품된 위창의 전서(篆書) 「진서불제명석각(秦徐市題名石刻)」에서 볼 수 있었다.[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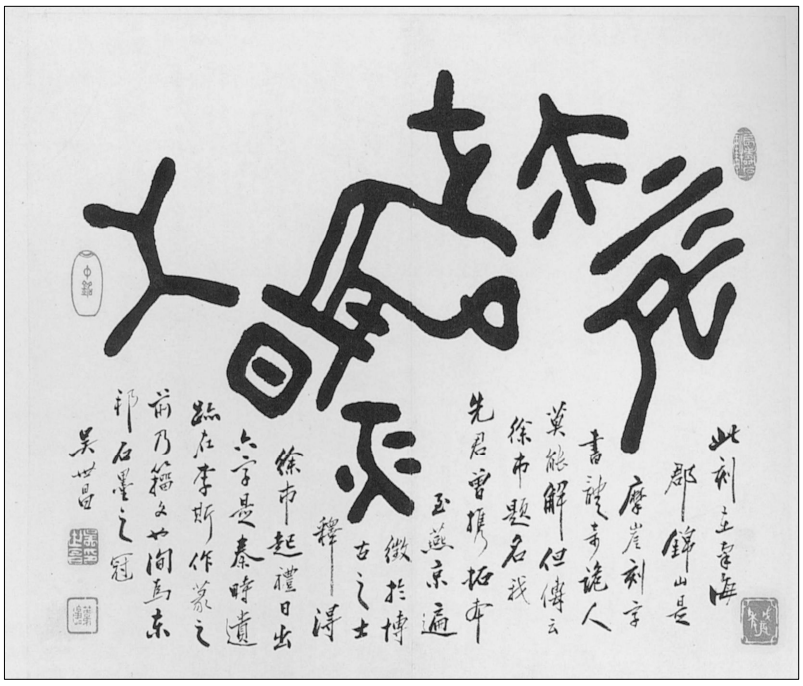
秦徐市題名石刻

在南海郡錦山 自海登山可三里之摩崖石刻也 子體奇詭 莫能辨識 但稱徐市題名矣 我先府君嘗携拓本 至燕京 遍徵於博古之士 有何願船秋濤 遂於金石之學 攷釋 '徐市起禮日出' 六字 恰符方士行法 定爲秦時遺跡 是在李斯作小篆之先 乃籒文也 洵爲我邦金石之冠耳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는 이 각자를 서복과는 관계없는 다른 차원에서 해독하고 있다. 그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한국의 고대문자로 보고 「사냥을 하러 이 곳에 물을 건너와 기(旗)를 꽂다」로 해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고대에 한 무리를 이끌었던 수장(首長)이 사냥을 하고 기념 표지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164) 漢字 字体의 한 가지. 小篆과 구분하여 大篆文字라고 한다. 周나라때 太史 籒가 만들었으며 수식을 많이 하여 번잡하게 보인다.

165) 예술의전당 기획 한국서예사특별전, <葦滄 吳世昌>(圖錄), 29·33·125·263~264쪽.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의 「서불기레일출(徐市起禮 日出)」 전서(篆書). 일찍이 역매 오경석(亦梅 吳慶錫)이 남해각자를 탁본, 연경(燕京)에서 하원선(何願船)으로부터 판독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해법은 시라도리 구라기치(白鳥庫吉)가 일본 홋카이도 오타루시(北海島 小樽市)의 데미야 동굴(手宮洞窟) 속에 이와 비슷한 고문자를 이처럼 풀이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시라도리 교수는 그 동굴의 화상문자(畵像文字)를 "나는 부하를 거느리고… 큰 바다를 건너… 싸워서… 이 동굴에 들어왔다"고 해독했던 것이다.[166]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도 한국의 고문자라는 데는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 고전(古傳)에 따르면 단군(檀君)시대에도 일종의 고문자가 있었던 것이 나타나는데 남해의 암면각자, 흔히 말하는 「서불제명(徐市題名)」의 각자는 없어진 고대 문자가 참으로 다행스럽게 남아 있는 살아있는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불(徐市)의 불(市)이니 복(福)이니 하는 것은 「붉」의 역자(易者)이며 서(徐)는 고대 성직(聖職) 계급의 족칭(族稱)으로 흔히 쓰이고 있다. 고신도(古神道) 관계의 문자임을 암시하고 있어 일본의 「데미야문자(手宮文字)」와 한가지로 앞으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167]

우리나라의 고문자에 동의하면서도 해독은 전연 다르게 풀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대구의 서예가 홍강 이봉호(弘岡 李奉昊)씨는 여러 학자들이 가로 풀고 있는데 반하여 세로 풀고 있는 게 특징이다.

그는 "많은 선인(先人)들이 이 암각문자를 판독함에 있어 현장 확인이 부족했음인지 세로로 놓인 바위에 종서로 쓰인 것을 횡서로 읽어서 바른 해독이 불가능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맨 왼쪽으로 나타나는 X형 암각을 "지금의 화살표와 같은 지난날의 방향표시이다"고 해석하고 "저 방향으로 이런 사람이 배를 타고 노를 저으며 갔다"고 해독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이런 사람은 서불(徐市)을 말한 것인데 그 당시는

166) 李淸基, ≪思鄕錄≫, 39쪽.
167) 화전사 바로알기 모임, ≪徐市過此의 神秘를 벗긴다≫, 41쪽.

그 사람이 서불인 줄 몰랐을 것이다"고 전제하고 "이 도의문자(圖意文字)는 서불이 쓴 것도 아니고 그 일행 중에 어떤 이가 쓴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원주민인 가야인(伽倻人)이 그 사실을 기록으로 각(刻)해 놓은 것이다"고 하였다.[168]

그는 그 문자의 주인공이 서불이 아닐 뿐이지 사람은 서불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다고 보고 이 각자는 우리나라의 고대 상형문자(象形文字)임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한단고기(桓檀古記)≫[169]의 가림다설(加臨多說)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단군시대의 고문자「가림다」문자라는 주장이다. 이 ≪한단고기≫는 1979년부터 갑자기 세상에 나타나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학계에서는 위서(僞書)로 평가하는 등 의문의 서적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남해각자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인용하기로 하겠다.

한단고기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과 신시본기(神市本紀) 등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남해도 낭하리(浪河里 = 良阿里의 잘못) 골짜기에 알 수 없는 각자가 있는데「범자(梵字)도 아니고 전자(篆字)도 아니며 신지씨(神誌氏)가 만든 옛 문자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170]

한국 서법학회 회장 이인섭(李仁燮)씨는 이와 관련하여 이 암각문자를 가림토(加臨土・加臨多)문자로 긍정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다음에 보기로 하겠다.

---

168) 李奉昊, <韓國 最古의 圖意文字>

169) ≪桓檀古記≫는 1911년 桂延壽가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제자 李裕岦이 그 원본을 영인하고 1979년에 이것을 가시마 노보루(鹿島昇)가 일어로 번역, 일본에서 출판하였으며 한국에도 소개되었다. 여기에는 李嵒의 ≪檀君世紀≫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단군이래 고조선의 역사, 고유신앙과 사상 등을 엮고 있다. 그러나 내용 가운데 20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용어나 주장 등이 반영되고 있어 근자에 편집된 僞書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170) 화전사 바로알기 모임, 앞의 책, 47~49쪽.
<한단고기> 169~170, 234~235쪽.

남해 암각문자 「서시(불)제명(徐市題名)」의 서체와 진대의 소전(小篆)과는 그 골격이나 서체가 전혀 맞지 않는다. 「서시제명」의 암각글자야말로 천손민족인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일 것이다. 그 이유는 배달민족인 환웅국(桓雄國) 신시시대(神市時代)에 신지혁덕(神誌赫德)이 창제했다는 비문자(鹿圖文字)와 현재 미국의 S.B(Stony Bruk)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천부경원문(天符經原文)과 문자 형태나 서체가 아주 흡사하다. 또 우리나라 단군신지전(檀君神誌篆)이라고 하는 서체와도 모습과 형태가 꼭 같아 전혀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첫째 당시의 조선 기술로 보아 3천인을 태우고 항해할 만한 배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 둘째 일본과 가까운 부산 등지도 있는데 왜 하필 남해에 흔적을 남겼을까 하는 의문. 셋째 일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서시과차」라고 바위에 조각할 이유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 등을 들고 「서시과차」라는 설은 승복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171]

이 남해각자에 관해서 멀리 인도(印度)의 중앙박물관장(中央博物館長) 데세판데 박사가 해독한 것도 볼 수 있다. 그 같은 해독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남해의 향토사학자 이청기(李淸基)씨의 숨은 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1974년 아동문학가이며 고대사연구가인 이종기(李鍾琦)씨가 인도정부의 초청을 받고 방인(訪印)한다는 말을 듣고 이 각자를 탁본하여 고고학계의 권위자인 데세판데 박사의 판독을 받도록 부탁했다.

데세판데 박사는 이 각자를 분석하고 나서 이 암각은 1천 2, 3백년전 것으로 그림의 주제는 「이 곳은 이 어른의 사냥터이다」라는 선각(線刻) 그림으로 판단했다.[172]

데세판데 박사는 도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각 그림 하나 하나를 모두 분석하여 놓았는데 그에 따르면,

---

171) 李仁燮, <良阿里 岩刻文字와 古朝鮮 鹿圖文과의 比較>, ≪月刊 書藝≫ 1991년 7월호, 80~84쪽.

172) 李淸基, 앞의 책, 41~43쪽.

① 주인공인 왕 또는 수장(首長)이 가마 모양의 의자에 앉아 있고
② 그가 데리고 있는 개
③ 주인공에게 무엇인가 진상하고 있는 시종
④ 사냥감이 되고 있는 동물
⑤ 사냥감에게 일격을 가하려는 사냥꾼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 선각 그림을 서불과차(서불과지)로 해석하는 것도 글 선각 하나하나를 분석하여 같은 방법으로 해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도표에서 볼 때 ⑤는「徐」④는「市」①이「過」②가「此」로 해독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그림을 놓고 전연 다르게 해독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과 시각의 차이가 나타내주는 좋은 대조(對照)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주인공 머리에 관을 쓴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이 김해(金海) 수로왕비(首露王碑)의 태양 상징 그림과 비슷하다고 하여 이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수로왕이거나 그 후대 왕이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173]

또 거란족(契丹族) 문자설이 나온 것도 볼 수 있다. 거란족은 993년(성종 12)부터 네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략해 왔다. 이 네 번째 침공 때는 1018년(현종 9)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강감찬(姜邯贊) 장군이 이끈 고려군에 의해서 대파(大破) 당했으며 그 포로가 수만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2백년 동안은 잔잔했으나 1218년(고종 5)에는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다. 고려에서는 조충(趙沖)을 원수(元帥)로 삼고 이를 격퇴시켰다. 이듬해에는 몽고(蒙古)의 원수 합진(哈眞)과 여몽연합군(麗

173) 李淸基, 앞의 책, 41~43쪽.

蒙聯合軍)을 편성 합동작전을 펴서 강동성(江東城)을 공격 거란군을 격멸시켰다. 이 때 조충 원수는 거란 포로 7백구(七百口)를 데리고 돌아와 각도에 분산 수용하게 되었다. 이들의 집단 수용소를 「거란장(契丹場)」이라고 하였는데 이 거란장이 산남도(山南道·지금의 慶尙道)와 해양도(海洋道·지금의 全羅道)에도 설치되었다.

그들 거란 포로들은 주로 농경(農耕)에 사역되었으나 생활이나 행동에는 그다지 구속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이 남해도까지 돌아다닐 수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해도에는 이 남해각자 말고도 앞에서 본 미조면 설리(彌助面 雪里) 등 여러 곳에 암각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암각자들이 거란인들이 행동하면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표지해 놓은 도표(道標)라는 것이다.[174] 이 같은 주장들은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지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전거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 같은 주장들과는 달리 이 암각에 대해서도 흔히 선사인(先史人)들이 남긴 일종의 암각화(岩刻畵·rock art·rock shelter art)[175]로 분류해버리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부터 주로 대학 박물관 팀 등에 의해서 암각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영남대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서 고령군 양전리(高靈郡 良田里)의 기하학문(幾何學紋) 암각이 발견되었고 동국대 박물관 조사단에 의하

174) 李淸基, 앞의 책, 43~46쪽.

175) 암각화(岩刻畵) : 암벽화(岩壁畵), 바위그림, rock art, rock shelter art 등으로 불리고 있다. 구석기시대부터 신석기시대에 걸쳐 석기, 금석기 등으로 조각해 놓은 선사인들의 미술을 말한다. 늦은 것은 역사시대까지 이어진 것도 볼 수 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세계적으로 분포돼 있으며 프랑스에서 에스파냐에 걸쳐 볼 수 있는 프랑코 칸타브리안 미술, 시베리아 극북 미술, 에스파냐 동부의 레반트 미술, 남부 아프리카 부시민 미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미술 등이 유명하다.

여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蔚州郡 大谷里 盤龜臺) 암각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무렵에 남해암각과 인접 지역의 암각들도 경희대 박물관 조사단에 의해서 발견 암각화로 보고된 것을 볼 수 있다.[176]

이 암각화는 선사시대 신앙과 연관되는 암각화로 밝히고 조각연대는 청동기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 암각화를 조사했던 경희대 조사단은 같은 양아리 인접지역에서 새로이 발자국 암각화를 발견하였고 다시 이동면(지금의 상주면) 벽련리에서 동물, 배, 인물 등의 암각화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또 상주리 금산 기슭의 길가에서 흔히「해의 상징」(Sun Mark)이라고 불리는 암각도 발견하여 이 지역 일대가 선사암각화의 유적 집중지역임을 확인하였다.[177]

그 뒤 시흥 삼성산(三聖山)에서 상주리와 벽련리에서 볼 수 있는 인물상(人物像)과 성혈(性穴) 등이 발견되어 이런 형식의 암각화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었을 가능성도 시사해주고 있다.[178]

따라서 서불과차 또는 남해각자로 알려진 이 암각도 고문자가 아니며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아프리카, 인도 등 세계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정착생활을 하던 선사시대의 농업·어로문화의 소산인 농경민 미술로 밝히고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남해각자는 백가쟁명(百家爭鳴)으로 사람들마다 해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명히 암각은 하나인데 보는 눈은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지금 정방폭포(正房瀑布)의 암각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 밖의 제주도 해안에서 어떤 암각이 새로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 해독을 놓고 쟁점이 될 것은 뻔한 일이다.

---

176) 黃龍渾, ≪동북아시아의 岩刻畵≫, 76쪽.
177) 黃龍渾, 앞의 책, 91~92쪽.
178) 黃龍渾, 앞의 책, 93쪽.

Ⅷ. 제주족은 어디서 왔는가

1. 제주도의 삼성설화(三姓說話)
2. 제주도의 원주족(原住族)
3. 제주도의 유적과 유물

❶
제주도의 삼성설화(三姓說話)

제주도 고대사(古代史) 구명(究明)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로 삼성(三姓)의 개국설화가 있다. 내용을 보면 분명한 설화로 구성돼 있지만 삼성혈(三姓穴)을 비롯하여 설화와 직접 관련있는 많은 사적(史蹟)과 유물, 심지어 삼성(三姓)의 인맥(人脈)까지 형성하고 있어서 역사적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개국설화의 기록은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권위 있는 역사서나 지지(地誌)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필자가 볼 수 있었던 것만도 수십종에 이를 만큼 실로 많은 문헌에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기록을 볼 수 있지만 그 줄거리는 몇가지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에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의 내용을 대강 간추려 보겠다.

> 사람이 살지 않던 옛적 탐라에 한라산 북쪽 기슭 모흥혈(毛興穴·지금의 三姓穴)에서 세 신인(神人)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 양을나(良乙那)·고을나(高乙那)·부을나(夫乙那)가 바로 그들이다. (기록에 따라서는 고을나·양을나·부을나의 순으로 된 것도 있다) 그들은 가죽옷을 입고 인적이 없는 거친 들에서 사냥을 하여 짐승의 고기를 먹고살았다. 그



탐라시조(耽羅始祖)의 탄생신화가 흐르고 있는 삼성혈(三姓穴).



삼을나(三乙那)가 활을 쏘아 살 땅을 정했다는 전설 속의 삼사석(三射石). 지금도 제주시 삼양동(濟州市 三陽洞)에 보존되고 있다.

러던 어느 날 바다로부터 진흙으로 봉한 나무궤짝이 떠와 동쪽 갯가에 닿았다. 그들은 그곳으로 내려가 궤짝을 열어 보았다. 그 안에는 자줏빛 옷에 붉은 관대를 두른 사자(使者)가 있었고 또 하나의 옥함(석함)이 들어 있었다. 그 옥함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는 푸른 옷을 입은 아름다운 세 처녀가 나왔으며 송아지 망아지 등과 함께 오곡 씨앗도 들어 있었다.

사자가 말하기를 "저는 일본국(기록에 따라서는 벽랑국·碧浪國)에서 온 사신입니다. 저희 임금님께서 세 공주를 두셨는데 마침 이곳에 세 신인이 내려오시고 장차 나라를 세우고저 하나 배필이 없는 것을 아시고 신에게 세 공주를 모시고 가도록 분부가 계셨습니다. 부디 배필로 맞으시고 개국의 대업을 이루도록 하십시오"하고 그 사신은 구름을 타고 사라져 갔다.

이에 세 신인은 나이 순서에 따라 각각 세 공주와 짝을 지어 혼례를 올렸다. 그리하여 물 좋고 땅 좋은 곳을 골라 활을 쏘아 살 땅을 정하였는데 일도(一都)·이도(二都)·삼도(三都)(一·二·三徒로 되어 있는 기록도 있다)가 바로 그 분거지가 되었다. 양을나가 사는 곳을 제일도, 고을나가 사는 곳을 제이도, 부을나가 사는 곳을 제삼도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오곡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지었으며 마소를 치기 시작하였는데 날로 번성하여 갔다.

太初無人物 三神人從地聳出 <其主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長曰良乙那 次曰高乙那 三曰夫乙那 三人遊獵荒僻 皮衣肉食 一日見紫泥封藏木函 浮至于東海濱就而開之 函內又有石函 有一紅帶紫衣使者隨來 開石函出現靑衣處女三 及諸駒犢五穀種 乃曰我是日本國使也 吾王生此三女云 西海中嶽降神子三人 將欲開國 而無配匹 於是 命臣侍三女以來 爾宜作配以成大業 使者忽乘雲而去 三人以年次分娶之 就泉甘土肥處 射矢卜地 良乙那所居曰第一都 高乙那所居曰第二都 夫乙羅所居曰第三都 始播五穀 且牧駒犢 日就富庶

이상이 대략 근간을 이룬 줄거리인데 여기서 기록마다 다른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타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삼성의 장유순서와 분거지라고 할 수 있다. 기록에

따라 양(良)·고(高)·부(夫)의 순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고(高)·양(良)·부(夫) 또는 고(高)·부(夫)·양(良) 등 여러 가지 순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一)·이(二)·삼도(三徒)의 분거지도 마찬가지다.

그밖에 공주가 도래한 모국은 어디냐. 일본이냐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지역이냐. 궤짝이 닿은 바닷가는 어디냐, 온평(溫平)리냐 아니면 금당포(金塘浦·朝天浦)냐. 일(一)·이(二)·삼도(三徒)의 분거지는 지금의 어디냐. 제주시 관내냐 아니면 그 밖의 다른 지역이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설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후속 줄거리가 이어진다.

> 그 뒤 고을나(高乙那)의 15대손 고후(高厚) 등 세 형제가 배를 만들고 바다를 건너 탐진(耽津·全南 康津)에 닿고, 신라(新羅)에 입조하였다. 그 때는 신라가 매우 융성한 때였다. 이 때 신라에서는 남쪽 하늘에 객성(客星)이 나타났는데 임금에게 태사(太史)가 말하기를 "외국에서 귀한 손님이 찾아올 징조입니다"고 하였다. 때마침 탐라의 세 형제가 찾아 왔으므로 신라왕은 매우 기뻐하여 그들 세 형제에게 각각 성주(星主)·왕자(王子)·도내(徒內)의 벼슬과 함께 많은 보석과 선물을 내린다. 또 '탐진(耽津)을 거쳐 찾아온 나라'라고 하여 '탐라(耽羅)'라는 국호까지 내린다. 이때부터 신라를 섬기게 되었으며 탐라는 더욱 번성하여 갔다. 이에 고(高)를 성주로, 양(良)을 왕자로, 부(夫)를 도상으로 삼았으며 뒤에 양(良)은 양(梁)으로 고쳤다.
>
> 至十五代孫 高厚高淸昆弟三人 造舟渡海 至于耽津 盖新羅盛時也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 異國人來朝之象也 遂朝新羅 王嘉之 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二子曰王子 <王令淸出胯下愛如己子故名之>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盖以來時 初泊耽津故也 各賜寶盖衣帶而遣之 自此子孫蕃盛敬事國家 以高爲星主 良爲王子 夫爲徒上 後又改良爲梁

그러나 이 설화의 뒷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역사의 사실과는 전

연 맞지가 않는다. 몇 가지 두드러진 예를 들어보면 탐라는 5세기부터는 이미 백제(百濟)에 입조하고 교류가 시작되고 있으며 신라와는 7세기 이후에야 입조·교류하고 있다. 설화에서는 처음으로 신라에 입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역사적 배경을 보면 '선백제(先百濟)·후신라(後新羅)'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탐진(耽津)을 거쳐 입조하였다고 하지만 탐진은 통일신라 이후의 이름이며 삼국시대 당시는 동음현(冬音縣)이었다. 이것이 탐진(耽津)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은 도리어 탐라와의 교통항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탐라로 가는 갯가"라고 하여 「탐진(耽津)」이란 이름이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설화는 연대 추정이 어려울뿐더러 이 같은 역사 사실과의 상충 때문에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많은 의견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삼성의 출현 연대가 언제였느냐 하는 문제 하나만 놓고 보아도 실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맞서 있다.

가장 오랜 주장으로는 다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단군(檀君)이 고조선(古朝鮮)을 건국했다는 해 보다도 5년이나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당요(唐堯) 21년 갑자설(甲子說)' [B.C 2337년, ≪고씨세록(高氏世錄)≫등]

▷ '당우지제설(唐虞之際說)' [B.C 2333년, ≪양씨보(梁氏譜)≫·김조순(金祖淳) ≪풍고집(楓皐集)≫등]

다음으로는 중국 한(漢)시대에서 우리나라 삼국(三國)시대 초까지의 주장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 '단군말설(檀君末說)' [B.C 195년경, 송시열(宋時烈) ≪우암집(尤庵集)≫]
▷ '한(漢)나라때, 박혁거세(朴赫居世)·금와(金蛙)·고주몽(高朱蒙)·김(金)알지와 동연대설' [B.C 206~A.D 220년, 허목(許穆) ≪동사(東事)≫]
▷ '한선제오봉이년을축설(漢宣帝五鳳二年乙丑說)' [B.C 56년, ≪고씨보(高氏譜)≫]
▷ '한영평을축설(漢永平乙丑說)' [A.D 65년, 이중환(李重煥) ≪택리지(擇里志)≫]

그런가 하면 훨씬 뒤떨어져서 아래의 두 가지가 있기도 하다.

▷ '구한말설(九韓末說)' [A.D 307~645년,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 김상헌(金尙憲) ≪청음집(淸陰集)≫]
▷ '남송원가갑자설(南宋元嘉甲子說)' [A.D 424년, 이응호(李膺鎬) ≪탁라국서(乇羅國書)≫]

위에서 여러 설을 살펴보았지만 결정적인 전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어느 설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여러 기록과 자료들을 놓고 검토해보면 어느 정도 근사치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문헌 등에 나타나는 탐라의 기록들을 보면 대체로 기원 1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세기부터는 ≪삼국사기(三國史記)≫를 비롯하여 중국이나 일본의 사서 등에 탐라국의 활동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신석기 초기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고산리유적(高山里遺蹟)을 제외한다면 제주시 용담동고분(龍潭洞

古墳), 삼양동유적(三陽洞遺蹟)을 비롯하여 제주시와 북제주군 일대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러 유적의 편년이 대체로 기원전 1~2세기에서 기원 1~2세기 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자료들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탐라국의 고대국가 형성은 기원전 1~2세기에서 늦어도 기원 1세기경에는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그리하여 5세기부터는 대외활동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이 이미 제주시 용담동, 오라동, 삼양동 등에서 발굴 조사된 주거지, 묘지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확실한 국가 조직을 가진 고구려(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 등 삼국이 일어날 때이며, 중국에서는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秦)이 멸망하고 한(漢)의 전성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삼성개벽설화는 지신족(地神族)인 원주족과 도래족인 표착족(漂着族)의 결합을 시사해 주고 있다. 지신족이든 표류족이든 설화의 성격은 남방계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설화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면 제주도는 원래 토착족인 수렵족이 거주하였는데 농경족이 도래하면서 농업정착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 세 씨족이 결합하여 씨족(氏族)연합사회를 형성하는 사실도 설명해주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궁금한 중심과제는 제주도 최초의 토착족이요, 제주도의 개조(開祖)로 알려진 삼성신인(三姓神人), 이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직도 정답이 없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 가능성이나 정답을 도출해 내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리라고 믿어진다.

그 동안 세 신인(神人)을 추적한 몇 가지 견해를 보면 오오타(太田 湶)의 일본족설(日本族說, 수미에노의 三大神) 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이 같은 일본족설과는 대조적으로 석주명(石宙明)은 해남도(海南島)와 안남(安南)에서 도래한 한족(漢族)으로 점치고 있다. 그의 <제주시조(濟州始祖) 고(高)·양(良)·부(夫) 삼씨고(三氏考)>(石宙明· ≪濟州島資料集≫)에서 그는 대략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 해남도(海南島)와 안남(安南)에 걸쳐서는 중국 본토에서 희성(稀姓)인 것과는 달리 고(高)·양(梁)·부(符) 삼성(三姓)이 많다. 안남 등지에서는 완성(阮姓) 등 대성 몇 성을 제외하면 고양부(高梁符) 3성은 적어도 2~3류 수준이 될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해남도(海南島) 본토족은 원래는 여족(黎族, 苗族의 일파)이었지만 광동(廣東)·복건(福建) 지방에서 진출해 온 한족(漢族)에 쫓겨 산중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한족(漢族)이 차지하고 있다.
>
> 해남도는 여러모로 제주도와는 연결이 된다. 바다 일을 주로 하고 도외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인데 과거에는 일체 여자를 동반하는 일이 없었다. 해남인은 복건어(福建語)를 쓰고 액센트가 강한 편이어서 제주도민의 방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179]

또 전설의 공통점을 볼 수도 있다. ≪후한서(後漢書)·남만전(南蠻傳)≫에서는 파군(巴郡)과 남군(南郡)의 만인(蠻人)은 5성으로 이뤄지는데 파(巴)·번(樊)·담(瞫)·상(相)·정(鄭)씨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모두 무락(武落) 종리산(鍾離山)에서 솟아난다. 그 산에는 붉고 검은 두 구멍이 있는데 파(巴)씨의 아들들은 붉은 구멍에서, 나머지 4성의 아들들은 검은 구멍에서 솟아 나왔다. 그들은 칼을 돌구멍에 던져 적중하는 자를 군장으로 받들기로 하였는데 파(巴)씨 아들이 적중하여 임금이 되었다.

---

179) 石宙明, ≪濟州島資料集≫, 168~169쪽.

제주도가 3성인데 반하여 5성이며 3혈(穴)인데 반하여 2혈(穴)이라는 차이 등이 있지만 활 대신 칼을 던져 군장을 삼고 나무 궤짝 대신 토선(土船)이 등장하지만 같은 상황이 부여되는 등 공통성을 지녀 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배필이 진흙으로 봉한 목함을 타고 오며 목함 속에는 또 다른 석함(옥함)이 들어 있는 것까지도 공통성을 지녀있다고 하겠다.[180]

3신인의 출현을 제주도의 화산폭발과 결부시키는 학자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로 가와사키 시게타로오(川崎繁太郎), 김태능(金泰能) 등을 꼽아 볼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살펴보았지만 가와사키 교수는 <제주도(濟州島)의 지질학적 관찰(地質學的 觀察)>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 (전략) 삼신인(三神人)은 도외에서 도래(渡來)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도내에 거주했던 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남신(男神) 3인만 살았던 곳이라고 볼 수도 없다. 동해 중에 나타난 제주도는 화산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오랜 시일이 흐르자 신인들이 살기 시작했고 신인 사회가 번성하면서 무릉도원(武陵桃源)과 같은 섬이었다고 생각된다.
>
> 그러나 잔존했던 화산력 때문에 대분화(大噴火)가 일어나고 용암이 바다를 이루고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 참화를 입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위 그늘이나 동굴에 피난하였던 세 신인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화산 활동이 가라앉은 뒤 헤쳐 나온 세상은 일변해 있었다. 우마나 동물들은 모두 전멸하였고 전답은 화산탄과 화산재로 덮여 황야 이상으로 참담하였다. 먹을 곡식도 없었고 산은 아직도 뜨거웠으므로 바다로 나가 해안을 헤매면서 해조류와 어개류를 채집하여 연명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해안에 표도한 해녀의 배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아마 규슈(九州)의 고토(五島) 부근 해녀들이 아닌가 생각된다.[181]

---

180) 石宙明, 앞의 책, 170~171쪽.

181) 川崎繁太郎, <濟州島の 地質學的 觀察>, ≪文教の 朝鮮≫ 1928年 10月號, 30~32쪽.

이와 비슷한 주장은 김태능(金泰能)이나 그 밖의 여러 학자들의 글에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3신인의 출현이 도래족이 아니라 본래부터 이 섬에 살았던 원주족이었다는 견해다. 지금 3신인이 누구인가를 놓고 대립돼있는 견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바로 이 3성이 토착족인가, 도래족인가 하는 문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서복전설 가운데는 삼성의 출현과 깊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필자로서는 서복집단의 일원설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삼성은 도래족(渡來族)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도가 마지막으로 섬이 된 것은 1만년전의 일이며 지금 도내에서 발견되고 있는 선사 유적이나 유물 등을 놓고 보면 연결을 지울 수 없는 약간의 구석기 유적과 신석기 초기의 유적을 제외한다면 기원전 2~3세기 이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삼성(三姓)의 본관이 제주인 것처럼 고대 때 이미 제주에 토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삼국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닌 씨족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자료만 놓고 본다면 어디선가 들어온 도래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❷

제주도의 원주족(原住族)

제주의 원주족(原住族), 다시 말하면 탐라족(耽羅族)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예나 지금이나 정설(定說)이 없다.

그동안 필자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술세미나 등 여러 모임에서 "북방이다" "남방이다"하여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보아온 터이지만 어느 주장이든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얻어낸 것을 본 기억은 없다.

과거에 제주의 원주족을 논급한 사람들을 보면 최남선(崔南善) 등 약간의 예외를 제외한다면 대체로 제주족을 어느 한 계통에서 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는 복수(複數) 또는 선후(先後) 단계설 등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학자들의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시베리아나 만주, 또는 북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들어왔다는 북방계통설(北方系統說)

둘째, 남태평양 일대 연안 안남(安南), 화남(華南) 그리고 여러 도서들을 거치며 북상하여 왔다는 남방계통설(南方系統說)

셋째, 북방과 남방, 쌍방 모두에서 들어왔다는 복수계통설(複數系



옛 제주시(濟州市) 산지포구(山地浦口). 산지천 하구가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 산지항(山地港)의 옛 모습. 1920년대초 동축항 공사가 막 시작될 무렵.

統說)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 그들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비교적 제주도 역사를 깊이 연구하였던 학자들 가운데는 제주의 원주족을 일본 열도의 원주족과 같은 계통으로 보려는 태도들을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들이 최남선(崔南善)·석주명(石宙明)·김태능(金泰能)·도리이 류우조오(鳥居龍藏)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학자 최남선(崔南善)은 일찍이 제주도의 원주족은 아이누족(Ainu族) 계통이 아니겠는가 의문을 제기한 일이 있다. 아이누족은 특이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서 동양인보다는 백인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경로로 동양의 끝까지 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수수께끼의 인종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아시아 내륙 지방에 분포해 있던 북방민족이었으나 알타이족(Altai族)에 쫓기면서 흩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두 갈래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한 갈래는 시베리아 끝까지 와서 연해주(沿海州) 일대에 살다가 사할린으로 건너가서 홋카이도(北海道) 일본 본토로 퍼져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 갈래는 흑룡강(黑龍江) 지방으로부터 다른 민족에게 쫓겨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에서도 다른 민족에 밀려 북으로 쫓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은 홋카이도·사할린 등지에서 그 부족을 찾아볼 수 있을 뿐 거의 일본인화 하였다.

제주인(濟州人) 가운데는 한족(韓族)과는 달리 체모(體毛)·수염·성격 등 아이누인과 흡사한 체질을 지닌 사람들이 많다. 또 제주도의 지명가운데도 아이누어(語)와 같은 이름이 많다. 폭포·분화구를 '소'라고 하는데 제주에서도 폭포가 떨어지는 연(淵)이나 골짜기·패인 지형 등에 물이 고여있는 곳을 「소」라고 한다.

아이누어(語)에서는 밋밋하게 내려가는 언덕을 「산」이라고 하며

땅바닥이나 구덩이를「되」라 하고 잘린 곳, 무지러진 곳을「뒤」라고 한다. 제주의 앞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포구일대를「산지(山地)」또는「산지포(山地浦)」라고 하는데 이것은「산되」또는「산뒤」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된다.

그 반대쪽을「서귀(西歸)」또는「서귀포(西歸浦)」라고 한다. 아이누어에서는 드러난 바위를「소」라 하고 파도를「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귀포 일대가 바위 절벽을 이루고 파도가 출렁인다의「소괴」에서 온 말이라고 할 것이다.

모슬포(摹瑟浦), 가파도(加波島), 마라도(馬羅島), 삼의양악(三義讓岳), 어승생악(御乘生岳), 열안지(悅安止)오름, 감은(感恩)오름, 성불(成佛)오름, 도근(都近)내 등 거의 모든 지명이 아이누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2]

아이누어에서는 추장(酋長)을 '옷데나(을명·乙名)'라고 하며 존칭이나 애칭으로 '가이나(加伊奈)'라고 부른다. 이것은 제주도의 개국신인 고양부 삼신인(高·良·夫 三神人)의 이름이 '을나(乙那)'라는 사실을 볼 때,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동구(韓東龜)는 ≪제주도(濟州島)≫에서 만약 최남선(崔南善)과 같이 제주의 원주족이 아이누족과 관련이 있다면 그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아이누족이 일본열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가 제주도에도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

둘째는 아이누족이 규슈(九州)에 있으면서 일부가 도래하였거나 교섭이 있었을 가능성,

셋째는 아이누족이 제주도를 거쳐 규슈(九州), 일본열도로 들어갔

182) 崔南善, ≪濟州島의 文化史觀≫, 92~110쪽.

을 가능성 등이다.[183]

제주도 사학자 김태능(金泰能)은 아이누족 대신에 '고루보구족 설(說)'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무라오 모도나가(村尾元長)의 ≪아이누 풍속약지(風俗略志)≫에 나오는 고루보구족과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지(三國志·魏志)≫에 나오는 '주호설(州胡說)'과 비교하여 그의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에서 대충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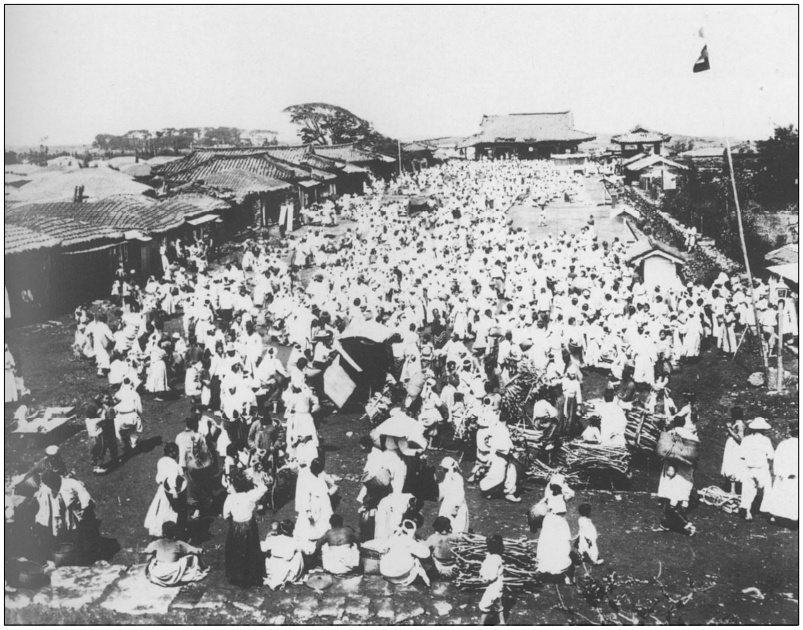
> 고루보구인(人)의 유물이 규슈(九州)지방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규슈(九州)에 살았던 사실이 입증된다. 이는 주호인(州胡人)의 종족을 알아보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규슈(九州) 서부지방과 제주도는 백여리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이웃해 있어서 해로(海路)로 선박의 왕래는 편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대부터 고루보구인이 제주에 왕래하였고, 또 그 일부는 이곳에 정착하여 다른 지방에서 온 유우자(流寓者)들과 더불어 혼거하면서 원주민(原住民)이 되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184]

≪아이누 풍속약지(風俗略志)≫를 보면 고루보구인(人)은 아이누족이 일본에 이주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종족으로 '고로고니(蕗·甘草)', '보구(아래·下)', '운(있다·有)', '구루(사람·人)'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말하자면 "감초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극히 왜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다.[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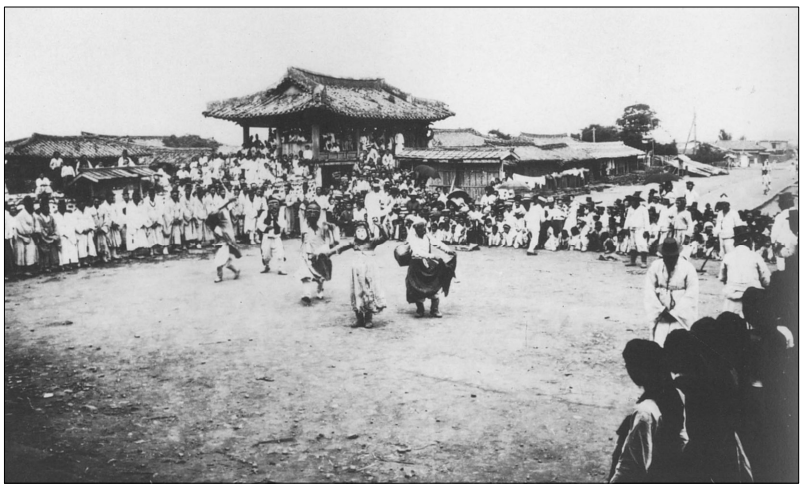
이것은 주호인(州胡人)이 "체구가 작고 머리도 짧으며 옷은 가죽으로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없다"는 형용과 "석기와 토기를 사

---

183) 韓東龜, ≪濟州島≫, 131~132쪽.
184) 金泰能, <濟州島略史>, ≪濟州年鑑≫(1969년판), 138~139쪽.
金泰能, <耽羅略史>, ≪濟州島史論攷≫, 9~11쪽.
185) 村尾元長, ≪あいぬ 風俗略志≫, 194~202쪽.



옛 제주시 관덕정(觀德亭) 앞 광장에 오일시장(五日市場)이 서고 있다.



옛 제주동헌(濟州東軒) 진해루(鎭海樓) 앞에서 벌어진 입춘(立春)굿.

용하며 수혈(竪穴)에 살았다"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최근의 일본 인류학자들은 거의 이 고루보구인의 일본거주설을 부인하고 있다.

김태능(金泰能)은 원주족은 고루보구족으로 보았지만 뒤이어 고구려계 부여족(高句麗系 夫餘族)이 들어왔다고 보며 그들이 지배족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는 <제주도사(濟州島史)와 그 문제점>에서 사학자 신채호(申采浩)의 고구려(高句麗) 지명에 관한 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신채호(申采浩)는 고구려(高句麗)의 오부(五部)지명은 이두(吏讀)의 표기라고 보고 동부를 「순나」(SUNNA), 남부를 「불나」(BULNA), 서부를 「열나」(YOLNA), 북부를 「줄나」(JULNA), 중부를 「가울나」(KAURA)라고 하였다. 순나(順那)·관나(灌那)·연나(椽那)·절나(絶那)·계안나(桂安那)는 곧 순라, 불라, 열나, 줄라, 가우라의 이두자라고 하였다.(동몽골어와 같다고 함)[186]

이 명칭에 준한다면 제주도의 중부라고 할 수 있는 고(高)씨가 거주하는 일도(一都)는 「가울나」에 해당하며, 서부인 양(良)씨가 거주하는 이도(二都)는 「열나」, 남부인 부(夫)씨가 거주하는 삼도(三都)는 「불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세 지역의 호칭은 고구려의 오부 지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제주도의 풍속 가운데 양돈 방법이 만주나 평안북도(平安北道)와 같으며, ≪당서(唐書)≫에 '하거혁옥 동굴옥(夏居革屋 冬窟屋)'이라는 탐라의 풍속이 ≪진서(晋書)≫에 나오는 '하즉소거 동즉혈처(夏則巢居 冬則穴處)'의 숙신(肅愼·滿洲의 고대민족) 풍속과 같은 점을

186) 申采浩, ≪朝鮮上古史≫, 175쪽.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탐라의 지배세력이었던 고·양·부(高·良·夫) 세 씨족은 고구려계 부여족(高句麗系 夫餘族)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187]

이병도(李丙燾) 교수는 ≪한국고대사회(韓國古代社會)와 그 문화(文化)≫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 제주도에 인류가 어느 때부터 내왕하기 시작하였는가는 자세히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유물로 볼 때, 대개 신석기(新石器) 시대로 부터가 아닌가 추측된다. 왜냐하면 가장 오랜 출토물로는 즐문토기(櫛文土器) 파편(吾羅洞 및 제주시 남쪽), 타제석기(打製石器·高山里 등)를 비롯하여 무문토기(無文土器) 파편·석부·유공단도(有孔單刀)·마제석도(磨製石刀)·석제발화기(發火器)·마제석부(石斧) 등이 나오고 있다. 유적으로는 각처에 지석묘(支石墓)가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도 애월읍(涯月邑)의 5~6개 지석묘는 소위 남방식의 형태인 것이다.
>
> 이러한 유물·유적의 형식이 대개 내륙(內陸)의 것과 유사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 원주민의 조상들은 주로 육지 본토(韓半島)에서 이주해 간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후략)[188]

그는 또 삼국지(三國志)나 후한서(後漢書) 등에 나오는 '주호설(州胡說)'에 관하여는 좀 이색적인 주장을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 (전략)옛날 우리 동방에서는 외인의 불법 침입자나 부로(浮虜)에 대하여는 머리를 깎아 노예와 같이 부리는 법속(法俗)이 있었다. 탐라의 원주민들도 위의 법속에 좇아 외지(外地·특히 倭國 등 해양방면)에서 표류 혹은 해적으로 침입하였다가 사로잡힌 무리에 대하여는 차별적 표

187) 金泰能, <濟州島史와 그 問題點>, ≪濟州島史論攷≫, 509~512쪽.
188) 李丙燾,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293~294쪽.

시로 모두 삭발을 시켰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그 수효가 제법 많았던 까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어가 마한(馬韓)과 같지 않다는 것도 그들 삭발자의 모국어를 말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을 것이다.(후략)[189]

1914년 제주도를 방문한 인류학자 도리이 류우조오(鳥居龍藏)는 앞에서 잠깐 비쳤지만 제주보통학교(현재 제주북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강연회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제주도의 혈통은 반은 일본인(日本人)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삼신인(三神人)의 배필이 일본에서 도래한 일본여자라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제주인의 용모나 골격·기질 등 부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중략) 고사기(古事記)의 기록에 보면 수이진제(垂仁帝)때 다지마모리(田道間守·天日槍의 후예로 알려져 있음)라는 충신을 '도코요노구니'(常世國)에 보내서 귤(橘)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그가 온갖 고난 끝에 간신히 귤을 구해 가지고 돌아온 것은 11년이 지난 뒤였다. 돌아와 보니 임금은 이미 죽은 뒤였다. 그는 귤을 제릉(帝陵)에 바치고 자진하였다. 이 기록에 나오는 상세국(常世國)은 귤이 생산된다는 점으로 보아 제주도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이때부터 이미 제주도와 일본은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90]

일본서기(日本書記)의 사이메이조(齊明條, 661년·齊明天皇 7년 5월 23일)에는 탐라의 왕자 아파기(阿波伎) 등이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공물을 바친 기록이 나온다. 이때 이키노무라지하카도코(伊吉連博得)가 말한 가운데 "신유(辛酉)년 정월 25일에 돌아와서 월주(越州)에 이르렀다. 4월 1일에 월주로 부터 길에 올라 동쪽으로 돌아왔다. 7

189) 李丙燾, 앞의 책, 294~295쪽.
190) 全南濟州島廳, ≪未開の 寶庫 濟州島≫, 13~14쪽.

일 해뜰 무렵 죠오간산(椹岸山)에 이르렀다. 8일 계명(鷄鳴) 무렵에 이르러서야 서남풍을 만나 배를 큰바다에 띄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항해도중 항로를 잃고 표류하기 시작하여 갖은 신고(辛苦)를 치렀다. 9일 8야(夜) 만에야 겨우 탐라도(耽羅島)에 이르렀다"고 하였다.[191]

이 표류 기록은 제주도의 동남을 흐르는 난류(暖流)를 따라 표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부터 일본 규슈(九州)와 제주도 사이에는 많은 표류자들이 속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과 제주 사이에는 해상 교통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였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밀접한 교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제주도는 국사범(國事犯)들의 유적지(流謫地)로 많은 유배인(流配人)들이 귀양을 살았으며, 또 중앙정계에서 출사를 거부한 많은 유망인(流亡人)들이 들어와 은둔하였다. 그들과 도민의 피가 섞이면서 그 후손들은 슬기롭고 용감한 정신력을 지니게 되었으며 전통있는 문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다.

도리이(鳥居龍藏)교수의 '반일본족설(半日本族說)'과는 달리 제주도의 원주족(原住族)을 '해신족(海神族)'으로 보면서 북규슈(北九州)를 중심으로 한 부근 도서인들과 같은 계통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이와모토 요시부미(岩本善文)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그의 ≪상고지통치이면사(上古之統治裏面史)≫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고대의 조선민족 이동을 보면 제주도의 원주민(原住民)은 남방으로부터 들어온 해신족(海神族)으로 볼 수 있다. 남방에 있던 해신족이 북상하여 일부는 제주도에 들어갔으며 다른 일부는 북규슈(北九州)로 들어간다. 제주도에 들어간 해신족은 다시 변한(弁韓)으로 들어가며 북규슈

191) 岩波書店, ≪日本書紀≫ 上卷, 349~350쪽.

의 해신족도 고토(五島)·쓰시마(對馬)·변한(弁韓) 등으로 흩어진다. 그리하여 해신족은 북규슈(北九州)를 비롯하여 고토(五島)·쓰시마(對馬)·변한(弁韓) 등에 분포하였다.[192]

해신족은 기원전에 한라산의 폭발과 함께 전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뒤에 삼신인(三神人)이 용출하여 오늘의 도민의 시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해신족은 말레이반도 인도네시아에 분포했던 마래족(馬來族)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하여 석주명(石宙明)은 한마디로 '광언(狂言)'이라고 잘라 비판하고 있는가 하면 한동구(韓東龜)는 주호인(州胡人)의 습속으로 보아 도서지방에서 표착한 도서족(島嶼族) 계통의 인종일 가능성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인학자 쓰보이 쿠메조오(坪井九馬三·東京大 교수)는 이와모토(岩本)와 함께 또 하나의 이설(異說)을 내세우고 있다. 이른바 '세망족'설(說)이다. 세망족은 말레이반도 말래카에 있는 네그리트 계통의 체구가 작은 소수 종족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삼한고지명고(三韓古地名考)≫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제주도의 고명(古名) '탐라(耽羅)'는 세망(Semang)어의 'Tom' 즉 물과 캔(Can)어의 'Ro' 즉 '다량의' 합성어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탐라는 대양(大洋)의 원의(原義)에서 나온 '대양(大洋) 중의 섬'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탐라의 원주민은 네그리트부족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193]

탐라의 어원(語源)과 관련하여 임태보(林泰輔)는 말래카 대신 인도(印度)를 취하고 있다. 다음에 그의 주장을 보겠다.

---

192) 韓東龜, ≪濟州島≫, 129~130쪽.
193) 水野寅雄, <濟州島の 人と 村>, ≪朝鮮≫ 1935년 9월호, 49쪽.

인도어(印度語)에 산·바다·동식물명·인명·지명 등에 '라(羅)'자가 붙는 게 많은 것으로 보아 탐라도 인도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설(印度說)은 일찍이 H·B·헐버트(Hulbert·조선시대 말 高宗황제의 顧問)도 제기한 일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제주도와 조선 남부지방 주민은 언어·체질·풍습·말(馬) 등 여러 가지 공통성으로 보아 대만(臺灣) 주민과 같이 남인도(南印度)의 드라비다(Dravida)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에 대하여 E 벨츠(Baelz·일본에 거주했던 독일인 의학자)는 헐버트의 유래설에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드라비다에서 직접 유래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조선의 동남쪽의 여러 큰 섬들과 남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남방계통설에 대립하여 이창환(李昌煥)은 북방의 여러 종족에서 찾아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탐라족(耽羅族)은 대략 다음과 같은 계통을 통하여 생겨났다고 주장한다.

태고의 조선족인 환족(桓族)은 그 거주지방에 따라 조선·북부여(北夫餘)·예맥(濊貊)·옥저(沃沮)·숙신(肅愼) 등 다섯 분파(分派)로 나뉘었다. 그 가운데 조선족은 한족(韓族)으로 이어지며 한족(漢族)과 합하여진다. 중국에서 건너온 기조(箕朝)의 후예인 한족(漢族)은 마한족(馬韓族)에 이어지며 마한족(馬韓族)은 한족(韓族)에서 유래한 변한(弁韓)족과 합하면서 다시 세 분파(分派)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 가운데 일파가 탐라족인 것이다.

인류(人類)학자인 이스미 세이이치(泉靖一·전 東京大)교수는 형질학상(形質學上)으로 제주도인은 몽고인(蒙古人)과 매우 닮았다고 비교하

면서도 본질적으로는 남조선인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그의 저(著) ≪제주도(濟州島)≫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제주도인의 신체·형질(形質)을 비교해 보면 두부(頭部)는 장경(長徑)·폭경(幅徑)·장폭지수(長幅指數) 등 남조선(全羅·慶尙道)인에 가까우며 쓰시마(對馬)·이키(壹岐)·북규슈(北九州)·서부 산요(西部 山陽)·산인(山陰) 지방에 비교적 가까워 각각 일군(一群)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양자의 사이에는 형질상 적잖은 차이를 발견할 수도 있다. 역시 제주도인은 본질적으로는 남조선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주의할 만한 사실은 제주도인의 두부 측정치(測定値)는 매우 몽골인과 닮았다는 사실이다.194)

그러면서 그는 몽골인과 공통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가 들고 있는 내용들은 중세 때 몽골이 제주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대의 원주족으로는 볼 수가 없다. 아울러 그는 또 운남인(雲南人)의 이주귀화(移住歸化)한 사실도 들고 있다. 그것도 역시 중세 이후의 일이라고 하겠다. 이 같은 현상은 제주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일반 조선인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하겠다.

제주인을 몽골인과 같은 계통으로 보려는 태도는 프랑스인 샤를르 달레(Charles Dallet)에게서도 볼 수 있다. 그는 그의 ≪조선사정(朝鮮事情)≫에서 "조선인은 몽골계와 연관을 맺고있지만 중국인보다는 일본인에 가깝다. 대체로 그들은 적갈색의 피부에 코는 낮아 펑퍼짐하며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있다. 머리와 얼굴이 둥글고 턱수염이 훌륭하며 머리는 검은 편이지만 그 가운데는 밤색·적색 등도 볼 수 있다. (후략)"고 말하고 있다.195)

---

194) 泉靖一, ≪濟州島≫, 32~33쪽.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학자들은 제주족을 어느 한 계통에서 끌어들이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선과 후로 나누어 끌어들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순논리와는 달리 북방과 남방, 양쪽에서 다함께 끌어들이거나 여러 갈래로 끌어들이는 학자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학자가 최남선(崔南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위에서 제주족이 아이누족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단순히 아이누족에 그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의 ≪제주도의 문화사관(文化史觀)≫을 보면 "세계의 어느 국민 어느 민족을 물론하고 단일 혈통(血統)을 가지고 성립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특별히 혼혈관계(混血關係)가 심한 국민이 일본인(日本人)인데 제주인(濟州人)은 그 보다도 더 많은 피가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인류가 그 원생지(原生地)로부터 동방으로 이동하는데는 여러 무리, 여러 루트가 있지만 그 주요한 무리는 세 무리라고 지적하고 그 루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① 북방으로부터 아시아 사막의 북쪽을 돌아서 시베리아, 몽골, 만주, 한반도로 이어지는 루트

② 곤륜산(崑崙山) 밑으로부터 황하(黃河), 양자강(揚子江) 두 사이로 중국 중원(中原)을 거쳐 동부 중국 산동(山東)·강소성(江蘇省) 일대로 퍼지는 루트

③ 아시아 남방으로부터 해상을 통하여 태평양(太平洋) 여러 군도를 거치며 북상하여 제주도 방향에 이르는 루트 등으로 요약하고 있다.

---

195) シャルル・ダレ(Charles Dallet), ≪朝鮮事情≫, 27쪽.

그런데 제주도는 이 같은 루트의 말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혼혈종족(混血種族)을 형성할 운명적 지점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문헌에만 따른다고 하여도 왜(倭), 한(漢), 안남(安南), 루송(呂宋), 류큐(琉球) 등 여러 민족이 들어와 혼혈이 되었고 이런 사실은 제주의 전 역사를 통하여 항상 되풀이되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견해는 석주명(石宙明)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제주도 총서(濟州島 叢書) 6권을 통하여 몽골(蒙古), 중국(中國), 만주(滿洲), 일본(日本), 마래(馬來), 비도(比島), 안남(安南) 등 여러 나라 언어와 제주어(濟州語)의 공통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화의 공통성을 비교 연구하고 있다.

오오하라 도시타케(大原利武)도 한민족(韓民族)은 북방이나 남방 어느 한 계통으로 도래한 것이 아니며 양쪽에서 다함께 도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한 갈래는 중국동부와 몽골방면으로부터 만주(滿洲)를 거쳐 한반도로 들어온 북방족(北方族)이 제주도까지 흘러들어 왔다고 하였다. 반면에 다른 한 갈래는 중국남부의 복건(福建)·광동(廣東)으로부터 안남(安南)·비도(比島)·샴(暹羅 Siam·타일랜드) 마래(馬來)반도로부터 난류(暖流)를 따라 북상, 류큐(琉球)를 거쳐 제주도에 들어온 남방족이었다고 한다. 이 남방족은 다시 전남(全南)·경남(慶南)의 남해안으로부터 상륙하여 북쪽에서 들어온 북방족과 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196]

이 밖에도 제주의 원주족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일본족(日本族)·한족(漢族)·묘족(苗族)·선비족(鮮卑族)·퉁구스족(族)·동이족(東夷族) 등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설(說)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여러 주장들이 제주의 주종(主宗)을 이룬

196) 石宙明, ≪濟州島隨筆≫, 46쪽.

종족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이론이나 궤변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배경에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런 종족이 일부 흘러들어 왔거나 교류가 있었을지도 모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다.

이상 여러 설(說)을 살펴보았지만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① 북방(北方) 단일 계통설(說)
② 남방(南方) 단일 계통설
③ 선남방(先南方)·후북방(後北方) 계통설
④ 남(南)·북방(北方) 쌍방 도래설(渡來說)
⑤ 다계통 혼성설(多系統 混成說) 등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다.

여기서 필자로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고대(古代)의 제주족(濟州族)은 여러 계통으로부터 도래(渡來)한 혼성족(混成族)이었음은 틀림이 없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그 많은 설 가운데도 중국에서 곧바로 제주에 들어왔다는 설은 찾아볼 수 없다. 중국에서 만주, 한반도를 거쳐 들어왔거나 반대로 동남아시아 해상에서 여러 섬들을 거쳐 들어온 루트는 있지만 직(直)루트는 하나도 볼 수 없다.

필자는 여기에 중국에서 제주도로 곧바로 들어오는 루트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결정적인 전거 자료가 없는 이상 추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자료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잠재해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도 한(漢)시대 이후 신(新), 당(唐), 송(宋)시대 등 많은 중국의 유물들이 수집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떤 루트를 타고 들어왔느냐에 대해선 밝혀진 것이 없다. 그러나 진한(秦漢)시대부터는 중국의

망명인들이 해상 루트를 타고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진시대는 시황의 가혹한 독재정치가 시행되어 국내 피난이 어려운 많은 집단이 해외로 탈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복집단의 망명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들 집단 가운데 일부는 제주도에도 표도(漂到)하여 그대로 정착 귀화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 때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造船)이나 항해술(航海術)이 발달하여 바람을 타고 충분히 황해를 횡단할 수 있었다고 본다.

제주에 들어온 원주족 가운데 맨 처음 들어온 종족들은 표착족(漂着族)들이라고 생각되며 대체로 남방(南方)계통에서 흘러 들어온 도서족들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그나마 조선(造船)·항해(航海)가 가능한 종족들이었으므로 대다수는 다시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제주족(原濟州族)의 주종을 이룬 종족은 한반도를 거쳐 들어온 한족(韓族)이었다고 믿어진다. 특히 부여족(夫餘族)은 한반도에 남하하면서 고구려(高句麗)를 건국하였고 또 한 갈래가 남하하면서 백제(百濟)를 건국하고 있다. 그들의 일파가 제주도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표착족보다는 한발짝 뒤늦게 도래하였다고 생각되지만 강력한 세력을 지니면서 지배족(支配族)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이 뒷날 강력한 씨족세력을 형성하면서 탐라국(耽羅國)을 세우고 그 지배계급이 되었다고 믿어진다.

일반적으로 고대사를 추적하는데는 무엇보다도 고고학 자료가 우선되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고대사(古代史)를 추적하는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본질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은 그 어떤 자료보다도 기록 문헌(文獻)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사마천(司馬遷, B.C 145~86)의 ≪사기(史記)≫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제주도는 '도이(島夷)'로 표현되고 있다. '섬오랑캐'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전한(前漢)시대에 한나라 사람들은 제주를 '도이'로 불렀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같은 사기(史記)에서도 다른 한 켠에서는 '오이(烏夷)'로 표현돼 있는 것도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도이(島夷)의 와자(訛字)로 보고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도이(島夷)는 백제국(百濟國) 서남 발해(渤海) 가운데 있는 큰 섬 15개소로 되어 있으며 모두 마을이 있으며 사람들이 살고 있다. 백제에 속해 있다
>
> 百濟國 西南 渤海中 有大島 十五個所, 皆邑落 有人居 屬百濟.

또 도이의 의복에 관하여도 간단한 기록이 있다.

> 남해의 도이(島夷)는 초복갈월(草服葛越)한다
>
> 南海 島夷 草服葛越

이 기록을 보면 당시 제주도가 백제에 속해 있었고 15개의 마을이 형성돼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제주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전연 알 길이 없다.

사기(史記) 다음으로 오랜 기록이며 제주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이른바 '주호설(州胡說)'이다.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지(三國志 魏志)≫와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등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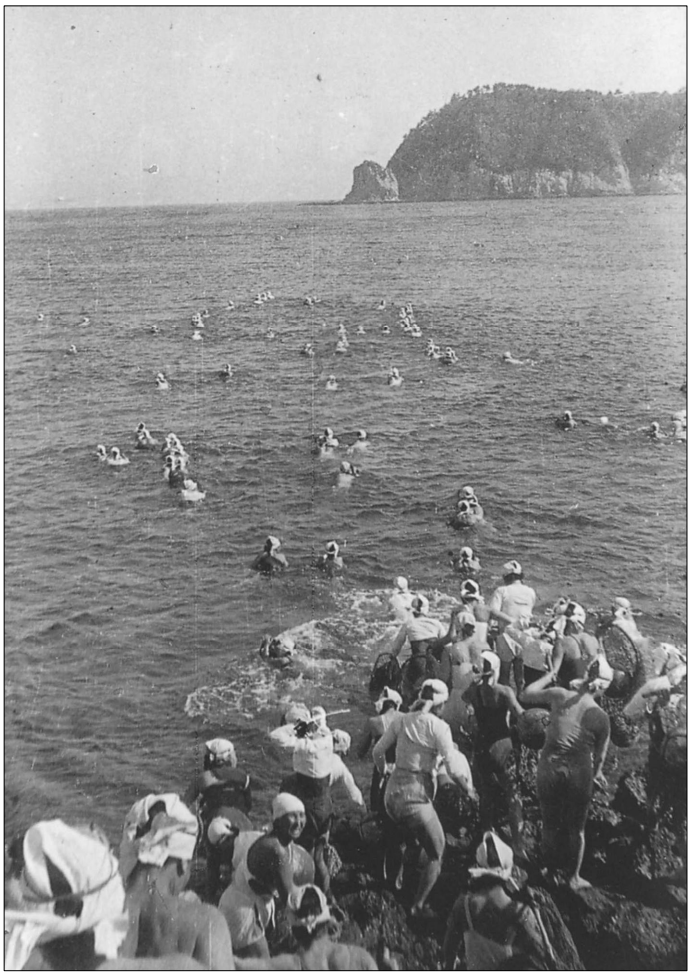
마한(馬韓)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이 있는데 주호(州胡)라는 나라가 있다. 그 곳 사람들은 몸집이 작고 말도 한(韓)나라 사람들과는 다르다. 모두 머리를 깎아서 선비(鮮卑)와 같다. 옷은 가죽옷을 입었는데 윗도리만 입고 아랫도리는 없어 마치 벗은 모양과 같다. 소와 돼지를 잘 치고 배를 타서 중국과 한(韓)나라를 왕래하며 장사를 한다.

馬韓之西海中 大島上 有州胡國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髮頭 如鮮卑但衣韋其衣有上無下 略始裸勢 好養牛及猪 乘船往來 市賈中韓.

이 기록은 고대 제주족을 추적 접근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밝혀주고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1. 후한(後漢) 시대를 전후하여 중국인들은 당시 제주도(濟州島)를 '주호(州胡)'로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으며
2. 당시 제주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체구가 작고 언어도 달라 한족(韓族)과는 다른 종족이었으며
3. 그들은 가죽옷을 입었으나 상의(上衣)만 입고 하의(下衣)는 입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어로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되며
4. 소와 돼지 등 가축을 사육했던 것으로 보아 농목생활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5. 중한(中韓)과 교역했던 사실로 보아 조선술(造船術)·항해술(航海術)을 지니고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곽지패총(郭支貝塚)을 비롯하여 도내에서 출토된 유물들 가운데 망추석(網錘石)과 그 밖의 어구 등 많은 유물이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주호족도 어로생활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상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을 놓고 보면 주호족은 앞에서 보았



집단으로 바다에 헤엄쳐 들어가는 제주해녀(濟州海女)들.

던 것처럼 남방계 도서족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고대제주에 관한 기록은 이 밖에도 중국의 위서(魏書)·북사(北史)·수서(隋書)·당서(唐書)·원사(元史) 등과 일본의 일본서기(日本書紀), 우리나라의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에서 많은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제주의 고대족을 알아 볼만한 기록으로는 구양수(歐陽修)·송기(宋祁) 저(著) ≪당서(唐書)≫에 탐라의 사신이 당(唐)나라에 입조(入朝)하였을 때의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다음에 옮겨보겠다.

> 용삭(龍朔·당나라 高宗때 연호, 661년)초에 담라(儋羅, 제주의 별칭)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왕 유리도라(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서 당나라에 입조하였다. 그 나라는 신라 무주(武州) 남쪽 섬 위에 있다. 풍속은 질박하고 비루해서 옷은 개나 돼지의 가죽을 입는다. 집은 여름에는 가죽으로 인 집 속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산다. 땅에서 오곡이 나지만 땅을 가는데 소를 부릴 줄 모른다. 쇠로 쇠스랑을 만들어 땅을 판다. 이 나라는 처음에는 백제에 소속되었는데 인덕(麟德·당나라 高宗때 연호, 664~665년) 연중에 그 추장이 입조하여 황제를 따라 태산(太山)에 이르렀다. 그 뒤에 신라에 소속되었다.
>
> 龍朔初 有儋羅者 其王儒李都羅 遣使入朝 國居新羅武州南島上. 俗朴陋衣犬豕皮 夏居革屋 冬窟室. 地生五穀 耕不知用牛 以鐵齒杷土. 初附百濟 麟德中 尊長來朝 從帝至太山 後附新羅.

이 기록을 보면 제주인은 7세기경 가죽옷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호족(州胡族)과 같으나 "여름에는 가죽으로 인 집에 살고, 겨울에는 굴 속에 산다"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다. 가죽으로 지붕을 이고 살았다면 이는 유목족(遊牧族)을 연상시키는 흥미있는 기록이 아닐 수 없다.

김인호(金仁顥)교수는 최근 <제주문화(濟州文化)의 뿌리>(제주신문연재)에서 이 '혁옥(革屋)' 생활에 관하여 대충 다음과 같은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7세기 후반 당시 탐라국에는 원형 초가집이 아마 해안선을 중심으로 있었고 중산간 유목(방목)지대에는 북방 유목민들의 전통가옥인 원형 초옥(草屋)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중략) 3세기 중엽의 주호인(州胡人)들도 '하거혁옥 동굴실(夏居革屋 冬窟室)'했으리라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경민적 성격은 찾을 데가 없고 온통 북방 유목민적 성격만이 짙게 보이기 때문이다.(중략) 이처럼 주호인들의 우마양(牛馬羊) 유목생활은 기원전부터 있어온 것이 명백하며 그들의 주거 또한 '하거혁옥 동굴실(夏居革屋 冬窟室)'했으리라 보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197]

김인호(金仁顥)교수는 혁옥(革屋)이 북방 유목족의 주거였음은 물론 주호인(州胡人)도 유목족의 표현으로 볼 수 있어 고대 제주족이 고구려계 부여족(高句麗系 夫餘族)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신당서(新唐書)에 나오는 혁옥(革屋)은 책에 따라서는 초옥(草屋)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 인용을 달리하고 해석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 金仁顥, ≪濟州歷史 文化뿌리學≫ 上卷, 176~182쪽.

❸
제주도의 유적과 유물

여기서 제주의 원주족을 비춰볼 수 있는 유적과 유물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랜 선사유적(先史遺蹟)은 북제주군 애월(涯月)읍 어음(於音)리 동굴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73년 3월에 발견되어 그 뒤 몇 차례에 걸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 참가하였던 정영화(鄭永和·嶺南大)교수는 그의 <한국(韓國)의 구석기(舊石器)>(韓國考古學報 19輯)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전략) 이곳의 편년(編年)은 동물화석과 석기의 형태를 중심으로 상대연대(相對年代)로 편년 되었으며, 중기 구석기시대로 보고 있다. 빌레못 동굴에서 출토된 석기로는 긁개·칼·첨기·송곳·부리형석기·홈날·톱니날 등의 박편석기와 찍개(Pick)·박편도끼(Cleaver) 등 큰 석기가 모두 발견되었는데, 박편석기와 큰 석기의 수는 각각 45개와 7개이다. 그밖에 박편 49개, 돌날 2개, 돌핵 2개가 함께 수집되어 모두 1백 5점이 이곳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후략)[198]

한편 이 유적에서는 석기 외에도 동물화석 등 여러 가지 유물이

198) 鄭永和, <韓國의 舊石器>, ≪韓國考古學報 19輯≫, 80쪽.

발견되었다. 갈색곰(Brown bear)·붉은 사슴(Red deer)·노루(Roe deer) 그밖에 여러 동물들의 뼈화석 30여 점이 수집되었으며, 또 골각기(骨角器)·목탄(木炭) 등 20여 점도 수집되었다.

붉은 사슴의 뼈 등에서는 석기를 사용했던 흔적이 나타나고 있으나, 갈색곰의 경우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골체화석(骨體化石)이었다고 한다. 이 갈색곰은 주로 시베리아 일대에 서식하였으며, 1만년 이전 빙하기에는 한반도에도 서식했던 것으로 알려진 동물이다. 이 곰의 발견은 주목할만한 일이며, 연륙(連陸)사실을 대변해 준다고도 하겠다.

여기에 대한 편년(編年)을 보면 정영화(鄭永和·영남대)교수는 6~7만년, 김원룡(金元龍·전 서울대)교수는 6만년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일본의 에사카 테루야(江坂輝彌·慶應大)교수는 2~3만년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석기 중기와 후기로 각각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구석기인의 동굴유적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 동굴 생활을 했던 구석기인이 제주인(濟州人)의 조상이요, 비조(鼻祖)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 필자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결론부터 먼저 밝히고 싶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다음 몇 가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제주도의 화산활동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하라구치 큐우만(原口九萬)은 ≪제주도의 지질(地質)≫에서 제주도의 지층(地層)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형성되며, 그 시기는 3기말(三紀末·新生代 鮮新世)에서 4기초(四紀初·洪績世)에 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근자에 광석 측정 등을 통하여 조사한 지리학자들은 최종 단계인 현무암의 분출 시기를 약 150만년전부터 4, 5만년전까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화산활동이 완전히 멈췄다고 할 수는 없다.

제주도에서 화산폭발이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것은 1007년(고려 목

종 10)이었다. 이 때의 상황은 태학박사(太學博士) 전공지(田拱之)의 보고에 따라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199]에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이 무렵의 폭발은 어쩌다 한번 있었다고 하겠지만 구석기인이 살았던 시기에는 보다 심한 활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구석기인이 살았던 시기는 연륙시대였다는 사실이다. 제주도가 섬이 된 것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약 1만년전인 후빙기(後氷期·第4紀 冲積世)이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선사인은 한반도와의 왕래가 가능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화산활동이 심하게 일어났을 때 당시의 선사인이 그대로 눌러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는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으로 보아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에 이르는 동안에는 상당한 공백기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빌레못(於音) 동굴(洞窟) 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어음동굴 외에도 서귀포(西歸浦)시 천지연(天地淵) 바위그늘 유적(遺蹟) 등 후기 구석기유적이 발견되고 있지만 신석기 초기로 보고 있는 고산리유적(高山里遺蹟) 사이에는 공백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적을 볼 때 문화의 연결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원주족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제주도가 마지막 섬이 되고 난 뒤 도래(渡來)한 종족(種族)으로부터 찾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신석기시대 이후부터 추적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유적과 유물을 보면 신석기 시대부터는 청동기시대, 역사시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고산리유적(高山里遺蹟)을 시작으로 금성(錦城), 곽지(郭支), 고내(高內), 광령(光

199) ≪高麗史節要≫, 穆宗 宣讓大王 丁未 10年 冬10月條.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北濟州郡 翰京面 高山里)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일합동 고산리유적조사단(韓日合同高山里遺跡調査團)이 제주도를 찾아왔다.



지금의 제주산지항(濟州 山地港) 서방파제.

令), 외도(外都), 용담(龍潭), 삼양(三陽), 북촌(北村)유적 등이 모두 청동기(靑銅器)시대, 역사시대의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소수의 종족이었다고는 생각되지만 이때부터는 명맥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고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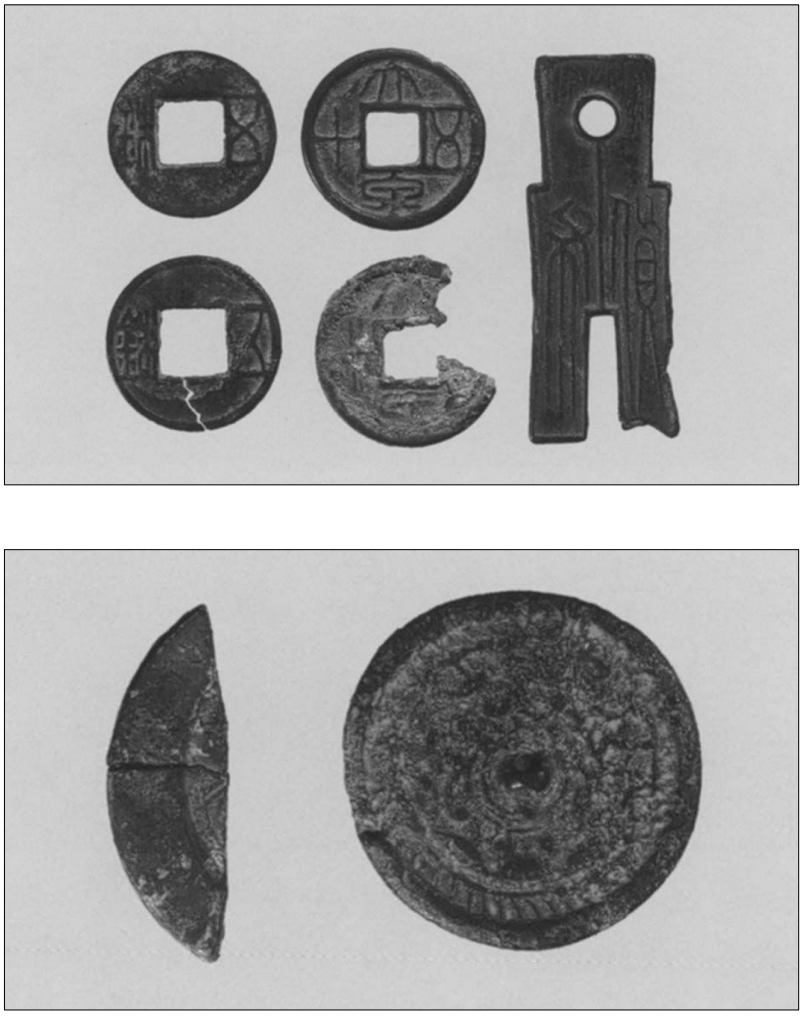
제주도는 예로부터 동북아시아의 해상 십자로에 놓여 있다. 그리하여 고대 항로에 있어서도 교통의 거점이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주호(州胡)의 기록말고도 옛 문헌이나 문집 등에 탐라에는 진한(秦漢)시대부터 중국인들이 찾아왔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200] 그러나 대체로 이 같은 기록들은 신선사상(神仙思想)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보아도 제주도는 1932년(崔南善의 고인돌 발견) 이후 제주시 한천(漢川)유역을 비롯하여 도 전역 곳곳에서 많은 유적지(遺蹟地)와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그 많은 유적이나 유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도로 끝나버리는 정도였고, 제주시 삼양동 유적지 14,000㎡를 제외한다면 본격적인 발굴조사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다. 부분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간이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간단한 보고서가 나오는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 1세기동안 제주도내 곳곳에서는 적잖은 중국 고대의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것 가운데도 제주시 산지항(山地港)에서 발견된 전한(前漢)에서 왕망(王莽)시대에 이르는 화천(貨泉)이나 동경(銅鏡) 등은 서복의 동도 시기와는 길어도 불과 1세기 밖에 격(隔)하지 않는 거의 동시대의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28년 8월 제주 산지항(山地港) 축항공사를 하다가 용암으로 폐쇄

200) 崔溥, <耽羅詩> ≪錦南集≫/ 金尙憲 ≪南槎錄≫/ 申光洙, <耽羅錄> ≪石北先生文集≫卷7 / 南九明, <不死草辨> ≪寓庵先生文集≫卷4.



제주시 산지항(濟州市 山地港)에서 발견된 전한시대(前漢時代)의 유물. 위는 오수전(五銖錢)과 화천(貨泉), 아래는 동경(銅鏡).

된 동굴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많은 고대 유물이 수집되었다. 이 유물은 당시 현장을 확인한 김범준(金範埈)에 의하여 도청(島廳)에 신고되고 도에서는 서울(朝鮮總督府)로 보내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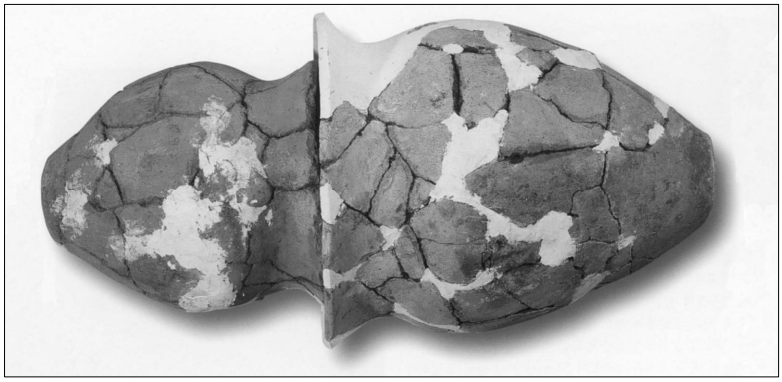
그 결과 밝혀진 것을 보면 전한(前漢)때의 오수전(五銖錢) 등 금속화폐와 신시대(新時代·王莽이 정권을 장악하였던 시대, 기원 8~23)에 주조한 화천(貨泉)·대천오십(大泉五十)·화포(貨布) 및 한(漢) 나라 때의 것으로 보이는 동경(銅鏡)·동검(銅劍) 외에 석부(石斧)·석촉(石鏃)·토기(土器) 등도 나왔다. 왕망(王莽)이 화폐제도를 개혁하여 화천과 대천 등 동전을 주조한 것은 기원 14년의 일이다. 따라서 이 유물들은 기원 1세기초를 포함하여 거의가 기원전의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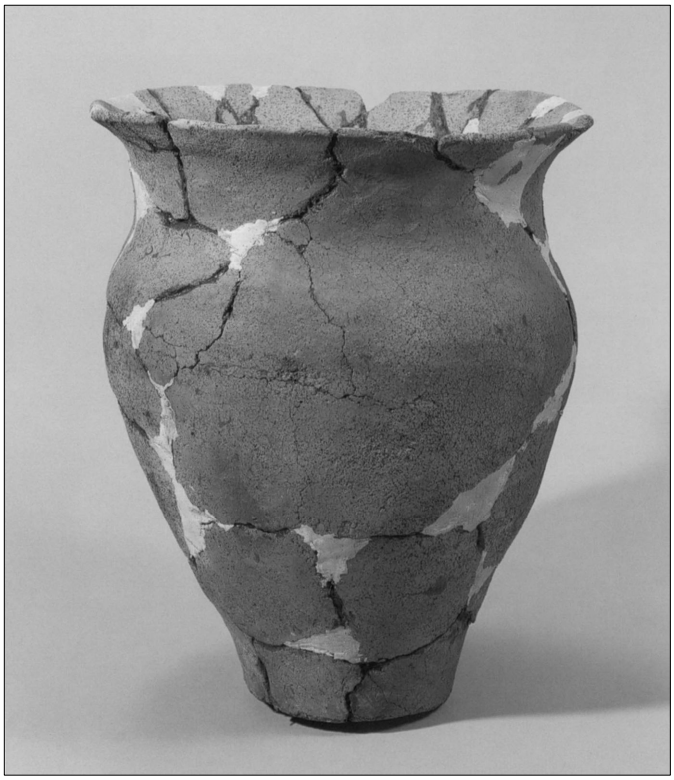
이 유물의 발견은 여러 가지 사실을 대변해 주었다. 첫째, 뒤에 흐른 용암이 그 전에 있던 동굴을 메웠던 사실로 보아 기원 14년 이후에 한라산(漢拏山)의 폭발이 있었고 이 때 분출한 용암(熔岩)이 산지항으로 흘렀던 사실이 입증되었다. 둘째, 적어도 신(新)시대 이전부터 한(漢)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과 교류가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春秋)시대부터 금속화폐가 생겨나 포전(布錢)이나 도전(刀錢)등이 사용되었으며 진(秦)나라 때는 원전(圓錢)이 통용되었다. 이런 동전 등이 산발적으로 도내에서 출토되었던 사실은 바로 그를 입증해 준다고 할 것이다.[201]

---

201) 제주도에서는 진한시대 이후의 중국동전도 꾸준히 출토되고 있다. 1969년 12월 제주시 이도일동 1527번지 시민회관 앞 민가에서도 공사를 하다가 중국동전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 때 출토된 동전은 개원통보(開元通寶), 태평통보(太平通寶), 상부원보(祥符元寶), 천희통보(天禧通寶), 천성원보(天聖元寶), 경우원보(景祐元寶), 희영원보(熙寧元寶), 원풍통보(元豊通寶), 정화통보(政和通寶), 소희원보(紹熙元寶) 등 40여 종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 동전들이 통용된 것을 보면 당 현종(唐 玄宗) 1년(713)부터 남송 광종(南宋 光宗) 1년(1190)까지 500여 년에 이르는 것이었다. 물론 한반도를 통해서 유입된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직교류로 인한 유물로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송시대까지도 제주와 중국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시 용담동 유적(濟州市 龍潭洞 遺蹟)에서 출토된 옹관(甕棺). 위 합구식 옹관(合口式 甕棺), 아래 단식 옹관(單式 甕棺)

다음으로 중국 계통의 고고자료로는 제주시 용담(龍潭)동 고분(古墳)에서 발견된 여러 유물들을 들 수 있다. 이 고분 유적은 1979년에 발견되어 198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에 제주시의 의뢰를 받고 제주대박물관(濟州大博物館) 조사팀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옹관묘 6기와 석관묘 1기 등이 발견된 이 고분 유적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나와 있으므로 좀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다.[202]

여기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먼저 철기류(鐵器類)를 보면 장검(長劍)·단검(短劍)·철모(鐵矛)·끌형무기·철부(鐵斧)·철촉(鐵鏃) 등 여러 가지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철기는 대체로 기원을 전후한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랜 것으로는 전국(戰國)시대 말기부터 볼 수 있는 끌형무기가 있으며 기원전 1세기경의 단검(短劍·河南省 洛陽 燒溝漢墓 유적), 전한(前漢) 중기에서 후한(後漢) 전기에 걸쳤던 장검(長劍·河南省 洛陽燒漢墓 유적), 중국 삼국(三國, 魏)시대 중엽(기원 3세기)의 철부(鐵斧) 등을 볼 수 있다.

이 고분에서는 철기 외에 약간의 마제석기(磨製石器), 50여 점의 유리구슬과 대롱옥, 여러 기의 옹관(甕棺)과 많은 무문토기편(無文土器片) 등이 출토되었다. 이들 출토품에 대하여 보고서는 편년(編年)을 원삼국(原三國)시대(기원 1~3세기)로 추정하고 있을 뿐 철기처럼 하나하나 비교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주목할만한 것은 유리제품의 출현이다. 시황제(始皇帝)가 묻힌 여산릉(驪山陵)에서나 일본 규슈 사가현(佐賀縣)의 요시노가리(吉野ヶ里)유적에서 모두 유리 관옥(管玉) 등이 출토되고 있는 사실은 묘한 뉘앙스와 함께 흥분을 일으켜 주기까지 한

202) 제주도·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선사유적≫, 128~138쪽
동, ≪용담동 고분≫, 72~75쪽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상고문화≫, 54~58쪽.

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시노가리 유적이 하필이면 서복(徐福)의 도래전설이 있는 바로 그 터에서 발견됨으로써 야마타이국설(邪馬台國說)과 함께 혹시 서복도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일본학자들 가운데는 벌써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쨌든 제주도의 옹관유적은 중국~제주도~일본규슈로 이어지는 고대의 문화이동 선상에 놓여있는 유적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같은 계통의 문화인들에 의한 전파나 소산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인숙(李仁淑・전 서울大博物館)씨는 용담동 유적 출토 유리가 "중국 동한(東漢)시기의 유리와 그 미량성분에 있어서 거의 일치하므로 후한대(後漢代)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나 그 재료를 수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감정하였다. 그러나 여산릉(驪山陵)은 후한(後漢)보다는 적어도 2세기나 앞선 시대에 조성되었던 사실을 생각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 산지항과 용담동 고분 두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 중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산지항에서 나온 한대(漢代)와 신(新) 시대의 화천들, 그리고 용담동에서 나온 한대의 철제 유물이다. 이 유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한(漢) 시대를 전후하여 한나라와 탐라국 사이에는 어떤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태능(金泰能)은 그의 ≪제주도약사(濟州島略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신(新)의 화폐는 신이 망한 후 동한 광무제(25~57)가 이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화포와 화천의 주조와 사용은 기원 14년에서 동 25년까지

였다. 오수전과 신의 화폐가 제주에 유입된 것은 왕망이 해외무역을 장려하였으므로 낙랑군(樂浪郡) 등의 한상(漢商)들이 제주까지 진출해 왔거나 혹은 제주 선민들이 교역에 의해 이를 획득하여 소지했던 것으로서 당시 이것을 소지했던 사람들은 주거인 이 동굴 속에서 화산의 참화를 입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203]

또 제주시 용담동 옹관묘 유적을 직접 발굴한 제주대학 박물관팀을 이끌었던 이청규(李淸圭·현 嶺南大)교수는 용담고분에서 중국 한대의 철제유물이 나온 데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철기와 유리 제품이 중국 후한대에 중국 및 남한지방 출토품과 통하는 사실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마한 서해 한가운데 큰 섬에 주호가 있어 배를 타고 중한(中韓)과 교역을 한다'는 기록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한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불충분한 전남의 마한 지방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단정지을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이러한 철제 일괄 유물과 유리제품의 발견으로 광복전 제주시 산지항에서 발견된 한 대 화폐 일괄 유물과 함께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에 남해를 끼고 남한(주로 경상도 지방)-쓰시마(對馬)-규슈(九州)로 이어지는 루트와 아울러 남해안-제주도로 연결되는 루트를 통해 해상교역 활동이 활발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204]

세 번째로 전경수(全京秀·서울대)교수의 견해를 보기로 하겠다.

"왕망전(王莽錢)의 분포지는 오수전(五銖錢)의 분포지와 상당히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단지 왕망전의 분포지가 오수전의 분포지보다는 일본의 동쪽으로 좀더 진전되어 갔을 뿐이다. 문헌상으로는 왕망전이

203) 金泰能, <濟州島略史>, ≪濟州年鑑≫, 1969, 139쪽.
204) 제주대박물관, ≪용담동고분≫, 1989, 75쪽.
李淸圭, ≪濟州島考古學 硏究≫, 345쪽.

> 기원후 14년부터 23년까지 약 10년 정도 유통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왕망전의 분포가 한반도의 북부와 제주도를 경유하여 일본의 관서(關西)지방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해운무역이 얼마나 활발하고 신속한 교역형태였던가를 잘 반영해 준다. 그리고 그 무역이 어떠한 형태의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화폐의 교환에 의한 무역의 존재라는 것은 그 교역망에 관련된 사회들이 어느 정도 직업에 의한 수평적·수직적 분화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205]

이와 같은 견해는 그 밖의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도 피력되고 있다. 탐라는 한반도와 중국 대륙, 그리고 일본열도를 가르는 삼각 분기점에 위치해 있으며 구로시오(黑潮)가 북상하는 길목에 맞부딪쳐 있어서 일찍부터 항해기술이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시대(BC 770~403)부터 오(吳)나라가 항해 가능한 선박을 건조하였다고 보고 있다. 또 전국시대(BC 403~221)에는 강북의 제(齊)나라까지도 누선(樓船)을 건조하였던 것으로 본다. 탐라도 일찍부터 남방문화의 영향을 받고 기원전부터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대 동북아시아의 해상교역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왕망의 신시대(기원 8~23)때는 탐라도 피동적 입장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교역도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기원 1세기를 전후하여, 그러니까 전·후한시대를 포함하는 고대 때 탐라는 비단 한나라뿐 아니라 한반도의 북부지방에서 일본열도의 관서지방까지도 교류 교역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

205) 全京秀, <上古耽羅社會의 기본구조와 운동방향>, ≪제주도연구≫ 제4집, 1987, 33~34쪽.

맺음말

이 글은 과거에 신문에 연재했던 일이 있어 그것을 정리하면 쉽게 되려니 생각했다. 그리하여 아주 느긋하게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손을 부치고 보니 예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신문에서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글을 처리해 나가도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책의 경우는 그럴 수는 없었다. 책 전체의 체계를 세우고 하나하나 정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완전히 재구성하는 결과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애 먹은 것은 원전(原典)을 찾고 주(註)를 다는 일이었다. 신문에서는 인용사실을 본문에서 그대로 설명해 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여기서는 그 전거를 하나하나 적시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 처음 집필한지 10여년이란 시일이 흘렀으므로 그 때 인용했던 전거를 거의 잊어 버린 상태였다.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적지 않는 시간이 투자됐고 그러면서도 백퍼센트 찾아낼 수도 없었다. 그런 가운데는 처음에 보았던 책 대신에 다른 책에서 같은 내용을 인용하는 편법도 썼다.

그러다보니 대거 보완하려고 생각했던 애초의 생각은 접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부득이한 부분만 보완을 했고 또 몇 몇 부분은 잘라 정리하기도 하였다. 중국이나 일본의 연구자들로부터 그동안 적잖은 자료들을 수집해 놓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하나 반영시키지 못한 채 붓을 놓게 되는 것이 크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가지 더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위에서 본 것처럼 서복집단이 제주도에 도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추정도 가능하지만 그 결정적인 전거를 지금까지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가 진전되면 언젠가는 그 같은 전거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믿는다.

이 글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것을 죄다 밝혀 놓는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을 보고하는 글로 이해되었으면 한다.

서복(徐福)은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사람이다. 그 때의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때의 유적이나 유물들도 따지고 보면 전승유적이며 추정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서복 연구에 관해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중국이나 일본의 학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벗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여기에 전개한 글도 모두가 역사적 사실로 밝혀졌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까지 조사 연구된 결과 드러난 사실을 필자의 판단에 따라 성실하게 보고하는데 그쳤다. 여기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이 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의견과 비판을 듣고 싶다.

참고문헌(參考文獻)

1. 사료(史料)

(1) 한국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寰輿勝覽≫, 李重煥 ≪擇里志≫, ≪高氏世錄≫, ≪耽羅星主遺事≫, ≪乇羅遺事≫, ≪耽羅遺事≫, ≪梁氏譜≫, ≪高氏譜≫, 崔溥 ≪錦南先生文集≫, 林悌 ≪白湖先生文集≫, 金尙憲 ≪南槎錄≫, 許穆 ≪東事≫, 宋時烈 ≪尤庵集≫, 南九明 ≪寓庵先生文集≫, 申光洙, ≪石北先生文集≫, 金祖淳 ≪楓皐集≫, 李元鎭 ≪耽羅志≫, 李源祚 ≪耽羅志≫, 李膺鎬 ≪乇羅國書≫, 金錫翼 ≪耽羅紀年≫

(2) 중국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志≫, ≪隨書≫, ≪春秋左傳≫, ≪禮記≫, ≪括地志≫, ≪太平寰宇記≫, ≪博物志≫, ≪海內十洲記≫, ≪義楚六帖≫, ≪太平御覽≫, ≪李太白全集≫, ≪歐陽文忠公全集≫, ≪嘉慶志≫, ≪靑州府志≫, ≪琅琊臺志≫

(3) 일본

≪日本書紀≫, ≪古事記≫, ≪續日本記≫, ≪日本姓氏錄≫

2. 저서(著書) 및 논문(論文)

(1) 한국

李能和, ≪朝鮮道敎史≫, 東國大學校 韓國學硏究所, 1977
申采浩, ≪朝鮮上古史≫, 東西文化社, 1977
金庠基, ≪高麗時代史≫, 東國文化社, 1961
崔南善, ≪濟州島의 文化史觀≫, 國文社, 1953
石宙明, ≪濟州島隨筆≫, 寶晋齋, 1968
石宙明, ≪濟州島資料集≫, 寶晋齋, 1971
金泰能, <濟州島略史>, ≪濟州年鑑≫, 1969
金泰能, ≪濟州島史論攷≫, 世起文化社, 1982
金斗奉, ≪濟州島實記≫, 精文社印刷所, 1936
李丙燾, ≪韓國古代社會와 그 文化≫, 瑞文堂, 1973
韓東龜, ≪三多의 慟哭史・濟州島≫, 國書刊行會, 1975
金奉鉉, ≪濟州島の 地名考≫, 國書刊行會, 1988
禹樂基, ≪濟州道≫, 韓國地理硏究所, 198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6권, 제주도편, 1984
金在瑾, ≪배의 歷史≫, 대신문화사, 1980
金元龍, ≪韓國考古學槪說≫, 一志社, 1982
宋錫範, ≪濟州島 古代文化の 謎≫, 成甲書房, 1984
鄭永和, <韓國의 舊石器>, ≪韓國考古學報 19輯≫, 1986
金哲埈, <濟州島의 돌멘과 先史文化>, 서울大 人文社會科學 9輯
金哲埈, ≪韓國古代史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90
李淸圭, ≪濟州島考古學 硏究≫, 學硏文化社, 1995
李淸基, ≪思鄕錄≫, 南海鄕土文化硏究會, 1984
黃龍渾, ≪東北아시아의 岩刻畵≫, 民音社, 1987

徐敬浩, ≪山海經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金仁顯, ≪濟州歷史 文化뿌리學(上)≫, 우용출판사, 1998
濟州市, ≪濟州市三十年史≫, 1985
濟州道, ≪濟州道誌(1)≫, 1993
北濟州郡, ≪北濟州郡誌≫, 2000
서귀포시, ≪서불과지≫, 2000
제주도・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의 先史遺跡≫, 1986
제주도・제주대학교박물관, ≪龍潭洞 古墳≫, 1989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상고문화≫, 1993
북제주군・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高山里遺蹟≫, 1998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濟州三陽洞遺蹟≫, 2002
제주도연구회, ≪제주도연구≫제4집, 1987
金寶鉉 ≪朝天誌≫, 第一印刷社, 1976
宋中玉・朴昌種, ≪朝天里沿革≫, 1979
金玟奎, ≪朝天邑誌≫, 濟州文化, 1991
三省出版社, ≪大世界의 歷史≫2권, 1971
曾先之著, 金光洲譯 ≪說話 中國史≫3권, 1975
미술문화원, ≪月刊 書藝≫(7월호), 1991
예술의전당 기획 한국서예사특별전(15), <葦滄 吳世昌>(圖錄), 1996
예술의전당 기획 한국서예사특별전(20), <葦滄 吳世昌>(圖錄), 2001

(2) 일본

朝鮮雜誌社, ≪朝鮮≫5권 6호, 1910
朝鮮雜誌社, ≪朝鮮≫25호, 1910
朝鮮雜誌社, ≪朝鮮≫9월호, 1935
全南濟州島廳, ≪未開の 寶庫 濟州島≫, 1924

≪文敎の 朝鮮≫(10월호), 1928
原口九萬, <濟州島の 地質>,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1931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學出版會, 1966
高橋亨, ≪濟州島の 民謠≫, 天理大學おやさと研究所, 1968
工藤雅樹, ≪日本人種論≫, 吉川弘文館, 1979
ダレ・金容權 譯, ≪朝鮮事情≫, 平凡社, 1979
星野良作, ≪神武天皇≫, 吉川弘文館, 1980
後藤朝太郎 著・昔原台 譯, ≪中國人의 長生秘術≫, 書林文化社, 1983
木內武男, ≪熊野阿須賀神社≫, 1983
岡本好古, ≪徐福渡來傳說≫, 德間書店, 1985
朴容淑, ≪朝鮮古代文化論≫, 第一書房, 1985
下出積与, ≪神仙思想≫, 吉川弘文館, 1986
高橋公明, <中世 東アジア海域に おける 海民と 交流>,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8卷≫, 1987
奧野利雄, ≪徐福の 研究≫, 大阪書籍, 1987
奧野利雄, ≪ロマンの人 徐福≫, 學研奧野圖書, 1991
羅其湘・飯野孝宥, ≪彌生の虹棧 徐福≫, 東京書籍, 1988
飯野孝宥, ≪彌生の 日輪≫, 新人物往來社, 1993
齋藤忠・江坂輝彌 編, ≪先史・古代の韓國と日本≫, 築地書館, 1988
茂在寅男, ≪古代日本の 航海術≫, 小學館, 1988(六刷)
茂在寅男, ≪超航海・英雄傳說の謎を 追う≫, 三交社, 1995
茂在寅男, <吳越の ころの 船>, 東アジア文化交流史研究會, ≪古代テクノポリスを 探る≫
山本末男, ≪佐賀は 輝いていた≫, 藝文堂, 1988
彌生の使者徐福刊行會, ≪彌生の 使者 徐福≫, 1989
安本美典, ≪吉野ケ里 遺跡と 邪馬台國≫, 大和書房, 1989

安志敏 外, ≪徐福傳說を 探る≫, 小學館, 1990
歷史群像, ≪日本文化起源論≫, 學習硏究社, 1990
鈴木 旭, ≪日本超古代王朝の 謎≫, 日本文藝社, 1990
NHK歷史誕生取材班, ≪歷史誕生≫3卷, 角川書店, 1990
網野善彦・森浩一 他著, ≪海のむこうから見た 吉野ケ里 遺跡≫, 社會思想社, 1991
逵志保, ≪徐福傳說考≫, 一季出版, 1991
上野武, <太伯と徐福>, ≪海と列島文化(第4卷)・東シナ海と西海文化≫, 小學館, 1992
鳥越憲三郎, ≪古代朝鮮と倭族≫, 中央公論社, 1992
鳥越憲三郎, ≪古代中國と倭族≫, 中央公論新社, 2000
三谷茉沙夫, ≪徐福傳說の 謎≫, 三一書房, 1992
羽田武榮, ≪徐福 ロマン≫, 亞紀書房, 1993
羽田武榮・廣岡純, ≪徐福傳說≫, 三五館, 2000
佐賀市 ≪太古の ロマン 徐福傳說≫, 1994
東アジア文化交流振興協會, ≪徐福學への 發走≫, 1995
高野史男, ≪韓國濟州島≫, 中央公論社, 1996
池上正治 編譯, ≪不老を夢みた 徐福と 始皇帝≫, 勉誠社, 1997
黑岩重吾・大和岩雄, ≪邪馬台國の時代≫,大和書房, 1997
王曉秋 著・木田知生 譯, ≪中日文化交流史話≫, 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2000
西山鳥定生 著・李成市 編, ≪古代東アジア世界と 日本≫, 岩波書店, 2000
三浦國雄, ≪不老不死と いう欲望≫, 人文書院, 2000
淵脇次男, ≪徐福≫, 宮崎南印刷, 2002
藤田友治, ≪古代日本と 神仙思想≫, 五月書房, 2002

石倉昭重, ≪丹後徐福考≫, 丹後徐福會, 2002
赤崎敏男, ≪八女の 徐福傳說≫, 八女市 徐福會, 2002
村尾元長, ≪あいぬ 風俗略志≫
太田湆, <濟州島開祖考>, ≪考古學雜誌≫
天野信景, ≪監尻 上卷≫
稻葉岩吉, ≪朝鮮民族史≫
鳥居龍藏, ≪鳥居龍藏全集≫第7卷
羽原又吉, ≪日本古代漁業經濟史≫
新宮市, ≪新宮市史≫, 下卷・史料編

(3) 중국

衛挺生, ≪神武天皇 徐福傳說の 謎≫, 1977
中國中日關係史硏究會 編(楊正光 主編), ≪從徐福到黃遵憲≫, 時事出版社, 1985
楊斌, ≪徐福東渡之謎≫, 吉林文史出版社, 1989
連雲港市對外文化交流協會, ≪徐福故里揭謎≫, 新世界出版社, 1990
山東省徐福硏究會・龍口市徐福硏究會, ≪徐福硏究≫, 青島海洋大學出版社, 1991
山東省徐福硏究會・龍口市徐福硏究會, ≪徐福硏究(2)≫, 青島海洋大學出版社, 1993
程天良, ≪神秘之霧的消散≫, 學林出版社, 1992
王建成 主編, ≪徐福硏究十年≫, 南京大學出版社, 1993
山東膠南琅琊暨徐福硏究會 編, ≪琅琊与徐福硏究論文集≫, 華夏出版社, 1996
安作璋・朱紹侯 等著, ≪徐福故里考辨(徐福文化集成 之一)≫, 山東友誼出版社, 1996

吳廷璆・李永先 等著, ≪徐福東渡鉤沉(徐福文化集成 之二)≫, 山東友誼出版社, 1996
楊正光・朱亞非 等著, ≪徐福文化的思索(徐福文化集成 之三)≫, 山東友誼出版社, 1996
張煒, ≪東巡(徐福文化集成 之四)≫, 山東友誼出版社, 1996
張禾只强・田長堯 等著, ≪戲曲与民俗(徐福文化集成 之五)≫, 山東友誼出版社, 1996
鄭一民 主編, ≪徐福千童研究集≫, 河北教育出版社, 1996
鄭一民 主編, ≪中國千童城 徐福千童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河北教育出版社, 1997
鄭一民, ≪東瀛聖蹟考≫, 河北教育出版社, 2002
李連慶 主編, ≪徐福贊≫, 中國徐福會, 1996
李連慶 主編, ≪徐福熱≫, 中國徐福會, 2000
山東省膠南市 ≪琅琊台志≫ 編纂委員會 編, ≪琅琊台志≫, 齊魯書社, 1997
浙江省岱山縣文史資料委員會, ≪蓬萊仙島与徐福≫, 1997
池上正治 著・王保畬 主編, ≪一个日本人眼中的中國≫, 武議出版社, 1998
張良群, ≪徐福故里揭謎(續集)≫, 新世界出版社, 1998
慈溪市徐福研究會・岱山縣徐福研究會, ≪達蓬山与蓬萊仙島≫, 1999
羅其湘, ≪徐福考論≫, 慈溪市徐福研究會, 2000
李韋和 主編, ≪秦皇求仙・徐福東渡・秦皇島≫, 北京燕山出版社, 2000
張吉忠, ≪大河文明的延伸≫, 2002
汪向榮, ≪中國の 徐福學≫
憑承鈞・王輯五, ≪中國・日本交通史≫
汪承恭, ≪徐福の 故里の 發見と 考證≫

찾 아 보 기

ㄱ

가경지(嘉慶志) 111
가고시마현(鹿兒島縣) 185, 187
가림토(加臨土)문자 306
가선(家船) 265
가와구치코정지(河口湖町誌) 222
가와사키 시게타로오(川崎繁太郎) 243, 321
가쿠레이센(鶴靈泉) 189, 195
가히국지(甲斐國志) 225
간무리다케(冠岳) 185, 187
갈석산(碣石山) 165
감유현(贛楡縣) 81, 87, 163, 285
강남로(江南路) 175
강소성(江蘇省) 83, 87, 336
견당사(遣唐使) 260
고구산(古朐山) 174
고도마리(小泊村) 230
고득종(高得宗) 43
고려사지리지(高麗史地理志) 313
고사기(古事記) 191, 204, 283
고산리유적(高山里遺蹟) 318, 347
고아스미(小明見) 223
고여(姑如) 256
고오레이(孝靈) 140
고오레이천황(孝靈天皇) 184
곤겐(權現) 오토기리소오(弟切草) 231
곤륜산(崑崙山) 40, 336
곽지패총(郭支貝塚) 341
괄지지(括地志) 76
구로가미산(黑髮山) 185
구로시오(黑潮) 207, 356
구로후키(黑蕗) 226
구산(朐山) 161
구석기(舊石器) 196
구시기노(串木野) 226
구시기노시(串木野市) 185
구양 문충공 전집 139
구현진(舊縣鎭) 166
규슈(九州) 39, 160, 176, 183, 185, 187, 189, 191, 194, 206, 207, 227, 236, 239, 252, 274, 284, 326, 332
규슈설(九州說) 197
금강산(金剛山) 38, 49
금산(金山) 165
긴류산(金立山) 185, 187
긴류신사(金立神社) 184, 185, 195

긴뽀오산(金峯山) 185
김넝포(金寧浦) 67
김석익(金錫翼) 45, 295
김석준(金奭準) 290, 301
김원룡(金元龍) 247, 251
김인호(金仁顥) 344
김재근(金在瑾) 147
김정희(金正喜) 287, 293
김철준(金哲埈) 243
김태능(金泰能) 321, 322, 325, 327, 354

ㄴ

나기상(羅其湘) 85, 130, 141, 159, 174, 175
나이토 다이스케(內藤大典) 172, 175
남(南)·북방(北方) 쌍방 도래설(渡來說) 338
남구명(南九明) 64
남명소승(南溟小乘) 67
남방(南方) 단일 계통설 338
남방계통설(南方系統說) 323
남해각자 307, 310
남해도(南海島) 281, 296
남해암각 310
낭야(琅琊) 88
낭야군(琅琊郡) 159
낭야대(琅琊台) 111, 159, 160
낭야대설(琅琊台說) 161
노생(盧生) 165
노자(老子) 37
니이사키다이묘오징(新井崎大明神) 229
니이사키신사(新井崎神社) 227

ㄷ

다계통 혼성설(多系統 混成說) 338
다지마모리(多遲麻毛理) 258
다치이와 이와호(立岩 巖) 237
다카치호(高千穗) 191
다카하시 기미아키(高橋公明) 265
다카하시 도호루(高橋亨) 274
다케오온천(武雄溫泉) 189
당서(唐書) 329, 343
대마난류(對馬暖流) 161
데미야동굴(手宮洞窟) 296
도교(道敎) 37
도래족(渡來族) 191, 322
도리이 류우조오(鳥居龍藏) 243, 325, 331
도무다례(忱彌多禮) 260
도서족(島嶼族) 333
도수시(鳥栖市) 202
도연명(陶淵明) 42
도이(島夷) 340
도작(稻作) 185
도작문화(稻作文化) 191, 201
도화원기(桃花源記) 42
동검(銅劍) 196

동경(銅鏡) 196
동국세기(東國世紀) 49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313
동모(銅矛) 196
동무소협(東巫小峽) 53
동방삭(東方朔) 69
동삼동(東三洞) 패총(貝塚) 251
동영주(東瀛洲) 43, 47, 49
동음현(冬音縣) 317
동이(東夷) 155
동해(東海 35

ㄹ

라부산(羅浮山) 40
류큐(琉球) 337
류큐열도(琉球列島) 206

ㅁ

마나베(眞邊仲庵) 187
마애각(磨崖刻) 285
만리장성(萬里長城) 117
망명(亡命) 125, 134, 156
머위 187
모리 아기다네(森昭胤) 213
모자이(茂在寅男) 149, 171, 175
목관묘(木棺墓) 196
무나가타(宗像) 242
무나가타신사(宗像神社) 242
무라오 모도나가(村尾元長) 327
무릉도원(武陵桃源) 279
미시나 아끼히데(三品彰英) 273
미야시타 고문서(宮下 古文書) 140
미츠나가다 유적(三津永田 遺蹟) 202

ㅂ

박물지(博物志) 70
반일본족설(半日本族說) 332
발해만(渤海灣) 35, 281
방사(方士) 35, 77, 135
방선문(訪仙門) 53
방암 53
방장(方丈) 35
방장산(方丈山) 49
방형주구묘(方形周溝墓) 202
백낙연(白樂淵) 296, 300
백록(白鹿) 53
복수계통설(複數系統說) 323
봉래(蓬萊) 35
봉래산(蓬萊山) 39, 49, 63, 120, 212
봉래천 53
부병욱(傅炳旭) 80
부여족(夫餘族) 339
북규슈(北九州) 195, 205, 251, 267, 273
북방(北方) 단일 계통설(說) 338
북방계통설(北方系統說) 323

북방족(北方族) 337
북축잡고(北筑雜藁) 187
분구묘(墳丘墓) 199
분서갱유(焚書坑儒) 115
불로초 61, 67
불사(不死)사상 199
불사약 156, 159
불사초변(不死草辯) 64
빙승균(憑承鈞) 282

ㅅ

사가(佐賀) 185
사가현(佐賀縣) 183
사기(史記) 39, 73, 85, 88, 105, 132, 151, 193, 340
사카다(坂田邦洋) 251
산동(山東) 336
산동(山東)반도 281
산동성(山東省) 201
삼국사기(三國史記) 318
삼국시대(三國時代) 89
삼국지 위지(三國志 魏志) 340
삼국지(三國志) 76, 139, 330
삼별초(三別抄) 272
삼사석비(三射石碑) 300
삼성(三姓)개벽설화 243
삼성개벽설화 58
삼성설화(三姓說話) 244
삼성신인(三姓神人) 319
삼성혈(三姓穴) 313
삼성혈비(三姓穴碑) 300
삼신산(三神山) 43, 155
삼신인(三神人) 333
삼양동유적(三陽洞遺蹟) 319
삼제기(三齊記) 159
삼한고지명고(三韓古地名考) 333
상고지통치이면사(上古之統治裏面史) 332
상세국(常世國) 258
샤를르 달레(Charles Dallet) 335
서귀포(西歸浦) 54, 55
서리곶이 302
서복(徐福) 49, 77, 83, 105, 132, 205
서복(徐福)집단 177, 283
서복궁(徐福宮) 212
서복사(徐福祠) 221
서복사(徐福社) 91, 222
서복선단(徐福船團) 157, 175, 177, 183, 195, 227, 283
서복신사(徐福神社) 217
서복자손누대지묘(徐福子孫累代之墓) 225
서복집단(徐福集團) 137
서복촌(徐福村) 85, 87, 89, 160
서복현창비(徐福顯彰碑) 209
서부촌(徐阜村) 87, 129, 172
서불(徐市) 46, 54, 83, 159, 185

서불과지(徐市過之) 285, 290, 300
서불과차(徐市過此) 285
서불기례일출(徐市起禮日出) 303
서불제명(徐市題名) 305
서산(徐山) 159, 160
석관묘(石棺墓) 196
석굴암 53
석주명(石宙明) 320, 325, 333, 337
선남방(先南方)·후북방(後北方) 계통설 338
선녀폭포 53
선사(先史)시대 252
선약(仙藥) 42
선유담(仙遊潭) 53
선인(仙人) 42
설화 중국사(說話 中國史) 127
세융선문토기(細隆線文土器) 249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313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 191
셍겡신사(淺間神社) 141, 222
소북연안류(蘇北沿岸流) 160, 171
소왕방촌(小王坊村) 153
소전체(小篆體) 115
송석범(宋錫範) 245
수사노오노미코도(素戔嗚尊) 283
습유기(拾遺記) 39
시라도리 구라기치(白鳥庫吉) 305
시러미 63
시모데 세키요(下出 積與) 35
시비산(柴尾山) 187
시황제(始皇帝) 159
신구시(新宮市) 211
신선(神仙)사상 120
신선도(神仙道) 135
신선사상(神仙思想) 35, 76, 11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3
심재집(心齋集) 295
쓰보이 쿠메조오(坪井九馬三) 333
쓰시마(對馬) 267
쓰시마난류(對馬暖流) 171
쓰시마해협(對馬海峽) 206
쓰카하라 아키라(塚原熹) 287



아기발도(阿只拔都) 269
아리아케해(有明海) 183, 185, 195, 207
아마노사다가게(天野 信景) 242
아마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神) 242
아미산(蛾眉山) 40
아사미 린타로오(淺見倫太郎) 290
아스카 신사(阿須賀 神社) 63, 211
아시하라노나가츠쿠니(葦原中津國) 242
아이누 풍속약지(風俗略志) 327
아이누족(Ainu族) 325, 326
아파기(阿波伎) 260, 331
알타이족(Altai族) 325
암각화(岩刻畵) 309

야마나카코무라(山中湖村) 223
야마우치정사(山內町史) 185
야마타이국(邪馬台國) 192, 195, 196, 197, 205
야마타이국설(邪馬台國說) 185, 354
야마토(大和) 190, 192
야메시(八女市) 187
야수모토(安本美典) 203
야요이(彌生) 196
야요이(彌生)문화 192, 201
야요이(彌生)의 일륜(日輪) 140
양자강(揚子江) 336
에사카 테루아키(江坂輝彌) 201, 249
여불위 105, 107, 108
역산비각(嶧山碑刻) 287
연운항설(連雲港說) 161
연해주(沿海州) 325
열선전(列仙傳) 166
염산현(塩山縣) 166
영실 53
영주(瀛洲) 35, 43
영주산(瀛洲山) 43, 47, 49, 53
영지(靈芝) 63
영천(靈泉) 53
예서체(隸書體) 115
오가사하라열도(小笠原列島) 206
오경석(吳慶錫) 303
오백나한(五百羅漢) 53
오오수미해협(大隅海峽) 207
오오타 엔(太田湲) 239
오오하라 도시타케(大原利武) 337
오카노미나도(崗水門) 191
오피(伍被) 125
오피전(五被傳) 76
옥지지(玉脂芝) 70
옹관묘(甕棺墓) 196, 202
옹관문화(甕棺文化) 199
왕승공(汪承恭) 143
왕향영(汪向榮) 77, 133, 179
왜구(倭寇) 265, 267
요고다 유적(橫田 遺蹟) 202
요동성(遼東省) 201
요시노가리(吉野ヶ里) 185, 195, 196
용담동고분(龍潭洞古墳) 319
용진동 53
우라(宇良・浦島)신사(神社) 230
우라지마 타로오(浦島太郎) 230
우메하라 다케시(梅原 猛) 199
우선대(遇仙臺) 53
우시지로석실(牛城石室) 296
우암선생문집(寓庵先生文集) 64
우와기(牛窪記) 185
욱왕(煜王) 46
운남인(雲南人) 335
원교산(圓嶠山) 39, 47, 53
원조(阮肇) 40
원주족(原住族) 323
원화군현도지(元和郡縣圖志) 167

위정생(衛挺生) 79, 192
유선동(遊仙洞) 53
유신(劉晨) 40
은선동(隱仙洞) 53
의초육첩 139
이나바강기치(稻葉 岩吉) 242
이능화(李能和) 38
이마리시(伊萬里市) 183, 251
이마리츠(伊萬里津) 185
이매계(李梅溪) 209
E 벨츠(Baelz) 334
이병도(李丙燾) 280, 330
이봉호(李奉昊) 305
이스미 세이이치(泉靖一) 334
이영선(李永先) 163
이와레비코(磐余彦) 191
이이노 다가히로(飯野孝宥) 95, 134, 140, 176
이중환(李重煥) 45
이즈모 쇼도오(出雲 書道) 283, 296
이창환(李昌煥) 334
이청규(李淸圭) 355
이키노무라지하카도코(伊吉連博得) 331
이태백전집(李太白全集) 76, 139
인도설(印度說) 334
일본국지(日本國志) 77
일본서기(日本書紀) 143, 191, 204, 253, 283, 331
일본성씨록(日本姓氏錄) 143
일본신무개국신고(日本神武開國新考) 192
일본족설(日本族說) 320
임제(林悌) 67
임태보(林泰輔) 333
임효재(任孝宰) 252

ㅈ

자왕구(嵐山頭) 174
장양왕(莊襄王) 105
장자(莊子) 37
전경수(全京秀) 355
전국(戰國)시대 196
전서불제명석각(傳徐市題名石刻) 299
정방폭포(正房瀑布) 285
정봉원문서(頂峯院文書) 187
정영화(鄭永和·嶺南大) 345
정의(旌義) 49
정인보(鄭寅普) 303
정학교(丁學敎) 287
정학교(丁鶴喬) 289
제(齊)나라 88
제기(齊紀) 167
제주도(濟州島)의 지명고(地名考) 55
제주도개조고(濟州島開祖考) 239
제주서복연구회(濟州徐福硏究會) 293
제주읍지(濟州邑誌) 47
제주인(濟州人) 325

제주해민(濟州海民) 269
조선도교사(朝鮮道敎史) 38
조선민족사(朝鮮民族史) 242
조선사정(朝鮮事情) 335
조선소 153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39
조오후쿠마쓰리(徐福祭) 216
조지견(趙志堅) 36
조천(朝天) 54, 55
조천관(朝天館) 55
조천리연혁(朝天里沿革) 54
조천석(朝天石) 55
조천지(朝天誌) 54
죠몬(繩文) 196
주호설(州胡說) 330, 340
주호인(州胡人) 327, 333
주호족(州胡族) 343
중국사(中國史) 129
즐문토기문화(櫛文土器文化) 249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47
증선지(曾先之) 127
지리산(智異山) 38, 49
지석묘(支石墓) 244, 245, 249
지신족(地神族) 319
지초(芝草) 63, 69
진 서복지묘(秦 徐福之墓) 209
진(秦)나라 280
진록도서(秦錄圖書) 165
진무(神武) 205
진무(神武)천황 191
진무동정(神武東征) 192, 193
진무천황(神武天皇) 190, 193
진산도(秦山島) 111
진서(晋書) 329
진서복 중신비(秦徐福 重臣碑) 209
진순신(陳舜臣) 133
진시황(秦始皇) 287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 91
진한(辰韓) 283
진한(秦漢)시대 35, 169, 279
집단망명 153

ㅊ

창여현(昌黎縣) 165
천동성(千童城) 166
천록비결(天籙秘訣) 117
천태산(天台山) 40
천태오약(天台烏藥) 63, 212, 226
청주부지(靑州府志) 159
초평서씨종보(草坪徐氏宗譜) 82, 84
최남선(崔南善) 305, 323, 325, 326, 336
최부(崔溥) 61, 64
춘추시대(春秋時代) 149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 156
춘추좌전(春秋左傳) 149
치쿠고(筑後) 296
치쿠젠(筑前) 191

치쿠젠국(筑前國) 242

ㅋ

쿠마노(熊野) 63, 207, 211, 227, 284
쿠마노산(熊野山) 185

ㅌ

타이완(臺灣) 39
탁라(毛羅) 43
탐라(耽羅) 43, 47
탐라국왕세기(耽羅國王世紀) 46, 69
탐라기년(耽羅紀年) 45, 47
탐라성주유사(耽羅星主遺事) 49
탐라시(耽羅詩) 61
탐라족(耽羅族) 323, 334
탐라지(耽羅誌) 293
탐라지(耽羅志) 43, 47, 49, 67
탐모라(耽毛羅) 43
탐진(耽津) 317
태평환우기(太平寰宇記) 159, 167
택리지(擇里志) 45
토광묘(土壙墓) 196
토요노구니(豊國) 191

ㅍ

팽쌍송(彭雙松) 175, 189, 193, 207
평원광택(平原廣澤) 193
표착족(漂着族) 319

ㅎ

하니와라 가즈오(埴原和郎) 145
하바라 유우기치(羽原又吉) 265, 273
하북성(河北省) 201
하이난섬(海南島) 39
하추도(河秋濤) 303
하타 부우에이(羽田武榮) 221
하타쓰(波多津) 183
한국지명총람 56
한내(漢川) 53
한단고기(桓檀古記) 306
한동구(韓東龜) 244, 326, 333
한라산(漢拏山) 38, 49
한무제(漢武帝) 69
한민족(韓民族) 337
한민족(漢民族) 35
한서(漢書) 76, 85, 99, 129
한족(漢族) 280
H·B·헐버트(Hulbert) 334
해내십주기 139
해민(海民) 268
해신족(海神族) 332
해주만(海州灣) 35, 153, 171, 281
헤이안(平安)시대 196
혁옥(革屋) 344

혈망봉 53
호오라이산(蓬萊山) 185, 219
혼슈(本州) 160, 185
혼혈종족(混血種族) 337
홋카이도(北海道) 206, 325
홍화각기(弘化閣記) 43
화노소노국(華奴蘇奴國) 203
환상열석토광묘(環狀列石土壙墓) 202
환선대(喚仙臺) 53
황쭌셴(黃遵憲) 77
황하(黃河) 336
황해(黃海) 169
황해난류(黃海暖流) 161, 171
황현(黃縣) 163, 164
회남형산열전(淮南衡山列傳) 179
효문제(孝文帝) 125
후시산(不死山) 219
후지고문서(富士古文書) 221
후지다 토모지(藤田 友治) 37
후지사와시 묘오젠지(藤澤市 妙善寺) 225
후지산(富士山) 39, 49, 185, 219, 221, 223, 225, 227
후지정(富士町) 195
후쿠나가(福永光司) 132, 139, 199
후쿠오카시(福岡市) 187
후타츠카야마 유적(二塚山 遺蹟) 202
후한서(後漢書) 76, 91, 139, 330, 340
휴가족(日向族) 192
흉노족(匈奴族) 117
흑룡강(黑龍江) 325
흑요석(黑曜石) 251
희메가타유적(姬方遺蹟) 202
히구치 다카야스(樋口隆康) 206



▣ 저자 약력

- 1929년 제주시 출생.
- 조선일보 제주 주재 기자, 제민일보 기자(사회부장)
- 제주도 근무(과장·국장 등 역임)
- 한라일보 근무(논설위원·이사, 주필·편집인 등 역임)
- 현재 한라일보 논설고문, 제주도 문화재위원
- 제주서복학회 회장

徐福集團과 濟州島

2003년 8월 15일 인쇄
2003년 8월 30일 발행

발행처 : 도서출판 제주문화
발행인 : 홍 성 호
저 자 : 홍 순 만
인 쇄 : 경 신 인 쇄 사
(☎ 746-2044, FAX 748-1534)

* 한정판 300부 값 30,000원

ISBN 89-88949-32-3-94900
ISBN 89-88949-00-5(세트)